국토교통부

13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연구

2015. 12

KOTI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정보화사업 중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 창 운

본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은 다음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여 연 구 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찬성 연구위원
연 구 진	◦ 박인기, 최정민, 정경옥 연구위원 ◦ 조종석, 박민철, 박용일, 이석주, 김주영, 황순연, 홍다희, 천승훈, 연지윤, 장동익, 김병관, 우왕희 부연구위원 ◦ 신영권, 성홍모, 김동호, 김진우, 김규진, 김정은, 강국수, 고두환, 김관용, 김성민, 김은미, 김진오, 박미란, 박준호, 변상진, 신동찬, 오연선, 이선아, 유연승, 이용철, 정성환, 정승연, 조용훈, 정현진, 주진호, 최서윤, 탁지훈, 홍성표 연구원 ◦ 신지현, 서유진 연구조원 ◦ 전윤미, 나선영, 소윤종, 윤황섭, 박선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진	◦ 이호춘 전문연구원 ◦ 이건우 전문연구원 ◦ 이혜진 연구원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보고서 구성 및 담당연구진

번 호	과 제 명	연 구 진
제 1권	요약보고서	박용일, 신영권, 박준호, 김규진, 신동찬
제 2권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조종석, 김병관, 강국수, 박미란
제 3권	여객 O/D 조사 예비조사	조종석, 김병관, 정현진
제 4권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박인기, 천승훈, 김성민, 정성환
제 5권	장래교통계획DB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김주영, 유연승, 김관용
제 6권	전국 화물 O/D 보완갱신	박민철, 우왕희, 변상진, 조용훈
제 7권	화물통행수요추정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박민철, 우왕희, 변상진, 조용훈
제 8권	해상화물O/D 보완갱신 및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KMI
제 9권	도로망 GIS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김동호, 탁지훈, 정승연
제10권	대중교통 GIS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김동호, 이선아, 정승연
제11권	국가교통통계조사	황순연, 오연선, 고두환
제12권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	연지윤, 주진호, 김정은
제13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성홍모, 김은미
제14권	교통혼잡지도 DB구축	천승훈, 김진우, 김성민
제15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조사연구	천승훈, 장동익, 연지윤, 이석주, 홍다희, 김진우, 김정은, 홍성표, 주진호, 김진오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과제별 공동참여·위탁용역 사업자

【공동사업 참여기관】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부산·울산권 부문) - ㈜선일이엔씨, 경성대학교산학협력단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대전광역권 부문) - ㈜드림이엔지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광주광역권 부문) - ㈜유신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수도권 부문)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대구광역권 부문) - 대구경북연구원
【위탁용역 사업자】
• 2015년 국가교통DB점검단 운영지원 - (사)교통투자평가협회 •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교통혼잡지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온라인 시범 서비스 구축 - 서울대학교&(주)큐빅웨어 컨소시엄 • 첨단교통자료를 활용한 교통망 성능평가 지표개발 및 DB구축 - 서울대학교&(주)큐빅웨어 컨소시엄 • 첨단자료를 활용한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 명지대학교 • 여객 O/D 예비조사 - 나이스알앤씨(주), ㈜앨비씨소프트,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동해엔지니어링㈜ • 대중교통 GIS DB 및 대중교통 분석용 네트워크 현행화 - (주)큐빅웨어 컨소시엄

【위탁용역 사업자】
• 도로망 GIS DB 및 교통 분석용 네트워크 현행화 - 현대엠엔소프트(주) • 장래교통계획 관련 DB 수집 및 GIS 맵 구축 - ㈜팀지오 • 2015년도 국가교통DB Brief 발행 - (주)피그마리온 • 대도시 화물 O/D 구축방안연구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복합화물운송 분석을 위한 화물P/C 조사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2015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리서치랩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가 설문 - 리서치랩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리서치랩 • 웹사이트 운영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유지보수 - (주)한신정보기술 • 국가교통DB 통합관리방안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I - GNT 솔루션 • 국가교통DB 통합관리방안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II - 아로정보기술 • 화물P/C를 활용한 화물수단 선택모형 개발 연구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교통통계 개선방안 연구 - ㈜블루와이즈 • 전국 읍면동 간 자동차·대중교통 통행경로와 통행시간 산정 - ㈜아로정보기술
【자문용역 사업자】
• 전국 장래 시군 및 읍면동 인구예측에 관한 연구 - 고려대 김기환교수

최종보고서 목차

제 1권 요약보고서

제 2권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제 3권 여객 O/D 조사 예비조사

제 4권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제 5권 장래교통계획DB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제 6권 전국 화물 O/D 보완갱신

제 7권 화물통행수요추정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제 8권 해상화물O/D 보완갱신 및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제 9권 도로망 GIS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제 10권 대중교통 GIS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제 11권 국가교통통계조사

제 12권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

제 13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제 14권 교통혼잡지도 DB구축

제 15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조사연구

목 차

요 약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2장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5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7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9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47

제4절 사후평가 / 50

제3장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51

제1절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53

제2절 가정의 달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55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85

제4절 사후평가 / 88

제4장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89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 91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93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29

제4절 사후평가 / 131

제5장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133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135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137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79

제4절 사후평가 / 182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83
제1절 결론 / 185
제2절 향후 과제 / 188

부 록 189

표 목 차

〈표 2- 1〉 2013,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8
〈표 2- 2〉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10
〈표 2- 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5
〈표 2- 4〉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6
〈표 2- 5〉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16
〈표 2- 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7
〈표 2- 7〉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 18
〈표 2- 8〉 귀성지 유형(귀성+지역내 이동) ····· 18
〈표 2- 9〉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19
〈표 2-10〉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20
〈표 2-11〉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21
〈표 2-12〉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 22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23
〈표 2-14〉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24
〈표 2-15〉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5
〈표 2-16〉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26
〈표 2-17〉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 27
〈표 2-18〉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8
〈표 2-19〉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 29
〈표 2-20〉 2015년 설 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 30
〈표 2-21〉 귀성-귀가일자 분석(연도별) ····· 30
〈표 2-22〉 D턴 여부 ····· 31
〈표 2-23〉 D턴 지역 ····· 32
〈표 2-24〉 D턴 지역 유형 ····· 32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33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5년) ····· 34
〈표 2-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 35
〈표 2-2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37
〈표 2-29〉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38

〈표 2-30〉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39
〈표 2-31〉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도로 혼잡예상 ····· 40
〈표 2-32〉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41
〈표 2-33〉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 42
〈표 2-34〉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43
〈표 2-35〉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 44
〈표 2-36〉 특별교통대책 인지 여부 ····· 45
〈표 2-3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46
〈표 2-38〉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48
〈표 2-39〉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50
〈표 3- 1〉 2013,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54
〈표 3- 2〉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56
〈표 3- 3〉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포함) ····· 61
〈표 3- 4〉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제외) ····· 61
〈표 3- 5〉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 62
〈표 3- 6〉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 ····· 63
〈표 3- 7〉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 ····· 64
〈표 3- 8〉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 ····· 65
〈표 3- 9〉 가정의 달 이동시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66
〈표 3-10〉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 67
〈표 3-11〉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68
〈표 3-12〉 귀가 출발예정일 ····· 69
〈표 3-13〉 귀가 출발시간 ····· 70
〈표 3-14〉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71
〈표 3-15〉 체류일수 ····· 74
〈표 3-16〉 가정의 달 방문지역 ····· 75
〈표 3-17〉 지역내/지역간 이동 분석 ····· 76
〈표 3-18〉 방문목적 ····· 77
〈표 3-19〉 방문지 유형 ····· 78
〈표 3-20〉 동행인 수 ····· 79
〈표 3-21〉 주 이용 교통수단 ····· 79
〈표 3-22〉 교통비용 ····· 80

〈표 3-23〉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81
〈표 3-24〉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82
〈표 3-25〉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 82
〈표 3-26〉 추가휴가 계획 및 추가휴가일 ····· 83
〈표 3-27〉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 84
〈표 3-28〉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86
〈표 3-29〉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88
〈표 4- 1〉 201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92
〈표 4- 2〉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94
〈표 4- 3〉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 99
〈표 4- 4〉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100
〈표 4- 5〉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 101
〈표 4- 6〉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 102
〈표 4- 7〉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 103
〈표 4- 8〉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 104
〈표 4- 9〉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 105
〈표 4-10〉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 106
〈표 4-11〉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 107
〈표 4-12〉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 108
〈표 4-13〉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 109
〈표 4-14〉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 110
〈표 4-15〉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 111
〈표 4-16〉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 112
〈표 4-17〉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113
〈표 4-18〉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14
〈표 4-19〉 호남선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 114
〈표 4-20〉 대중교통 이용자의 렌터카 이용여부 ····· 115
〈표 4-21〉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 116
〈표 4-22〉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117
〈표 4-23〉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 118
〈표 4-24〉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 119
〈표 4-25〉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 120

〈표 4-26〉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122
〈표 4-27〉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123
〈표 4-28〉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 ····· 123
〈표 4-29〉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일정/노선 변경 정도 ····· 124
〈표 4-30〉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125
〈표 4-31〉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126
〈표 4-32〉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 127
〈표 4-33〉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128
〈표 4-34〉 2015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130
〈표 4-35〉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131
〈표 5- 1〉 2013,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136
〈표 5- 2〉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138
〈표 5- 3〉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2
〈표 5- 4〉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43
〈표 5-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4
〈표 5-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 145
〈표 5-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46
〈표 5- 8〉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 147
〈표 5- 9〉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148
〈표 5-1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 149
〈표 5-11〉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150
〈표 5-12〉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151
〈표 5-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52
〈표 5-14〉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153
〈표 5-15〉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 154
〈표 5-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155
〈표 5-17〉 체류일수(연도별) ····· 156
〈표 5-18〉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 157
〈표 5-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158
〈표 5-20〉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주는 영향 ····· 159
〈표 5-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160
〈표 5-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 161

〈표 5-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162
〈표 5-2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163
〈표 5-2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164
〈표 5-26〉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65
〈표 5-27〉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166
〈표 5-28〉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167
〈표 5-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168
〈표 5-30〉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 ····· 169
〈표 5-31〉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 170
〈표 5-32〉 대체휴일제 휴식여부 ····· 170
〈표 5-33〉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 171
〈표 5-34〉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 172
〈표 5-35〉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성묘 가지않음 제외) ····· 172
〈표 5-36〉 벌초 계획 ····· 173
〈표 5-37〉 벌초 시기 ····· 173
〈표 5-38〉 D턴 여부 ····· 174
〈표 5-39〉 D턴 유형 ····· 174
〈표 5-40〉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175
〈표 5-4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 176
〈표 5-42〉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177
〈표 5-43〉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2015년 설 비교) ····· 178
〈표 5-44〉 201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180
〈표 5-45〉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182

그림목차

〈그림 2-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연도별) ····· 15
〈그림 2- 2〉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6
〈그림 2- 3〉 2015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 17
〈그림 2- 4〉 설 귀성 및 여행 여부(연도별) ····· 17
〈그림 2- 5〉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제외)(연도별) ····· 18
〈그림 2- 6〉 귀성지 유형 ····· 19
〈그림 2- 7〉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19
〈그림 2- 8〉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20
〈그림 2- 9〉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21
〈그림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연도별) ····· 22
〈그림 2-11〉 설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23
〈그림 2-12〉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24
〈그림 2-13〉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5
〈그림 2-14〉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26
〈그림 2-15〉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 27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8
〈그림 2-17〉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 29
〈그림 2-18〉 D턴 여부 ····· 31
〈그림 2-19〉 D턴 지역 ····· 32
〈그림 2-20〉 D턴 지역 유형 ····· 33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34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5년) ····· 35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 35
〈그림 2-2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동행인 유형 ····· 36
〈그림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37
〈그림 2-26〉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38
〈그림 2-27〉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39
〈그림 2-28〉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도로 혼잡예상 ····· 40
〈그림 2-29〉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41

〈그림 2-30〉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 42
〈그림 2-31〉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43
〈그림 2-32〉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 44
〈그림 2-33〉 특별교통대책 인지 여부 ····· 45
〈그림 2-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46
〈그림 2-35〉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47
〈그림 2-36〉 2015년 설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 48
〈그림 2-37〉 연도별 설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49
〈그림 2-38〉 2015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 49
〈그림 3- 1〉 작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 및 목적 ····· 60
〈그림 3- 2〉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포함) ····· 61
〈그림 3- 3〉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제외) ····· 61
〈그림 3- 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 62
〈그림 3- 5〉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 ····· 63
〈그림 3- 6〉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 ····· 64
〈그림 3- 7〉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 ····· 65
〈그림 3- 8〉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방문목적별) ····· 66
〈그림 3- 9〉 가정의 달 이동시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66
〈그림 3-10〉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 67
〈그림 3-11〉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68
〈그림 3-12〉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방문목적별) ····· 68
〈그림 3-13〉 귀가 출발예정일 ····· 69
〈그림 3-14〉 귀가 출발예정일(방문목적별) ····· 70
〈그림 3-15〉 귀가 출발시간 ····· 70
〈그림 3-16〉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71
〈그림 3-17〉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방문목적별) ····· 72
〈그림 3-18〉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 ····· 72
〈그림 3-19〉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어린이날 목적 이동) ····· 73
〈그림 3-20〉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어버이날 목적 이동) ····· 73
〈그림 3-21〉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관광 및 휴식 목적 이동) ····· 74
〈그림 3-22〉 체류일수 ····· 74
〈그림 3-23〉 가정의 달 방문지역 ····· 75

〈그림 3-24〉 가정의 달 방문지역(방문목적별) ····· 75
〈그림 3-25〉 가정의 달 방문지역(방문목적별) ····· 76
〈그림 3-26〉 가정의 달 방문지역(지역내/지역간) ····· 77
〈그림 3-27〉 방문목적 ····· 77
〈그림 3-28〉 방문지 유형 ····· 78
〈그림 3-29〉 동행인 수 ····· 79
〈그림 3-30〉 주 이용 교통수단 ····· 80
〈그림 3-31〉 교통비용 ····· 80
〈그림 3-32〉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81
〈그림 3-33〉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82
〈그림 3-34〉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 83
〈그림 3-35〉 추가휴가 계획 및 추가휴가일 ····· 83
〈그림 3-36〉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 84
〈그림 3-37〉 관광주간/봄 단기방학이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미친 영향 ····· 84
〈그림 3-38〉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85
〈그림 3-39〉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 87
〈그림 3-40〉 연도별 가정의 달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87
〈그림 4- 1〉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 99
〈그림 4- 2〉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100
〈그림 4- 3〉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 101
〈그림 4- 4〉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 102
〈그림 4- 5〉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 103
〈그림 4- 6〉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 104
〈그림 4- 7〉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 105
〈그림 4- 8〉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 106
〈그림 4- 9〉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 107
〈그림 4-10〉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 108
〈그림 4-11〉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 109
〈그림 4-12〉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 110
〈그림 4-13〉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 111
〈그림 4-14〉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 112
〈그림 4-15〉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113

〈그림 4-16〉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14
〈그림 4-17〉 호남선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 115
〈그림 4-18〉 대중교통 이용자의 렌터카 이용여부 ····· 115
〈그림 4-19〉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 116
〈그림 4-20〉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117
〈그림 4-21〉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 118
〈그림 4-22〉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 119
〈그림 4-23〉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 120
〈그림 4-24〉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변화(연도별) ····· 121
〈그림 4-25〉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국내) ····· 121
〈그림 4-26〉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해외) ····· 122
〈그림 4-27〉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122
〈그림 4-28〉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123
〈그림 4-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 ····· 124
〈그림 4-30〉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일정/노선 변경 정도 ····· 124
〈그림 4-31〉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125
〈그림 4-32〉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126
〈그림 4-33〉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 127
〈그림 4-34〉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128
〈그림 4-35〉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129
〈그림 5- 1〉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2
〈그림 5- 2〉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43
〈그림 5-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4
〈그림 5-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 145
〈그림 5-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46
〈그림 5- 6〉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 147
〈그림 5- 7〉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148
〈그림 5-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 149
〈그림 5- 9〉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150
〈그림 5-10〉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151
〈그림 5-11〉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52
〈그림 5-12〉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153

〈그림 5-13〉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 154
〈그림 5-14〉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155
〈그림 5-15〉 체류일수(연도별) ····· 156
〈그림 5-1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158
〈그림 5-17〉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주는 영향 ····· 159
〈그림 5-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160
〈그림 5-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 161
〈그림 5-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162
〈그림 5-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163
〈그림 5-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164
〈그림 5-23〉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65
〈그림 5-24〉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166
〈그림 5-25〉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167
〈그림 5-26〉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168
〈그림 5-27〉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 ····· 169
〈그림 5-28〉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및 휴식여부 ····· 170
〈그림 5-29〉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여부 ····· 171
〈그림 5-30〉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 171
〈그림 5-31〉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 172
〈그림 5-32〉 벌초 계획 ····· 173
〈그림 5-33〉 벌초 시기 ····· 174
〈그림 5-34〉 D턴 여부 및 유형 ····· 175
〈그림 5-35〉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176
〈그림 5-36〉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 176
〈그림 5-3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177
〈그림 5-38〉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2015년 설 비교) ····· 178
〈그림 5-39〉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179
〈그림 5-40〉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 180
〈그림 5-41〉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181
〈그림 5-42〉 2015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 181

요 약

요 약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5년도 하계 · 추석 연휴 기간, 2016년 설 연휴 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 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써 이번연도에는 2015년도 하계 · 추석 연휴 기간, 2016년도 설 연휴 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나.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1)]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2월 17일~2월 22일(6일간)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5월 1일~5월 5일(5일간)

---

1) 본 보고서에서는 정기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 시범조사로 수행한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6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7월 24일~8월 9일(17일간)[2)]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9월 25일~9월 29일(5일간)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2월 5일~2월 10일(6일간)(예정)

2)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3)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추석,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자료내용 : 과거연도 및 해당연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 수 등)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 수 등)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

2)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은 7일(8.10~8.16) 연장하였으나 교통수요예측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2.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3)]

가.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1월 6일(화)~2015년 1월 9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8월~2014년 12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4.1.29~2.2)

---

3)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설 연휴 수송실적)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항공과 해운은 각각 일평균 6,327대(10.6%), 11,321명(31.5%)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7.4% 감소

<표 1> 2013,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5일) (A)	2014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691,371	2,892,250	13,456,856	14,461,251	200,879	1,004,395	7.5
고속버스	인	196,398	181,946	981,992	909,729	-14,452	-72,263	-7.4
시외/전세	인	1,270,396	1,275,988	6,351,980	6,379,938	5,592	27,958	0.4
철도	인	441,801	447,466	2,209,007	2,237,331	5,665	28,324	1.3
항공	인	59,799	66,126	298,997	330,629	6,327	31,632	10.6
해운	인	35,924	47,245	179,620	236,223	11,321	56,603	31.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7(화)-2.22(일):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1월 14일(수)~18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4) : 2,078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5%)

2) 조사내용

○ 작년(2014년) 설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5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귀성지 유형,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계획없음 응답자)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귀경시 특정지역 방문예정 여부, 방문예정지역, 방문예정지역 유형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함께 이동하는 가족구성원 유형, 주이용 도로 및 이용노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설 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2015년 교통비용, 귀성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 예상 혼잡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 노선변경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기타사항

-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 여부,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3.1%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2%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3.1%, 안간다는 61.4%, 미정은 2.3%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70.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14.9%는 귀성을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4.8%)’ 대비 ‘지방(85.5%)’ 거주자가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4)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 설 귀성지 유형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70.7%)’, ‘큰집(21.6%)’, ‘처갓집(5.1%)’ 등임
- 연령별로는 ‘만 60세~69세 이하(58.4%)’, ‘만 19세~29세(41.1%)’에서 큰집으로의 귀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8일(수)’,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인 ‘2월 19일(목)’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설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8일(수)’(56.1%), 설 당일인 ‘2월 19일(목)’(23.4%), 귀가일자는 ‘2월 19일(목, 설 당일)’(38.2%), 설 다음날인 ‘2월 20일(금, 설 연휴)’(37.5%)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출발 일자별 시간은 ‘2월 18일(수) 오전 9시~오후 12시’(66.3%), 귀가 일자별 시간은 ‘2월 20일(금) 오전 3시~오전 6시’의 귀가 비율이 56.5%’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 출발일은 ‘설 전전일 이전(D-2 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설 전일(D-1)’과 ‘설 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9%로 가장 높고, ‘호남권’(18.7%), ‘충청권’(18.3%)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40.3%로 통행의 큰 비중을 차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은 ‘영남권’이 31.9%로 가장 높고, ‘호남권’(18.7%), ‘충청권’(18.3%) 순이며,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
- 해외여행 비율 : 1.2%(’14)→2.5%(’15)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 ‘2박 3일’(각각 30.7%)이 가장 높고, ‘3박 4일 이상’(27.4%), ‘당일’(11.2%) 순임
- ‘당일’ 및 ‘1박 2일’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D턴 여부

- 설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들를(D턴) 예정인 가구는 3.2%임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거주자들의 D턴 의향이 3.4%로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음
- D턴 예정인 지역은 '영남권(28.6%)', '강원권(23.8%)'이며, 주로 '자연 및 풍경감상(44.8%)',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20.7%)' 예정임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5.5%)이 가장 높고, '버스'(4.9%), '기차'(4.7%) 순임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5.5%로 가장 높았고, '버스(4.9%,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2%+전세/관광버스 0.1%), '기차(4.7%, 일반열차 2.1%+고속열차 2.6%)' 순이며, '비행기'의 이용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53.8%)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8천원으로 작년(14만 6천원) 대비 감소(-8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 수

- 동행인 수는 '4명'이 50.5%로 가장 높고, 자가용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 수 4명 : 자가용(53.9%)〉전체(50.5%)〉대중교통(29.7%)
- 동행인 수 1명 : 대중교통(11.4%)〉전체(2.6%)〉자가용(1.1%)

○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가구 중 84.0%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임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부(부모)'만 가는 경우가 30.1%로 가장 높고, '부모와 성인자녀'(29.5%), '부모와 미성년 자녀'(15.1%)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만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10.6%로 분석됨

○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으로는 '경부선'(31.0%)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2.4%), '호남선'(9.7%) 순임
- '서해안선' 이용률은 감소, '호남선' 이용률은 증가함

· 서해안선 : 16.8%('13)→13.3%('14)→12.4%('15)
· 호남선 : 6.9%('13)→7.6%('14)→9.7%('15)

○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 혼잡 여부

- 설 연휴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고속도로, 주요국도)는 '혼잡(57.8%)'할 것으로 예상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혼잡 예상 응답률이 '지방'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1.4%이며,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 및 노선을 자주 변경하는 가구는 32.6%, '휴대폰, 스마트폰'(56.4%)을 통해 교통정보를 주로 습득함
-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정보 획득 : 51.0%('14) → 56.4%('15)
-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주로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34.7%)을 통해 정보 획득

○ 명절 등 교통량 급증 시기 교통대책 수립 인지여부

- '추석이나 설 명절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2.4%임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지율(43.0%)이 '지방' 거주자(41.9%)들보다 다소 높음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은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9.1%)'임
- 다음으로는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25.3%)', '교통안전운전 캠페인(19.2%)' 등으로 나타남

다.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5.2.17~2.22, 6일간) 동안 일평균 559만명, 총 3,354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3.6% 감소, 평시대비 57.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2>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교통수단 \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설 연휴 기간(´15.2.17~2.22)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665	4,769	28,612	85.3	178.9
	버스	고속버스	52	95	568	1.7	182.7
		시외·전세	615	480	2,877	8.6	78.0
철도			160	196	1,176	3.5	122.5
항공			31	32	193	0.6	103.2
해운			18	18	110	0.3	100.0
합계			3,541	5,590	33,536	100.0	157.9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11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72천명으로 95.1%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4.9% 과소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해운의 오차율이 28.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특별교통대책기간보다 3.1%, 2015년 평시보다 83.6% 증가

<표 3>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예측 1일평균 (C)	예측 기간 전체	실적 1일평균 (D)	실적 기간 전체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승용차	4,868	2,665	4,769	28,612	5,012	30,074	95.2	▼4.8	103.0	188.1
고속버스	84	52	95	568	82	492	115.9	▲15.9	98.1	157.7
철도	206	160	196	1,176	215	1,287	91.2	▼8.8	104.6	134.4
항공	30	31	32	193	38	229	84.2	▼15.8	125.1	122.6
해운	22	18	18	110	25	151	72.0	▼28.0	115.2	138.9
전체	5,209	2,926	5,110	30,659	5,372	32,233	95.1	▼4.9	103.1	183.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3.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3월 25일(수)~2015년 4월 1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1월~2015년 3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5일간 : 2013.5.1~5.5)
  ·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6일간 : 2014.5.1~5.6)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고속버스와 해운은 각각 일평균 65,548대(49.3%), 21,015명(30.5%) 증가로 전년 대비 30% 넘는 증가율을 보임

<표 4> 2013,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5일) (A)	2014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711,316	3,228,320	13,556,579	19,369,919	517,004	5,813,340	19.1
고속버스	인	132,961	198,510	664,807	1,191,059	65,548	526,252	49.3
시외/전세	인	1,408,364	1,526,377	7,041,821	9,158,260	118,013	2,116,439	8.4
철도	인	427,422	490,456	2,137,112	2,942,737	63,034	805,625	14.7
항공	인	1,256,508	1,450,777	6,282,540	8,704,660	194,269	2,422,120	15.5
해운	인	68,895	89,910	344,475	539,457	21,015	194,982	30.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가정의 달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1(금)~5.5(화):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4월 3일(금)~5일(일)(3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5,000 세대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9%)
- 유효표본수[5] : 1,024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6%)

[5] 유효표본은 2015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계획이 있으며, 설문을 끝까지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2) 조사내용

○ 가정의 달 이동여부

-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여부 및 방문목적,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계획,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계획이 없는/미정인 이유

○ 가정의 달 통행특성

- 출발일자 및 시간대, 귀가일자 및 시간대, 체류일수, 방문지역, 방문목적, 방문지 유형, 동행인 수, 주 이용 교통수단, 교통비용

○ 기타사항

-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추가휴가 계획, 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관광주간/봄 단기방학이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미친 영향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이동계획 여부 및 방문지역 수

- 응답가구 중 20.5%는 올해 가정의 달 연휴 기간(4월 30일~5월 6일)에 이동계획이 있으며, 한 곳을 가는 응답자는 85.7%임
-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42.5%로 가장 높고, '일정조율이 필요해서'(14.0%),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12.6%) 등의 순임
-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는 '일정조율이 필요해서'가 55.5%로 가장 높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25.3%),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5.4%),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5.2%) 등의 순임

○ 체류일수

- 당일일정이 41.8%, 숙박일정이 58.2%로 나타남
- 숙박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박 2일'이 31.4%로 가장 높고, '2박 3일'(18.7%), '3박 4일'(5.0%) 순임

○ 방문지역

- ‘경기도’가 17.3%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10.8%), ‘경상북도’(9.7%), ‘강원도’(8.5%), ‘전라남도’(7.9%) 순이며, ‘해외’는 3.5%로 나타남
- 방문목적별로 이동지역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날 목적으로 이동하는 가구는 ‘경기도’(29.0%)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방문목적 및 방문지 유형

-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가 41.6%로 가장 높고, 방문지 유형은 ‘자연 및 풍경감상’이 52.3%로 가장 높음
- (방문목적)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41.6%)〉‘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34.8%)〉‘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18.2%)
- (방문지 유형) ‘자연 및 풍경감상’(52.3%)〉‘음식관광’(16.7%)〉‘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8.3%)〉‘부모님댁 방문’(7.0%)

○ 출발일 및 귀가출발일

- 출발일로는 ‘5월 2일(토)’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귀가출발일로는 ‘5월 3일(일)’이 31.9%로 가장 높음
-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 예정일자로 ‘5월 2일(토)’이 32.8%로 가장 높았고,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26.1%), ‘5월 3일(일)’(11.1%), ‘5월 5일(화, 어린이날)’(10.6%) 등의 순임
- 귀가예정일자는 ‘5월 3일(일)’이 31.9%로 가장 높고, ‘5월 2일(토)’(24.7%), ‘5월 5일(화, 어린이날)’(15.5%) 순임

○ 주 이용 교통수단

- ‘자가용’(79.8%), ‘버스(4.4%), ‘기차(3.2%)’ 등의 순임

○ 동행인 수 및 교통비용

- 동행인 수 평균은 3.59명, 교통비용 평균은 14.1만원임
- 방문목적별로는 어린이날 목적(4.10명) 이동이 어버이날(3.54명)과 관광 및 휴식 목적(3.50명) 이동 대비 동행인 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통비용은 관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평균 21.4만원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날(13.8만원), 어버이날(8.3만원) 목적 순임

○ 추가휴가 계획

- 공휴일 이외에 가정의 달 추가휴가 계획이 있는 가구는 4.3%이며, 구체적인 추가휴가일로는 '5월 4일(월)'(29.8%)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

-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은 74.3%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달 계획에 대한 영향력은 '봄단기 방학'(36.5%)이 '관광주간'(20.8%)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5.5.1~5.5, 5일간) 동안 일평균 640만명, 총 3,200만명 이동하여 평시대비 7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5>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교통수단 \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가정의 달 연휴 기간(´15.5.1～5.5)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도로	승용차		2,743	5,377	26,884	84.0	196.0
	버스	고속버스	56	112	558	1.8	200.0
		시외·전세	659	611	3,053	9.5	92.7
철도			164	225	1,127	3.5	137.2
항공			33	40	198	0.6	121.2
해운			18	37	185	0.6	205.6
합계			3,673	6,402	32,005	100.0	174.3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791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443천명으로 106.4%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6.4% 과대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36.6%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80.6% 증가

<표 6>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평시 (일평균) (A)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D) (B÷C×100) (%)	오차율[3] (D-100) (%)	평시대비 (C÷A×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B)	기간 전체	1일평균 (C)	기간 전체			
승용차	2,743	5,377	26,884	5,038	25,191	106.7	▲6.7	183.7
고속버스	56	112	558	82	410	136.6	▲36.6	146.4
철도	164	225	1,127	237	1,185	94.9	▼5.1	144.5
항공	33	40	198	39	197	102.6	▲2.6	118.2
해운	18	37	185	46	232	80.4	▼19.6	255.6
전체	3,014	5,791	28,952	5,443	27,215	106.4	▲6.4	180.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4.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6월 11일(목)~2015년 6월 19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4월~2015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7일간: 2014.07.25~8.10)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하계휴가 수송실적)

○ 2013년 하계휴가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버스, 해운을 제외하고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철도는 일평균 42,663명(11.6%)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시외/전세와 해운은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표 7> 201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 (18일) (A)	2014년 (1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4,144,322	4,203,231	74,597,799	71,454,929	58,909	-3,142,870	1.4
고속버스	인	142,169	141,294	2,559,038	2,401,996	-875	-157,042	-0.6
시외/전세	인	1,280,544	1,008,125	23,049,800	17,138,124	-272,420	-5,911,676	-21.3
철도	인	368,961	411,624	6,641,304	6,997,611	42,663	356,307	11.6
항공	인	71,810	73,680	1,292,586	1,252,564	1,870	-40,022	2.6
해운	인	88,279	50,322	1,589,020	855,468	-37,957	-733,552	-43.0

나.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4(금)~8.9(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7월 1일(수)~5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1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 : 2,018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8%)

2) 조사내용

○ 올해(2015년) 휴가 관련

-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 (이미 다녀왔을 경우) 하계휴가 시기,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수, 가족구성원 유형 등), 자가용 보유여부,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하계휴가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및 해당시기에 여행을 계획한 이유,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일수, 하계휴가 여행지 및 여행지 유형, 주 교통수단, 호남선 KTX개통이 전라권 방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적지에서 렌터카 이용계획,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하계휴가여행 동행인(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 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신뢰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변경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하계휴가여행 지출비용(2014년,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

○ 작년(2014년) 휴가 관련

- 작년 여름 휴가여행 여부, 작년 여름 휴가여행 시기, 작년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주거형태,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여행여부 및 하계휴가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

- 전년대비 ‘간다’(27.2%→22.2%)는 비율이 줄어들고, ‘미정’(16.6%→22.6%)이 크게 증가함
- 여행비율의 감소는 ‘휴가비용에 대한 부담’(21.1%→24.1%)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4.1%)으로 분석됨
-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미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작년대비 ‘7월 초순’(16.5%→21.2%)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하계휴가여행 시기

- 휴가여행 시기로는 ‘8월 1일(토)~8월 7일(금)’이 38.2%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23.9%→38.2%)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날짜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49.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사람(53.8%)들의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의 비율이 그 외 기간(40.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이유) 전년대비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의 비율이 상승(49.5%→53.8%)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 국내휴가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92.3%→91.4%)한 반면,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7.7%→8.6%)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권’과 ‘강원내륙권’ 등의 비율은 감소하고, ‘남해안권’, ‘제주권’ 등으로의 여행비율이 증가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유형 및 체류일수

- 여행지 유형은 ‘바다나 계곡’(70.2%), 체류일수는 ‘2박 3일’(44.1%)이 가장 높음
- (여행지 유형) ‘바다나 계곡’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이 증가
- (체류일수) ‘2박 3일’ 및 ‘3박 4일’이 감소한 반면, ‘1박 2일’과 해외여행 비율 증가에 따라 ‘4일 이상’이 증가함

○ 주 이용 교통수단

- 제주권과 해외로의 여행 증가로 ‘비행기’ 이용률(14.4%→17.0%)이 증가함

-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
- 자가용(승용차+승합차) 이용자는 자가용이 편리해서 이용하는 비율(77.2%)이 높았으며,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83.9%)임

○ 고속도로 이용률 및 주 이용 고속도로

- 고속도로 이용률은 소폭 증가(86.1%→86.8%)했으며,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선'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남해선', '호남선' 등의 이용률이 증가함

○ 동행인 수 및 동행인 유형

- 동행인 수는 '4명'(42.4%)이 가장 많고, '동행인 유형'은 '가족/친지'의 비율이 높음
- (동행인 수) 동행인은 2명~5명의 비율은 증가하고, 1명(본인혼자)과 6명 이상은 감소함
- (동행인 유형) 가족/친지, 친구는 증가하고, 가족/친지+친구는 감소함

○ 예상소요시간

- 예상소요시간은 '3시간~4시간 미만'이 30.9%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시간 미만~4시간 미만'은 증가한 반면, '4시간 이상'은 감소함

○ 휴가비용

- 올해(2015년) 평균 약 94.9만원, 국내여행 평균 64.0만원, 해외여행 평균 430.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전체 평균비용(90.3만원→94.9만원)과 국내 평균비용(61.8만원→64.0만원)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해외 평균비용(437.4만원→430.4만원)은 감소함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50~60만원'이 24.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4.1%, '30~40만원' 16.4%의 순서임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2.9%로 가장 높았고, '500~600만원' 16.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7%의 순서임

○ 호남선 KTX개통의 영향

- 전라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KTX를 이용할 예정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호남선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83.3%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착지에서의 렌터카 이용률

-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착지에서의 렌터카 이용비율은 39.0%임

○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주요도로의 혼잡 예상 정도로는 혼잡이 50.7%, 보통 28.8%, 원활 20.5% 순으로 나타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중 65.2%(이용 40.9%+보통 24.3%)가 평소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며, 수신처로는 전년대비 '휴대전화, 스마트폰'(48.8%→58.3%)이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비게이션은 감소(27.4%→14.7%)함
- 휴대전화/스마트폰 이용자는 주로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37.8%)를 이용하고, 전년대비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43.6%→37.8%)의 비율은 감소하고,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29.8%→30.4%), 포털사이트(19.6%→24.0%), 공공기관 홈페이지(5.4%→5.8%)의 비율이 증가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노선변경 정도

- 평소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도는 98.7%(신뢰함 75.3%+보통 23.4%), 노선변경 정도는 68.3%(자주변경 31.5%+보통 36.8%)로 높게 나타남

○ 메르스의 영향으로 휴가시기가 늦춰졌는지 여부

- 휴가시기가 늦춰진 응답자의 14.9%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최근 가족여행 시기에 따르면 가정의 달인 '5월 중'이 33.8%로 가장 높고, '6월 중' 30.3%, '4월 중' 18.5% 등의 순임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금번 하계 특별교통 대책 수립시 휴가철 교통대책 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및 방역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83.4%로 나타남

다.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5.7.24~8.9, 17일간) 동안 일평균 459만명, 총 7,801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5.0% 증가, 평시대비 2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8> 2015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교통수단 \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5.7.24～8.9) 일평균 교통량	17일 총수송량	분담률 (%)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686	3,766	64,022	82.1	140.2
	버스	고속버스	44	61	1,039	1.3	138.6
		시외·전세	697	485	8,249	10.6	69.6
철도			164	212	3,598	4.6	129.3
항공			30	39	664	0.9	130.0
해운			20	26	434	0.5	130.0
합계			3,641	4,589	78,006	100.0	126.0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104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549천명으로 74.0%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6.0%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의 오차율이 27.9%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88.5% 증가

<표 9>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예측 1일평균 (C)	예측 기간 전체	실적 1일평균 (D)	실적 기간 전체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승용차	3,581	2,686	3,766	64,022	5,226	88,835	72.1	▼27.9	145.9	194.6
고속버스	66	44	61	1,039	51	874	119.6	▲19.6	77.3	115.9
철도	193	164	212	3,598	195	3,318	108.7	▲8.7	101.0	118.9
항공	35	30	39	664	41	702	95.1	▼4.9	117.1	136.7
해운	24	20	26	434	36	608	72.2	▼27.8	150.0	180.0
전체	3,899	2,944	4,104	69,757	5,549	94,337	74.0	▼26.0	142.3	188.5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5.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8월 17일(월)~2015년 8월 21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6월~2015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7일간: 2014.9.5~9.11)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추석 연휴 수송실적)

○ 철도,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감소하였음

- 특히 해운의 경우 전년대비 20.6% 감소

<표 10> 2013,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6일) (A)	2014년(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3,101,573	3,030,312	18,609,440	21,212,186	-71,261	2,602,746	-2.3
고속버스	인	164,001	150,189	984,008	1,051,326	-13,812	67,318	-8.4
시외/전세	인	1,439,973	1,334,851	8,639,837	9,343,958	-105,122	704,121	-7.3
철도	인	466,994	473,578	2,801,965	3,315,048	6,584	513,083	1.4
항공	인	74,950	76,717	449,701	537,020	1,767	87,319	2.4
해운	인	86,364	68,572	518,185	480,005	-17,792	-38,180	-20.6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5(금)~9.29(화):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8월 28일(금)~9월 1일(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6] : 2,084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5%)

[6]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2) 조사내용

○ 작년(2014년) 추석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대체휴일제 인지도 및 대체휴일 휴식여부, 2015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권역 여부, 귀성 및 여행 중 우선 이동 가능성,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등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동행인 수,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 연휴 교통비용, D턴 여부, D턴 지역 및 유형, 동행인 유형,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성묘 여부 및 시기, 벌초 여부 및 시기,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 형태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3.2%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4%임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3%)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26일(토)', 귀경 출발일은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전년(2014년)과 비교하여 귀성일은 'D-1', 'D-day'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귀경일은 'D-day'와 'D+1'의 비율이 감소하고 'D+2'의 비율이 증가함
- 귀성-귀경 출발일별 출발시간의 경우,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월 26일(토)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일) 오후'의 비율이 높음

○ 체류일수

- ‘1박 2일’의 비율이 33.5%로 높고, 연도별로는 ‘당일+1박 2일’이 증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3.4%로 가장 높고, ‘호남권’(19.7%), ‘충청권’(17.4%)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1.4%로 통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 해외여행 비율 소폭 증가 : 1.6%(’14) → 1.7%(’15)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7.9%)이 가장 높고, ‘버스’(4.2%), ‘열차’(3.5%) 순
- 올해(2015년) KTX 개통으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KTX이용자를 대상으로 KTX 개통의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 영향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87.0%로 나타남

○ 이용고속도로

- ‘경부선’(30.5%), ‘서해안선’(13.0%), ‘영동선’(9.6%) 순
- 작년 대비 ‘경부선’, ‘서해안선’ 등의 비율은 감소하고, ‘영동선’, ‘호남선’의 비율은 증가

○ 자가용 보유가구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 이용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9.6%)이며, 대중교통 이용 이유로는 ‘교통 혼잡’(47.9%) 때문임

○ 동행인 수

- 자가용은 평균 3.7명, 대중교통은 평균 2.9명임
- 전년대비 자가용의 평균 동행인원과 대중교통의 평균 동행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벌초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65.0%가 벌초를 하며, 벌초 시기로는 ‘추석 연휴 2주전’(41.8%)이 가장 많음
- 벌초 시기는 전년대비 ‘추석 연휴 3주 이전’이 증가하였음

○ 성묘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70.5%가 성묘를 하며, 시기는 ‘추석 연휴’(56.8%)가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추석 연휴’(50.6%→56.8%)에 성묘를 예정하고 있는 응답자가 증가함

○ D턴 여부 및 유형

- D턴을 한다는 응답자는 3.4%이며, D턴 지역유형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의 비율이 높음

○ 교통비용

- 올해 교통비용은 평균 14.1만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10만원 미만은 증가하고 10만원 이상의 비율은 감소함

○ 교통안내정보 이용도 및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비율은 60.6%이며,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58.1%)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휴대전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비율은 증가하고, '라디오',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등은 감소함

○ 대체휴일제 인지도 및 휴식여부

- 대체휴일 인지도는 79.5%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70.5%가 휴식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처가/친정 방문여부 및 방문일

-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7.1%로, 작년(66.7%) 대비 하락함
- 처가(친정/외가)로의 출발일은 '9월 27일(일, 추석 당일)'(65.2%)이 가장 많음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점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3.9%로 가장 높고, 이는 남자(12.2%) 대비 여자(43.3%)의 응답률이 높음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이 가장 높고, 이는 여자 대비 남자의 응답률이 높음

다.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5.9.25~9.29, 5일간) 동안 일평균 640만명, 총 3,199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8.8% 증가, 평시대비 78.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11> 201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교통수단 \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추석 연휴 기간(´15.9.25~9.29)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670	5,305	26,524	83.0	198.7
	버스	고속버스	47	67	336	1.0	144.1
		시외·전세	662	718	3,592	11.2	108.5
철도			152	232	1,159	3.6	152.9
항공			33	37	183	0.6	112.1
해운			20	39	197	0.6	196.0
합계			3,582	6,398	31,991	100.0	178.6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68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789천명으로 98.1%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1.9%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17.3%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98.1% 증가

<표 12>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예측 1일평균 (C)	예측 기간 전체	실적 1일평균 (D)	실적 기간 전체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승용차	4,946	2,670	5,305	26,524	5,403	27,017	98.2	▼1.8	109.2	202.4
고속버스	70	47	67	336	81	407	82.7	▼17.3	115.7	172.3
철도	213	152	232	1,159	231	1,156	100.4	▲0.4	108.5	152.0
항공	33	33	37	183	39	194	94.9	▼5.1	118.2	118.2
해운	35	20	39	197	34	169	114.7	▲14.7	97.1	170.0
전체	5,297	2,922	5,680	28,399	5,789	28,943	98.1	▼1.9	109.3	198.1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6.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의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 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하였음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하였으며,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 변경 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 2015년 설 연휴[7] : 귀성지 유형,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 D턴 여부 및 지역/유형, 연휴 귀성시 혼잡정도 예상, 특별교통대책 인지여부,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 2015년 하계휴가 : 호남선 KTX개통이 전라권 방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적지에서의 렌터카 이용계획,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변경 정도, (휴가시기가 작년보다 늦춰진 경우) 메르스 때문인지, 최근 가족여행 시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 2015년 추석 연휴 : 대체휴일 휴식여부,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귀성 출발예정 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D턴 여부 및 지역/유형, 호남선 KTX 개통이 주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목적지에서의 렌터카 이용 여부, 동행인 유형,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휴대폰 이용시 구체적인 수신처,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7]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 확대(수도권 및 광역시→전국) 및 표본수 증대(약 4천표본→9천표본)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하였음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시범조사를 적은 규모의 표본으로 실시하여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 설 및 추석 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을 적용하였음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하였음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하계휴가 기간에는 해외 및 제주도 여행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 여행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귀경객에 대한 분산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5년 설 연휴의 경우 4.9%, 2015년 가정의 달의 경우 6.4%, 2015년 하계휴가의 경우 26.0%, 2015년 추석 연휴의 경우는 1.9%의 오차율을 보임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각각 해운(28.0%), 승용차(27.9%), 가정의 달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각각 36.6%, 17.3%로 가장 큰 오차를 보였음

나.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자료 및 국도 교통량 조사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서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2010년 제안)

- 이에, 2013년에 이어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였음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전조사의 유효표본수 및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로 함
- 가구의 유선전화 보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대전화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로 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5년도 하계 · 추석 연휴 기간, 2016년 설 연휴 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 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써 이번연도에는 2015년도 하계 · 추석 연휴 기간, 2016년도 설 연휴 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1)]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2월 17일~2월 22일(6일간)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5월 1일~5월 5일(5일간)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7월 24일~8월 9일(17일간)[2)]

---

1) 본 보고서에서는 정기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 시범조사로 수행한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6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9월 25일~9월 29일(5일간)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2월 5일~2월 10일(6일간)(예정)

나.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추석,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 자료내용 : 과거연도 및 해당연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 수 등)
  -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 수 등)
  -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

2)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은 7일(8. 10~8. 16) 연장하였으나 교통수요예측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제2장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2장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1)]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1월 6일(화)~2015년 1월 9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8월~2014년 12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4.1.29~2.2)

---

1)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설 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3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항공과 해운은 각각 일평균 6,327대(10.6%), 11,321명(31.5%)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7.4% 감소

<표 2-1> 2013, 201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5일) (A)	2014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691,371	2,892,250	13,456,856	14,461,251	200,879	1,004,395	7.5
고속버스	인	196,398	181,946	981,992	909,729	-14,452	-72,263	-7.4
시외/전세	인	1,270,396	1,275,988	6,351,980	6,379,938	5,592	27,958	0.4
철도	인	441,801	447,466	2,209,007	2,237,331	5,665	28,324	1.3
항공	인	59,799	66,126	298,997	330,629	6,327	31,632	10.6
해운	인	35,924	47,245	179,620	236,223	11,321	56,603	31.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7(화)-2.22(일):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1월 14일(수)~18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2] : 2,078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5%)

나. 조사내용

○ 작년(2014년) 설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5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귀성지 유형,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계획없음 응답자)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귀경시 특정지역 방문예정 여부, 방문예정지역, 방문예정지역 유형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함께 이동하는 가족구성원 유형, 주이용 도로 및 이용노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설 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2015년 교통비용, 귀성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 예상 혼잡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 노선변경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2)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 기타사항

-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 여부,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다. 조사표본 선정

○ 설 연휴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구·동 단위(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

○ 조사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2-2>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4년 설					2015년 설				
	전체	표본		유효표본		전체	표본		유효표본	
	세대수[1]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세대수[2]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4,122	1,842	20.5	414	20.7	4,194,176	1,820	20.2	411	19.8
부산광역시	1,404,011	618	6.9	133	6.6	1,421,648	617	6.9	134	6.4
대구광역시	959,457	422	4.7	113	5.6	970,618	422	4.7	123	5.9
인천광역시	1,117,478	492	5.5	133	6.6	1,136,280	493	5.5	144	6.9
광주광역시	563,078	247	2.7	70	3.5	573,043	249	2.8	86	4.1
대전광역시	584,215	257	2.9	83	4.1	592,508	257	2.9	71	3.4
울산광역시	430,697	189	2.1	67	3.3	442,250	192	2.1	61	2.9
경 기 도	48,860	2,072	23.0	492	24.6	4,786,718	2,077	23.1	522	25.1
강 원 도	4,706,010	292	3.2	44	2.2	673,978	293	3.3	28	1.3
충청북도	664,587	283	3.1	56	2.8	656,321	285	3.2	46	2.2
충청남도	643,305	377	4.2	107	5.3	871,459	378	4.2	109	5.2
전라북도	856,606	337	3.7	40	2.0	774,562	336	3.7	54	2.6
전라남도	765,922	358	4.0	56	2.8	823,667	358	4.0	55	2.6
경상북도	815,023	500	5.6	102	5.1	1,153,559	501	5.6	115	5.5
경상남도	1,137,629	580	6.4	78	3.9	1,343,984	585	6.5	101	4.9
제 주 도	1,318,669	104	1.2	8	0.4	246,516	107	1.2	9	0.4
세종특별자치시	237,959	30	0.3	5	0.2	62,807	30	0.3	9	0.4
전 국	20,437,628	9,000	100.0	2,001	100.0	20,724,094	9,000	100.0	2,078	100.0

주: 1) 안전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3. 11)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11)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설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 즉, 2014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3.1%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2%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3.1%, 안간다는 61.4%, 미정은 2.3%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70.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14.9%는 귀성을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4.8%)’ 대비 ‘지방(85.5%)’ 거주자가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설 귀성지 유형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70.7%)’, ‘큰집(21.6%)’, ‘처갓집(5.1%)’ 등임
- 연령별로는 ‘만 60세~69세 이하(58.4%)’, ‘만 19세~29세(41.1%)’에서 큰집으로의 귀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8일(수)’,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인 ‘2월 19일(목)’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설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8일(수)’(56.1%), 설 당일인 ‘2월 19일(목)’(23.4%), 귀가일자는 ‘2월 19일(목, 설 당일)’(38.2%), 설 다음날인 ‘2월 20일(금, 설 연휴)’(37.5%)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출발 일자별 시간은 ‘2월 18일(수) 오전 9시~오후 12시’(66.3%), 귀가 일자별 시간은 ‘2월 20일(금) 오전 3시~오전 6시’의 귀가 비율이 56.5%’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 출발일은 ‘설 전전일 이전(D-2 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설 전일(D-1)’과 ‘설 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9%로 가장 높고, ‘호남권’(18.7%), ‘충청권’(18.3%)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40.3%로 통행의 큰 비중을 차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은 ‘영남권’이 31.9%로 가장 높고, ‘호남권’(18.7%), ‘충청권’(18.3%) 순이며,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
- 해외여행 비율 : 1.2%(’14)→2.5%(’15)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 ‘2박 3일’(각각 30.7%)이 가장 높고, ‘3박 4일 이상’(27.4%), ‘당일’(11.2%) 순임
- ‘당일’ 및 ‘1박 2일’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D턴 여부

- 설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들를(D턴) 예정인 가구는 3.2%임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거주자들의 D턴 의향이 3.4%로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음
- D턴 예정인 지역은 ‘영남권(28.6%)’, ‘강원권(23.8%)’이며, 주로 ‘자연 및 풍경감상(44.8%)’,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20.7%)’ 예정임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5.5%)이 가장 높고, ‘버스’(4.9%), ‘기차’(4.7%) 순임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5.5%로 가장 높았고, ‘버스(4.9%,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2%+전세/관광버스 0.1%), ‘기차(4.7%, 일반열차 2.1%+고속열차 2.6%)’ 순이며, ‘비행기’의 이용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53.8%)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8천원으로 작년(14만 6천원) 대비 감소(-8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 수

- 동행인 수는 ‘4명’이 50.5%로 가장 높고, 자가용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 수 4명 : 자가용(53.9%)〉전체(50.5%)〉대중교통(29.7%)
- 동행인 수 1명 : 대중교통(11.4%)〉전체(2.6%)〉자가용(1.1%)

○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가구 중 84.0%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임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부(부모)’만 가는 경우가 30.1%로 가장 높고, ‘부모와 성인자녀’(29.5%), ‘부모와 미성년 자녀’(15.1%)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만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10.6%로 분석됨

○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으로는 ‘경부선’(31.0%)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2.4%), ‘호남선’(9.7%) 순임
- ‘서해안선’ 이용률은 감소, ‘호남선’ 이용률은 증가함

· 서해안선 : 16.8%(’13)→13.3%(’14)→12.4%(’15)
· 호남선 : 6.9%(’13)→7.6%(’14)→9.7%(’15)

○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 혼잡 여부

- 설 연휴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도로(고속도로, 주요국도)는 ‘혼잡(57.8%)’할 것으로 예상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혼잡 예상 응답률이 ‘지방’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1.4%이며,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 및 노선을 자주 변경하는 가구는 32.6%, ‘휴대폰, 스마트폰’(56.4%)을 통해 교통정보를 주로 습득함
-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정보 획득 : 51.0%(’14) → 56.4%(’15)
-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주로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34.7%)을 통해 정보 획득

○ 명절 등 교통량 급증 시기 교통대책 수립 인지여부

- ‘추석이나 설 명절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2.4%임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지율(43.0%)이 ‘지방’ 거주자(41.9%)들보다 다소 높음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은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9.1%)’임
- 다음으로는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25.3%)’, ‘교통안전운전 캠페인(19.2%)’ 등으로 나타남

나. 작년(2014년) 설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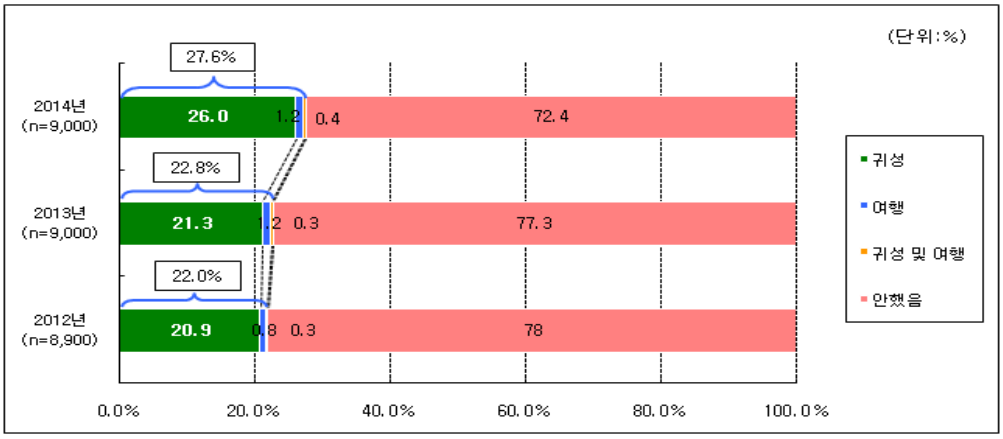
1) 작년(2014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 작년(2014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7.6%가 작년 설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표 2-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4년	비율	26.0	1.2	0.4	72.4	100.0
	빈도	2,343	105	37	6,515	9,000
2013년	비율	21.3	1.2	0.3	77.3	100.0
	빈도	1,914	104	25	6,957	9,000
2012년	비율	20.9	0.8	0.3	78.0	100.0
	빈도	1673	64	22	6241	8,000



<그림 2-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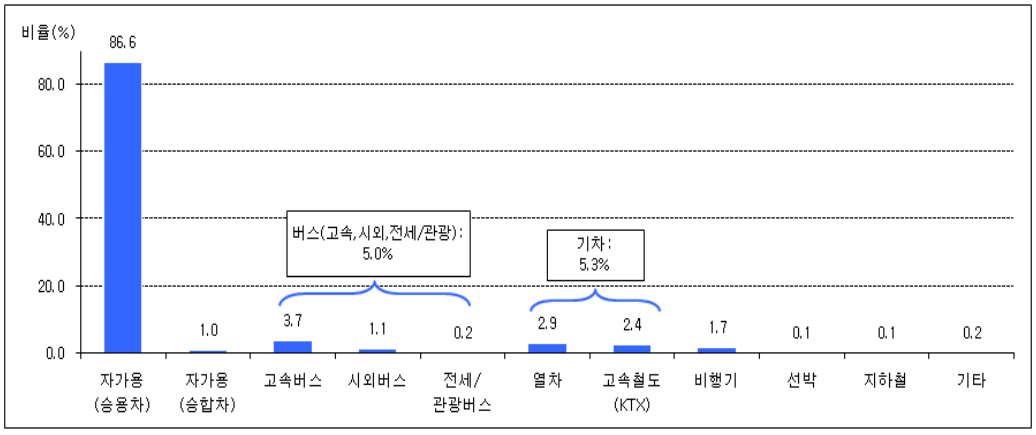
2) 작년(2014년) 설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4년) 설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87.6%, 승용차 86.6%+승합차 1.0%)'이며, 다음으로 '기차(5.3%)', '버스(5.0%)', '비행기(1.7%)' 순임

<표 2-4>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승용)	자가용 (승합)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버스	열차	고속 철도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86.6	1.0	3.7	1.1	0.2	2.9	2.4	1.7	0.1	0.1	0.2	100.0
	빈도	2,143	24	92	28	5	72	60	42	3	2	5	2,476



<그림 2-2>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5년) 설 귀성·귀경 또는 여행 여부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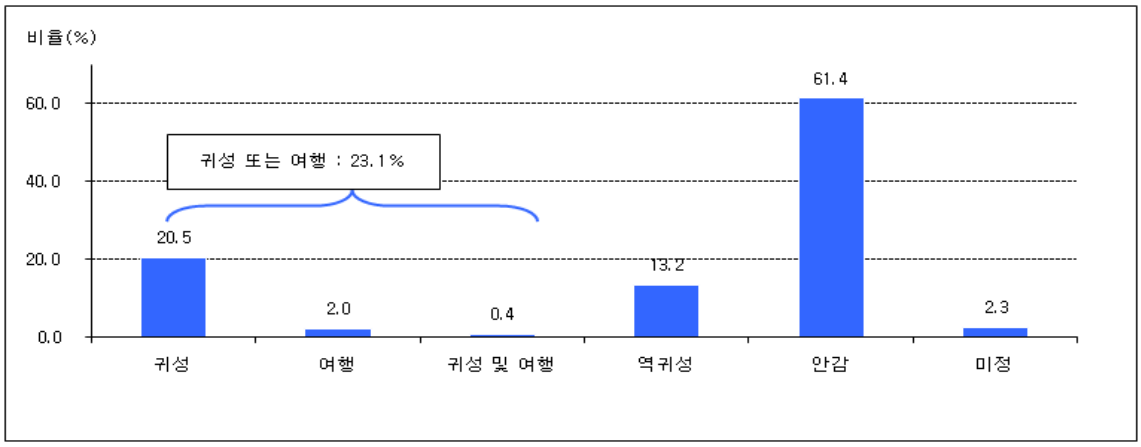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3.1%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3.2%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임

<표 2-5>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2015년	비율	20.5	2.0	0.6	13.2	61.4	2.3	100.0
	빈도	1,841	182	55	1,190	5,523	209	9,000

주: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그림 2-3> 2015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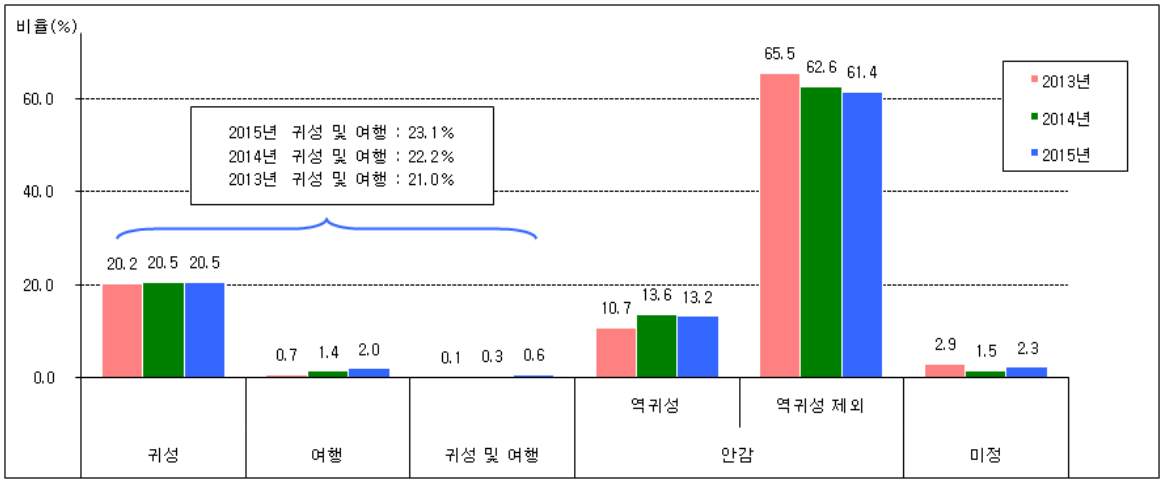
○ 설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2-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역귀성 제외		
2015년	비율	20.5	2.0	0.6	13.2	61.4	2.3	100.0
	빈도	1,841	182	55	1,190	5,523	209	9,000
2014년	비율	20.5	1.4	0.3	13.6	62.6	1.5	100.0
	빈도	1,844	130	27	1,223	5,637	139	9,000
2013년	비율	20.2	0.7	0.1	10.7	65.5	2.9	100
	빈도	1,612	53	9	857	5,238	231	8,000

주: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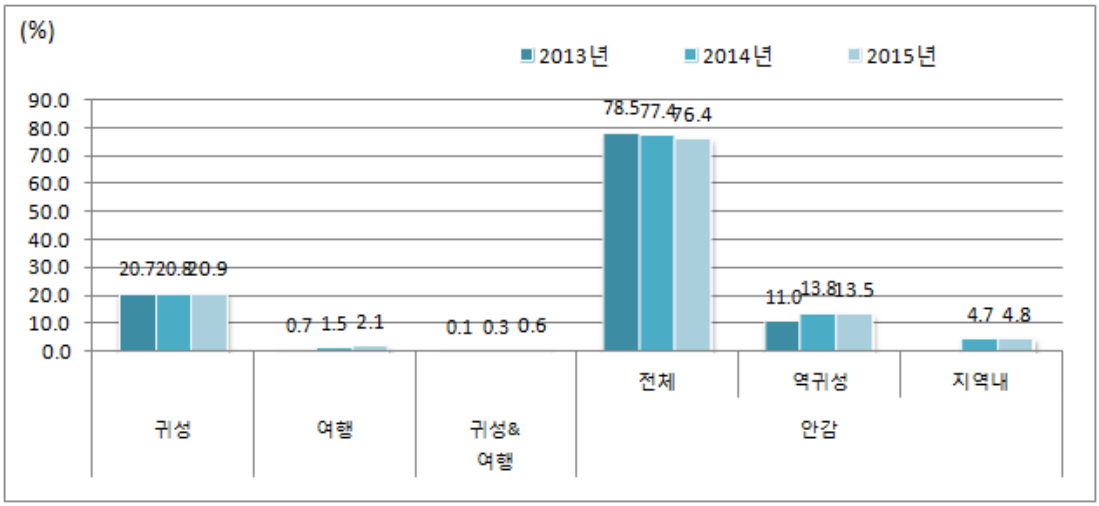
<그림 2-4> 설 귀성 및 여행 여부(연도별)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성 또는 여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추세임

<표 2-7>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구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전체	역귀성	지역내
2015년	20.9	2.1	0.6	76.4	13.5	4.8
2014년	20.8	1.5	0.3	77.4	13.8	4.7
2013년	20.7	0.7	0.1	78.5	11.0	-



<그림 2-5>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제외)(연도별)

2) 귀성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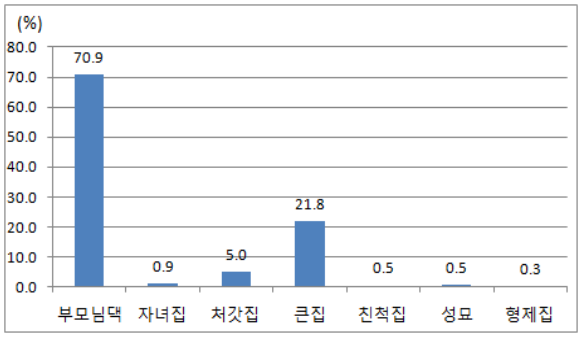
○ 설 귀성지 유형은 대부분 '부모님댁(70.9%)'이었으며, 다음으로 '큰집(21.8%)', '처갓집(5.0%)' 등으로 나타남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70.7%)', '큰집(21.6%)', '처갓집(5.1%)'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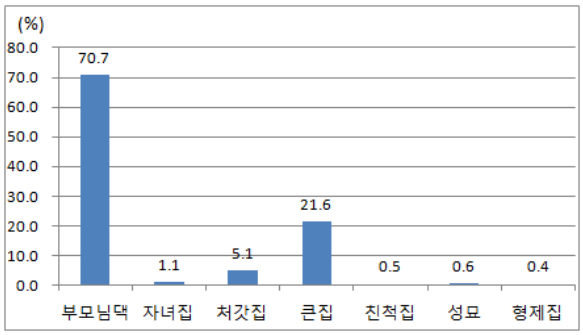
<표 2-8> 귀성지 유형(귀성+지역내 이동)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부모님댁	자녀집	처갓집	큰집	친척집	성묘	형제집	합계
전체	비율	70.9	0.9	5.0	21.8	0.5	0.5	0.3	100.0
	빈도	1,649	22	116	507	11	12	8	2,325



<귀성+지역내 이동>



<지역내 이동 제외>

<그림 2-6> 귀성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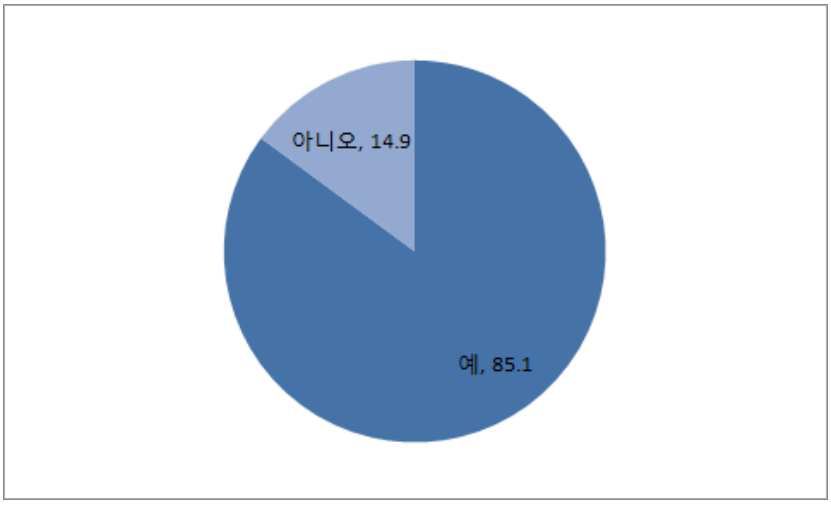
3)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올해(2015년) 설 연휴에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평소 명절 연휴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르면 85.1%는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9%는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85.1	14.9	100.0
	빈도	1,610	281	1,891



<그림 2-7>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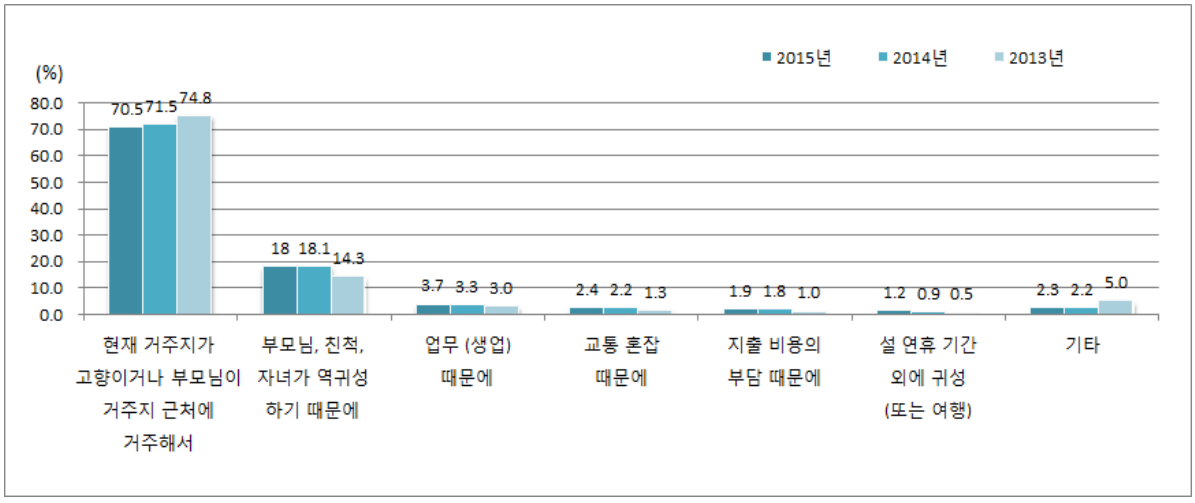
4)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18.0%), '업무(생업) 때문에'(3.7%)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2-10>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 비용의 부담 때문에	설 연휴 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70.5	18.0	3.7	2.4	1.9	1.2	2.3	100.0
	빈도	4,667	1,190	246	158	125	81	156	6,623
2014년	비율	71.5	18.1	3.3	2.2	1.8	0.9	2.2	100.0
	빈도	4,841	1,223	220	150	125	64	78	6,768
2013년	비율	74.8	14.3	3.0	1.3	1.0	0.5	5.0	100.0
	빈도	4,485	857	179	78	59	32	251	5,992



<그림 2-8>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5)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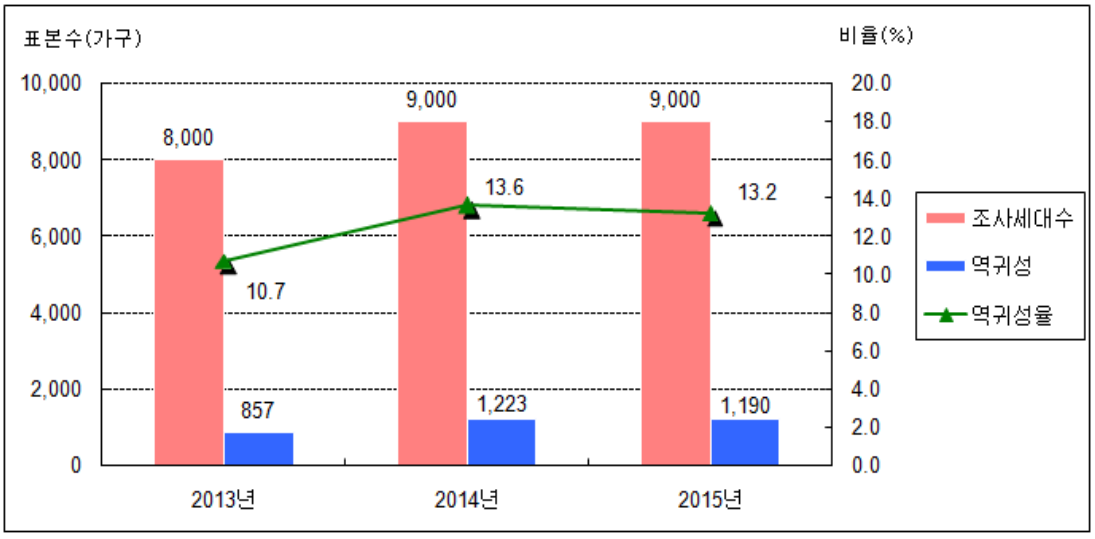
○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2014년) 대비 올해(2015) 역귀성 비율은 다소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1]	역귀성 비율[2]
2015년	9,000	1,190	13.2
2014년	9,000	1,223	13.6
2013년	8,000	857	10.7

주: 1) '올해(2015)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2-9>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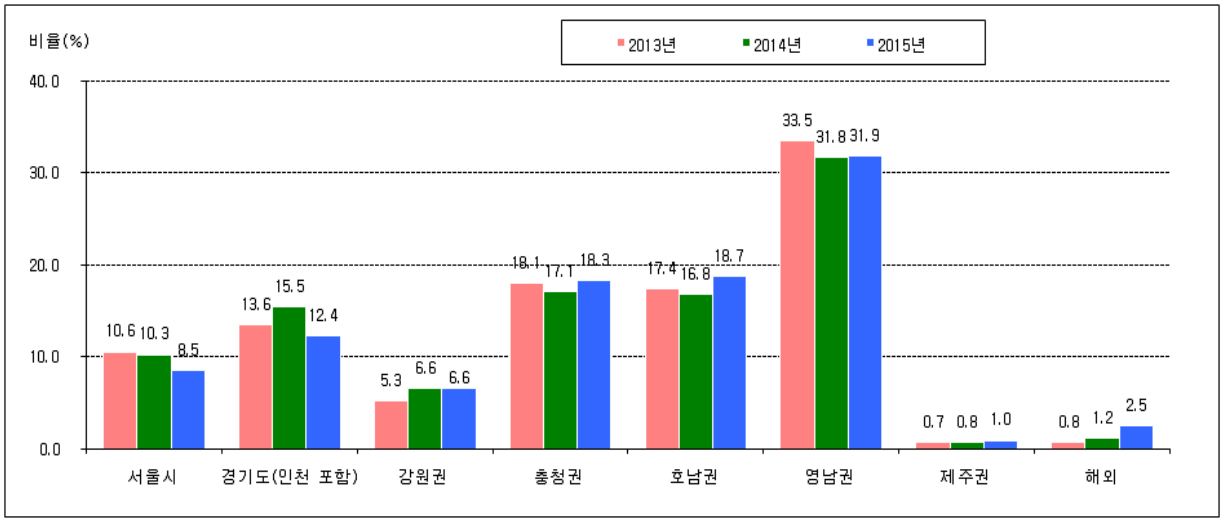
6)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3)]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1.9%로 가장 높고, '호남권' 18.7%, '충청권' 18.3% 순임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비율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임
- '해외'로의 귀성 또는 여행의 비율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함

<표 2-12>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5년	비율	8.5	12.4	6.6	18.3	18.7	31.9	1.0	2.5	100.0
	빈도	177	256	137	380	388	661	20	52	2,071
2014년	비율	10.3	15.5	6.6	17.1	16.8	31.8	0.8	1.2	100.0
	빈도	205	310	131	341	335	634	15	24	1,995
2013년	비율	10.6	13.6	5.3	18.1	17.4	33.5	0.7	0.8	100.0
	빈도	176	227	88	302	290	558	12	14	1,667



<그림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연도별)

3) 귀성 및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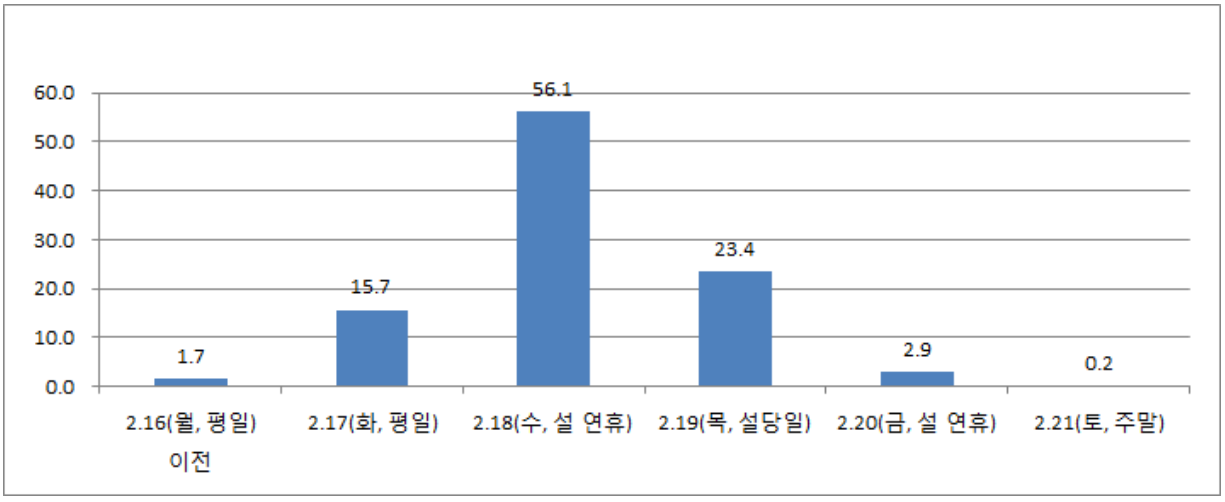
①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설 전날인 '2월 18일(수)'이 56.1%로 가장 높았고, 설 당일인 '2월 19일(목)(23.4%)', '2월 17일(화)(15.7%)' 순임
- 설 전전날인 2월 17일(화)부터 설 당일인 2월 19일(목)이 9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2.16(월, 평일) 이전	2.17 (화, 평일)	2.18 (수, 설 연휴)	2.19 (목, 설 당일)	2.20 (금, 설 연휴)	2.21 (토, 주말)	합계
2015년	비율	1.7	15.7	56.1	23.4	2.9	0.2	100.0
	빈도	30	274	980	408	51	3	1,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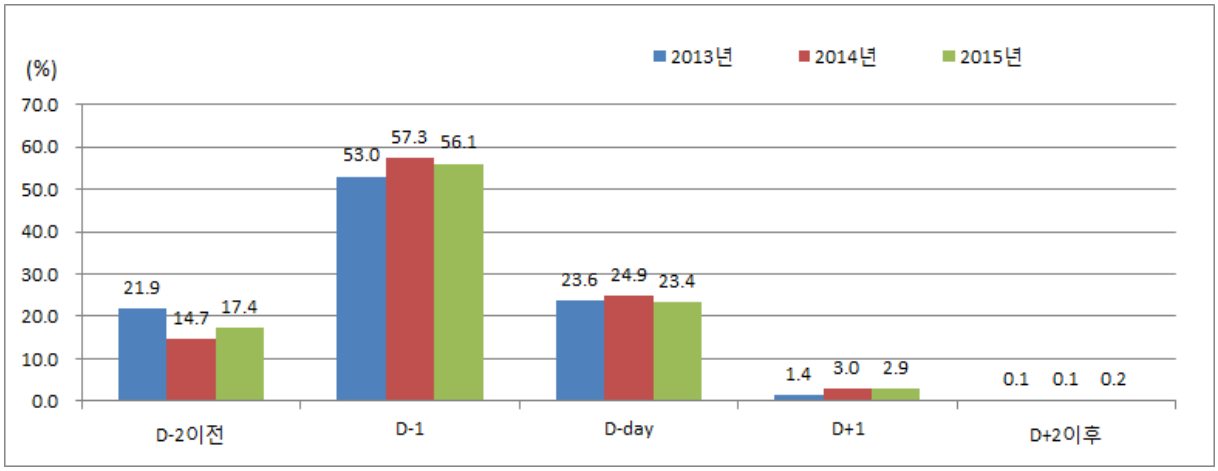
<그림 2-11> 설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출발일자를 설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올해(2015) 설 전전일 이전(D-2 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설 전일(D-1)과 설 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함

<표 2-14>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구 분		D-2이전	D-1	D-day	D+1	D+2이후	합계
2015년	비율	17.4	56.1	23.4	2.9	0.2	100.0
2014년	비율	14.7	57.3	24.9	3.0	0.1	100.0
2013년	비율	21.9	53.0	23.6	1.4	0.1	100.0



<그림 2-12>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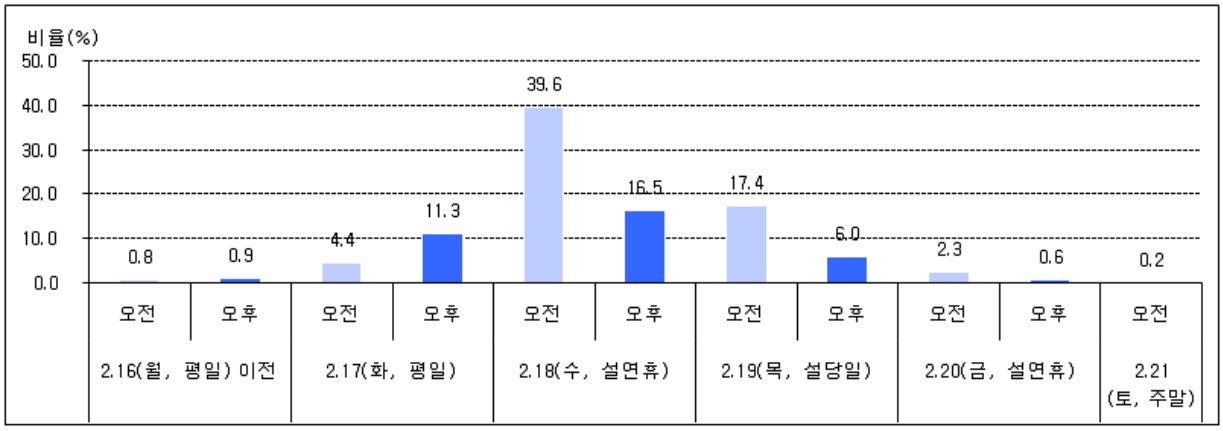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보면, '2월 18일(수, 설 연휴) 오전'이 39.6%로 가장 높고, '2월 19일(목, 설 당일) 오전'(17.4%), '2월 18일(수, 설 연휴) 오후'(16.5%) 순임

<표 2-15>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2.16 (월, 평일) 이전		2.17 (화, 평일)		2.18 (수, 설 연휴)		2.19 (목, 설 당일)		2.20 (금, 설 연휴)		2.21 (토, 주말)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비율	0.8	0.9	4.4	11.3	39.6	16.5	17.4	6.0	2.3	0.6	0.2	100.0
빈도	14	16	77	197	692	288	303	105	41	10	3	1,746



<그림 2-13>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8)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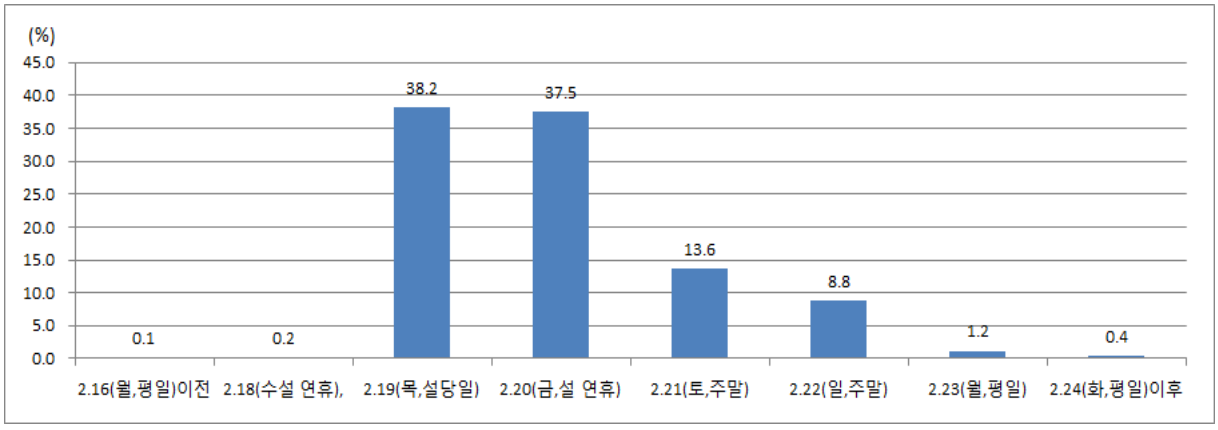
①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설 연휴 기간의 귀가 예정일자는 설 당일인 '2월 19일(목, 설 당일)'이 38.2%로 가장 높고, '2월 20일(금, 설 연휴)'(37.5%), '2월 21일(토, 주말)'(13.6%) 순임

<표 2-16>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2.16 (월,평일) 이전	2.18 (수,설 연휴)	2.19 (목,설 당일)	2.20 (금,설 연휴)	2.21 (토,주말)	2.22 (일,주말)	2.23 (월,평일)	2.24 (화,평일) 이후	합계
2015년	비율	0.1	0.2	38.2	37.5	13.6	8.8	1.2	0.4	100.0
	빈도	2	4	640	629	228	147	20	6	1,676



<그림 2-14>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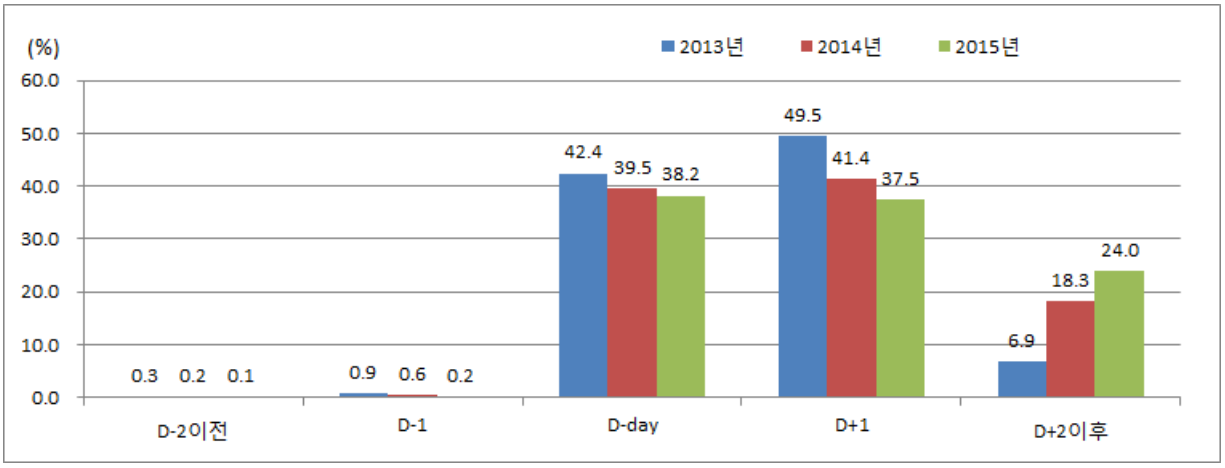
○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설 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4)]

○ D+2일 이후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7>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구 분		D-2이전	D-1	D-day	D+1	D+2이후	합계
2015년	비율	0.1	0.2	38.2	37.5	24.0	100.0
2014년	비율	0.2	0.6	39.5	41.4	18.3	100.0
2013년	비율	0.3	0.9	42.4	49.5	6.9	100.0



<그림 2-15>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4) 2015년 설 연휴 기간은 2/18(수)~2/20(금)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임
2014년 설 연휴 기간은 1/30(목)~2/1(토)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임
2013년 설 연휴 기간은 2/9(토)~2/11(월)로 주말과 겹치는 연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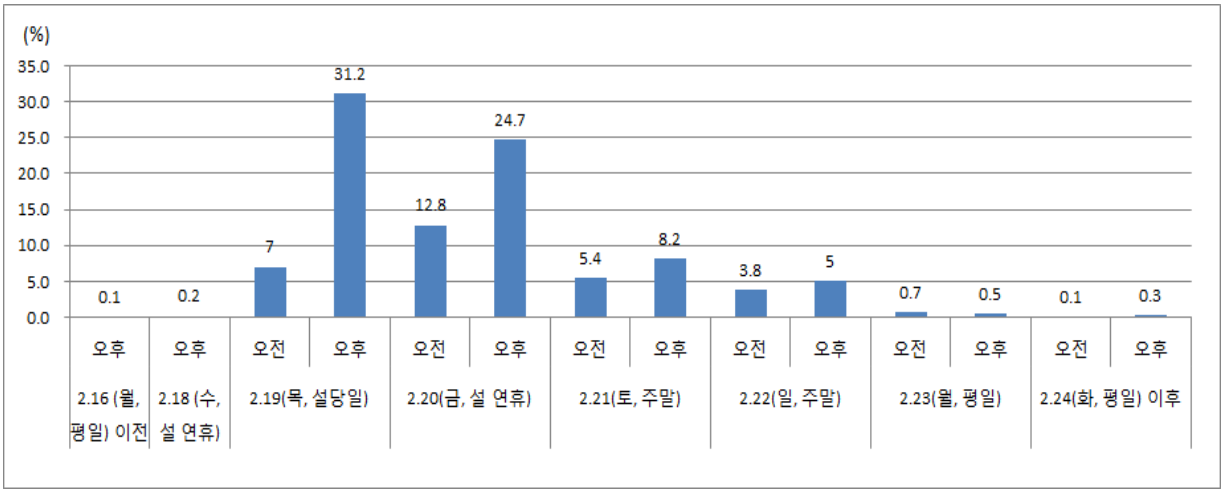
②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귀가(출발)일자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2월 19일(목, 설 당일) 오후'가 31.2%로 가장 높고, '2월 20일(금, 설 연휴) 오후'(24.7%), '2월 20일(금, 설 연휴) 오전'(12.8%) 순임

<표 2-18>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2.16 (월, 평일) 이전	2.18 (수, 설 연휴)	2.19(목, 설 당일)		2.20(금, 설 연휴)		2.21(토, 주말)		2.22(일, 주말)		2.23(월, 평일)		2.24(화, 평일) 이후		합계
	오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1	0.2	7.0	31.2	12.8	24.7	5.4	8.2	3.8	5.0	0.7	0.5	0.1	0.3	100.0
빈도	2	4	118	522	215	414	91	137	64	83	12	8	1	5	1,676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9) 체류일수

○ 귀성-귀가일을 통해 체류일수를 분석한 결과 '1박 2일', '2박 3일'이 30.7%로 가장 높고, '3박 4일'(15.0%), '당일'(11.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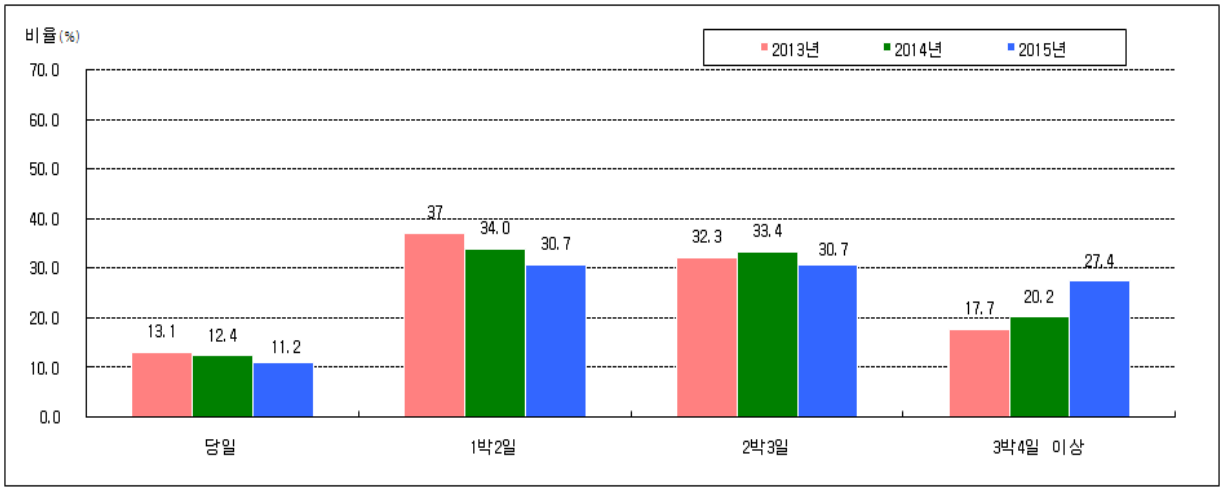
○ 연도별로는 '3박 4일'의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당일' 및 '1박 2일'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표 2-19>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상	합계
2015년	비율	11.2	30.7	30.7	27.4	100.0
	빈도	204	558	558	497	1,817
2014년	비율	12.4	34.0	33.4	20.2	100.0
	빈도	220	605	595	253	1,673
2013년	비율	13.1	37.0	32.3	17.7	100.0
	빈도	194	548	479	262	1,483



<그림 2-17>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10) 귀성-귀가일자 분석

○ 귀성-귀가일자 분석에 따르면, '2월 18일(수)에 출발하여 2월 20일(금)에 귀가'하는 비율이 2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월 18일(수)에 출발하여 2월 19일(목) 귀가'(21.2%), '2월 18일(수)에 출발하여 2월 21일(토) 이후에 귀가'(12.7%) 하는 순임

<표 2-20> 2015년 설 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귀경				
		2.16(월) 이전 D-2이전	2.18(수) D-1	2.19(목) D-DAY	2.20(금) D+1	2.21(토)이후 D+2이후
귀성	2.17(화) D-2이전	0.1	0.1	5.2	6.2	5.8
	2.18(수) D-1	0.0	0.2	21.2	22.7	12.7
	2.19(목) D-DAY	0.0	0.0	10.5	8.3	4.1
	2.20(금) D+1	0.0	0.0	0.0	0.5	2.3
	2.21(토)이후 D+2이후	0.0	0.0	0.0	0.0	0.2

<표 2-21> 귀성-귀가일자 분석(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출발일	도착일	연도별 비율		
		2013년 설	2014년 설	2015년 설
D-1	D+1	25.4	26.1	22.7
D-1	D-day	25.4	22.9	21.2
D-day	D-day	11.5	11.1	10.5
D-2 이전	D+1	12.3	6.6	6.2
D-day	D+1	10.9	9.0	8.3
D-2 이전	D+2 이후	2.9	4.3	5.8

11) D턴[5] 여부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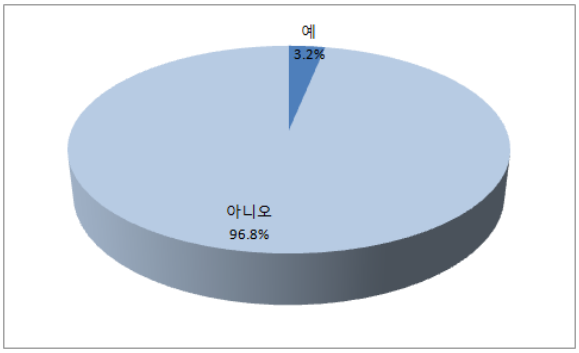
① D턴 여부

- 설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들를 예정인 가구는 3.2%(자가용 이용자는 3.4%)임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거주자들의 D턴 의향이 3.4%로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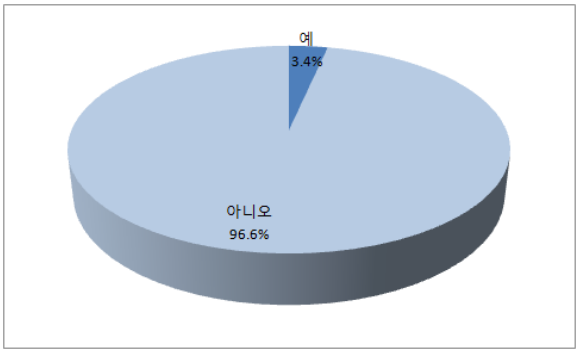
<표 2-22> D턴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3.2	96.8	100.0
	빈도	65	1,985	2,050



<전체>



<자가용 이용자>

<그림 2-18> D턴 여부

② D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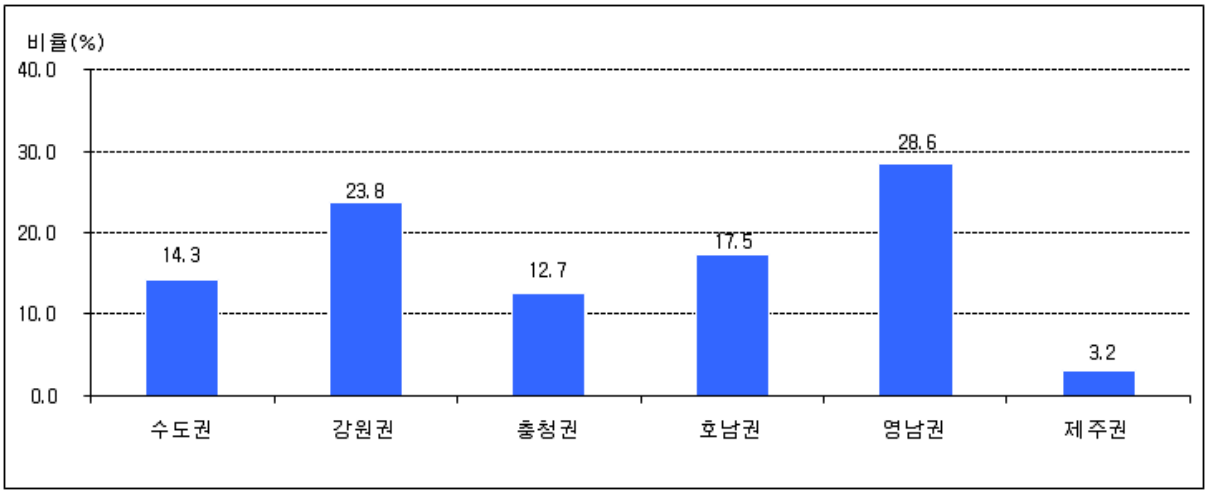
- 귀경시 D턴하는 경우 들를 예정인 지역으로는 '영남권(28.6%)', '강원권(23.8%)', '호남권(17.5%)' 등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강원권'(36.7%)으로의 D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고 귀경 도중 휴양지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 귀가하는 것을 말함

<표 2-23> D턴 지역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합계
전체	비율	14.3	23.8	12.7	17.5	28.6	3.2	100.0
	빈도	9	15	8	11	18	2	63



<그림 2-19> D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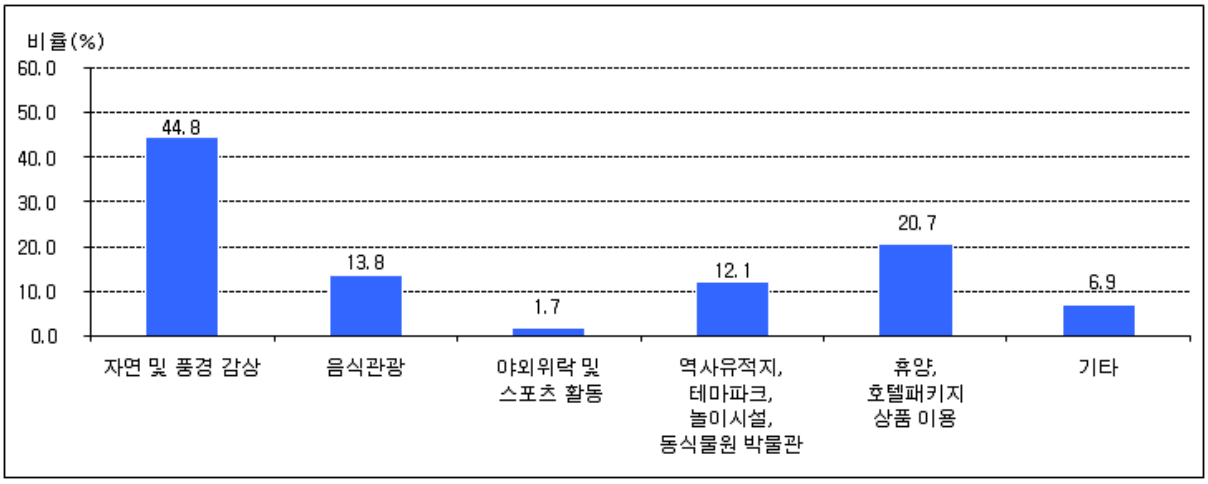
③ D턴 지역 유형

○ 설 연휴 귀경시 들를 지역은 주로 '자연 및 풍경감상(44.8%)'이며, 다음으로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20.7%)',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13.8%)' 등으로 나타남

<표 2-24> D턴 지역 유형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연 및 풍경감상	음식관광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	역사 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휴양, 호텔 패키지 상품이용	기타	합계
전체	비율	44.8	13.8	1.7	12.1	20.7	6.9	100.0
	빈도	26	8	1	7	12	4	58



<그림 2-20> D턴 지역 유형

라.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5.5%로 가장 높았고, '버스(4.9%,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2%+전세/관광버스 0.1%), '기차(4.7%, 일반열차 2.1%+고속열차 2.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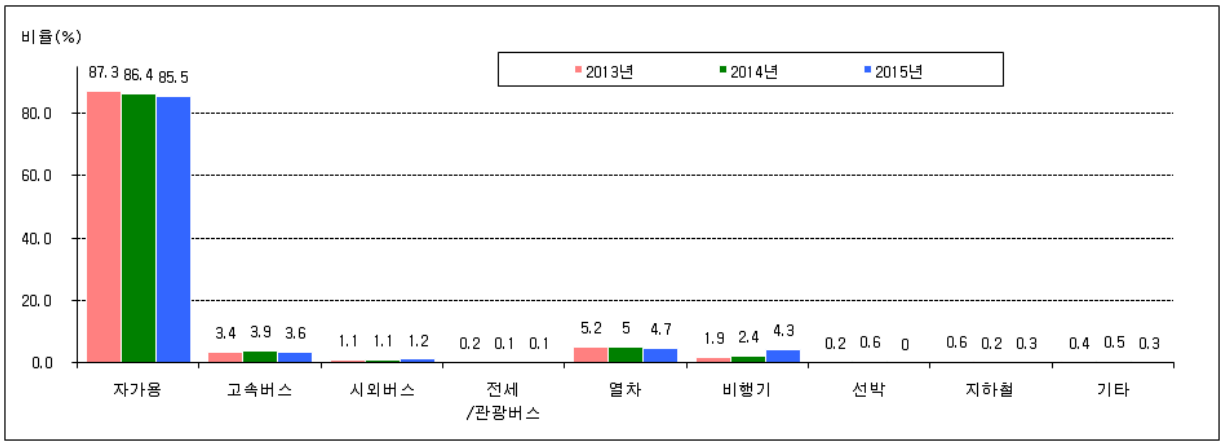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비행기'의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일반열차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85.5	3.6	1.2	0.1	2.1	2.6	4.3	0.0	0.3	0.3	100.0
	빈도	1,768	74	24	3	43	53	88	1	7	6	2,067
2014년	비율	86.4	3.9	1.1	0.1	2.3	2.7	2.4	0.6	0.2	0.5	100.0
	빈도	1,706	77	22	1	45	54	47	11	3	9	1,975
2013년	비율	87.3	3.4	1.1	0.2	1.7	3.5	1.9	0.2	0.6	0.4	100.0
	빈도	1,452	57	18	4	28	59	32	3	10	8	1,663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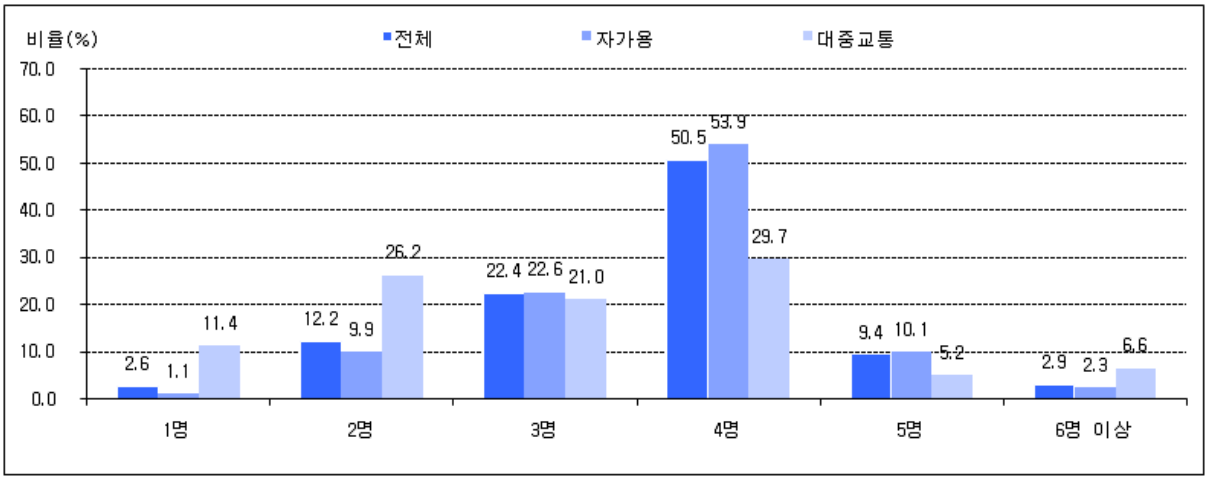
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중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50.5%로 가장 높고, '3명'(22.4%), '2명'(12.2%) 순임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5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전체	비율	2.6	12.2	22.4	50.5	9.4	2.9	100.0
	빈도	53	249	455	1,027	191	60	2,035
자가용	비율	1.1	9.9	22.6	53.9	10.1	2.3	100.0
	빈도	20	173	394	941	176	41	1,745
대중교통	비율	11.4	26.2	21.0	29.7	5.2	6.6	100.0
	빈도	33	76	61	86	15	19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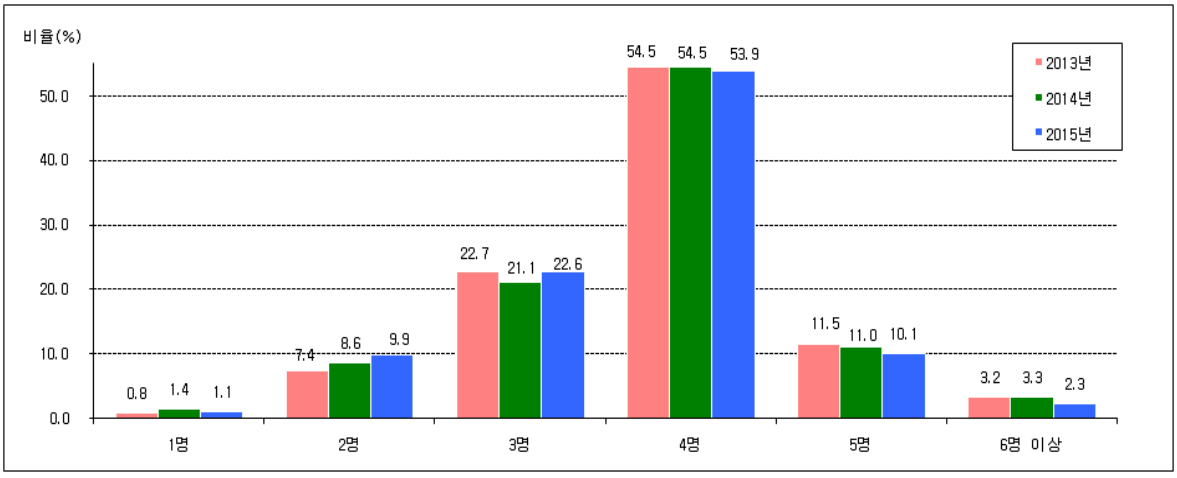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5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행인이 '2명'인 비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4명', '5명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 2-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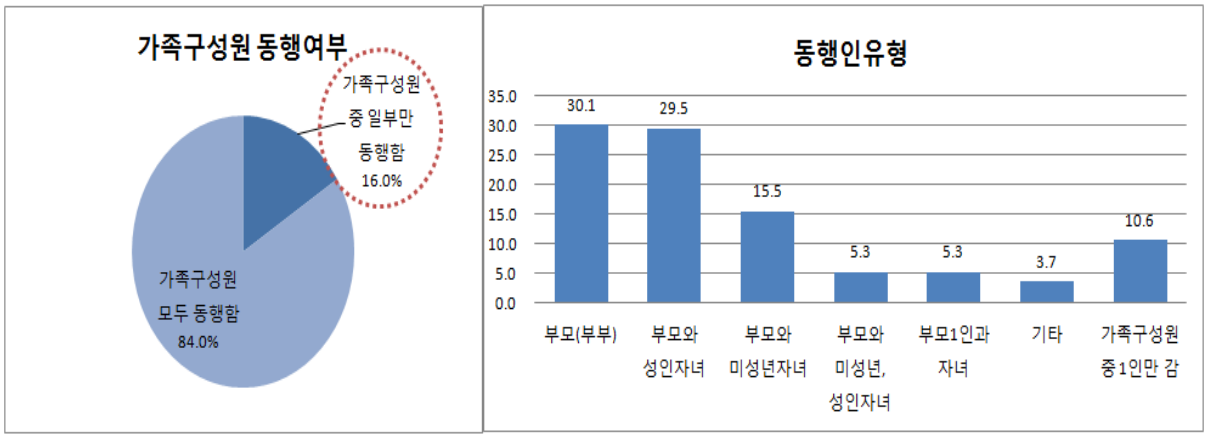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5년	비율	1.1	9.9	22.6	53.9	10.1	2.3	100.0
	빈도	20	173	394	941	176	41	1,745
2014년	비율	1.4	8.6	21.1	54.5	11.0	3.3	100.0
	빈도	24	145	356	917	186	56	1,684
2013년	비율	0.8	7.4	22.7	54.5	11.5	3.2	100.0
	빈도	11	107	328	788	166	46	1,446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3) 귀성 및 여행시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

-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가구 중 84.0%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 제외)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부(부모)'만 가는 경우가 30.1%로 가장 높고, '부모와 성인자녀'(29.5%), '부모와 미성년 자녀'(15.1%)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만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10.6%로 분석됨



<그림 2-2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동행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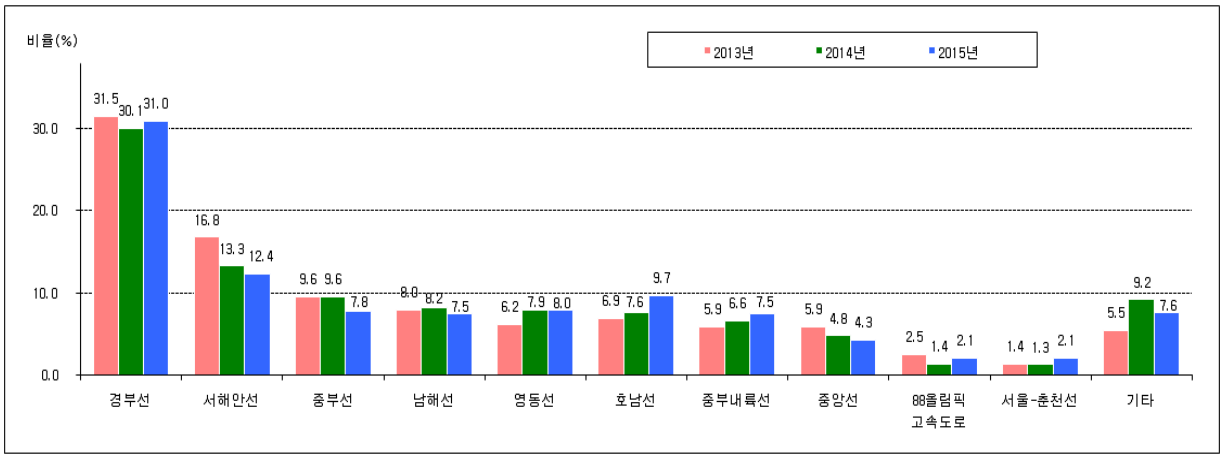
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가장 오랫동안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안선'(12.4%), '호남선'(9.7%), '영동선'(8.0%) 등의 순임
- 기타로는 '대구-부산선'(1.9%), '익산-포항선'(1.3%) 등이 있음
- 연도별로는 '서해안선', '중앙선' 고속도로의 비율이 감소하고, '영동선', '호남선', '중부내륙선' 고속도로의 비율이 증가함

<표 2-2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남해선	영동선	호남선(천안-논산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경춘선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31.0	12.4	7.8	7.5	8.0	9.7	7.5	4.3	2.1	2.1	7.6	100.0
	빈도	449	179	113	109	116	141	109	62	30	31	110	1,449
2014년	비율	30.1	13.3	9.6	8.2	7.9	7.6	6.6	4.8	1.4	1.3	9.2	100.0
	빈도	416	184	133	113	109	105	91	66	19	18	127	1,381
2013년	비율	31.5	16.8	9.6	8.0	6.2	6.9	5.9	5.9	2.5	1.4	5.5	100.0
	빈도	312	166	95	79	61	68	58	58	25	14	54	990



<그림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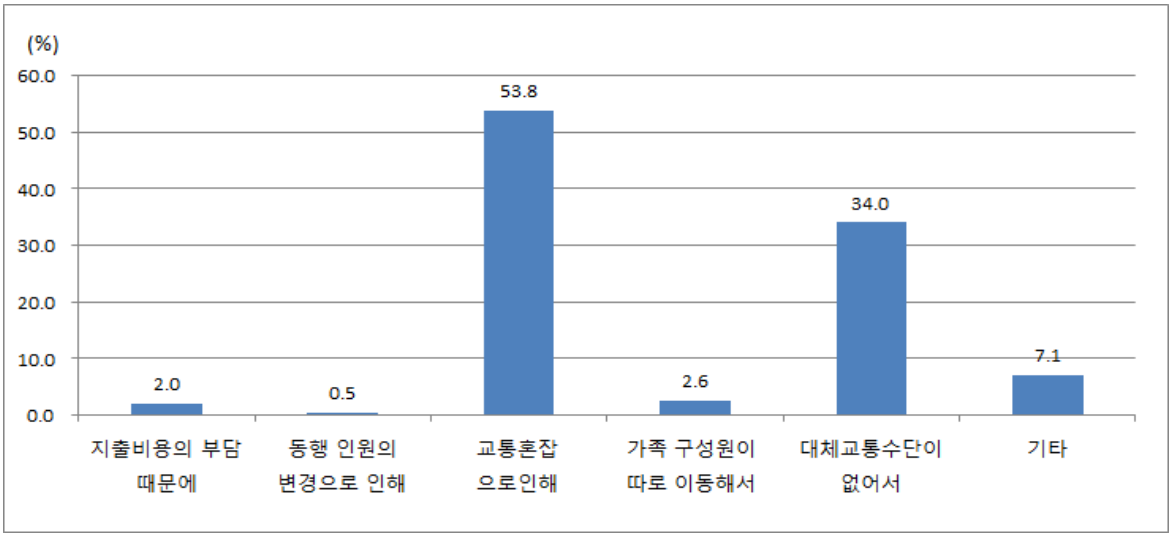
5)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교통혼잡으로 인해(53.8%)'이며, 다음으로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비행기를 이동 등)(34.0%)',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2.6%)' 등의 순임

<표 2-29>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동행 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교통혼잡으로인해	가족 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	기타	합계
전체	비율	2.0	0.5	53.8	2.6	34.0	7.1	100.0
	빈도	4	1	106	5	67	14	197



<그림 2-26>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마. 설 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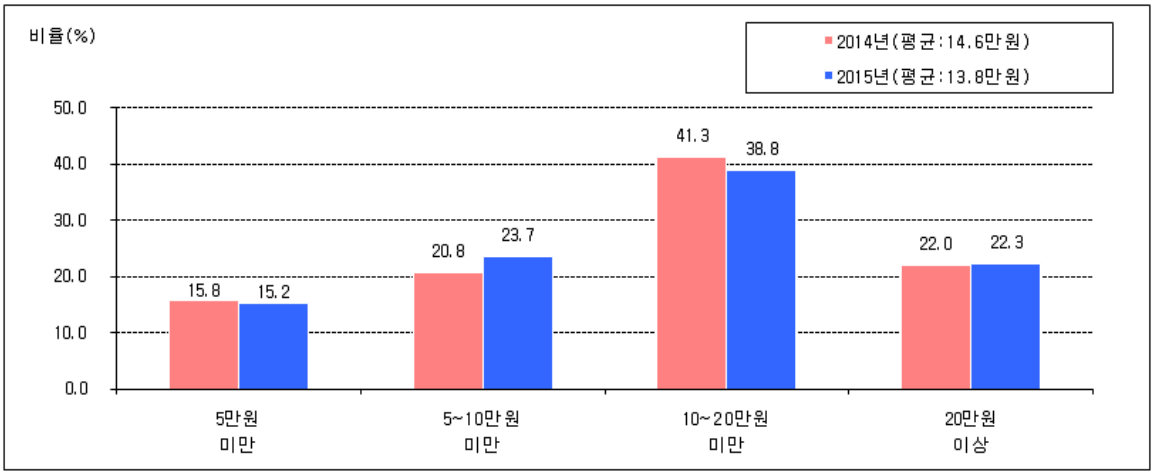
1) 설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5년) 설 연휴 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8천원으로 나타나, 작년(2014년) 14만 6천원 대비 감소(-8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2-30>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올해 (2015년)	비율	15.2	23.7	38.8	22.3	100.0	13.8
	빈도	237	371	607	348	1,563	
작년 (2014년)	비율	15.8	20.8	41.3	22.0	100.0	14.6
	빈도	241	318	631	336	1,526	



<그림 2-27>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2)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도로 혼잡예상[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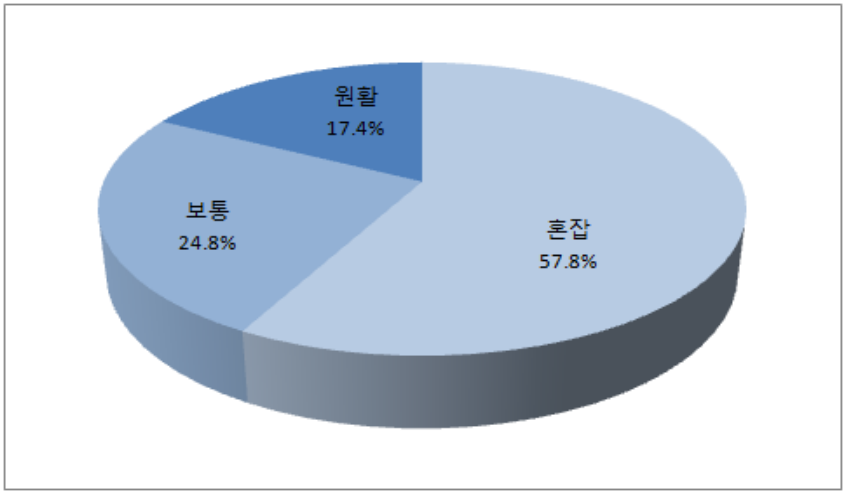
○ 이번 설 연휴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 도로(고속도로, 주요 국도)의 혼잡 정도에 대해 '혼잡(57.8%)'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혼잡 예상 응답률이 '지방'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31>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도로 혼잡예상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혼잡	보통	원활	합계
전체	비율	57.8	24.8	17.4	100.0
	빈도	1,148	493	345	1,986



<그림 2-28>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도로 혼잡예상

6) 혼잡 - 매우 혼잡+혼잡, 보통, 원활 - 소통원활+소통 매우 원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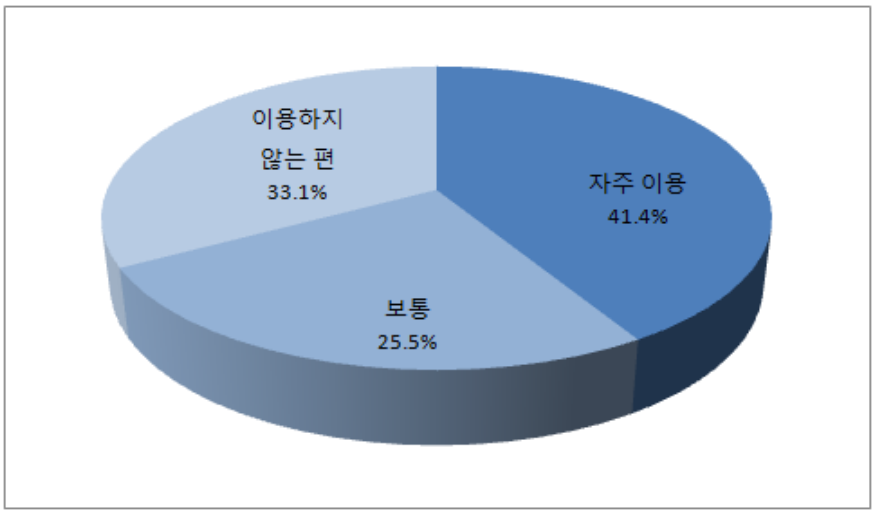
3)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7]

- 평소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1.4%이며, 33.1%는 '이용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용현황이 '지방' 거주자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32>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주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합계
전체	비율	41.4	25.5	33.1	100.0
	빈도	848	522	677	2,047



<그림 2-29>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7] 이용 - 매우 자주 이용+자주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 이용하지 않는편+전혀 이용하지 않는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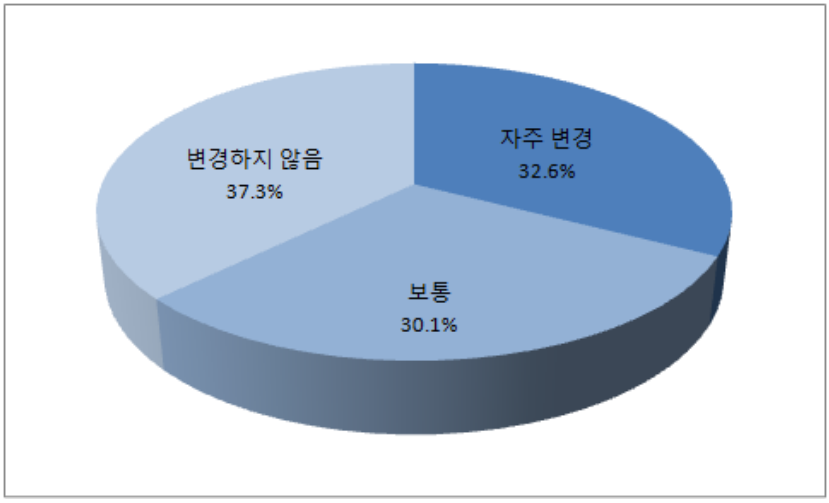
4)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 평소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 정보를 '보통 이상(66.9%)'으로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소 습득한 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자주 변경'하는 비율은 32.6%임

<표 2-33>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주 변경	보통	변경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32.6	30.1	37.3	100.0
	빈도	441	407	504	1,352



<그림 2-30>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5) 교통정보를 얻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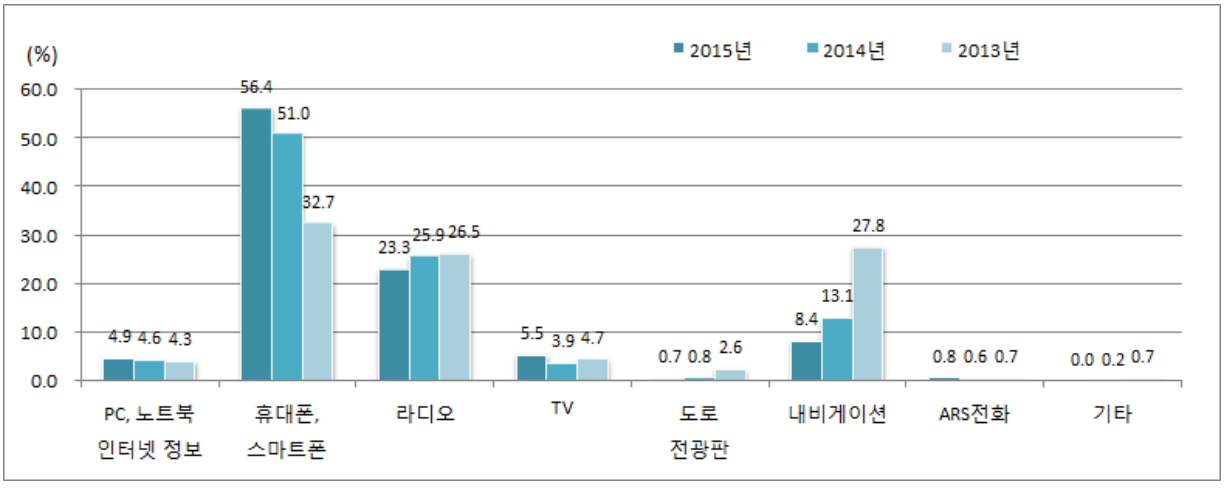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56.4%)'을 통해 교통정보를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라디오(23.3%)', '내비게이션(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휴대폰, 스마트폰' 및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라디오', '내비게이션'을 이용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2-34>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TV	도로 전광판	내비 게이션	ARS전화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4.9	56.4	23.3	5.5	0.7	8.4	0.8	-	100.0
	빈도	66	764	316	75	10	114	11	-	1,356
2014년	비율	4.6	51.0	25.9	3.9	0.8	13.1	0.6	0.2	100.0
	빈도	48	535	272	41	8	138	6	2	1,050
2013년	비율	4.3	32.7	26.5	4.7	2.6	27.8	0.7	0.7	100.0
	빈도	59	452	367	65	36	385	10	9	1,383

주: '13년의 경우 사전에 노선을 선정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응답을 받았으며 해당결과는 두 경우를 모두 합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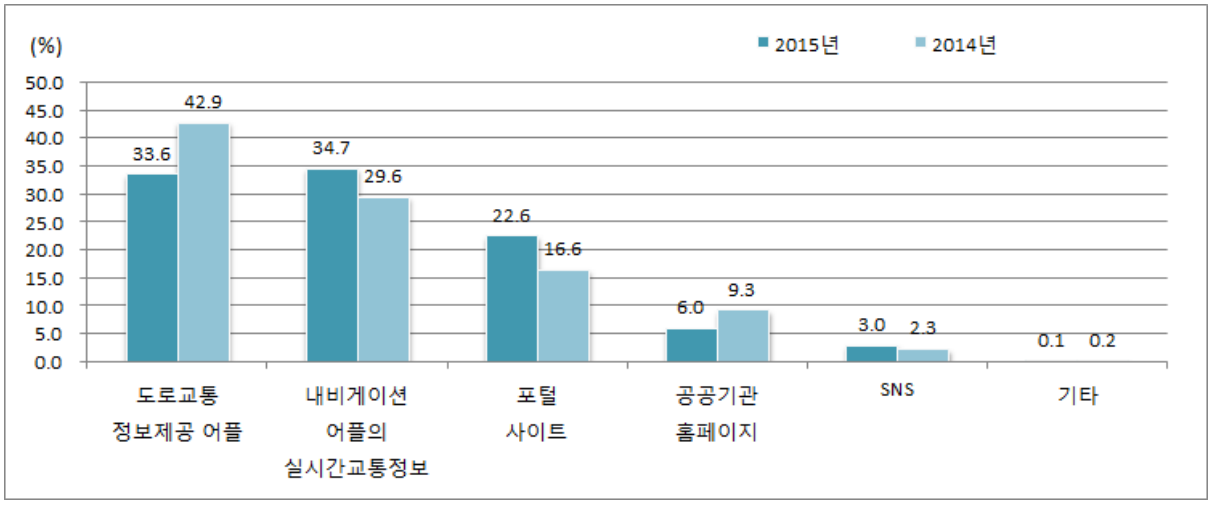
<그림 2-31>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획득하는 응답자의 세부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33.6%)', '포털사이트(22.6%)' 등의 순임

<표 2-35>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교통 정보	포털 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33.6	34.7	22.6	6.0	3.0	0.1	100.0
	빈도	237	245	159	42	21	1	705
2014년	비율	42.9	29.6	16.6	9.3	2.3	0.2	100.0
	빈도	204	136	79	4	11	1	475



<그림 2-32>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바.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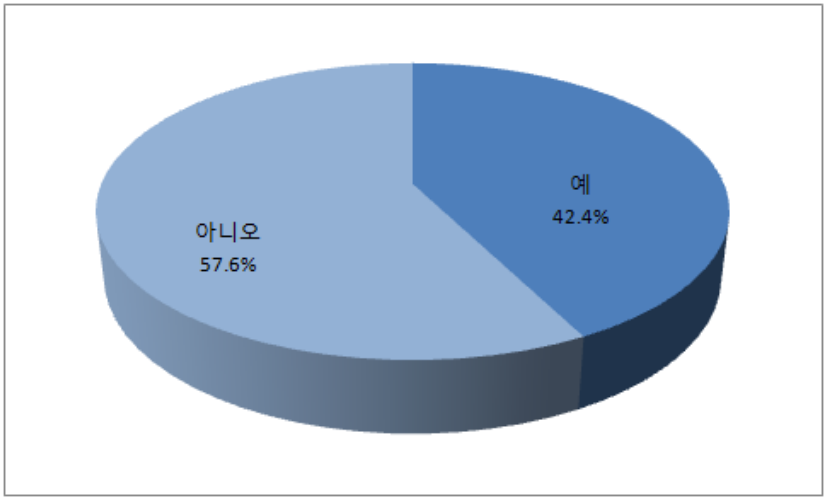
1) 특별교통대책 인지 여부

- 정부에서 '추석이나 설 명절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2.4%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지율이 '지방' 거주자들보다 다소 높음

<표 2-36> 특별교통대책 인지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인지	비인지	합계
전체	비율	42.4	57.6	100.0
	빈도	3,758	5,098	8,856



<그림 2-33> 특별교통대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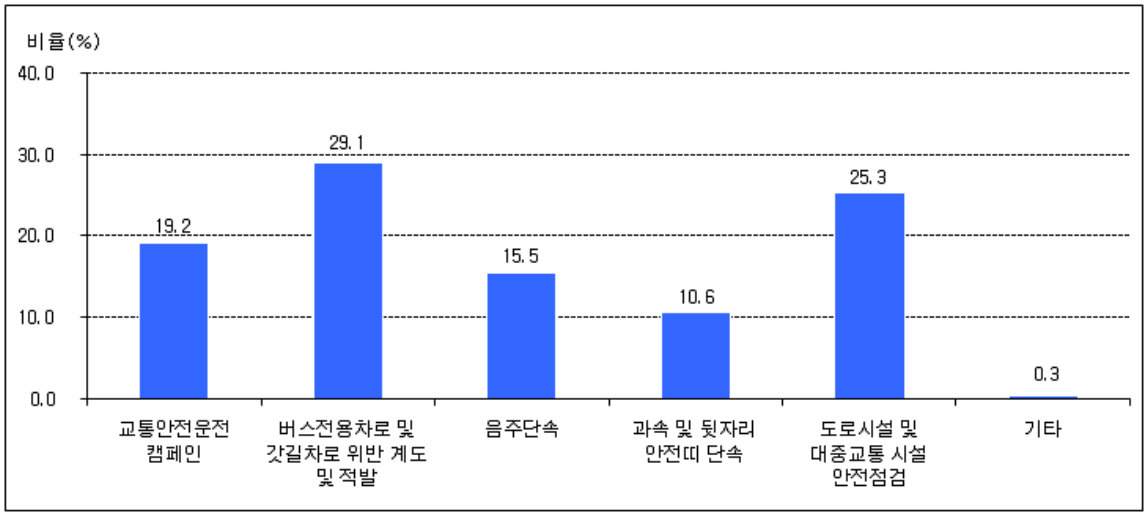
2)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이번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9.1%)'이며, 다음으로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25.3%)', '교통안전운전 캠페인(19.2%)' 등으로 나타남

<표 2-3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계도 및 적발	음주단속	과속 및 뒷자리 안전띠 단속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기타	합계
전체	비율	19.2	29.1	15.5	10.6	25.3	0.3	100.0
	빈도	1,612	2,441	1,298	890	2,127	28	8,396



<그림 2-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6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설 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설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5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설 연휴를 중심으로 한 6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6일간 통행은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통행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2014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수단별 수송실적 조사	○ 전년도인(2014년)의 수단별 수송실적을 조사하여 2015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에 활용
↓	
2015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통행 특성 설문조사	○ 전년도(2014년)의 귀성여부와 올해(2015년)의 귀성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행패턴을 예측 ○ 지역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단위로 전화설문조사
↓	
수단별 수송수요 (권역간 O/D) 예측	○ 2014년 수송실적자료와 2015년 통행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5년 권역간 수송수요를 예측 ○ 과거년도 연휴기간 통행패턴 변화 참조

<그림 2-35>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354만명, 1일 평균 559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580만명/일)에 비해 3.6% 감소하고, 평시(354만명/일)보다 57.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3%,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0.3%, 철도가 3.5%, 항공 0.6%, 해운 0.3%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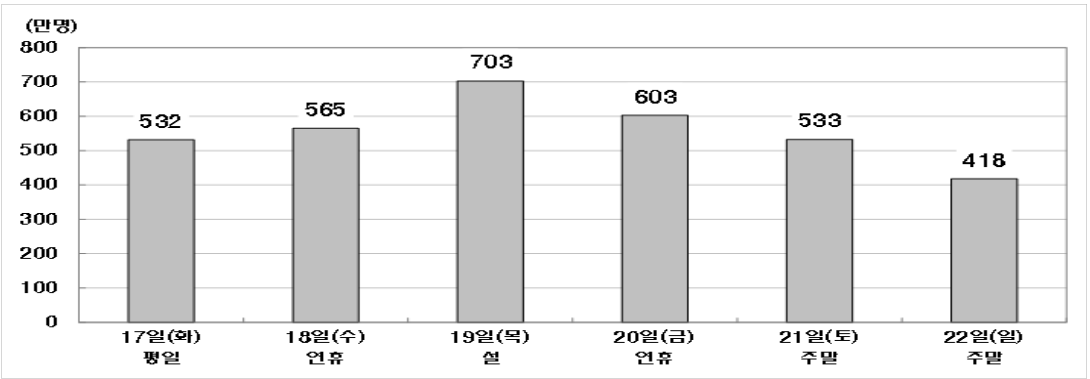
<표 2-38>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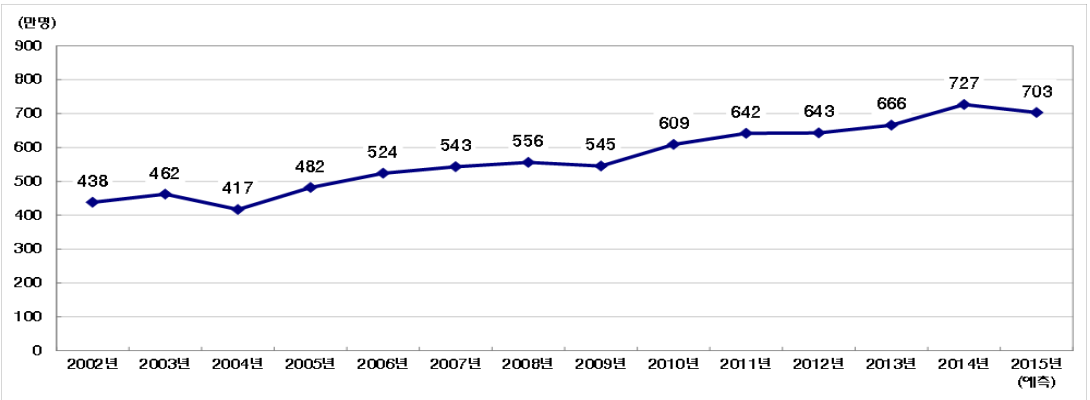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설 연휴 기간(′15.2.17~2.22)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665	4,769	28,612	85.3	178.9
	버스	고속버스	52	95	568	1.7	182.7
		시외·전세	615	480	2,877	8.6	78.0
철도			160	196	1,176	3.5	122.5
항공			31	32	193	0.6	103.2
해운			18	18	110	0.3	100.0
합계			3,541	5,590	33,536	100.0	157.9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2월 19일(설 당일) 703만명으로 작년 대비(727만명, 1월 31일 설 당일)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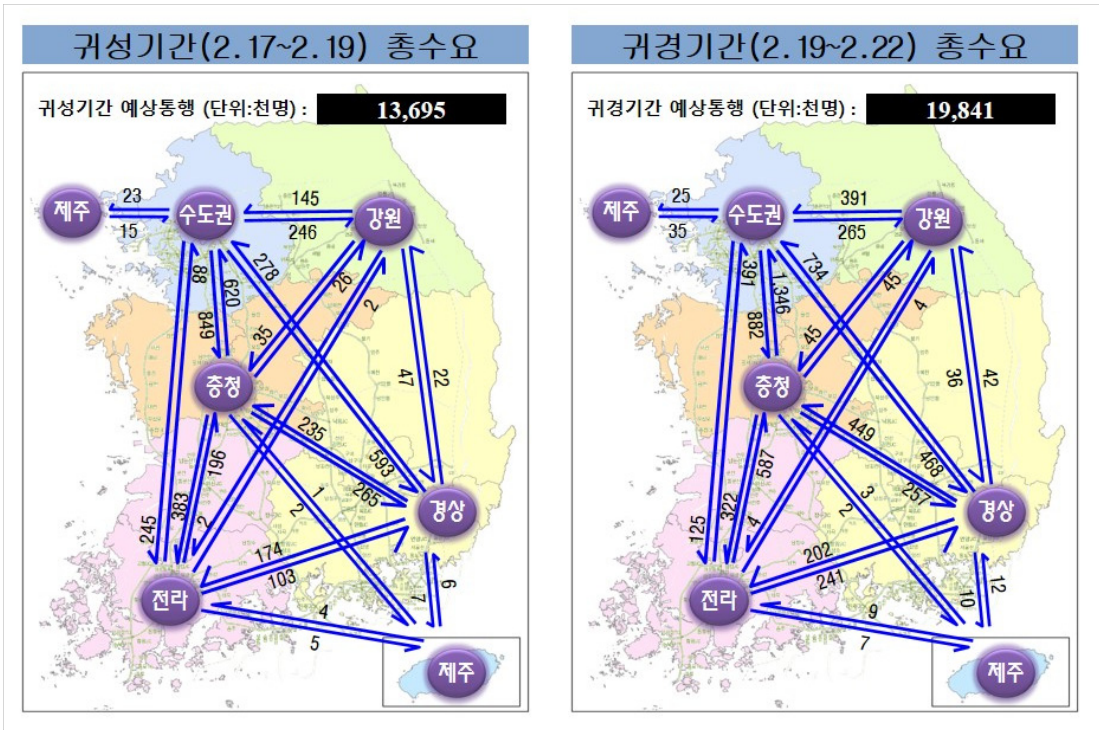


<그림 2-36> 2015년 설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2-37> 연도별 설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설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370만명, 귀경시 1,984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2.4%, 귀경시 40.3%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2-38> 2015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 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7~2.22, 6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11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72천명으로 95.1%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4.9% 과소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해운의 오차율이 28.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특별교통대책기간보다 3.1%, 2015년 평시보다 83.6% 증가

<표 2-39>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868	2,665	4,769	28,612	5,012	30,074	95.2	▼4.8	103.0	188.1
고속버스	84	52	95	568	82	492	115.9	▲15.9	98.1	157.7
철도	206	160	196	1,176	215	1,287	91.2	▼8.8	104.6	134.4
항공	30	31	32	193	38	229	84.2	▼15.8	125.1	122.6
해운	22	18	18	110	25	151	72.0	▼28.0	115.2	138.9
전체	5,209	2,926	5,110	30,659	5,372	32,233	95.1	▼4.9	103.1	183.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3장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가정의 달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3장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3월 25일(수)~2015년 4월 1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1월~2015년 3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5일간 : 2013.5.1~5.5)
  ·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6일간 : 2014.5.1~5.6)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가정의 달 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3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고속버스와 해운은 각각 일평균 65,548대(49.3%), 21,015명(30.5%) 증가로 전년 대비 30% 넘는 증가율을 보임

<표 3-1> 2013, 2014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5일) (A)	2014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711,316	3,228,320	13,556,579	19,369,919	517,004	5,813,340	19.1
고속버스	인	132,961	198,510	664,807	1,191,059	65,548	526,252	49.3
시외/전세	인	1,408,364	1,526,377	7,041,821	9,158,260	118,013	2,116,439	8.4
철도	인	427,422	490,456	2,137,112	2,942,737	63,034	805,625	14.7
항공	인	1,256,508	1,450,777	6,282,540	8,704,660	194,269	2,422,120	15.5
해운	인	68,895	89,910	344,475	539,457	21,015	194,982	30.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가정의 달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1(금)~5.5(화):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4월 3일(금)~5일(일)(3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5,000 세대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9%)
- 유효표본수[1] : 1,024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6%)

나. 조사내용

○ 가정의 달 이동여부

-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여부 및 방문목적,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계획,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계획이 없는/미정인 이유

○ 가정의 달 통행특성

- 출발일자 및 시간대, 귀가일자 및 시간대, 체류일수, 방문지역, 방문목적, 방문지 유형, 동행인 수, 주 이용 교통수단, 교통비용

○ 기타사항

-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추가휴가 계획, 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관광주간/봄 단기방학이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미친 영향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

1) 유효표본은 2015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계획이 있으며, 설문을 끝까지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다. 조사표본 선정

○ 가정의 달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5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구·동 단위(대도시 위주, 군 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3-2>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표본(세대), 비율(%))

구 분	전체 세대수1)	2015년 가정의 달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201,451	1,009	20.2	218	21.3
부산광역시	1,424,605	341	6.8	77	7.5
대구광역시	973,010	234	4.7	53	5.2
인천광역시	1,138,893	274	5.5	47	4.6
광주광역시	574,766	138	2.8	21	2.1
대전광역시	593,926	143	2.9	25	2.4
울산광역시	443,806	106	2.1	21	2.1
세종특별자치시	67,187	31	0.6	2	0.2
경기도	4,799,046	1,152	23.0	227	22.2
강원도	674,035	163	3.3	29	2.8
충청북도	657,940	158	3.2	22	2.1
충청남도	873,322	209	4.2	51	5.0
전라북도	775,805	186	3.7	43	4.2
전라남도	823,927	198	4.0	45	4.4
경상북도	1,155,068	276	5.5	56	5.5
경상남도	1,347,529	323	6.5	76	7.4
제주특별자치도	247,851	59	1.2	11	1.1
전국	20,772,167	4,000	100.0	1,024	100.0

주: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2)
2)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가정의 달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 즉, 2015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이동계획 여부 및 방문지역 수

- 응답가구 중 20.5%는 올해 가정의 달 연휴 기간(4월 30일~5월 6일)에 이동계획이 있으며, 한 곳을 가는 응답자는 85.7%임
-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42.5%로 가장 높고, '일정조율이 필요해서'(14.0%),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12.6%) 등의 순임
-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는 '일정조율이 필요해서'가 55.5%로 가장 높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25.3%),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5.4%),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5.2%) 등의 순임

○ 체류일수

- 당일일정이 41.8%, 숙박일정이 58.2%로 나타남
- 숙박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박 2일'이 31.4%로 가장 높고, '2박 3일'(18.7%), '3박 4일'(5.0%) 순임

○ 방문지역

- ‘경기도’가 17.3%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10.8%), ‘경상북도’(9.7%), ‘강원도’(8.5%), ‘전라남도’(7.9%) 순이며, ‘해외’는 3.5%로 나타남
- 방문목적별로 이동지역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날 목적으로 이동하는 가구는 ‘경기도’(29.0%)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방문목적 및 방문지 유형

-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가 41.6%로 가장 높고, 방문지 유형은 ‘자연 및 풍경감상’이 52.3%로 가장 높음
- (방문목적)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41.6%)〉‘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34.8%)〉‘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18.2%)
- (방문지 유형) ‘자연 및 풍경감상’(52.3%)〉‘음식관광’(16.7%)〉‘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8.3%)〉‘부모님댁 방문’(7.0%)

○ 출발일 및 귀가출발일

- 출발일로는 ‘5월 2일(토)’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귀가출발일로는 ‘5월 3일(일)’이 31.9%로 가장 높음
-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 예정일자로 ‘5월 2일(토)’이 32.8%로 가장 높았고,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26.1%), ‘5월 3일(일)’(11.1%), ‘5월 5일(화, 어린이날)’(10.6%) 등의 순임
- 귀가예정일자는 ‘5월 3일(일)’이 31.9%로 가장 높고, ‘5월 2일(토)’(24.7%), ‘5월 5일(화, 어린이날)’(15.5%) 순임

○ 주 이용 교통수단

- ‘자가용’(79.8%), ‘버스(4.4%), ‘기차(3.2%)’ 등의 순임

○ 동행인 수 및 교통비용

- 동행인 수 평균은 3.59명, 교통비용 평균은 14.1만원임
- 방문목적별로는 어린이날 목적(4.10명) 이동이 어버이날(3.54명)과 관광 및 휴식 목적(3.50명) 이동 대비 동행인 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통비용은 관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평균 21.4만원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날(13.8만원), 어버이날(8.3만원) 목적 순임

○ 추가휴가 계획

- 공휴일 이외에 가정의 달 추가휴가 계획이 있는 가구는 4.3%이며, 구체적인 추가휴가일로는 '5월 4일(월)'(29.8%)의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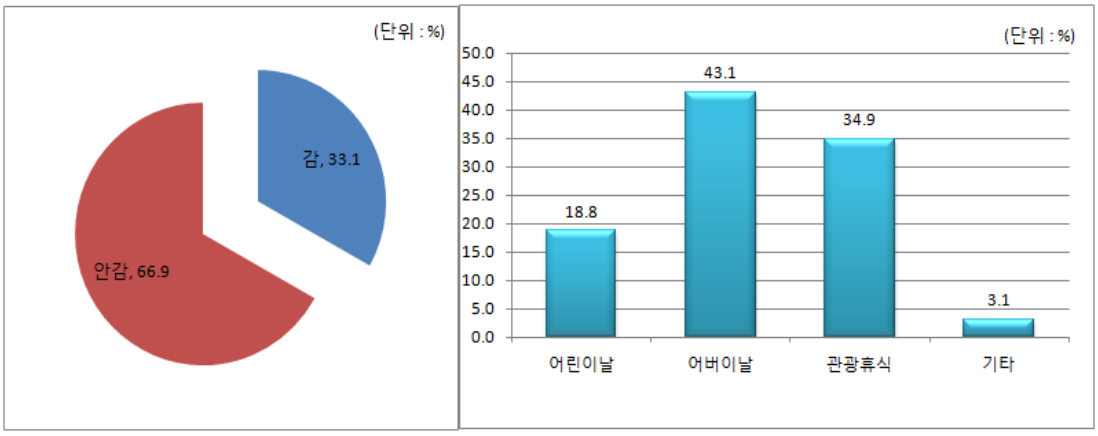
○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

-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은 74.3%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달 계획에 대한 영향력은 '봄단기 방학'(36.5%)이 '관광주간'(20.8%)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가정의 달 이동여부

1)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

-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에 따르면, 갔다 왔다는 가구는 33.1%이며, 갔다오지 않은 가구는 66.9%임
-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이동 목적으로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 방문 및 효도 여행을 위해'가 43.1%로 가장 높고,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34.9%),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18.8%)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석가탄신일 절 방문'(1.0%), '등산 등 레포츠 활동', '가족방문'(각각 0.5%), '성묘'(0.4%) 등이 있음



<그림 3-1> 작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 및 목적

2)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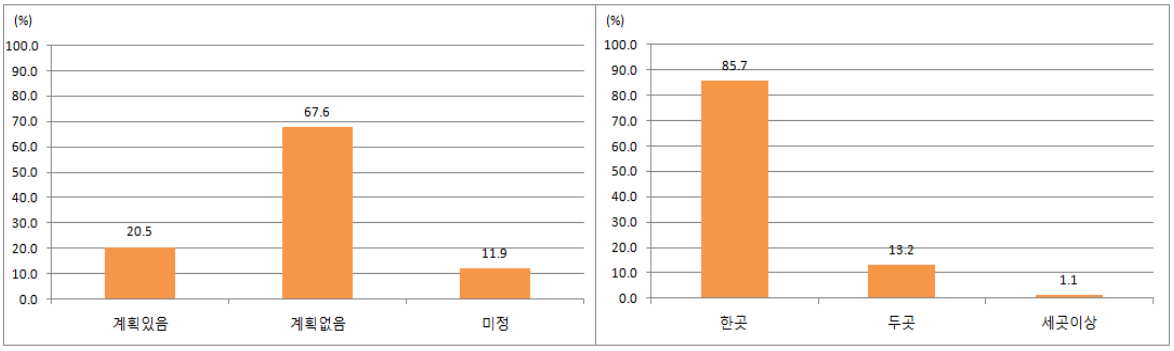
①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

- 올해(2015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0.5%가 이동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몇 곳으로 이동하는지 분석한 결과 '한 곳'이 85.7%로 가장 많았고, '두 곳'(13.2%), '세 곳 이상'(1.1%) 순임

<표 3-3>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포함)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계획있음	계획없음	미정	전체
2015년	비율	20.5	67.6	11.9	100.0
	빈도	1,024	3,380	596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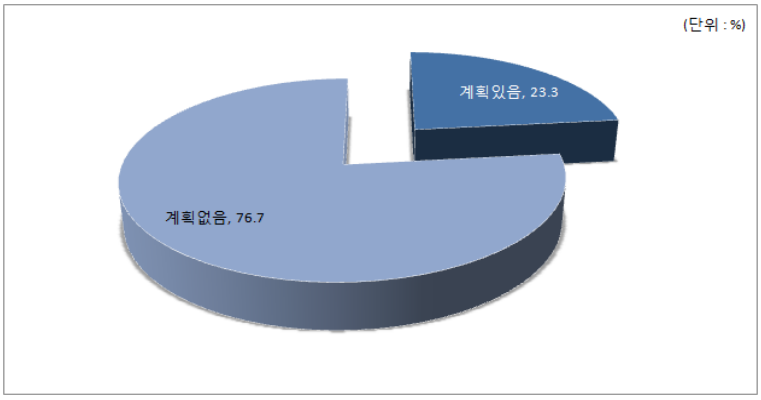
<그림 3-2>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포함)

○ 미정을 제외하면,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계획이 있는 가구는 23.3%이며, 계획이 없는 가구는 76.7%로 나타남

<표 3-4>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제외)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계획있음	계획없음	전체
2015년	비율	23.3	76.7	100.0
	빈도	1,024	3,380	4,404



<그림 3-3>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여부(미정제외)

②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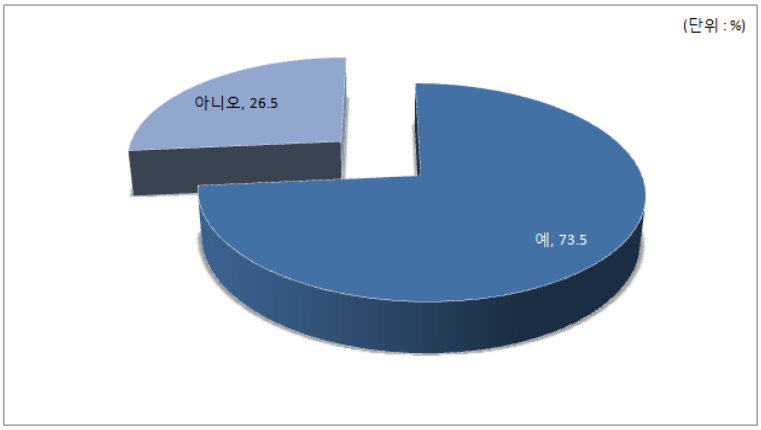
○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구성원 모두 동행할 예정인 가구는 73.5%이며, 동행하지 않는 가구는 26.5%임

○ 가족구성원 유형별로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87.1%)의 동행 여부가 가장 높은 반면, '성인만 있는 가구'(66.1%)의 비율이 가장 낮음

<표 3-5>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73.5	26.5	100.0
	빈도		741	267	1,008
가족 구성원 유형	성인만 있는 가구	비율	66.1	33.9	100.0
		빈도	314	161	475
	어린이가 있는 가구	비율	87.1	12.9	100.0
		빈도	284	42	326
	청소년이 있는 가구	비율	77.0	23.0	100.0
		빈도	251	75	326
	만 60세 이상 성인이 있는 가구	비율	68.8	31.2	100.0
		빈도	214	97	311



<그림 3-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3)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미정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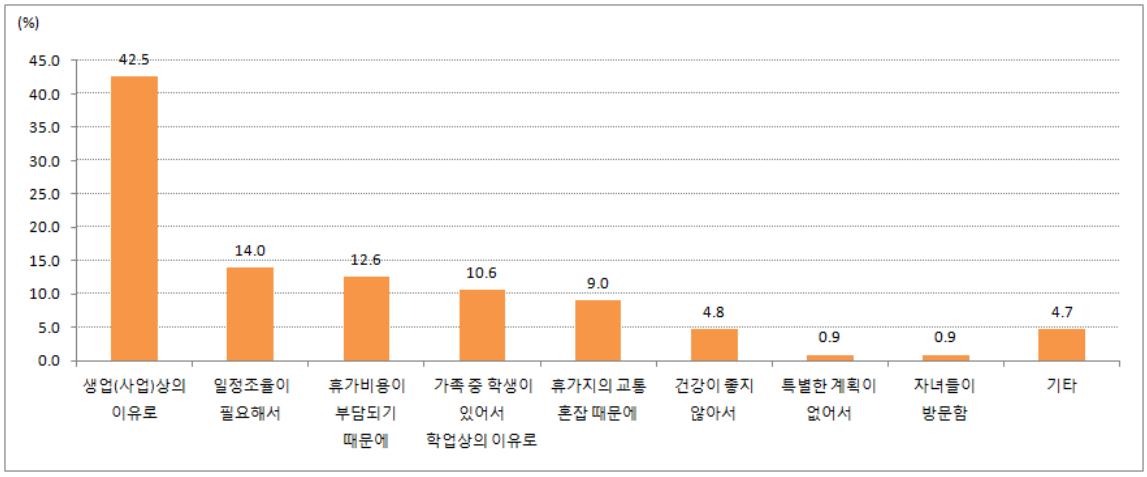
①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

-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42.5%로 가장 높고,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14.0%),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12.6%) 등의 순임
- 기타 이유로는 '5월 7일 이후에 이동 예정', '미리 다녀와서', '쉬고 싶어서'(각각 0.5%), '집안사정으로'(0.4%) 등이 있음

<표 3-6>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생업(사업)상의이유로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휴가비용이부담되기 때문에	가족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자녀들이 방문함	기타	합계
비율	42.5	14.0	12.6	10.6	9.0	4.8	0.9	0.9	4.7	100.0
빈도	1,274	419	377	317	269	143	27	27	142	2,995



<그림 3-5>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

②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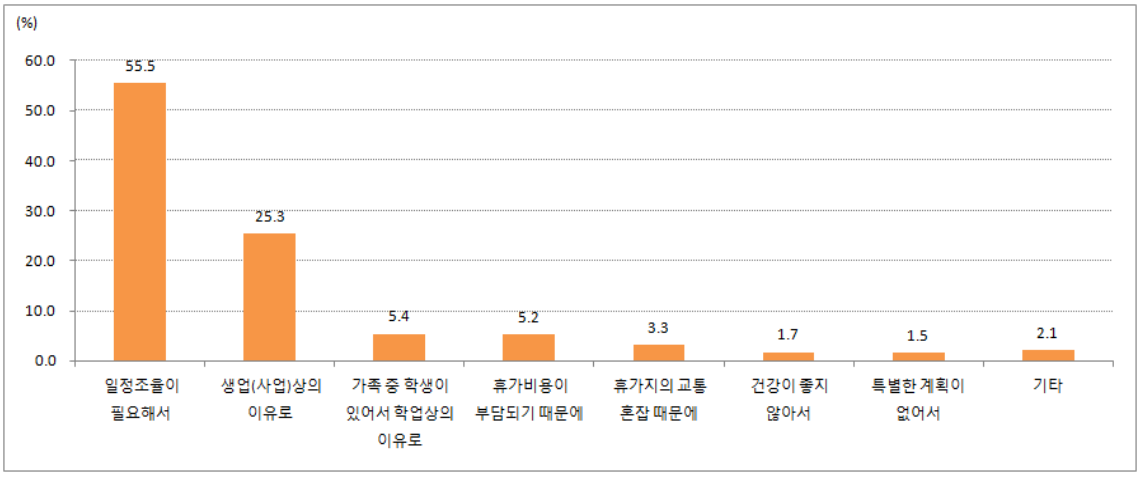
○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로는 '일정조율이 필요해서'가 55.5%로 가장 높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25.3%),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5.4%),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5.2%) 등의 순임

○ 기타 이유로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이가 어려서'(각각 0.4%),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집안사정으로', '갈일이 없어서'(각각 0.2%) 등이 있음

<표 3-7>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기타	합계
비율	55.5	25.3	5.4	5.2	3.3	1.7	1.5	2.1	100.0
빈도	289	132	28	27	17	9	8	11	521



<그림 3-6> 가정의 달 이동계획이 미정인 이유

다. 가정의 달 통행특성

1) 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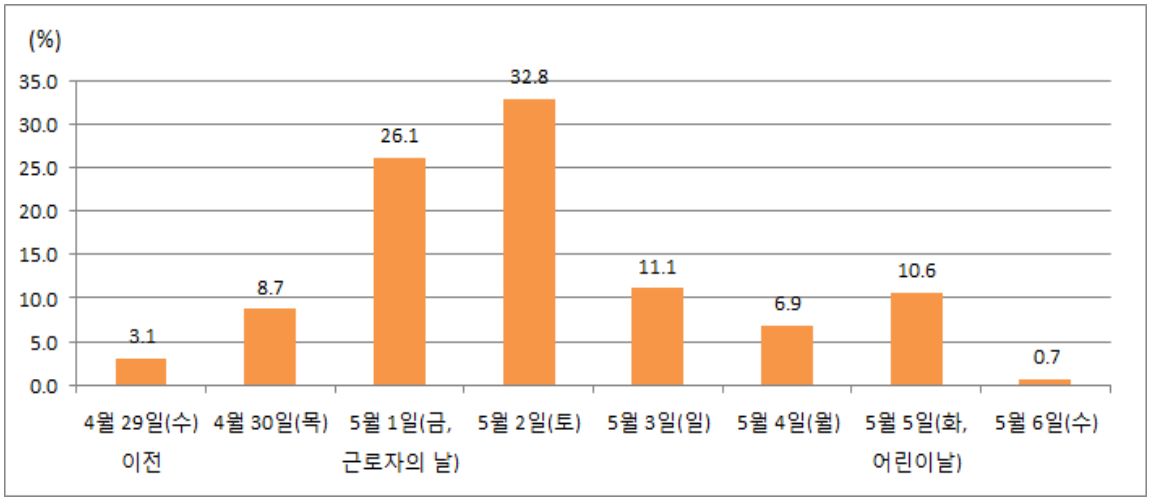
① 출발일자

○ 올해(2015년) 가정의 달 이동 예정일자로 '5월 2일(토)'이 32.8%로 가장 높았고,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26.1%), '5월 3일(일)'(11.1%), '5월 5일(화, 어린이날)'(10.6%) 등의 순임

<표 3-8>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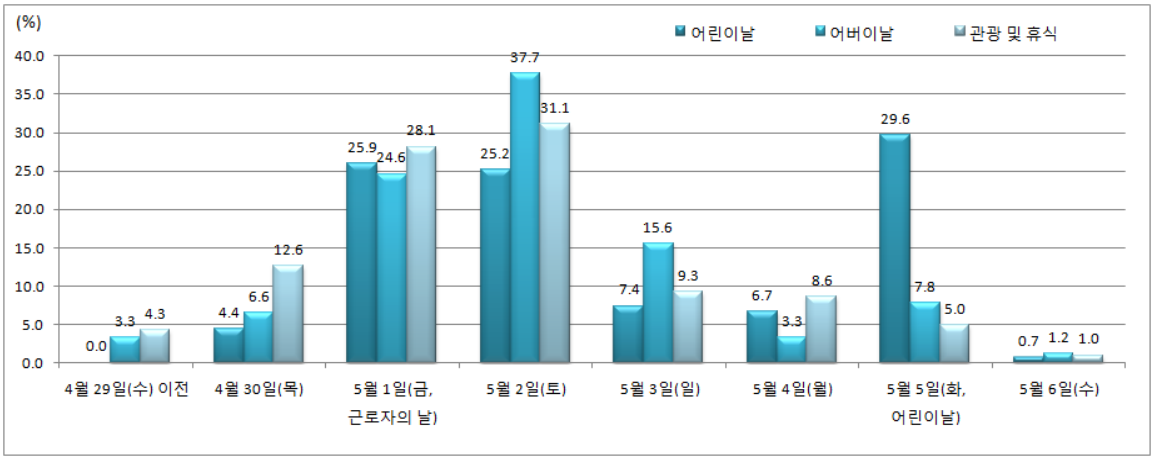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4월 29일(수) 이전	4월 30일(목)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5월 2일(토)	5월 3일(일)	5월 4일(월)	5월 5일(화, 어린이날)	5월 6일(수)	합계
비율	3.1	8.7	26.1	32.8	11.1	6.9	10.6	0.7	100.0
빈도	21	60	180	226	76	48	73	6	690



<그림 3-7>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

○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월 5일(화, 어린이날)' 당일 출발 비율이 가장 높고, 어버이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월 2일(토)'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3-8> 가정의 달 이동 출발일(방문목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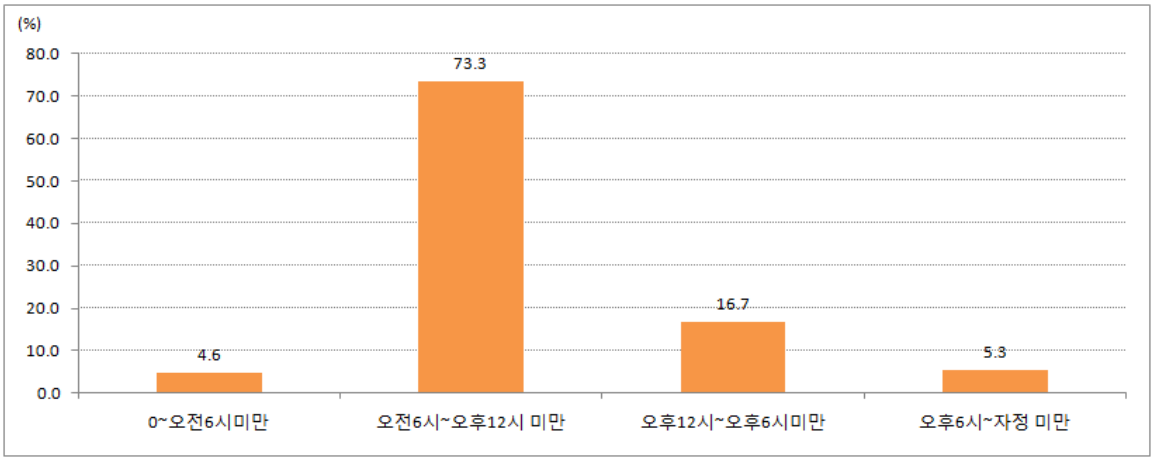
② 출발시간

○ 출발시간은 '오전 6시~오후 12시 미만'이 73.3%로 가장 높고, '오후 12시~오후 6시 미만'이 16.7% 순임

<표 3-9> 가정의 달 이동시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0시~ 오전 6시 미만	오전 6시~ 오후 12시 미만	오후 12시~ 오후 6시 미만	오후 6시~ 자정 미만	합계
비율	4.6	73.3	16.7	5.3	100.0
빈도	43	679	155	49	926



<그림 3-9> 가정의 달 이동시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③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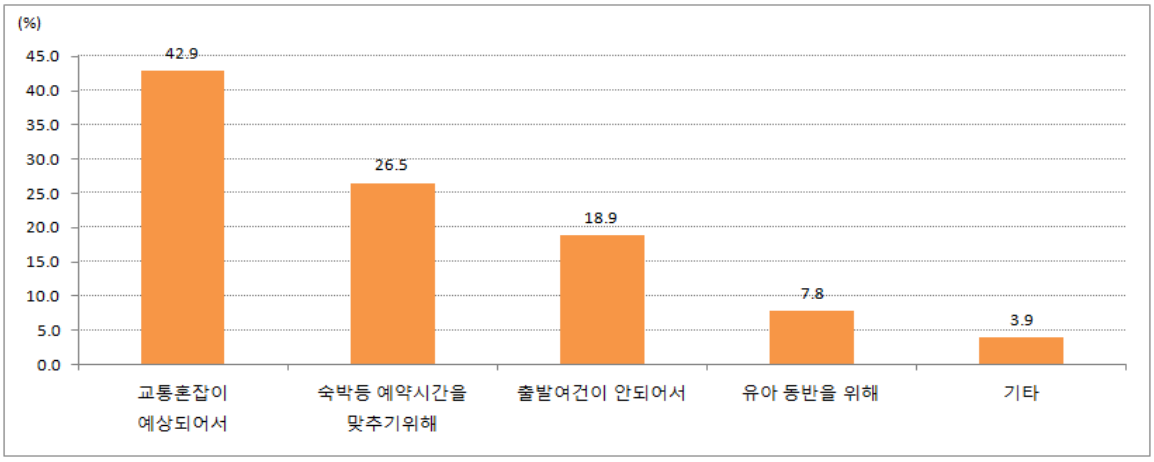
○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가 42.9%로 가장 높고, '숙박 등 예약시간을 맞추기 위해'(26.5%), '출발여건이 안되어서'(18.9%) 등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편한시간대여서', '일행과의 일정조율'(각각 0.7%), '식사시간에 맞추려고', '퇴근 후 이동', '천천히 가려고', '그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각각 0.4%) 등이 있음

<표 3-10>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숙박 등의 예약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발여건이 안 되어서	유아 동반을 위해서	기타	합계
비율	42.9	26.5	18.9	7.8	3.9	100.0
빈도	381	236	168	69	35	727



<그림 3-10> 해당시간에 출발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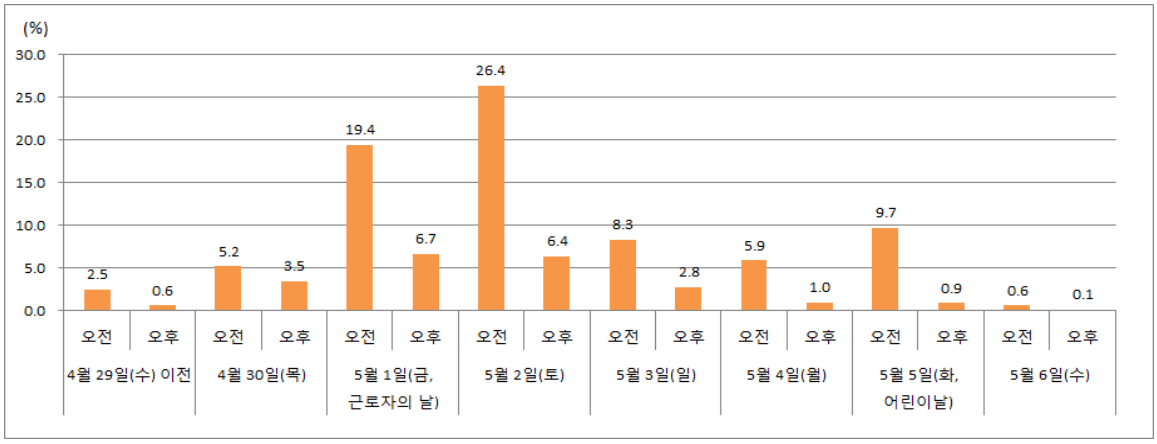
④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출발일자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5월 2일(토) 오전'이 26.4%로 가장 높고,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오전'(19.4%), '5월 5일(화, 어린이날) 오전'(9.7%) 순임

<표 3-11>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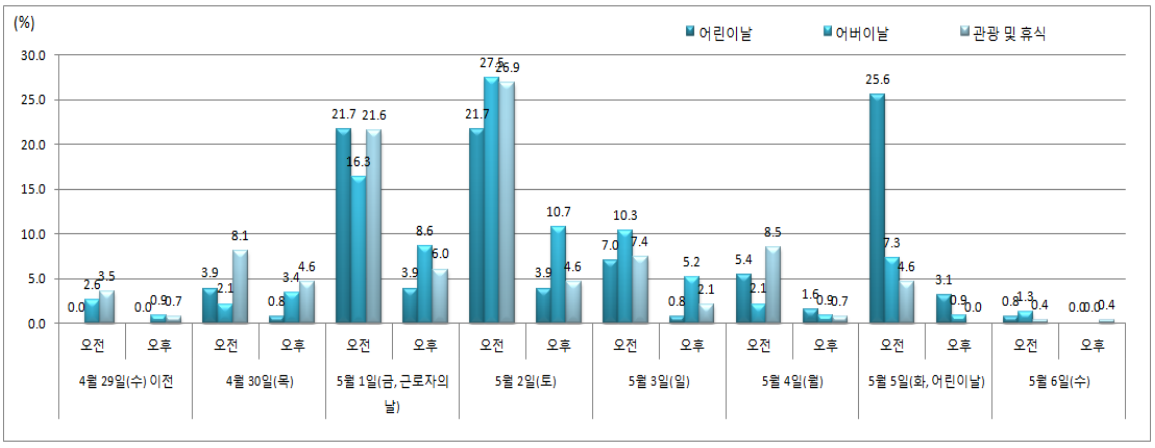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4월 29일 (수) 이전		4월 30일 (목)		5월 1일 (금, 근로자의 날)		5월 2일 (토)		5월 3일 (일)		5월 4일 (월)		5월 5일 (화, 어린이날)		5월 6일 (수)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2.5	0.6	5.2	3.5	19.4	6.7	26.4	6.4	8.3	2.8	5.9	1.0	9.7	0.9	0.6	0.1	100.0
빈도	17	4	36	24	134	46	182	44	57	19	41	7	67	6	5	1	690



<그림 3-11>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어린이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월 5일(화, 어린이날)' 당일 오전의 비율이 높고, 어버이날과 관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월 2일(토) 오전'의 비율이 높음



<그림 3-12> 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방문목적별)

2) 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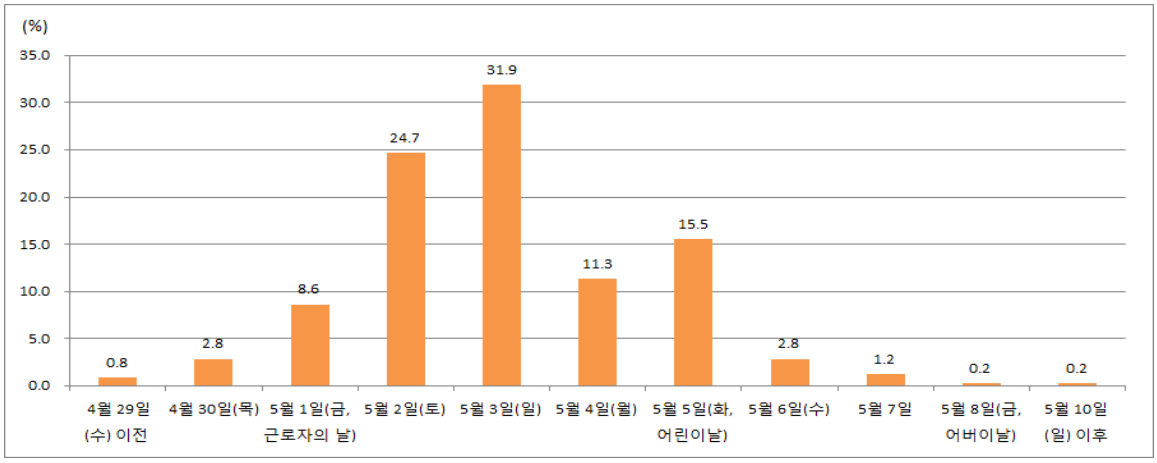
① 귀가출발일자

○ 귀가예정일자는 '5월 3일(일)'이 31.9%로 가장 높고, '5월 2일(토)'(24.7%), '5월 5일(화, 어린이날)'(15.5%) 순임

<표 3-12> 귀가 출발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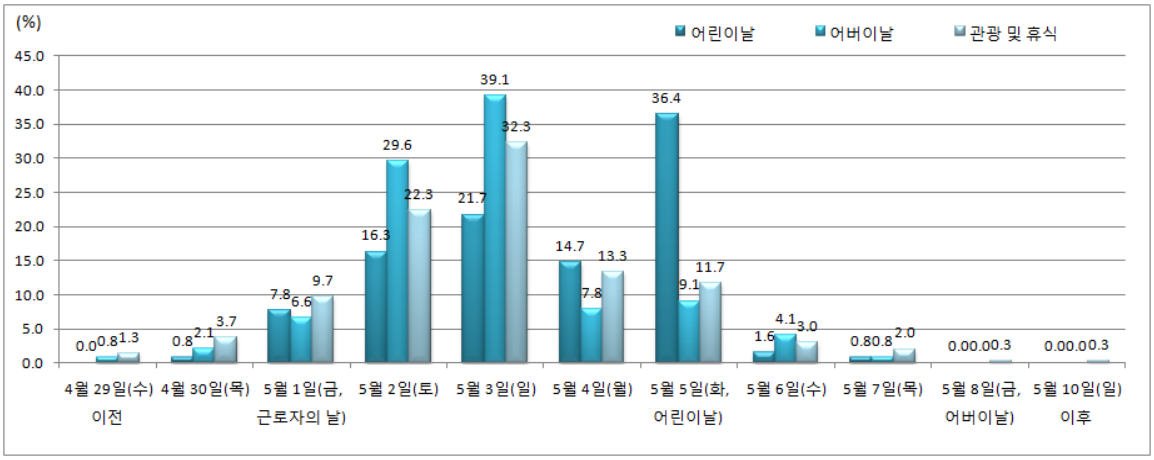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4월 29일 (수) 이전	4월 30일 (목)	5월 1일 (금, 근로자의 날)	5월 2일 (토)	5월 3일 (일)	5월 4일 (월)	5월 5일 (화, 어린이날)	5월 6일 (수)	5월 7일 (목)	5월 8일 (금, 어버이날)	5월 10일 (일) 이후	합계
비율	0.8	2.8	8.6	24.7	31.9	11.3	15.5	2.8	1.2	0.2	0.2	100.0
빈도	6	18	57	163	210	75	102	19	8	1	1	660



<그림 3-13> 귀가 출발예정일

○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어버이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월 3일(일)'에 귀가 출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귀가 출발예정일(방문목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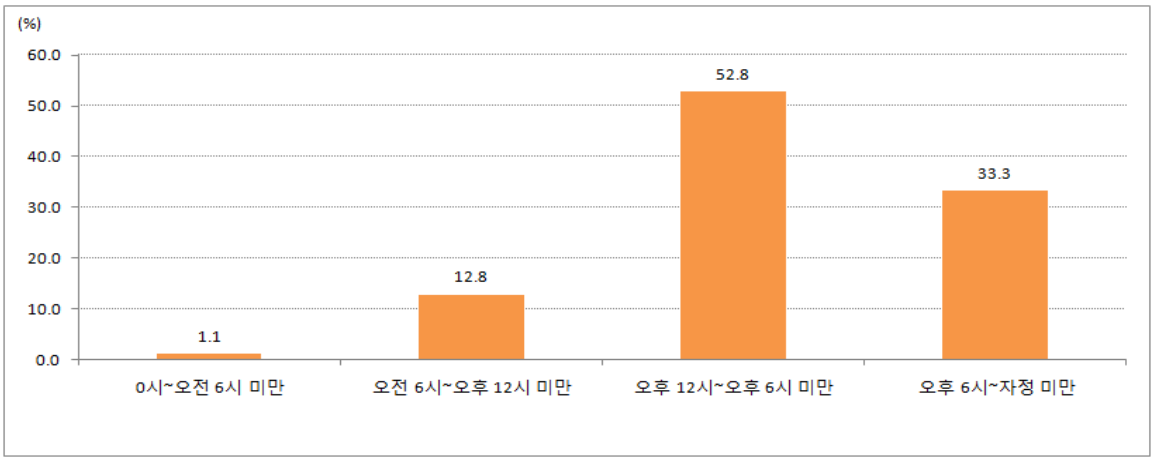
② 귀가 출발시간

○ 귀가 출발시간에 따르면 '오후 12시~오후 6시 미만'이 52.8%로 가장 높고, '오후 6시~자정 미만'(33.3%), '오전 6시~오후 12시 미만'(12.8%), '0시~오전 6시 미만'(1.1%) 순임

<표 3-13> 귀가 출발시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0시~오전 6시 미만	오전 6시~ 오후 12시 미만	오후 12시~ 오후 6시 미만	오후 6시~ 자정 미만	합계
비율	1.0	12.8	52.8	33.3	100.0
빈도	9	116	477	301	903



<그림 3-15> 귀가 출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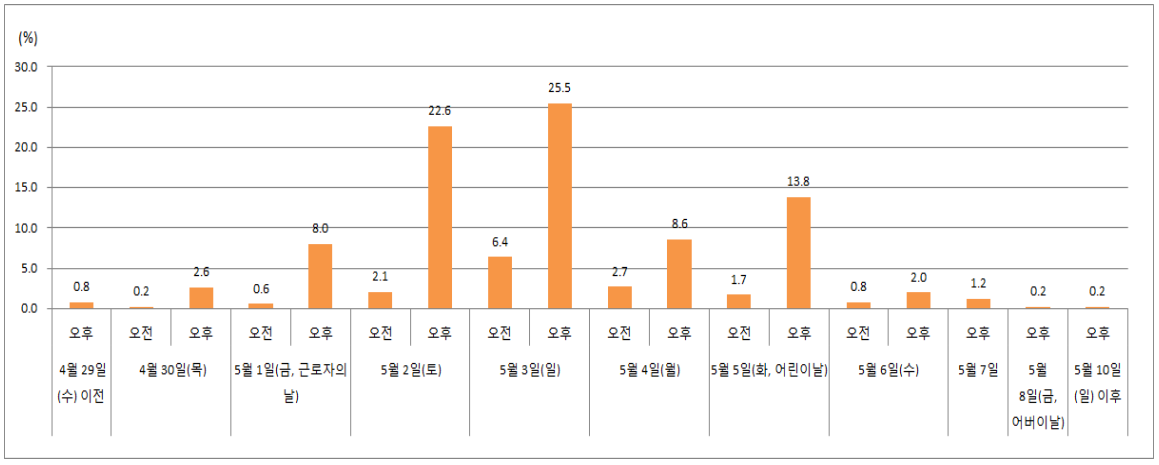
③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에 따르면, '5월 3일(일) 오후'가 25.5%로 가장 높고, '5월 2일(토)'(22.6%), '5월 5일(화, 어린이날)'(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4>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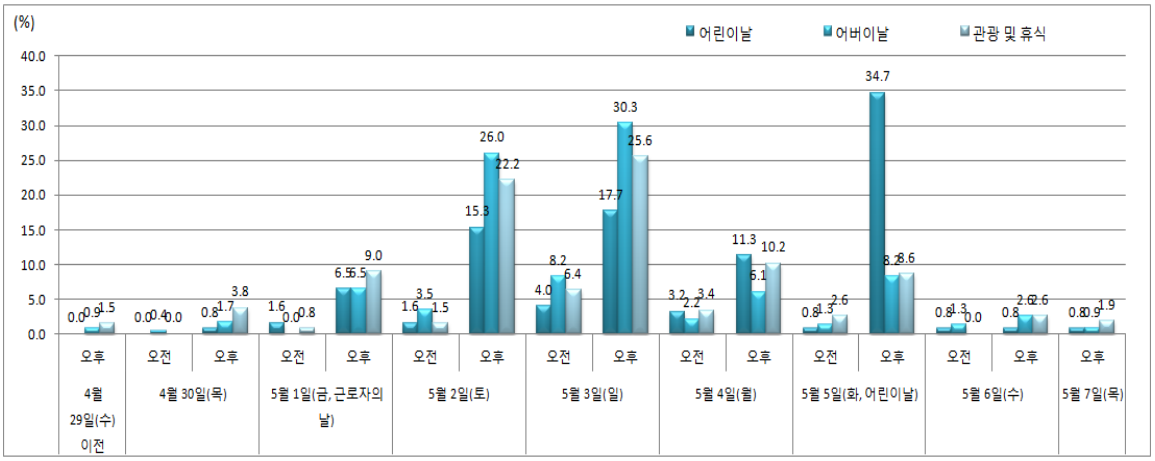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4월 29일 (수) 이전	4월 30일 (목)		5월 1일 (금, 근로자의 날)		5월 2일 (토)		5월 3일 (일)		5월 4일 (월)		5월 5일 (화, 어린이날)		5월 6일 (수)		5월 7일 (목)	5월 8일 (금, 어버이날)	5월 10일 (일) 이후	합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비율	0.8	0.2	2.6	0.6	8.0	2.1	22.6	6.4	25.5	2.7	8.6	1.7	13.8	0.8	2.0	1.2	0.2	0.2	100.0
빈도	6	1	17	4	53	14	149	42	168	18	57	11	91	5	14	8	1	1	660



<그림 3-16>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월 5일(화, 어린이날)' 당일 오후(34.7%)에 돌아오는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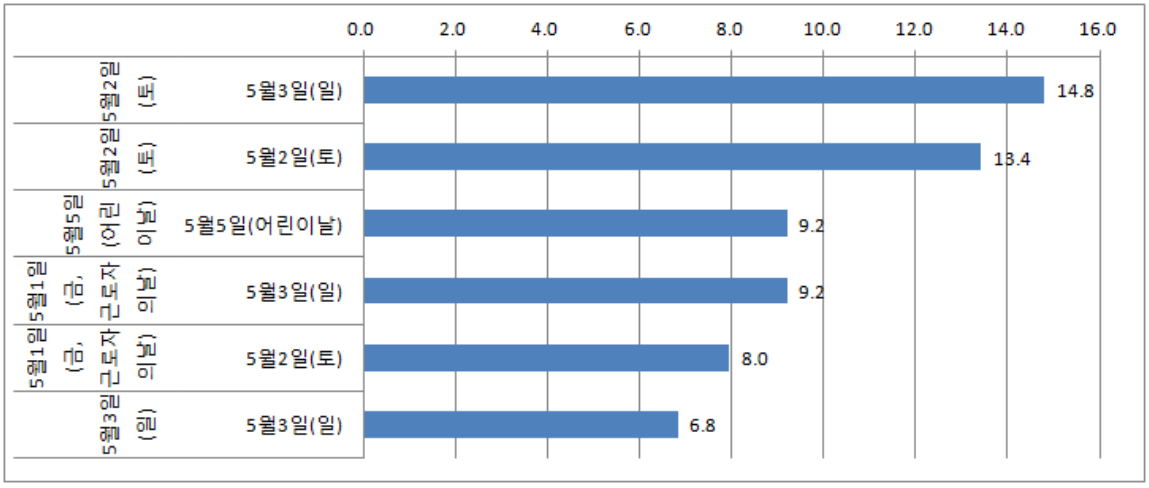


<그림 3-17> 귀가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방문목적별)

3) 출발-귀가일자 분석

①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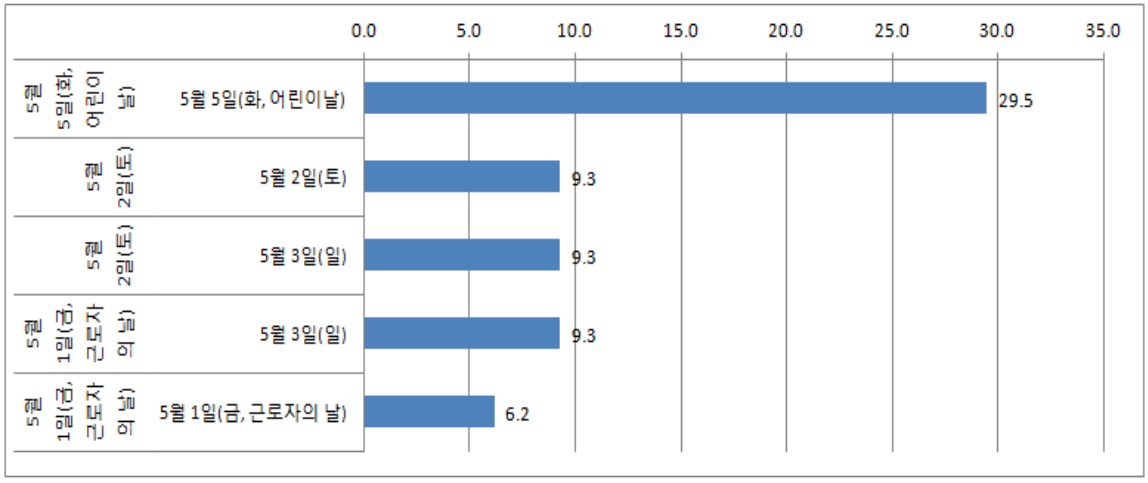
○ 출발-귀가예정일자 분석에 따르면,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5월 3일(일)’에 귀가하는 비율이 1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당일 귀가’(13.4%) 등의 순임



<그림 3-18>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

② 어린이날 목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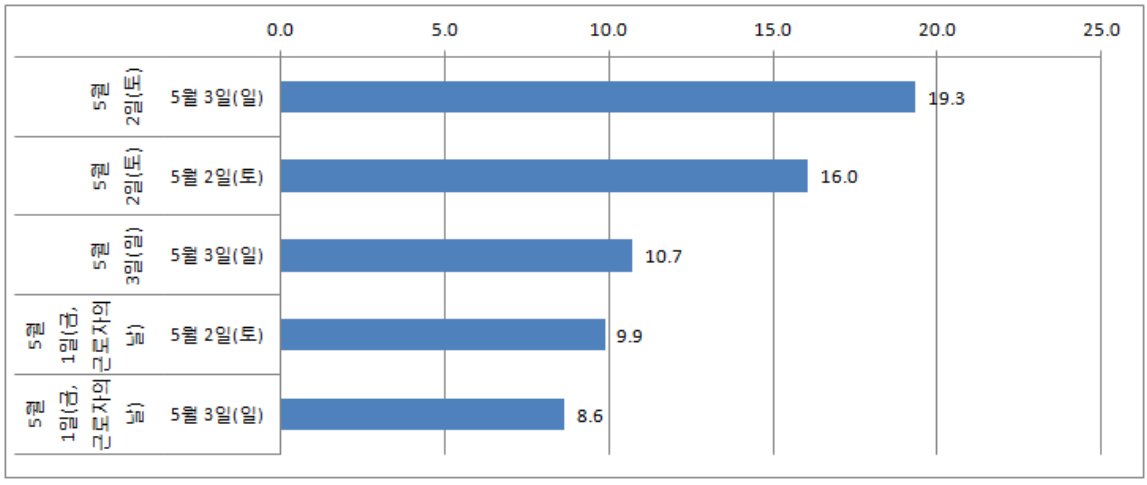
○ 어린이날 목적인 경우 ‘5월 5일(화, 어린이날)’ 당일 이동이 29.5%로 가장 높고, ‘5월 2일(토)’ 당일 이동,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5월 3일(일)’에 도착(각각 9.3%) 순임



<그림 3-19>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어린이날 목적 이동)

③ 어버이날 목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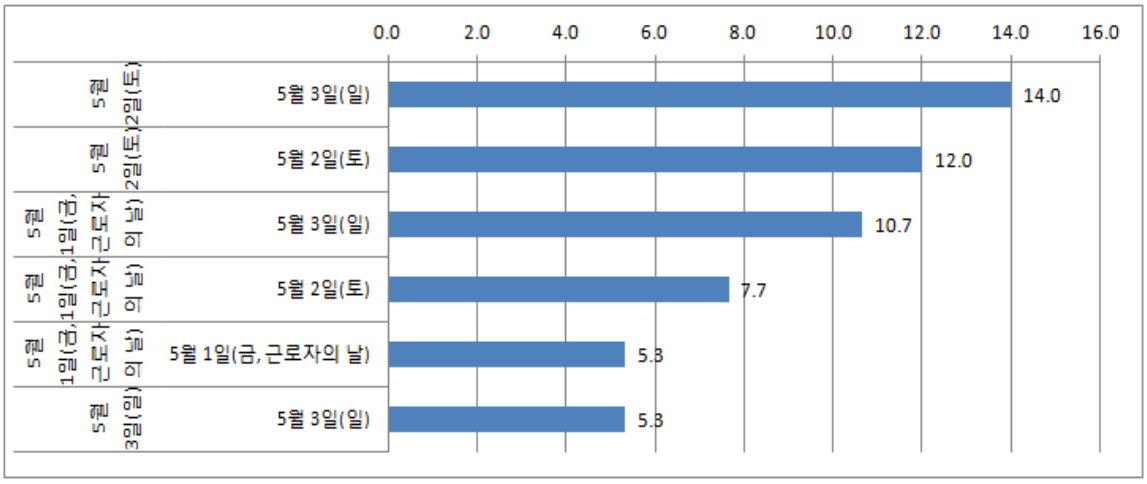
○ 어버이날 목적 이동인 경우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5월 3일(일)'에 도착(19.3%)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당일에 도착(16.0%), '5월 3일(일)'에 출발하여 당일 도착(10.7%) 순임



<그림 3-20>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어버이날 목적 이동)

④ 관광 및 휴식 목적 이동

○ 관광 및 휴식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5월 3일(일)'에 도착(14.0%)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월 2일(토)'에 출발하여 당일에 도착(12.0%),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에 출발하여 '5월 3일(일)'에 도착(10.7%) 등의 순임



<그림 3-21> 출발-귀가 예정일 분석(관광 및 휴식 목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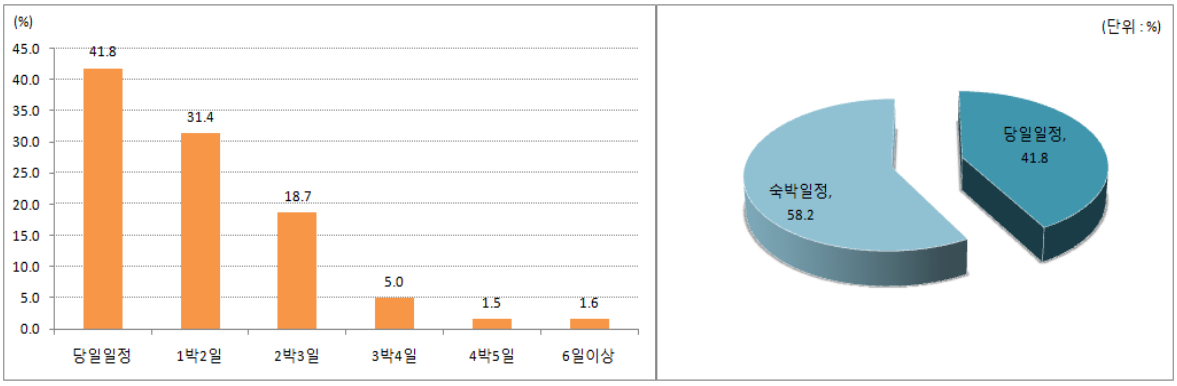
4) 체류일수

- 체류일수에 따르면 당일일정이 41.8%, 숙박일정이 58.2%로 나타남
- 숙박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박 2일'이 31.4%로 가장 높고, '2박 3일'(18.7%), '3박 4일'(5.0%) 순임

<표 3-15> 체류일수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일 일정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6일 이상	합계
비율	41.8	31.4	18.7	5.0	1.5	1.6	100.0
빈도	437	328	195	52	16	17	1,045



<그림 3-22> 체류일수

5) 방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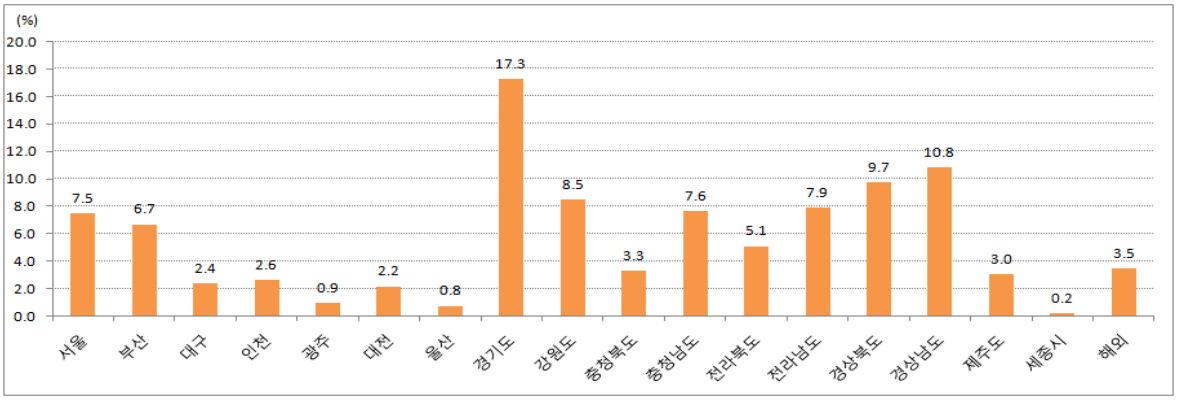
① 방문지역

○ 가정의 달 이동의 방문지역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10.8%), ‘경상북도’(9.7%), ‘강원도’(8.5%), ‘전라남도’(7.9%) 순이며, ‘해외’는 3.5%로 나타남

<표 3-16> 가정의 달 방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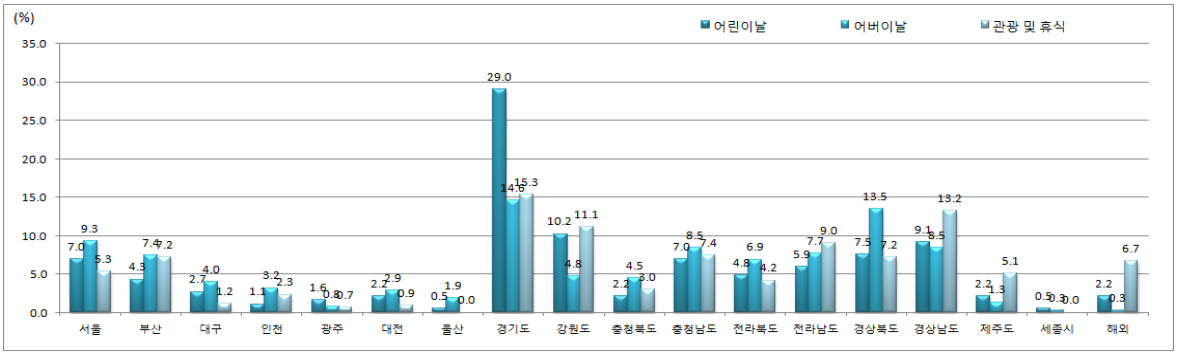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시	해외	합계
비율	7.5	6.7	2.4	2.6	0.9	2.2	0.8	17.3	8.5	3.3	7.6	5.1	7.9	9.7	10.8	3.0	0.2	3.5	100.0
빈도	79	71	25	28	10	23	8	183	90	35	81	54	84	103	115	32	2	11	1,060



<그림 3-23> 가정의 달 방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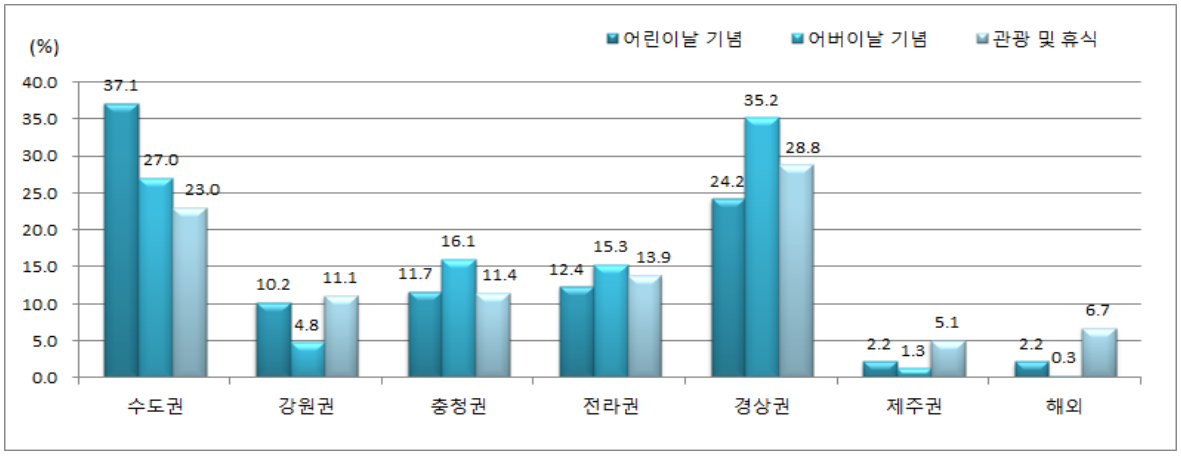
○ 방문목적별로 이동지역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날 목적으로 이동하는 가구는 ‘경기도’(29.0%)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가정의 달 방문지역(방문목적별)

○ 방문목적별로 이동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날 기념으로는 '수도권'(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버이날 기념으로는 '경상권'(35.2%), '충청권'(16.1%), '전라권'(15.3%)을 가장 많이 방문하며,

○ 관광 및 휴식으로는 '강원권'(11.1%), '제주권'(5.1%), '해외'(6.7%)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가정의 달 방문지역(방문목적별)

② 지역내/지역간 이동 분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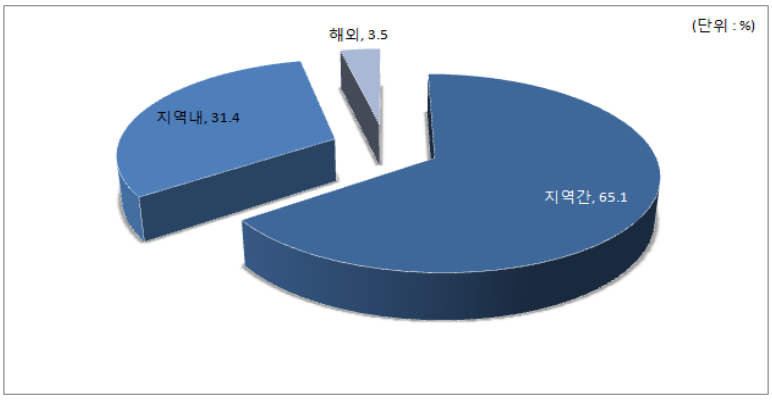
○ 지역내/지역간 이동 분석을 살펴보면, '지역간' 이동이 65.1%, '지역내' 이동이 31.4%로 지역내 이동 대비 지역간 이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지역내/지역간 이동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지역간	지역내	해외	합계
전체	비율	65.1	31.4	3.5	100.0
	빈도	690	333	37	1,060

2) 지역내 지역간 이동 분석은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예를 들어 지역내 이동이란 서울→서울 이동을 말하며, 지역간 이동이란 서울→경기도 이동을 말함



<그림 3-26> 가정의 달 방문지역(지역내/지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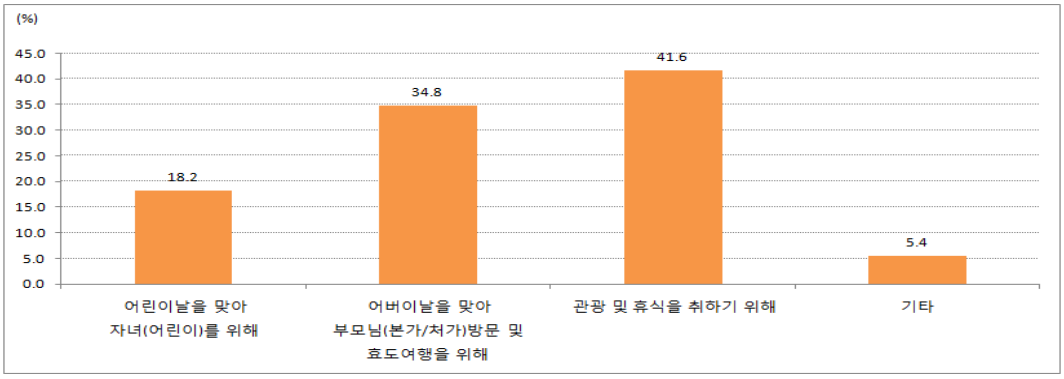
6) 방문목적

- 이동계획이 있는 가구의 방문목적에 따르면,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가 41.6%로 가장 높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34.8%),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18.2%)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등산 등 레포츠 활동', '성묘'(각각 0.9%), '가족모임'(0.8%), '가족방문'(0.7%) 등이 있음

<표 3-18> 방문목적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기타	합계
비율	18.2	34.8	41.6	5.4	100.0
빈도	200	381	456	59	1,096



<그림 3-27> 방문목적

7) 방문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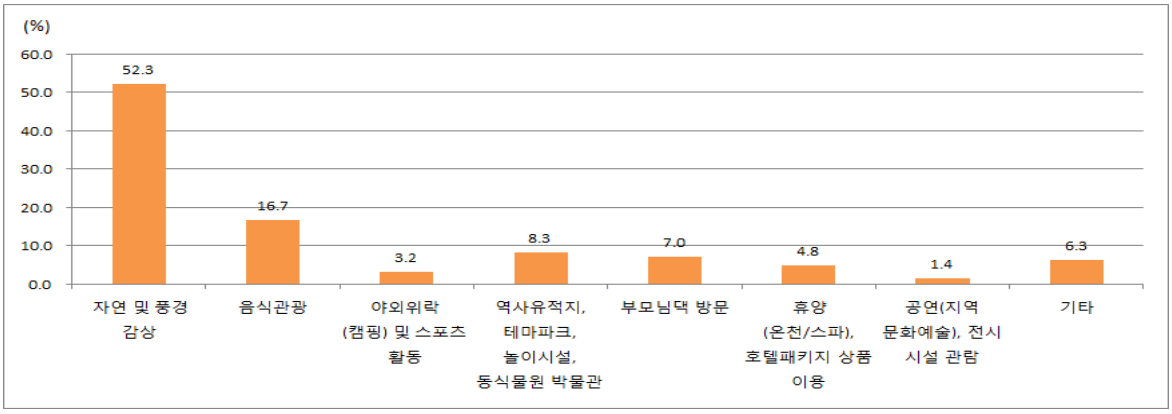
○ 방문지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 및 풍경감상’이 52.3%로 가장 높고, ‘음식관광’(16.7%),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8.3%), ‘부모님댁 방문(7.0%), ‘휴양,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4.8%) 등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방문 및 모임’(1.2%), ‘성묘’, ‘고향방문’(각각 0.5%) 등이 있음

<표 3-19> 방문지 유형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연 및 풍경감상	음식관광	야외위락(캠핑) 및 스포츠활동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부모님댁 방문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이용	공연(지역 문화예술), 전시시설 관람	기타	합계
비율	52.3	16.7	3.2	8.3	7.0	4.8	1.4	6.3	100.0
빈도	549	175	34	87	74	50	15	66	1,050



<그림 3-28> 방문지 유형

8)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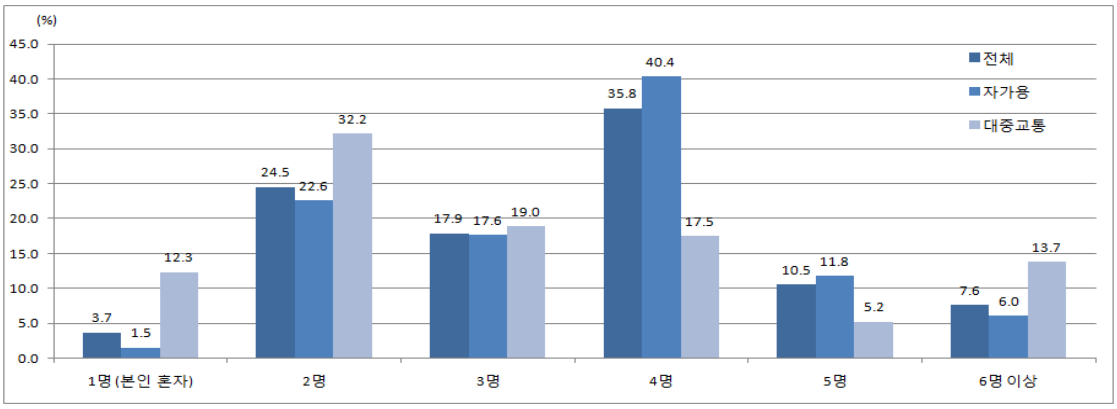
○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중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35.8%로 가장 높고, ‘2명’(24.5%), ‘3명’(17.9%) 순임

○ 이용 교통수단 별로는 자가용(1.5%) 대비 대중교통(12.3%)이 ‘1명’의 비율이 높음

<표 3-20> 동행인 수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전체	비율	3.7	24.5	17.9	35.8	10.5	7.6	100.0
	빈도	39	259	189	378	111	80	1,056
자가용	비율	1.5	22.6	17.6	40.4	11.8	6.0	100.0
	빈도	13	191	149	341	100	51	845
대중교통	비율	12.3	32.2	19.0	17.5	5.2	13.7	100.0
	빈도	26	68	40	37	11	29	211



<그림 3-29>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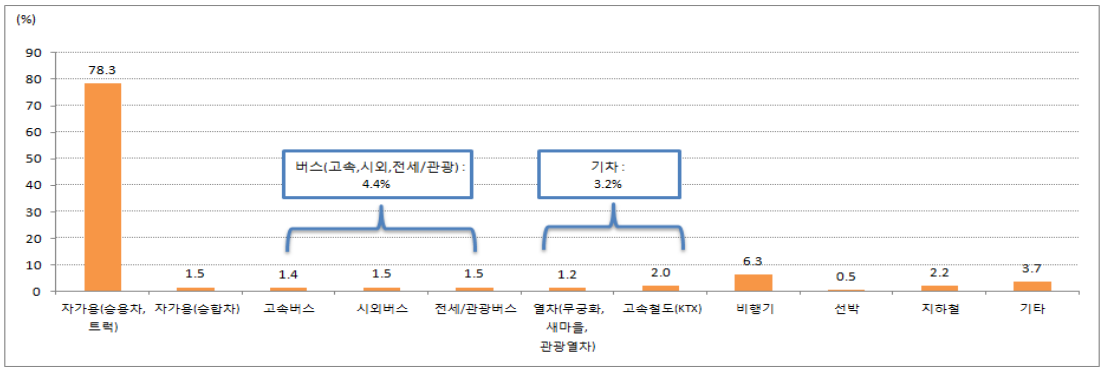
9) 주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이동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79.8%로 가장 높았고, '버스(4.4%, 고속버스 1.4%+시외버스 1.5%+전세/관광버스 1.2%), '기차(3.2%, 일반열차 1.2%+고속철도 2.0%)' 순임

<표 3-21> 주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승용차, 트럭)	자가용 (승합차)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관광 버스	열차 (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고속 철도 (KTX)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비율	78.3	1.5	1.4	1.5	1.5	1.2	2.0	6.3	0.5	2.2	3.7	
빈도	848	16	15	16	16	13	22	68	5	24	40	



<그림 3-30> 주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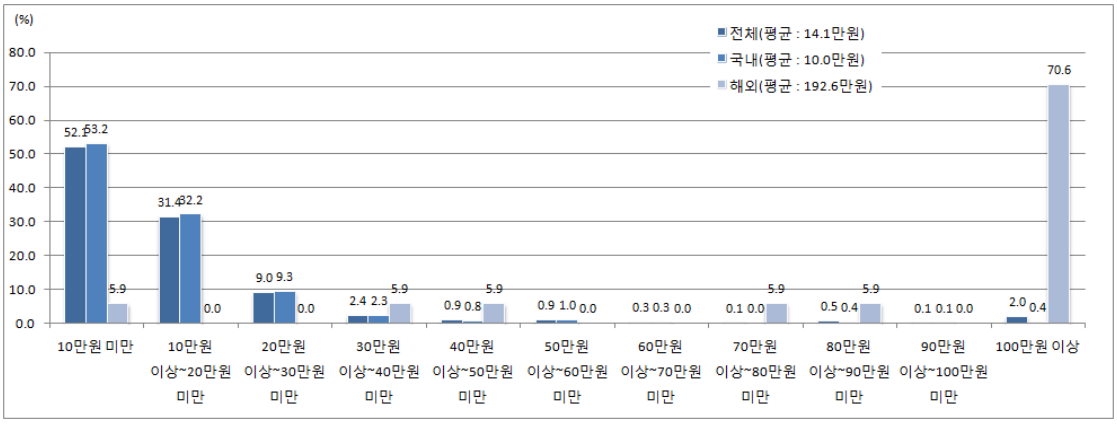
10) 교통비용

○ 가정의 달 이동 교통비용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4.1만원이며, 여행지가 국내인 경우 평균 10.0만원, 여행지가 해외인 경우 평균 192.6만원이 들것으로 예상됨

<표 3-22> 교통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합계	교통비용 평균
전체	비율	52.1	31.4	9.0	2.4	0.9	0.9	0.3	0.1	0.5	0.1	2.0	100.0	14.1
	빈도	386	233	67	18	7	7	2	1	4	1	15	741	
국내	비율	53.2	32.2	9.3	2.3	0.8	1.0	0.3	-	0.4	0.1	0.4	100.0	10.0
	빈도	385	233	67	17	6	7	2	-	3	1	3	724	
해외	비율	5.9	-	-	5.9	5.9	-	-	5.9	5.9	-	70.6	100.0	192.6
	빈도	1	-	-	1	1	-	-	1	1	-	12	17	



<그림 3-31> 교통비용

라.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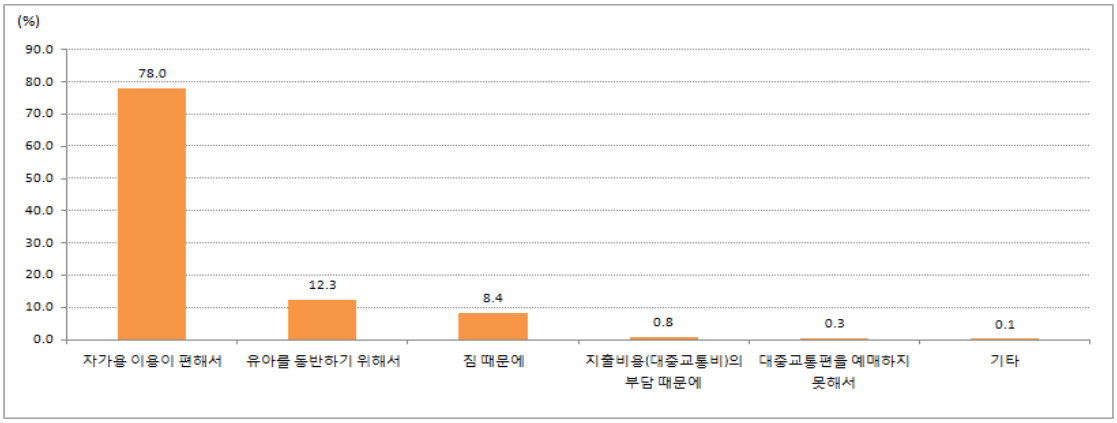
1)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이 편해서'가 78.0%로 가장 많고,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12.3%), '짐 때문에'(8.4%) 등으로 나타남

<표 3-23>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이용이 편해서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짐 때문에	지출비용 (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기타	전체
비율	78.0	12.3	8.4	0.8	0.3	0.1	100.0
빈도	674	106	73	7	3	1	864



<그림 3-32>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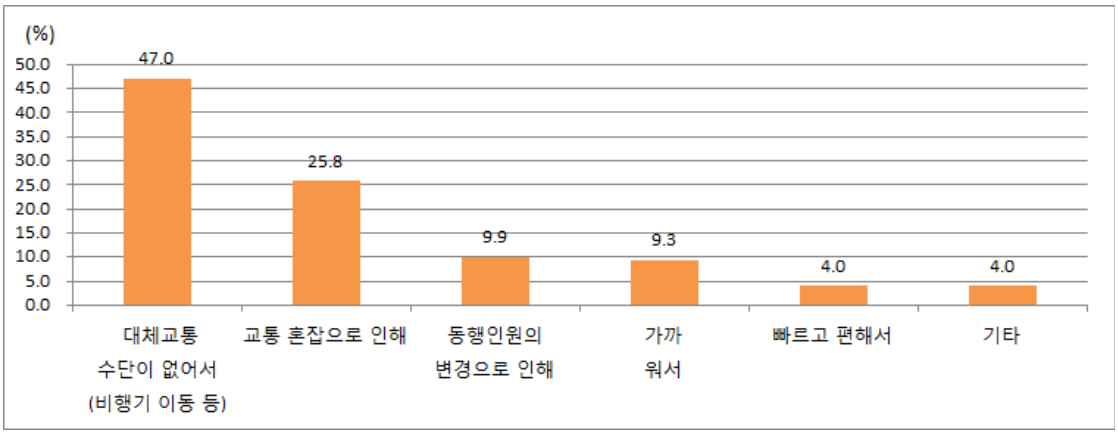
2)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가정의 달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이 47.0%로 가장 높고, '교통혼잡으로 인해'(25.8%),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9.9%), '가까워서'(9.3%) 등의 순임

<표 3-24>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 (비행기 이동 등)	교통혼잡으로 인해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가까워서	빠르고 편해서	기타	합계
비율	47.0	25.8	9.9	9.3	4.0	4.0	100.0
빈도	71	39	15	14	6	6	151



<그림 3-33>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3) 추가휴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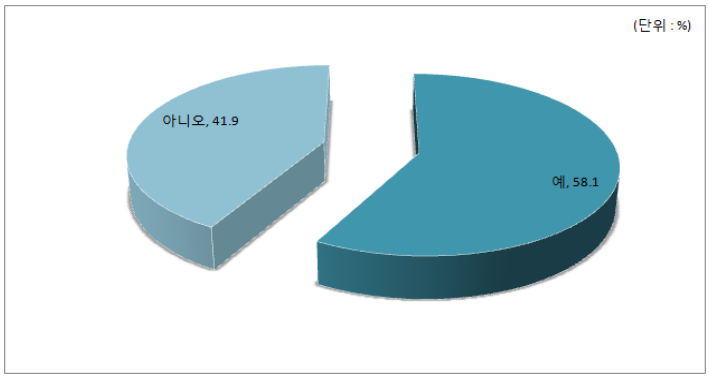
①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 예정 여부에 따르면 58.1%가 휴식할 예정인 반면, 41.9%는 휴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5>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58.1	41.9	100.0
	빈도	2,677	1,933	4,610



<그림 3-34> 5월 1일(근로자의 날) 휴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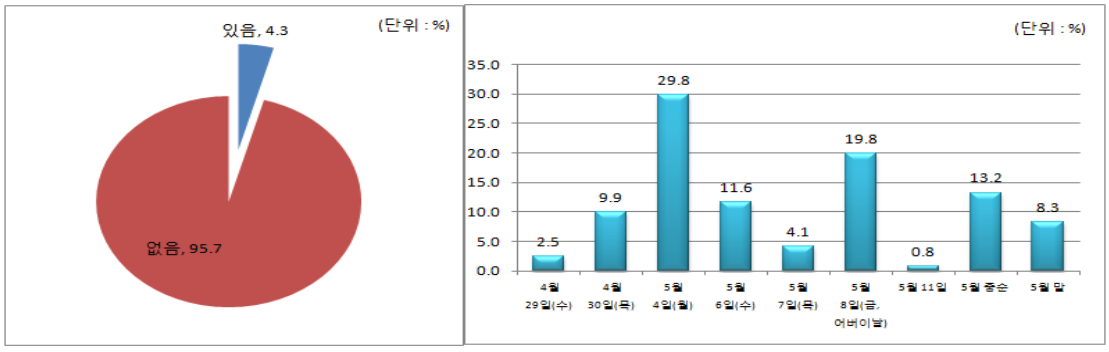
② 추가휴가 계획 및 추가휴가일

○ 공휴일 이외에 가정의 달 추가휴가 계획에 따르면, 4.3%가 추가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구체적인 추가휴가일에 따르면 '5월 4일(월)'이 29.8%로 가장 높고, '5월 8일(금, 어버이날)'(19.8%), '5월 중순'(13.2%), '5월 6일(수)'(11.6%) 등의 순임

<표 3-26> 추가휴가 계획 및 추가휴가일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있음	없음	합계
전체	비율	4.3	95.7	100.0
	빈도	208	4,639	4,847



<그림 3-35> 추가휴가 계획 및 추가휴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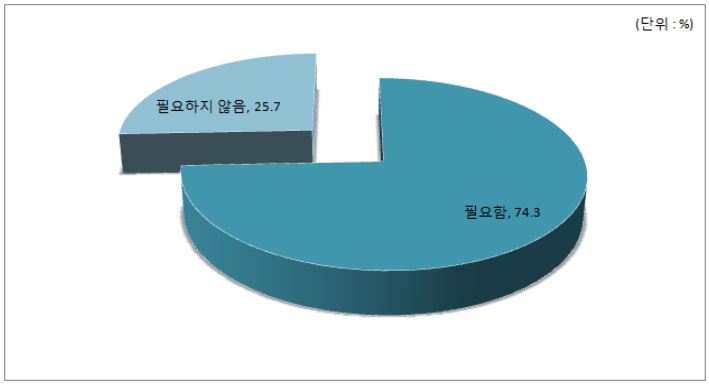
4)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 가정의 달 연휴 기간에도 하계휴가, 설, 추석과 같은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27>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단위: 비율(%), 빈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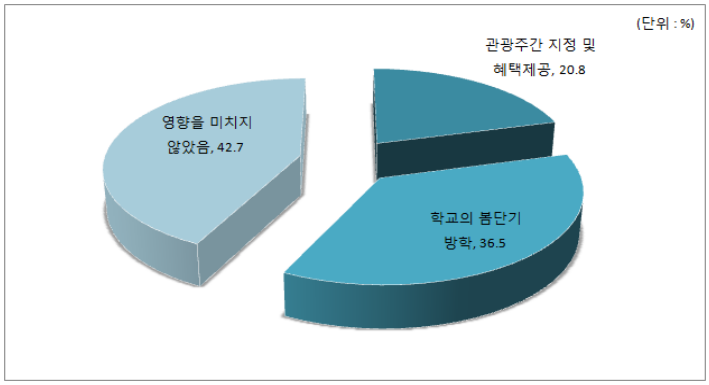
구 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74.3	25.7	100.0
	빈도	3,216	1,111	4,327



<그림 3-36> 가정의 달 교통대책 필요성

5) 관광주간/봄 단기방학이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미친 영향

○ 관광주간 지정 및 혜택제공이나 학교의 봄단기방학 중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학교의 봄 단기방학'이 36.5%, '관광주간 지역 및 혜택제공'이 20.8%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도 42.7%임



<그림 3-37> 관광주간/봄 단기방학이 가정의 달 이동계획에 미친 영향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5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최근 6년간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출발 및 도착 등 가정의 달 연휴 특별 교통수요는 노동자의 날, 어린이날에 집중될 것이며, 평상시 통행과 관광휴식, 어버이날 기념, 어린이날 기념 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도착비율을 적용하여 출발 및 도착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가정의 달 연휴를 중심으로 한 5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5일간 통행은 전년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이동비율, 관광휴식, 어버이날 기념, 어린이날 기념 통행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통행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2014년 해당 기간 수단별 수송실적 조사	○ 전년도인(2014년)의 수단별 수송실적을 조사하여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에 활용
↓	
2015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통행 특성 설문조사	○ 전년도(2014년)의 이동여부와 올해(2015년)의 이동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행패턴을 예측 ○ 지역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단위로 전화설문조사
↓	
수단별 수송수요 (권역간 O/D) 예측	○ 2014년 수송실적자료와 2015년 통행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5년 권역간 수송수요를 예측 ○ 과거년도 연휴기간 통행패턴 변화 참조

<그림 3-38>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00만명, 1일 평균 640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평시(367만명/일)보다 74.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중 여행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4.0%,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1.3%, 철도가 3.5%, 항공과 해운이 각각 0.6%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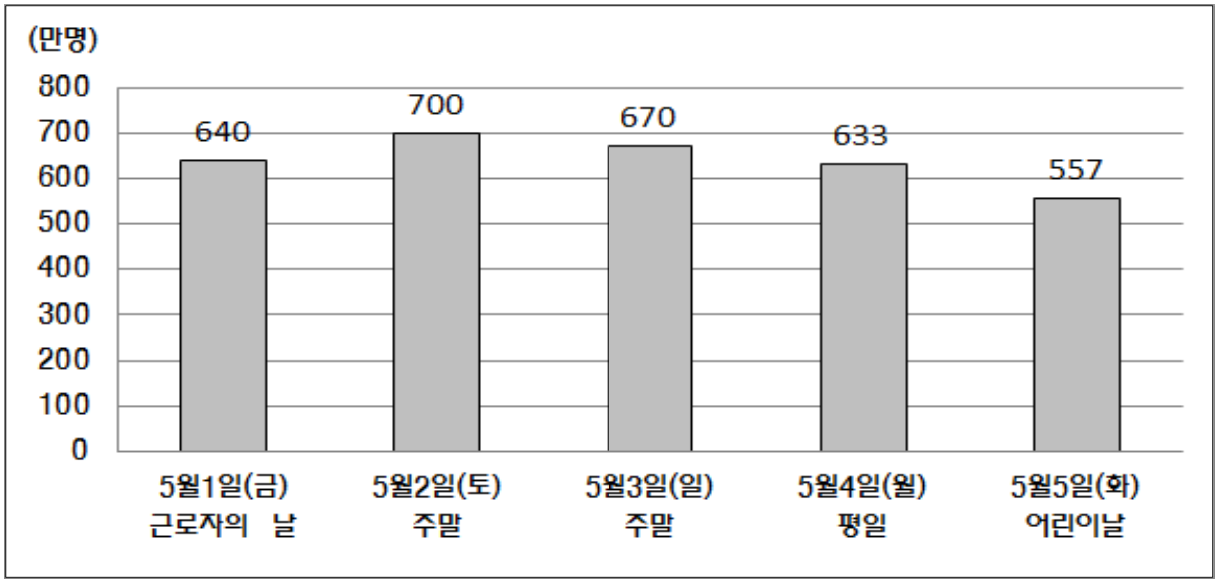
<표 3-28>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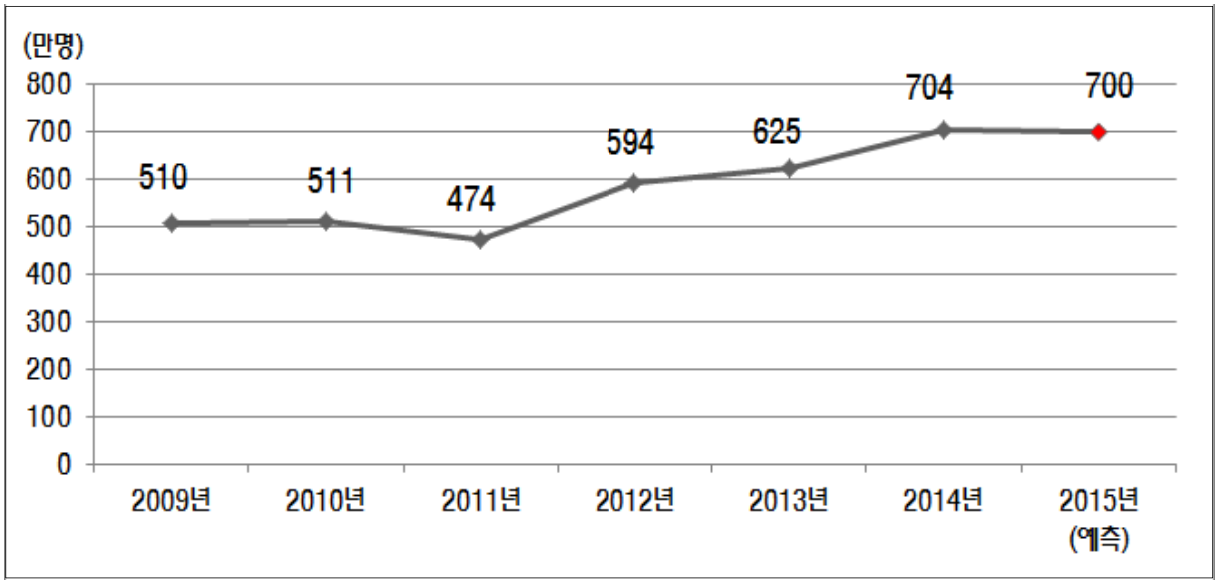
교통수단 \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가정의 달 연휴 기간(´15.5.1~5.5)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도로	승용차		2,743	5,377	26,884	84.0	196.0
	버스	고속버스	56	112	558	1.8	200.0
		시외·전세	659	611	3,053	9.5	92.7
철도			164	225	1,127	3.5	137.2
항공			33	40	198	0.6	121.2
해운			18	37	185	0.6	205.6
합계			3,673	6,402	32,005	100.0	174.3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5월 2일(토요일) 700만명으로 작년 대비(704만명, 5월 3일, 토요일) 0.6% 감소



<그림 3-39>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3-40> 연도별 가정의 달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 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1~5.5, 5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791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443천명으로 106.4%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6.4% 과대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36.6%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80.6% 증가

<표 3-29>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평시 (일평균) (A)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D) (B÷C×100) (%)	오차율[3] (D-100) (%)	평시대비 (C÷A×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B)	기간 전체	1일평균 (C)	기간 전체			
승용차	2,743	5,377	26,884	5,038	25,191	106.7	▲6.7	183.7
고속버스	56	112	558	82	410	136.6	▲36.6	146.4
철도	164	225	1,127	237	1,185	94.9	▼5.1	144.5
항공	33	40	198	39	197	102.6	▲2.6	118.2
해운	18	37	185	46	232	80.4	▼19.6	255.6
전체	3,014	5,791	28,952	5,443	27,215	106.4	▲6.4	180.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4장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4장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6월 11일(목)~2015년 6월 19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4월~2015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7일간: 2014.07.25~8.10)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하계휴가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3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3년 하계휴가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버스, 해운을 제외하고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 특히 철도는 일평균 42,663명(11.6%)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반면 시외/전세와 해운은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표 4-1> 201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 (18일) (A)	2014년 (1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4,144,322	4,203,231	74,597,799	71,454,929	58,909	-3,142,870	1.4
고속버스	인	142,169	141,294	2,559,038	2,401,996	-875	-157,042	-0.6
시외/전세	인	1,280,544	1,008,125	23,049,800	17,138,124	-272,420	-5,911,676	-21.3
철도	인	368,961	411,624	6,641,304	6,997,611	42,663	356,307	11.6
항공	인	71,810	73,680	1,292,586	1,252,564	1,870	-40,022	2.6
해운	인	88,279	50,322	1,589,020	855,468	-37,957	-733,552	-43.0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4(금)~8.9(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7월 1일(수)~5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1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 : 2,018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8%)

나. 조사내용

○ 올해(2015년) 휴가 관련

-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 (이미 다녀왔을 경우) 하계휴가 시기,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수, 가족구성원 유형 등), 자가용 보유여부,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하계휴가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및 해당시기에 여행을 계획한 이유,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일수, 하계휴가 여행지 및 여행지 유형, 주 교통수단, 호남선 KTX개통이 전라권 방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적지에서 렌터카 이용계획,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하계휴가여행 동행인(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 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신뢰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변경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하계휴가여행 지출비용(2014년,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

○ 작년(2014년) 휴가 관련

- 작년 여름 휴가여행 여부, 작년 여름 휴가여행 시기, 작년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주거형태, 직업

다. 조사표본 선정

○ 하계휴가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5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 대상 세대수를 기준, 표본율 0.04%로 총 9,100세대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4-2>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4년 하계					2015년 하계				
	전체 세대수[1]	표본		유효표본		전체 세대수[2]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9,440	1,835	20.4	470	25.6	4,199,356	1,833	20.1	368	18.2
부산광역시	1,410,558	617	6.9	144	23.3	1,428,115	623	6.8	136	6.7
대구광역시	964,444	422	4.7	112	26.5	976,576	426	4.7	99	4.9
인천광역시	1,126,619	492	5.5	140	28.5	1,143,404	499	5.5	124	6.1
광주광역시	567,451	247	2.7	61	24.7	577,428	252	2.8	64	3.2
대전광역시	589,333	257	2.9	76	29.6	594,811	260	2.9	53	2.6
울산광역시	435,848	190	2.1	64	33.7	446,572	195	2.1	69	3.4
경 기 도	4,742,158	2,074	23.0	616	29.7	4,821,745	2,105	23.1	463	22.9
세 종 시	53,101	30	0.3	5	16.7	71,570	32	0.4	10	0.5
강 원 도	668,750	292	3.2	69	23.6	678,390	296	3.3	43	2.1
충청북도	649,024	283	3.1	95	33.6	662,079	289	3.2	67	3.3
충청남도	865,343	378	4.2	97	25.7	877,228	383	4.2	85	4.2
전라북도	769,886	336	3.7	94	28.0	777,764	340	3.7	100	5.0
전라남도	820,119	359	4.0	100	27.9	826,124	361	4.0	83	4.1
경상북도	1,144,241	500	5.6	134	26.8	1,158,048	506	5.6	113	5.6
경상남도	1,330,005	582	6.5	153	26.3	1,354,492	591	6.5	127	6.3
제 주 도	241,639	106	1.2	17	16.0	250,572	109	1.2	14	0.7
전국	20,567,959	9,000	100.0	2,447	100.0	20,844,274	9,100	100.0	2,018	100.0

주: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5)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5)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0.3%)가 23표본으로 추출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하계휴가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 리스트, 즉, 2015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여행여부 및 하계휴가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

- 전년대비 ‘간다’(27.2%→22.2%)는 비율이 줄어들고, ‘미정’(16.6%→22.6%)이 크게 증가함
- 여행비율의 감소는 ‘휴가비용에 대한 부담’(21.1%→24.1%)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4.1%)으로 분석됨
-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미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작년대비 ‘7월 초순’(16.5%→21.2%)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하계휴가여행 시기

- 휴가여행 시기로는 ‘8월 1일(토)~8월 7일(금)’이 38.2%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23.9%→38.2%)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날짜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49.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사람(53.8%)들의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의 비율이 그 외 기간(40.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이유) 전년대비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의 비율이 상승(49.5%→53.8%)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 국내휴가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92.3%→91.4%)한 반면,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7.7%→8.6%)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권’과 ‘강원내륙권’ 등의 비율은 감소하고, ‘남해안권’, ‘제주권’ 등으로의 여행비율이 증가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유형 및 체류일수

- 여행지 유형은 ‘바다나 계곡’(70.2%), 체류일수는 ‘2박 3일’(44.1%)이 가장 높음
- (여행지 유형) ‘바다나 계곡’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이 증가
- (체류일수) ‘2박 3일’ 및 ‘3박 4일’이 감소한 반면, ‘1박 2일’과 해외여행 비율 증가에 따라 ‘4일 이상’이 증가함

○ 주 이용 교통수단

- 제주권과 해외로의 여행 증가로 ‘비행기’ 이용률(14.4%→17.0%)이 증가함
-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
- 자가용(승용차+승합차) 이용자는 자가용이 편리해서 이용하는 비율(77.2%)이 높았으며,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83.9%)임

○ 고속도로 이용률 및 주 이용 고속도로

- 고속도로 이용률은 소폭 증가(86.1%→86.8%)했으며,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선’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남해선’, ‘호남선’ 등의 이용률이 증가함

○ 동행인 수 및 동행인 유형

- 동행인 수는 ‘4명’(42.4%)이 가장 많고, ‘동행인 유형’은 ‘가족/친지’의 비율이 높음
- (동행인 수) 동행인은 2명~5명의 비율은 증가하고, 1명(본인혼자)과 6명 이상은 감소함
- (동행인 유형) 가족/친지, 친구는 증가하고, 가족/친지+친구는 감소함

○ 예상소요시간

- 예상소요시간은 ‘3시간~4시간 미만’이 30.9%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시간 미만~4시간 미만’은 증가한 반면, ‘4시간 이상’은 감소함

○ 휴가비용

- 올해(2015년) 평균 약 94.9만원, 국내여행 평균 64.0만원, 해외여행 평균 430.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전체 평균비용(90.3만원→94.9만원)과 국내 평균비용(61.8만원→64.0만원)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해외 평균비용(437.4만원→430.4만원)은 감소함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50~60만원'이 24.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4.1%, '30~40만원' 16.4%의 순서임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2.9%로 가장 높았고, '500~600만원' 16.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7%의 순서임

○ 호남선 KTX개통의 영향

- 전라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KTX를 이용할 예정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호남선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83.3%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착지에서의 렌터카 이용률

-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착지에서의 렌터카 이용비율은 39.0%임

○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주요도로의 혼잡 예상 정도로는 혼잡이 50.7%, 보통 28.8%, 원활 20.5% 순으로 나타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중 65.2%(이용 40.9%+보통 24.3%)가 평소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며, 수신처로는 전년대비 '휴대전화, 스마트폰'(48.8%→58.3%)이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비게이션은 감소(27.4%→14.7%)함
- 휴대전화/스마트폰 이용자는 주로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37.8%)를 이용하고, 전년대비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43.6%→37.8%)의 비율은 감소하고,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29.8%→30.4%), 포털사이트(19.6%→24.0%), 공공기관 홈페이지(5.4%→5.8%)의 비율이 증가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노선변경 정도

- 평소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도는 98.7%(신뢰함 75.3%+보통 23.4%), 노선변경 정도는 68.3%(자주변경 31.5%+보통 36.8%)로 높게 나타남

○ 메르스의 영향으로 휴가시기가 늦춰졌는지 여부

- 휴가시기가 늦춰진 응답자의 14.9%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최근 가족여행 시기에 따르면 가정의 달인 '5월 중'이 33.8%로 가장 높고, '6월 중' 30.3%, '4월 중' 18.5% 등의 순임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금번 하계 특별교통 대책 수립시 휴가철 교통대책 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및 방역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83.4%로 나타남

나.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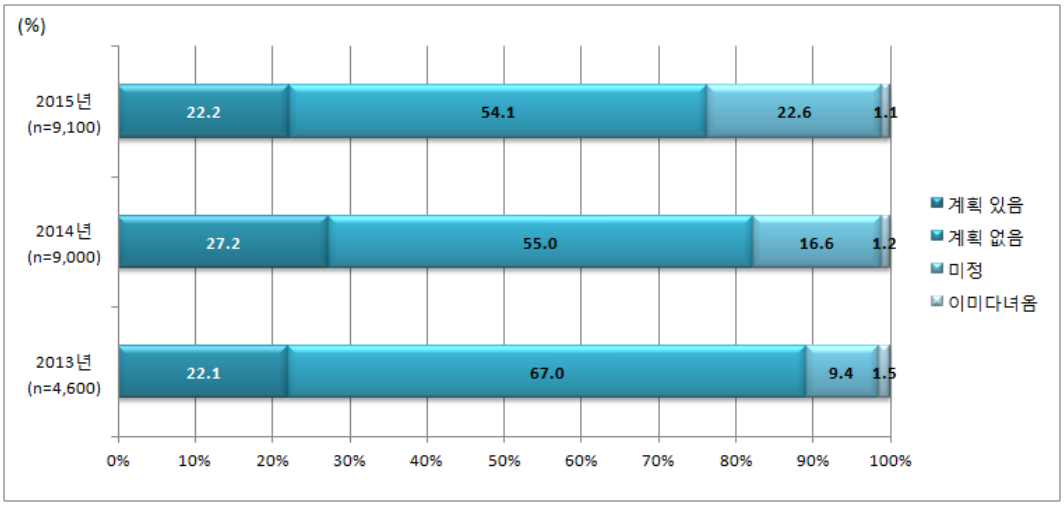
1) 올해(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올해 하계휴가시 여행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가구의 22.2%는 '하계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1.1%임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계휴가 기간 중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2.1%, 2014년 27.2%, 2015년 22.2%로 2013년에서 2014년 증가하였다가 2015년 감소함
- '미정' 응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9.4%→16.6%→22.6%)함

<표 4-3>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여행 감	여행 안감	미정	이미 다녀옴	합계
2015년	비율	22.2	54.1	22.6	1.1	100.0
	빈도	2,018	4,926	2,055	101	9,100
2014년	비율	27.2	55.1	16.6	1.2	100.0
	빈도	2,447	4,955	1,492	106	9,000
2013년	비율	22.1	67.0	9.4	1.5	100.0
	빈도	1,016	3,081	434	69	4,600



<그림 4-1>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7) 2013년까지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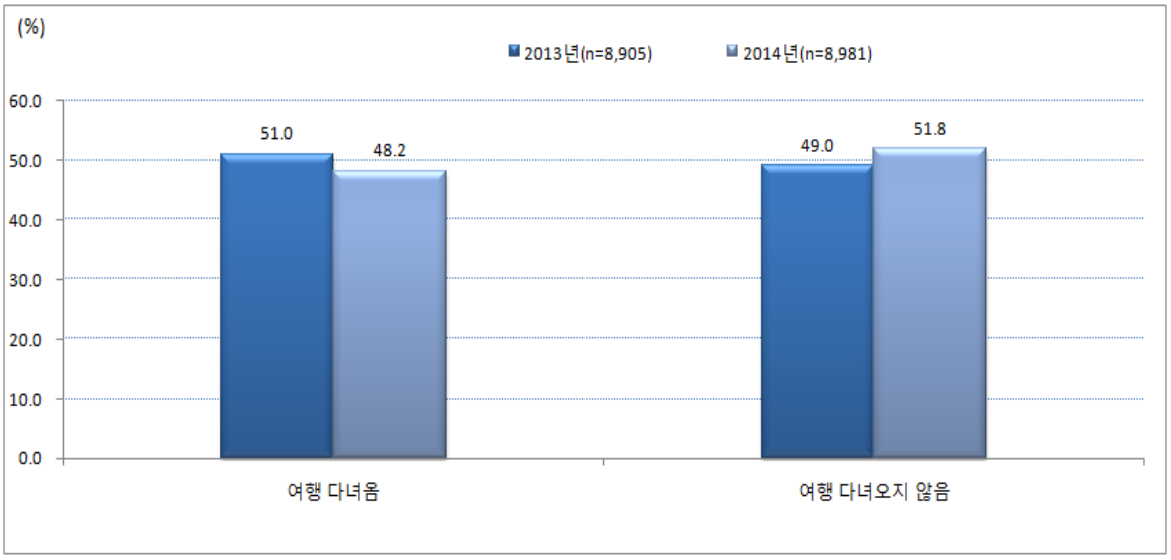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n=9,100) 중 48.2%가 작년(2014년)에 하계휴가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 중 출발지역이 8개시도인 응답자의 49.0%가 작년에 하계휴가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표 4-4>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여행 다녀옴	여행 다녀오지 않음	합계
2014년	전국	비율	48.2	51.8	100.0
		빈도	4,328	4,653	8,981
	8개시도	비율	49.0	51.0	100.0
		빈도	2,993	3,113	6,106
2013년	전국	비율	51.0	49.0	100.0
		빈도	4,543	4,362	8,905
	8개시도	비율	51.3	48.7	100.0
		빈도	3,107	2,952	6,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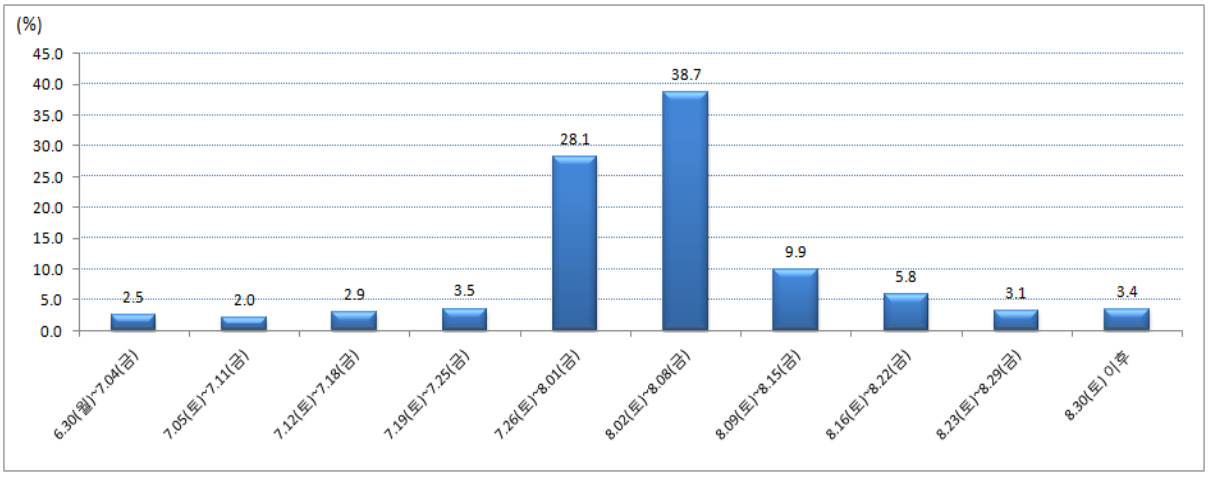
<그림 4-2>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작년(2014년)에 여행을 다녀온 응답자의 여행시기를 살펴보면, '8.2(토)~8.8(금)'이 38.7%로 가장 높고, '7.26(토)~8.1(금)'이 28.1%, '8.9(토)~8.15(금)' 9.9% 순임

<표 4-5>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30(월) ~ 7.04(금)	7.05(토) ~ 7.11(금)	7.12(토) ~ 7.18(금)	7.19(토) ~ 7.25(금)	7.26(토) ~ 8.01(금)	8.02(토) ~ 8.08(금)	8.09(토) ~ 8.15(금)	8.16(토) ~ 8.22(금)	8.23(토) ~ 8.29(금)	8.30(토) 이후	합계
비율	2.5	2.0	2.9	3.5	28.1	38.7	9.9	5.8	3.1	3.4	100.0
빈도	99	81	117	140	1,119	1,542	394	232	125	134	3,983



<그림 4-3> 작년(2014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3)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

○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33.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24.1%)',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9.8%)' 순이고,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으로'도 4.1%임

○ 기타 이유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려서'(각각 0.7%), '별다른 이유 없음', '귀찮아서'(각각 0.6%) 등임

○ '생업(사업)상의 이유로'는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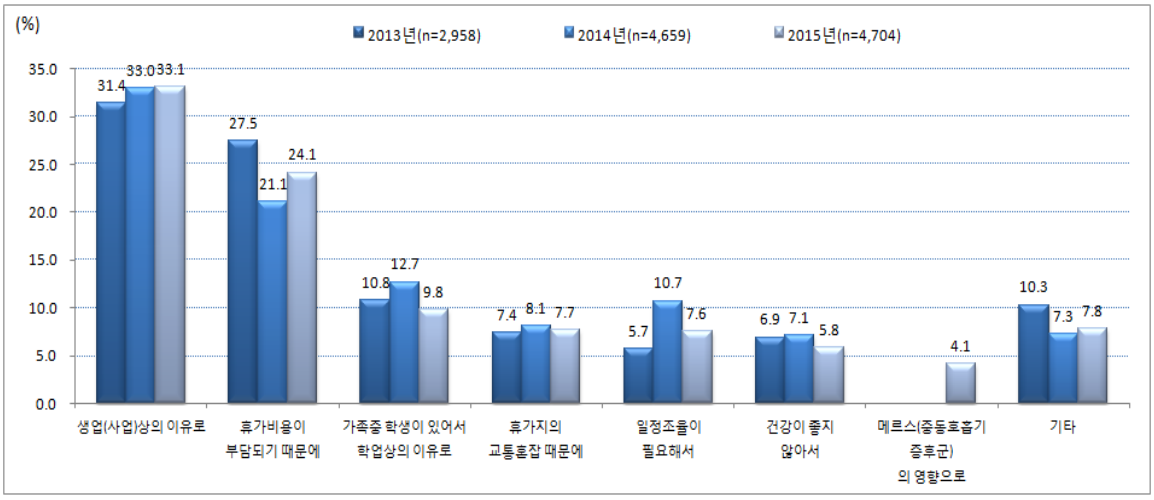
○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는 작년(2014년)대비 증가(21.1%→24.1%)함

○ 8개시도 대비 전국의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여행을 가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의 비율은 낮음

<표 4-6>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합계
2015년	전국	비율	33.1	24.1	9.8	7.7	7.6	5.8	11.9	100.0
		빈도	1,556	1,135	463	360	356	273	561	4,704
	8개 시도	비율	31.8	24.2	10.2	8.3	7.6	6.0	12.0	100.0
		빈도	1,004	766	322	261	240	189	380	3,162
2014년	전국	비율	33.0	21.1	12.7	8.1	10.7	7.1	7.3	100.0
		빈도	1,537	983	590	377	499	331	342	4,659
	8개 시도	비율	31.4	21.8	13.6	8.7	10.3	7.3	6.8	100.0
		빈도	989	687	428	274	323	231	215.0	3,147
2013년		비율	31.4	27.5	10.8	7.4	5.7	6.9	10.3	100.0
		빈도	929	812	319	220	169	203	306	2,958



<그림 4-4>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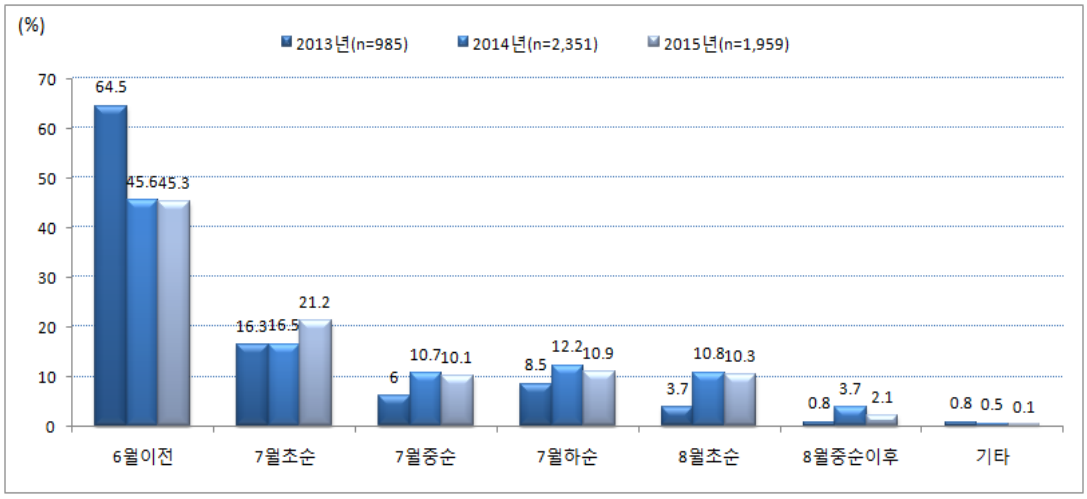
다.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하계휴가 여행계획있음 응답자)

- 조사 시점에서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했다고 응답한 경우,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운 시점 또는 세우는 시점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5.3%는 '6월 이전' 하계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월 초순' 시점에 21.2%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작년(2014년) 대비 '7월 초순'에 계획을 세운다는 응답이 증가함

<표 4-7>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이전	7월 초순	7월 중순	7월 하순	8월 초순	8월 중순 이후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45.3	21.2	10.1	10.9	10.3	2.1	0.1	100.0
		빈도	888	416	197	214	201	42	1	1,959
	8개 시도	비율	46.2	22.3	9.3	10.6	9.4	2.1	0.1	100.0
		빈도	620	299	125	142	126	28	1	1,341
2014년	전체	비율	45.6	16.5	10.7	12.2	10.8	3.7	0.5	100.0
		빈도	1,072	387	251	287	255	88	11	2,351
	8개 시도	비율	47.4	15.3	10.2	12.2	10.6	4.0	0.3	100.0
		빈도	765	247	164	197	171	65	5	1,614
2013년		비율	64.5	16.3	6.0	8.5	3.7	0.8	0.8	100.0
		빈도	635	161	59	84	36	8	8	985



<그림 4-5>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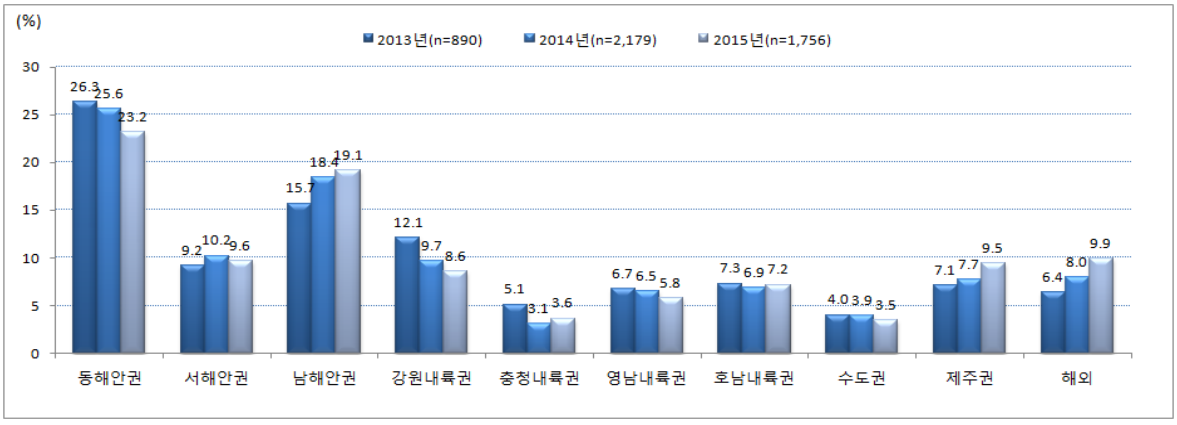
라. 하계휴가 여행지역

- 하계휴가시 여행 예정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해안권’으로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23.2%로 가장 많고, ‘남해안권(19.1%)’, ‘서해안권(9.6%)’ 순임
- ‘해외’로의 여행은 9.9%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여행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동해안권’과 ‘강원내륙권’, ‘영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남해안권’, ‘제주권’, ‘해외’는 증가함
- 2014년 대비 2015년 ‘해외’여행은 1.9% 증가함

<표 4-8>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내륙권	충청내륙권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23.2	9.6	19.1	8.6	3.6	5.8	7.2	3.5	9.5	9.9	100.0
		빈도	407	169	336	151	64	102	126	61	166	174	1,756
	8개 시도	비율	23.7	10.1	17.6	9.3	3.7	6.6	5.8	3.5	8.8	10.9	100.0
		빈도	288	123	214	113	45	80	70	42	107	132	1,214
2014년	전체	비율	25.6	10.2	18.4	9.7	3.1	6.5	6.9	3.9	7.7	8.0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175	2,179
	8개 시도	비율	27.6	10.4	16.9	10.5	2.9	6.3	5.6	3.9	7.5	8.4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26.0	1,503
2013년		비율	26.3	9.2	15.7	12.1	5.1	6.7	7.3	4.0	7.1	6.4	100.0
		빈도	234	82	140	108	45	60	65	36	63	57	890



<그림 4-6>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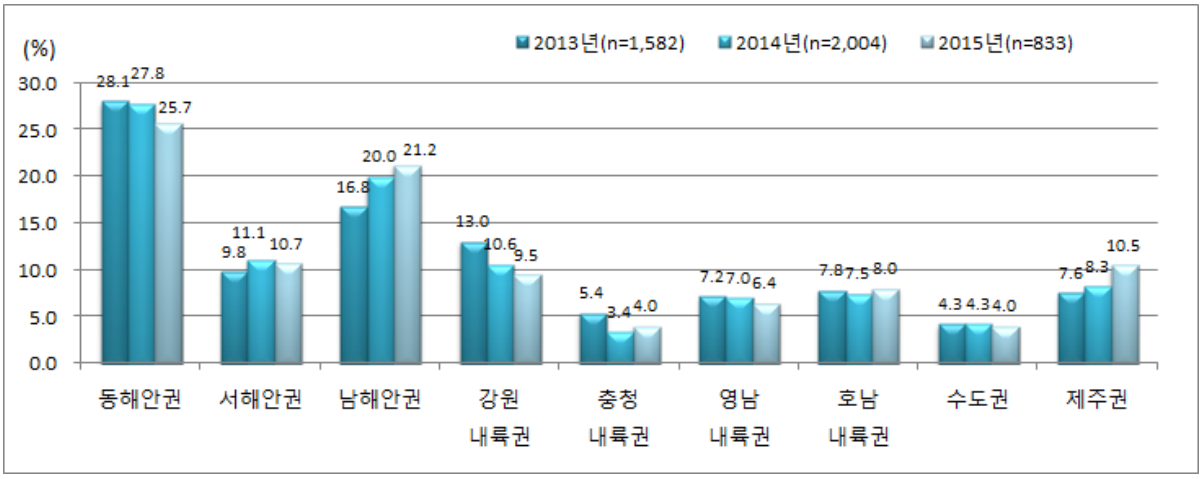
○ ‘국내여행’을 살펴보면, ‘동해안권’이 25.7%로 하계휴가 여행 예정지로 가장 비율이 높고, ‘남해안권’(21.2%), ‘서해안권’(10.7%) 순임

○ 연도별로는 2013년부터 ‘동해안권’, ‘강원내륙권’의 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남해안권’, ‘제주권’의 비율은 증가 추세임

<표 4-9>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내륙권	충청내륙권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25.7	10.7	21.2	9.5	4.0	6.4	8.0	4.0	10.5	100.0
		빈도	407	169	336	151	64	102	126	61	166	1,582
	8개 시도	비율	26.6	11.4	19.8	10.4	4.2	7.4	6.5	3.9	9.9	100.0
		빈도	288	123	214	113	45	80	70	42	107	1,082
2014년	전체	비율	27.8	11.1	20.0	10.6	3.4	7.0	7.5	4.3	8.3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2,004
	8개 시도	비율	30.1	11.3	18.4	11.5	3.2	6.8	6.1	4.3	8.2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377
2013년		비율	28.1	9.8	16.8	13.0	5.4	7.2	7.8	4.3	7.6	100.0
		빈도	234	82	140	108	45	60	65	36	63	833



<그림 4-7>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마. 하계휴가 여행시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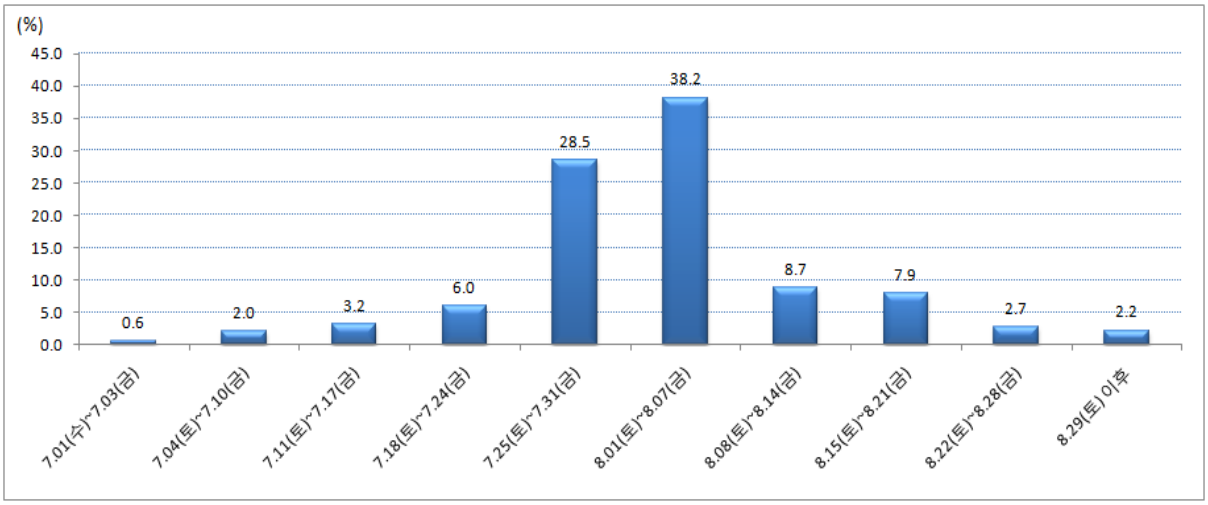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여행시기(계획있음)

○ 올해 하계휴가시 여행시기를 분석한 결과, ‘8월 1일(토)~8월 7일(금)’ 동안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가구가 전체의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7.01 (수)~7.03(금)	7.04 (토)~7.10(금)	7.11 (토)~7.17(금)	7.18 (토)~7.24(금)	7.25 (토)~7.31(금)	8.01 (토)~8.07(금)	8.08 (토)~8.14(금)	8.15 (토)~8.21(금)	8.22 (토)~8.28(금)	8.29 (토) 이후	합계
전체	비율	0.6	2.0	3.2	6.0	28.5	38.2	8.7	7.9	2.7	2.2	100.0
	빈도	11	39	61	114	544	729	167	151	51	43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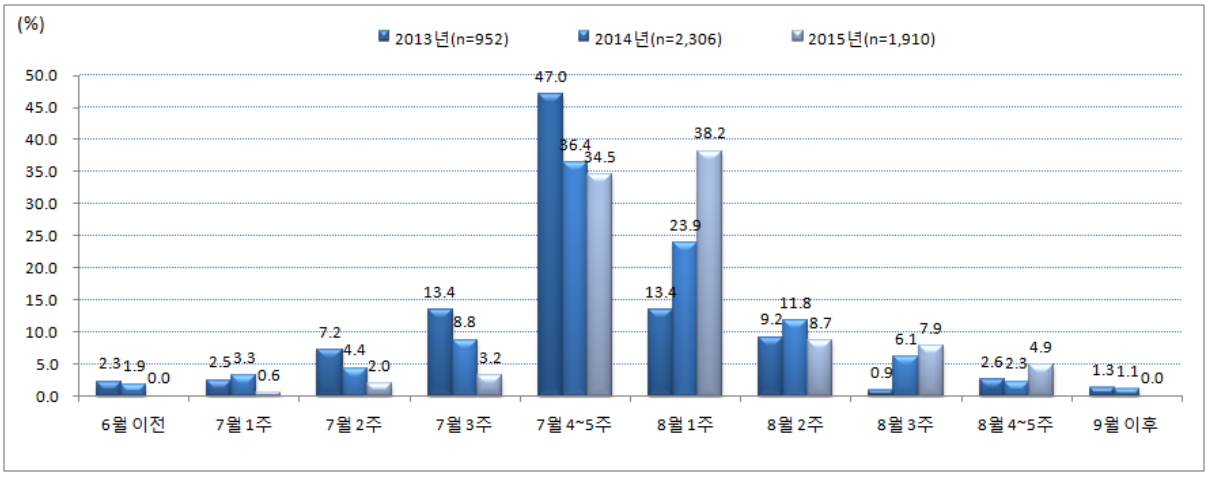
<그림 4-8>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 하계휴가시 여행시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7월 4주~8월 1주 사이에 여행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이전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5주	9월 이후	합 계
2015년	비율	-	0.6	2.0	3.2	34.5	38.2	8.7	7.9	4.9		100.0
	빈도	-	11	39	61	658	729	167	151	94		1,910
2014년	비율	1.9	3.3	4.4	8.8	36.4	23.9	11.8	6.1	2.3	1.1	100.0
	빈도	44	75	102	203	840	550	273	140	53	26	2,306
2013년	비율	2.3	2.5	7.2	13.4	47.0	13.4	9.2	0.9	2.6	1.3	100.0
	빈도	22	24	69	128	447	128	88	9	25	12	952



<그림 4-9>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2)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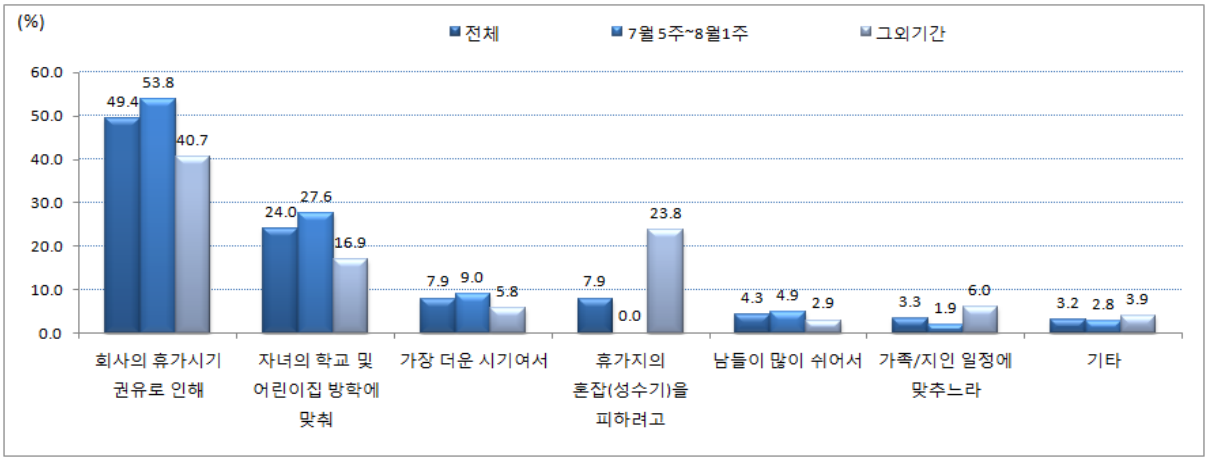
○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에 따르면,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가 49.4%로 가장 높고,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24.0%), '가장 더운 시기여서', '휴가지의 혼잡(성수기)을 피하려고'(각각 7.9%) 등의 순임

○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에 따르면,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53.8%),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 집 방학에 맞춰'(27.6%)가 전체 및 그 외 기간 대비 높게 나타남

<표 4-12>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가장 더운 시기여서	휴가지의 혼잡(성수기)을 피하려고	남들이 많이 쉬어서	가족/지인 일정에 맞추느라	기타	합계
전체	비율	49.4	24.0	7.9	7.9	4.3	3.3	3.2	100.0
	빈도	917	446	147	147	79	61	59	1,856
7월5주~8월1주	비율	53.8	27.6	9.0	0.0	4.9	1.9	2.8	100.0
	빈도	666	342	111	0	61	24	35	1,239
그 외 기간	비율	40.7	16.9	5.8	23.8	2.9	6.0	3.9	100.0
	빈도	251	104	36	147	18	37	24	617



<그림 4-10>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3) 하계휴가시 여행기간(계획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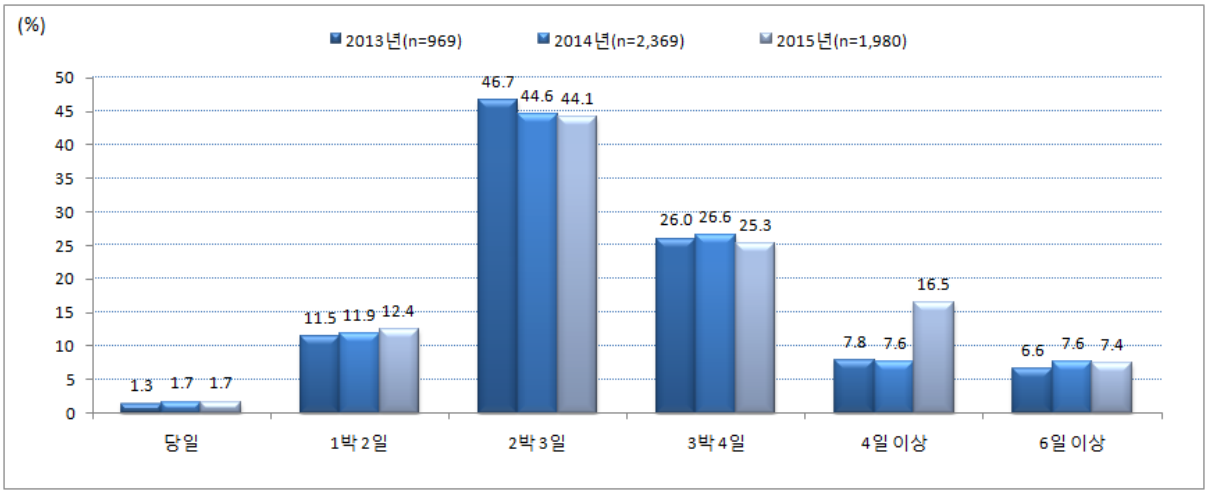
○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으로 '2박 3일'이 전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박 4일'이 25.3%, '1박 2일' 12.4% 순으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의 연도별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1박 2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표 4-13>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 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6일 이상	합 계
2015년	전체	비율	1.7	12.4	44.1	25.3	9.1	7.4	100.0
		빈도	34	246	873	500	181	146	1,980
	8개 시도	비율	1.3	9.8	43.2	27.5	9.9	8.4	100.0
		빈도	17	132	584	371	134	113	1,351
2014년	전체	비율	1.7	11.9	44.6	26.6	7.6	7.6	100.0
		빈도	41	283	1,057	629	179	180	2,369
	8개 시도	비율	1.4	8.5	44.9	28.6	8.4	8.2	100.0
		빈도	23	139	733	467	137	134	1,633
2013년		비율	1.3	11.5	46.7	26.0	7.8	6.6	100.0
		빈도	13	111	453	252	76	64	969



<그림 4-11>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바.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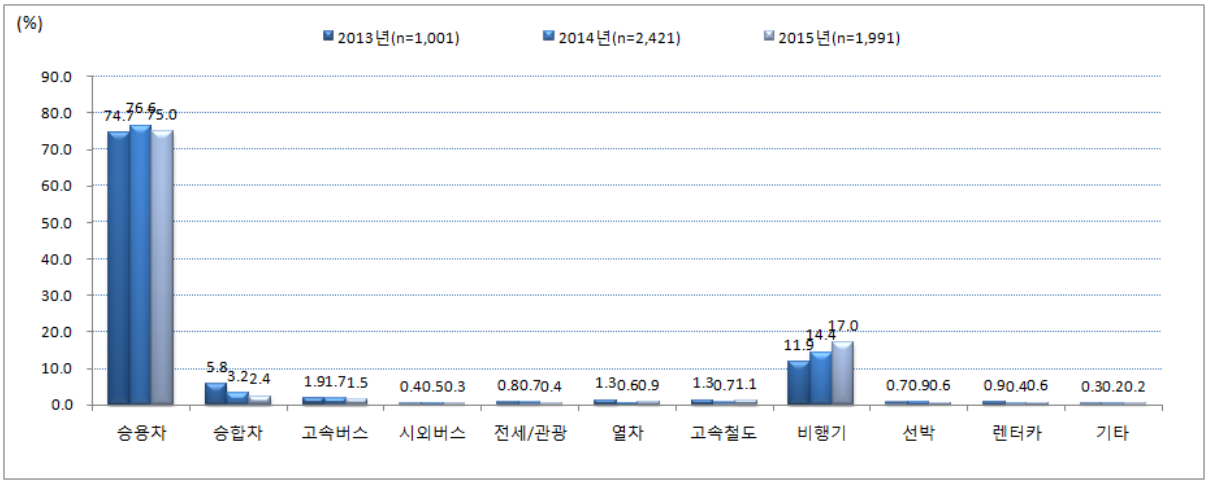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

- 2015년 하계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승용차, 승합차)'이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 17.0%,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2.2%, '철도(열차, 고속철도)'가 2.0%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연도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및 해외로의 여행 증가에 따라 '비행기' 이용률이 2013년부터 증가추세임

<표 4-14>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승용차	승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열차	고속철도(KTX)	비행기	선박	렌터카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75.0	2.4	1.5	0.3	0.4	0.9	1.1	17.0	0.6	0.6	0.2	100.0
		빈도	1,494	47	30	6	8	18	21	339	11	11	6	1,991
	8개 시도	비율	74.0	2.2	1.8	0.3	0.5	0.9	1.3	17.5	0.5	0.7	0.4	100.0
		빈도	1,005	30	25	4	7	12	17	237	7	9	5	1,358
2014년	전체	비율	76.6	3.2	1.7	0.5	0.7	0.6	0.7	14.4	0.9	0.4	0.2	100.0
		빈도	1,855	78	41	12	16	15	18	349	21	10	6	2,421
	8개 시도	비율	76.2	3.4	1.8	0.5	0.7	0.6	0.8	14.6	0.7	0.4	0.2	100.0
		빈도	1,268	57	30	8	12	10	14	243	12	7	3	1,664
2013년		비율	74.7	5.8	1.9	0.4	0.8	1.3	1.3	11.9	0.7	0.9	0.3	100.0
		빈도	748	58	19	4	8	13	13	119	7	9	3	1,001



<그림 4-12>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2)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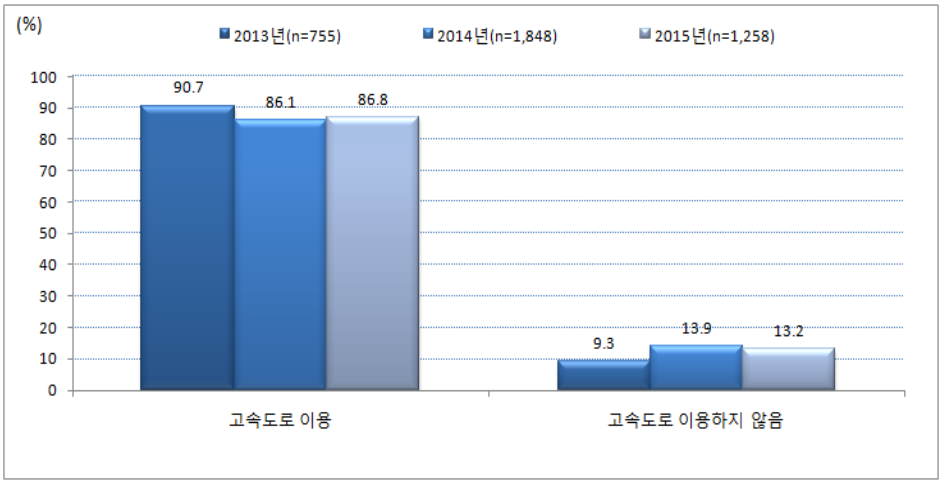
① 고속도로 이용여부

-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이용자의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여부는 '고속도로 이용함'이 86.8%, '고속도로 이용 안함'은 13.2%로 나타남
- 고속도로 이용률은 2014년 대비 2015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 안 함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86.8	13.2	100.0
		빈도	1,092	166	1,258
	8개 시도	비율	90.8	9.2	100.0
		빈도	782	79	861
2014년	전체	비율	86.1	13.9	100.0
		빈도	1,591	257	1,848
	8개 시도	비율	91.4	8.6	100.0
		빈도	1,156	109	1,265
2013년		비율	90.7	9.3	100.0
		빈도	685	70	755



<그림 4-13>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② 고속도로 이용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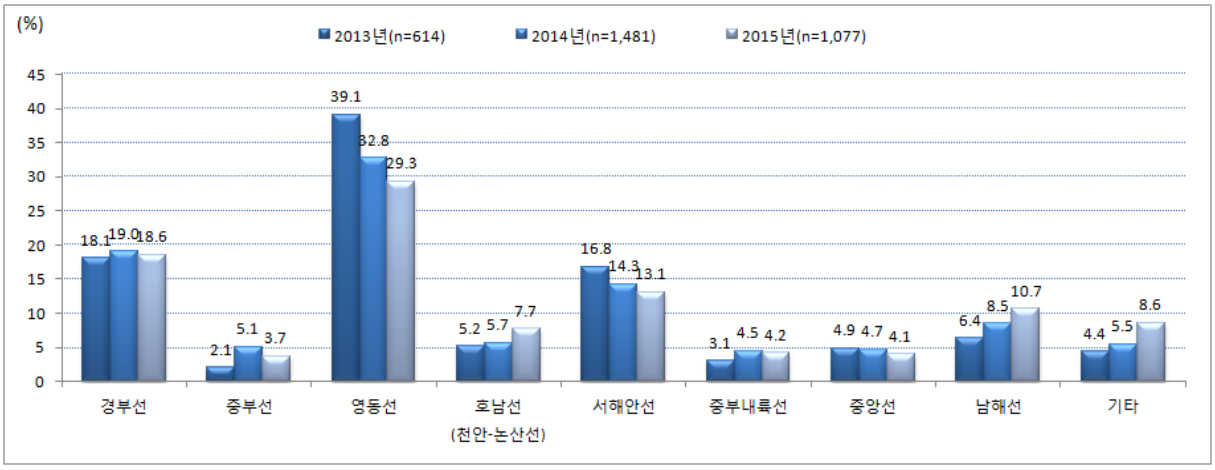
○ 하계휴가여행시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영동선'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부선'(18.6%), '서해안선'(13.1%)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남선', '남해선', '기타 고속도로'의 비율은 증가추세인 반면, '영동선', '서해안선', '중앙선'의 비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남

<표 4-16>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남해선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18.6	3.7	29.3	7.7	13.1	4.2	4.1	10.7	8.6	100.0
		빈도	200	40	316	83	141	45	44	115	93	1,077
	8개 시도	비율	19.7	3.5	32.5	6.1	15.6	3.2	3.7	7.1	8.6	100.0
		빈도	153	27	252	47	121	25	29	55	67	776
2014년	전체	비율	19.0	5.1	32.8	5.7	14.3	4.5	4.7	8.5	5.5	100.0
		빈도	281	75	486	85	212	66	69	126	81	1,481
	8개 시도	비율	19.0	4.0	38.1	4.9	15.5	4.0	3.7	5.9	5.0	100.0
		빈도	207	44	416	53	169	44	40	64	56	1,092
2013년		비율	18.1	2.1	39.1	5.2	16.8	3.1	4.9	6.4	4.4	100.0
		빈도	111	13	240	32	103	19	30	39	27	614



<그림 4-14>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3)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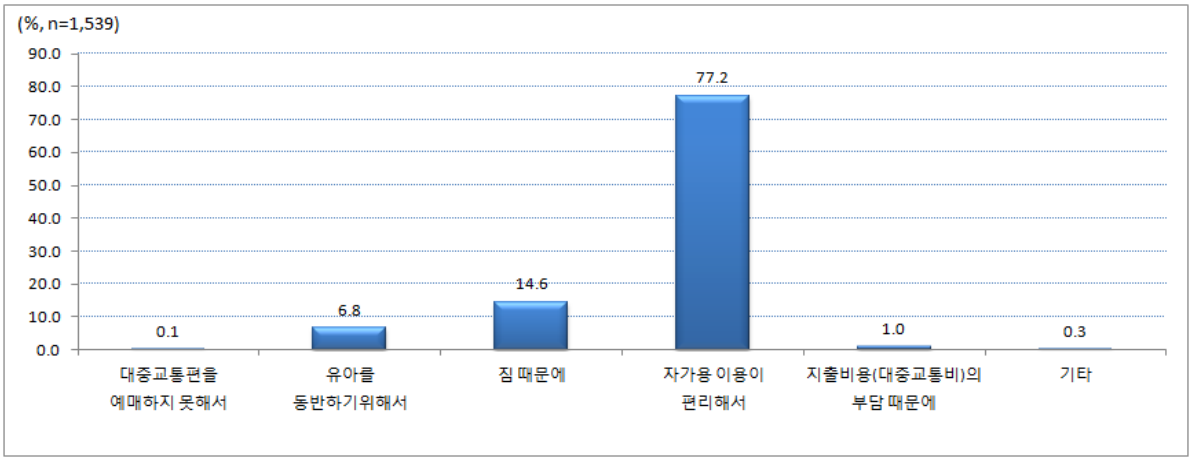
①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가 77.2%로 가장 높았고, '짐 때문에'(14.6%),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7>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유아를 동반하기위해서	짐 때문에	자가용이용이 편리해서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때문에	기타	합계
비율	0.1	6.8	14.6	77.2	1.0	0.3	100.0
빈도	2	105	224	1,188	15	5	1,539



<그림 4-15>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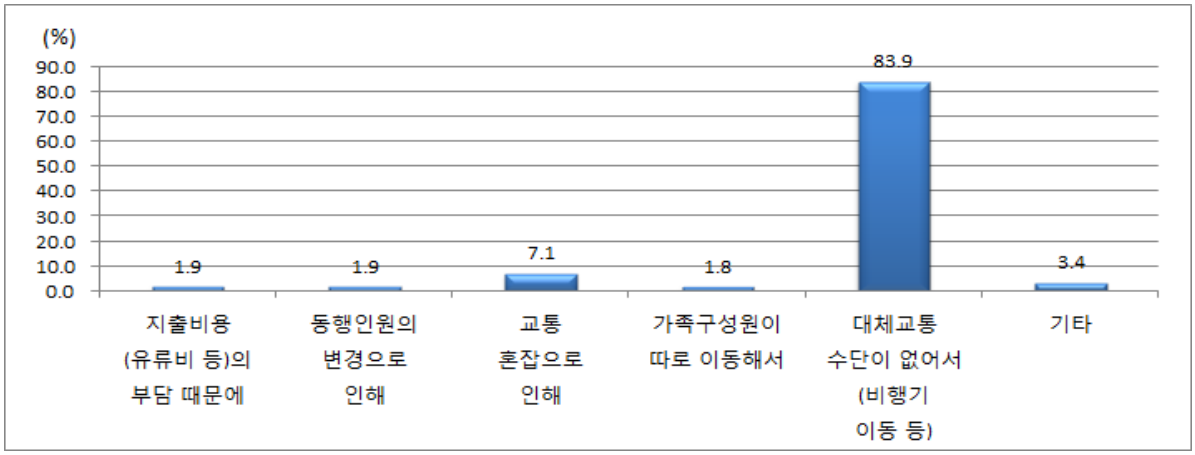
②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가 83.9%로 가장 높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8>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지출비용 (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 (비행기 이동 등)	기타	합계
비율	1.9	1.9	7.1	1.8	83.9	3.4	100.0
빈도	7	7	27	7	317	13	378



<그림 4-16>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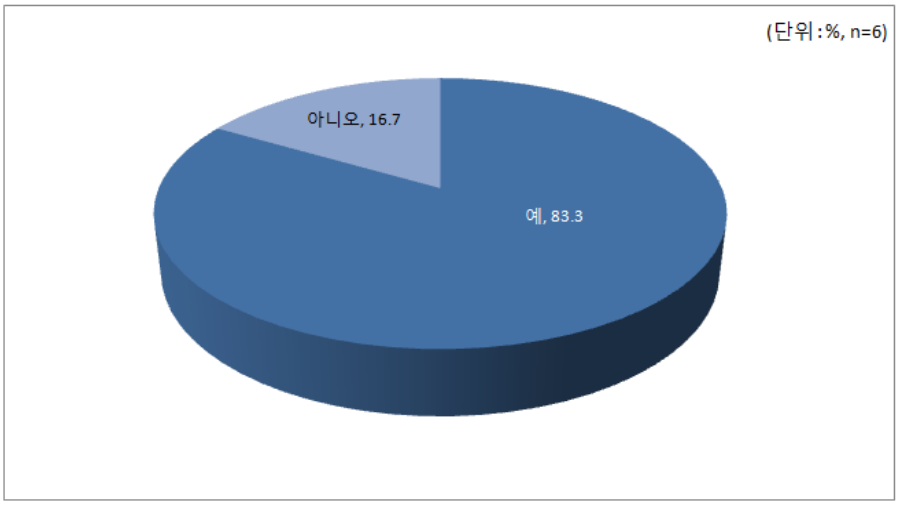
4) 호남선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 전라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 이용 교통수단을 KTX로 선택한 응답자(n=6)를 대상으로 호남선 KTX 개통이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83.3%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9> 호남선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비율	83.3	16.7	100.0
빈도	5	1	6



<그림 4-17> 호남선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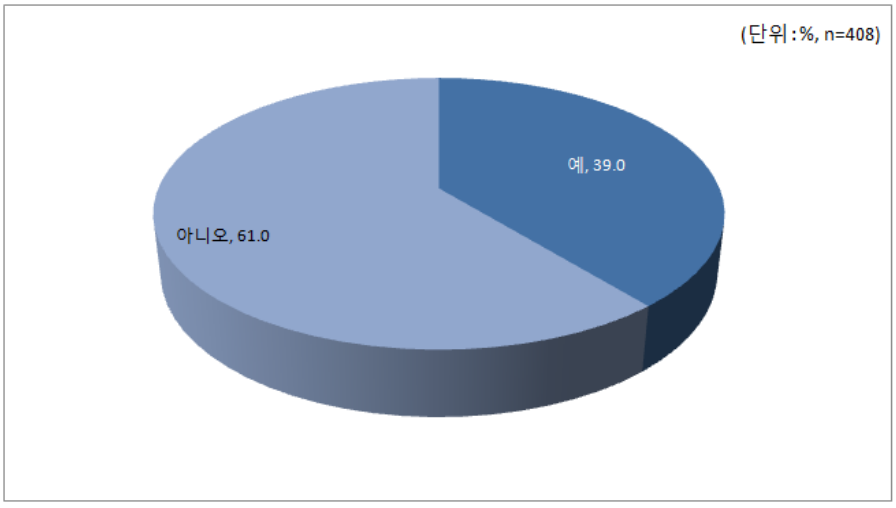
5) 대중교통 이용자의 렌터카 이용여부

○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착지에서의 렌터카 이용비율은 39.0%로 나타남

<표 4-20> 대중교통 이용자의 렌터카 이용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비율	39.0	61.0	100.0
빈도	159	249	408



<그림 4-18> 대중교통 이용자의 렌터카 이용여부

아. 하계휴가시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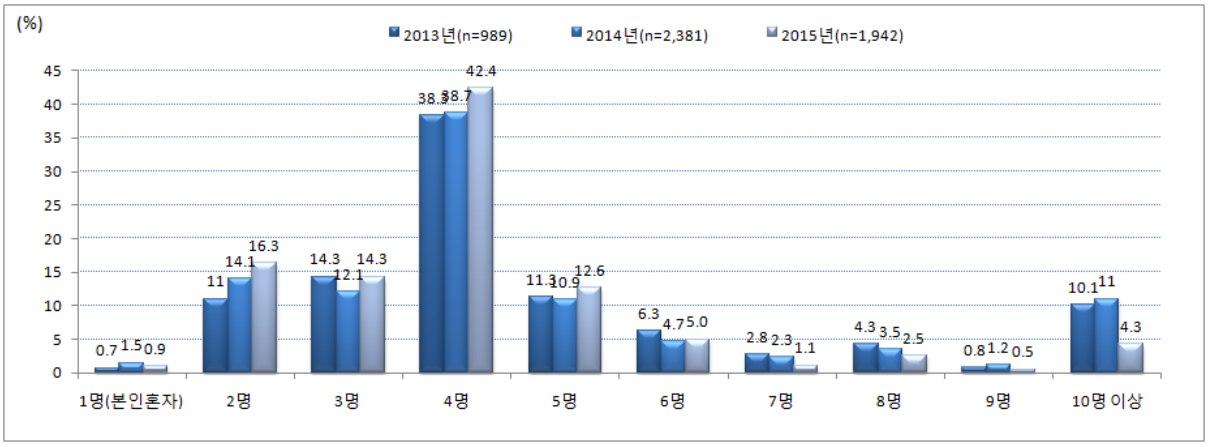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동행인 수

○ 2015년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 (본인포함)는 '4명'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16.3%)', '3명(14.3%)' 순임

<표 4-21>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0.9	16.3	14.3	42.4	12.6	5.0	1.1	2.5	0.5	4.3	100.0
		빈도	18	317	278	823	245	97	21	49	10	84	1,942
	8개 시도	비율	1.1	16.4	14.8	42.3	12.6	5.1	1.1	2.5	0.3	3.9	100.0
		빈도	14	217	196	560	167	67	15	33	4	52	1,325
2014년	전체	비율	1.5	14.1	12.1	38.7	10.9	4.7	2.3	3.5	1.2	11.0	100.0
		빈도	36	336	287	922	260	111	54	84	29	262	2,381
	8개 시도	비율	1.3	15.1	11.8	38.4	10.8	4.7	2.4	3.5	1.2	11.0	100.0
		빈도	22	246	192	627	176	76	39	57	19	180	1,634
2013년		비율	0.7	11.0	14.3	38.3	11.3	6.3	2.8	4.3	0.8	10.1	100.0
		빈도	7	109	141	379	112	62	28	43	8	100	989



<그림 4-19>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32) 하계휴가시 동행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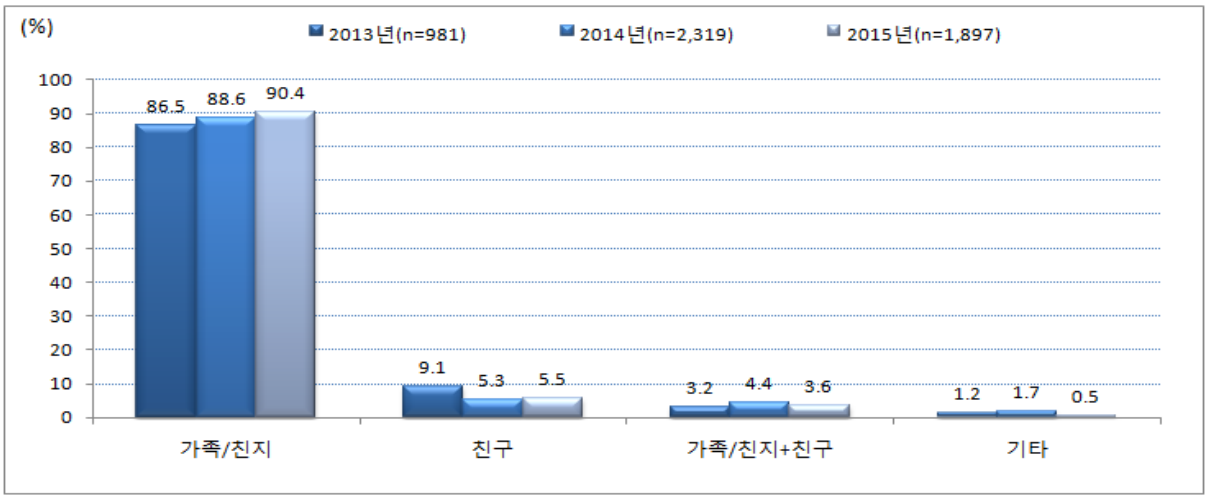
○ 하계휴가여행을 함께 가는 동행인으로는 '가족/친지'가 90.4%로 다른 동행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휴가여행을 간다는 응답이 5.5%, '가족/친지+친구'가 3.6%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부터 '가족/친지'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4-22>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가족/친지	친구	가족/친지+친구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90.4	5.5	3.6	0.5	100.0
		빈도	1,714	105	68	10	1,897
	8개 시도	비율	90.5	5.4	3.5	0.6	100.0
		빈도	1,169	70	45	8	1,292
2014년	전체	비율	88.6	5.3	4.4	1.7	100.0
		빈도	2,054	123	102	40	2,319
	8개 시도	비율	89.0	4.9	4.5	1.6	100.0
		빈도	1,419	78	72	25	1,594
2013년		비율	86.5	9.1	3.2	1.2	100.0
		빈도	849	89	31	11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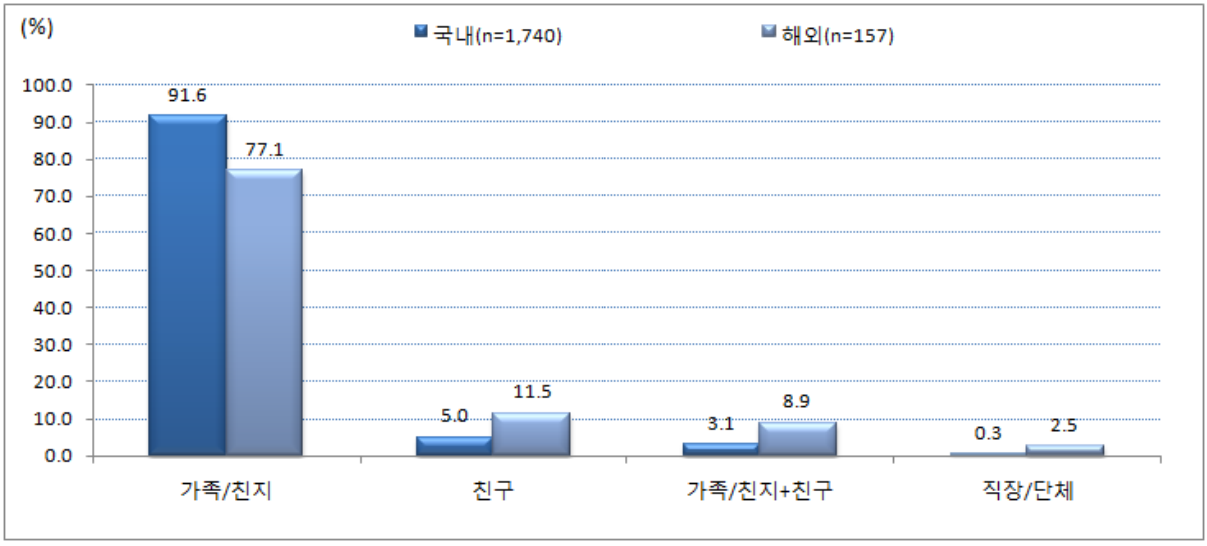
<그림 4-20>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국내 여행은 가족/친지 여행이 91.6%, 친구와 여행이 5.0%인 반면, 해외여행은 가족/친지 여행이 77.1%, 친구는 11.5%로 차이를 보임

<표 4-23>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가족/친지	친구	가족/친지+친구	기타	합 계
2015년	국내	비율	91.6	5.0	3.1	0.3	100.0
		빈도					
	해외	비율	77.1	11.5	8.9	2.5	100.0
		빈도					
2014년	국내	비율	89.1	4.9	4.7	1.4	100.0
		빈도					
	해외	비율	82.2	10.9	1.1	5.7	100.0
		빈도					
2013년	국내	비율	87.3	8.6	3.0	1.1	100.0
		빈도					
	해외	비율	72.2	18.5	5.6	3.7	100.0
		빈도					



<그림 4-21>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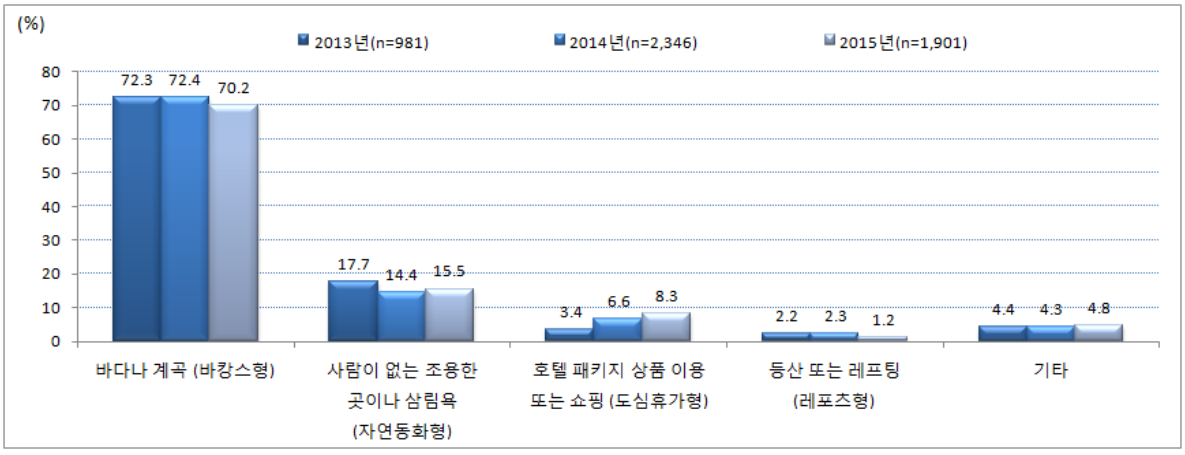
자.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

- 가장 선호하는 하계휴가여행 유형은 '바다나 계곡'(바캉스형)'이 70.2%로 가장 높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등(자연동화형)'이 15.5% 순으로 나타남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도심휴가형)'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4-24>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70.2	15.5	8.3	1.2	4.8	100.0
		빈도	1,334	295	158	22	92	1,901
	8개 시도	비율	69.2	15.7	8.7	1.1	5.4	100.0
		빈도	899	204	113	14	70	1,300
2014년	전체	비율	72.4	14.4	6.6	2.3	4.3	100.0
		빈도	1,699	338	155	53	101	2,346
	8개 시도	비율	73.1	14.2	6.6	1.7	4.4	100.0
		빈도	1,184	230	107	28	71	1,620
2013년		비율	72.3	17.7	3.4	2.2	4.4	100.0
		빈도	706	173	33	21	43	981



<그림 4-22>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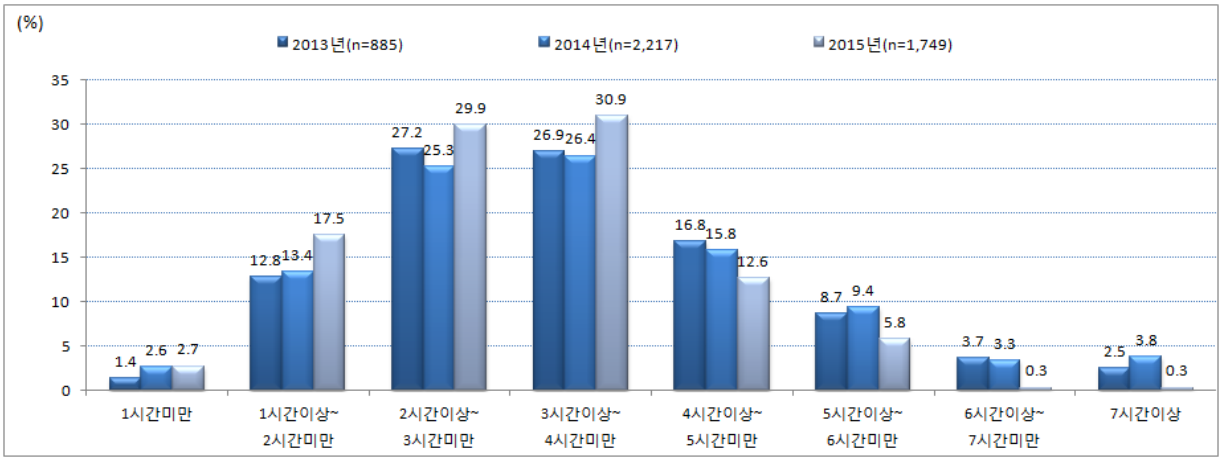
차. 예상소요시간

- 하계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9.9%,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7.5%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증가 추세인 반면,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의 비율이 감소 추세로 나타남

<표 4-25>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2.7	17.5	29.9	30.9	12.6	5.8	0.3	0.3	100.0
		빈도	48	306	523	541	221	102	4	4	1,749
	8개 시도	비율	2.3	16.8	28.9	32.3	14.1	5.3	0.1	0.2	100.0
		빈도	28	203	350	390	170	64	1	3	1,209
2014년	전체	비율	2.6	13.4	25.3	26.4	15.8	9.4	3.3	3.8	100.0
		빈도	58	296	560	586	350	208	74	85	2,217
	8개 시도	비율	1.6	9.1	24.4	28.5	18.2	10.9	3.5	3.8	100.0
		빈도	24	139	372	434	277	166	54	58	1,524
2013년		비율	1.4	12.8	27.2	26.9	16.8	8.7	3.7	2.5	100.0
		빈도	12	113	241	238	149	77	33	22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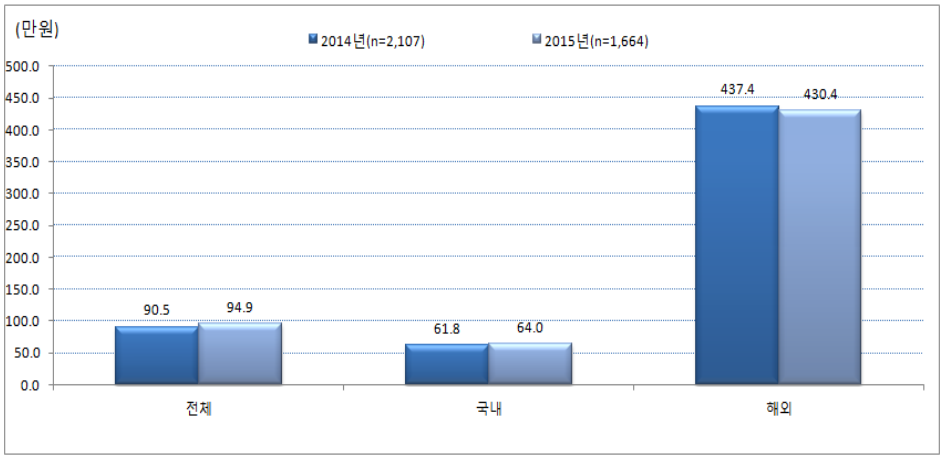


<그림 4-23>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카. 하계휴가시 휴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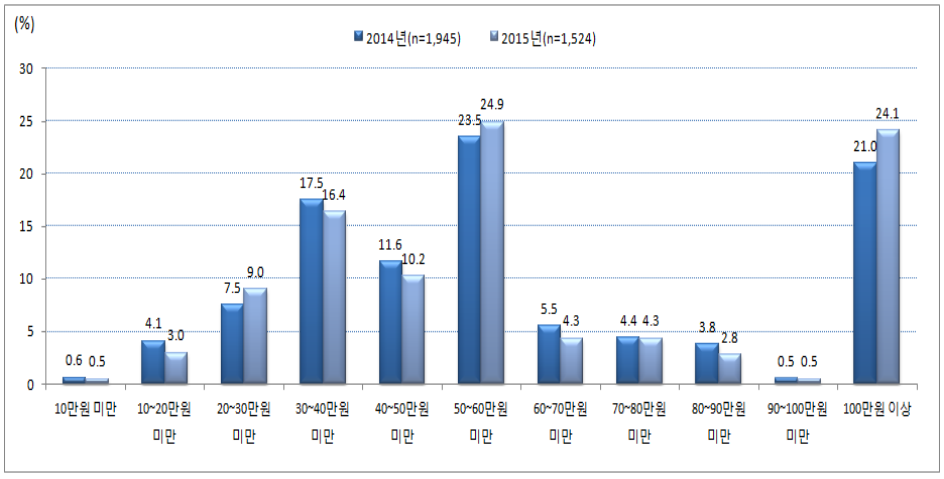
○ 하계휴가시 전체 응답가구는 평균 약 94.9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여행 평균 64.0만원, 해외여행 평균 430.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가구당 평균 여행 지출 예상 비용은 작년 대비 국내는 약 3.2만원 증가하며, 해외는 약 7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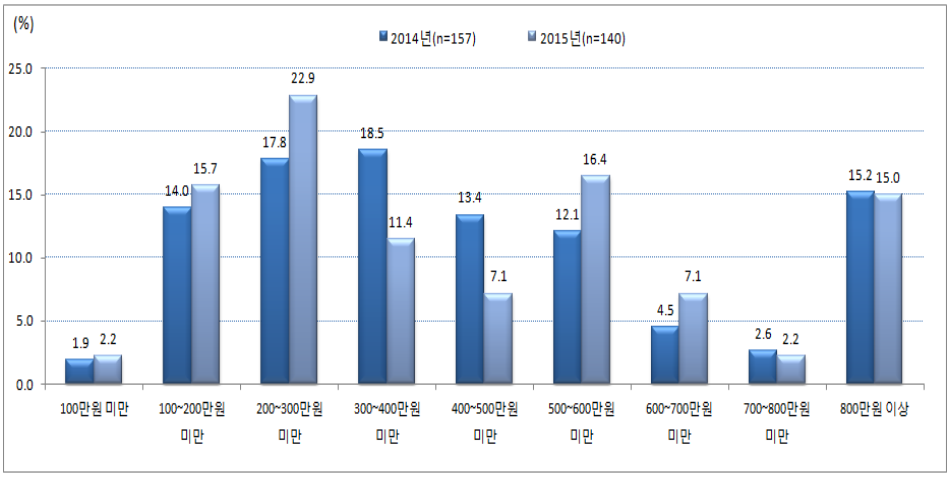
<그림 4-24>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변화(연도별)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50~60만원'이 24.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4.1%, '30~40만원' 16.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5>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국내)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2.9%로 가장 높았고, '500~600만원' 16.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6>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해외)

타.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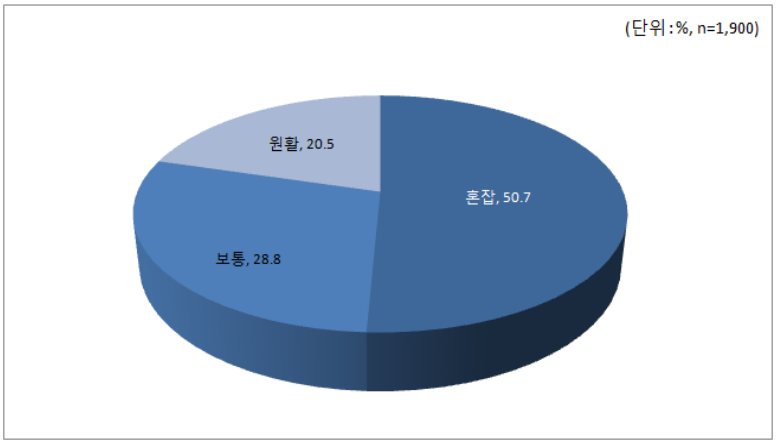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하계휴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50.7%가 하계휴가시 주요도로가 혼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28.8%, 원활 20.5% 순임

<표 4-26>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혼잡	보통	원활	합계
비율	50.7	28.8	20.5	100.0
빈도	964	547	389	1,900



<그림 4-27>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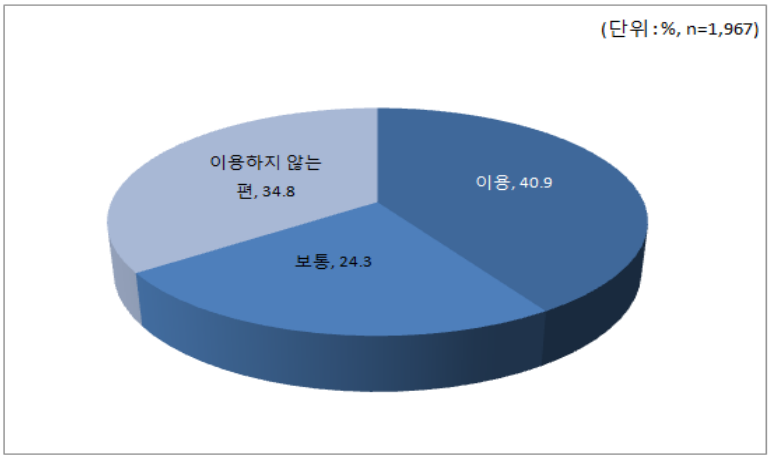
2)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하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평소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정도로는 '이용' 40.9%, '보통'이 24.3%로 65.2%로 나타남

<표 4-27>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합계
비율	40.9	24.3	34.8	100.0
빈도	805	477	685	1,967



<그림 4-28>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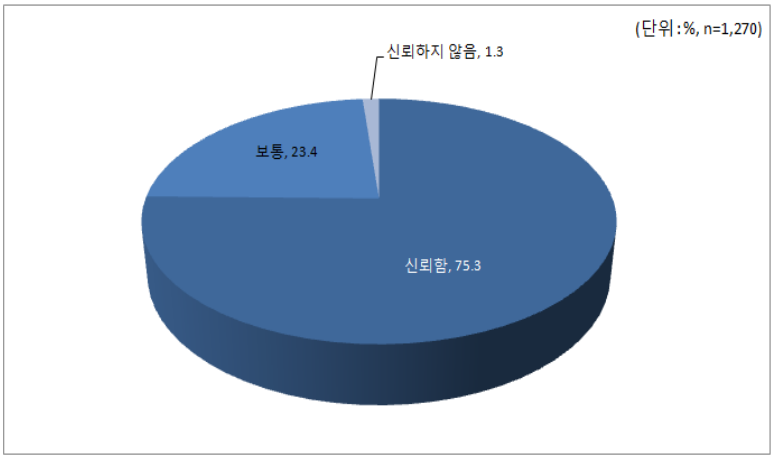
3)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

○ 평소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에 따르면 98.7%(신뢰함 75.3%+보통 23.4%)가 교통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신뢰함	보통	신뢰하지 않음	합계
비율	75.3	23.4	1.3	100.0
빈도	956	297	17	1,270



<그림 4-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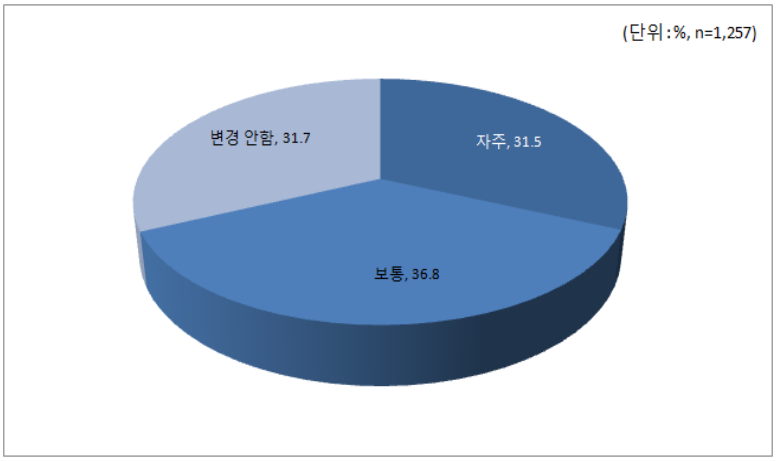
4)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일정/노선 변경 정도

○ 평소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 및 노선변경 정도에 따르면 68.3%(자주 변경 31.5%+보통 36.8%)가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일정/노선 변경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주	보통	변경 안함	합계
비율	31.5	36.8	31.7	100.0
빈도	396	462	399	1,257



<그림 4-30> 습득한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일정/노선 변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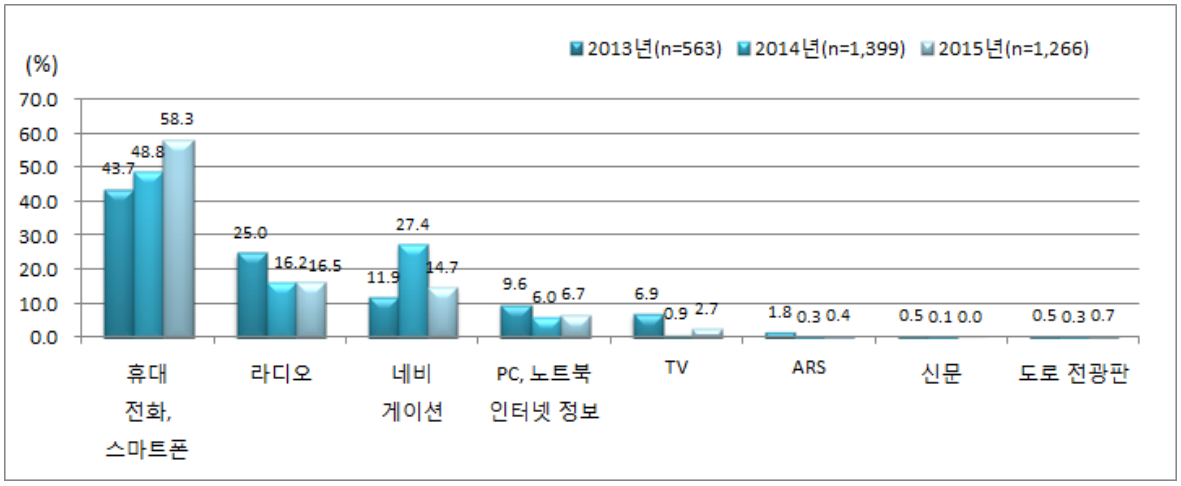
5)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

-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라디오' 16.5%, '네비게이션' 14.7% 순임
- 스마트폰의 보급량 증가로 인한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정보 획득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냄

<표 4-30>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휴대전화, 스마트폰	라디오	네비게이션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TV	ARS 전화	신문	도로 전광판	합 계
2015년	전체	비율	58.3	16.5	14.7	6.7	2.7	0.4	-	0.7	100.0
		빈도	738	209	186	85	34	5	-	9	1,266
	8개 시도	비율	59.3	17.4	14.3	6.0	1.7	0.6	-	0.8	100.0
		빈도	538	158	130	54	15	5	-	7	907
2014년	전체	비율	48.8	16.2	27.4	6.0	0.9	0.3	0.1	0.3	100.0
		빈도	683	227	383	84	12	5	1	4	1,399
	8개 시도	비율	48.6	17.9	25.9	6.0	0.8	0.5	0.1	0.4	100.0
		빈도	503	185	268	62	8	5	1	4	1,036
2013년		비율	43.7	25.0	11.9	9.6	6.9	1.8	0.5	0.5	100.0
		빈도	246	141	67	54	39	10	3	3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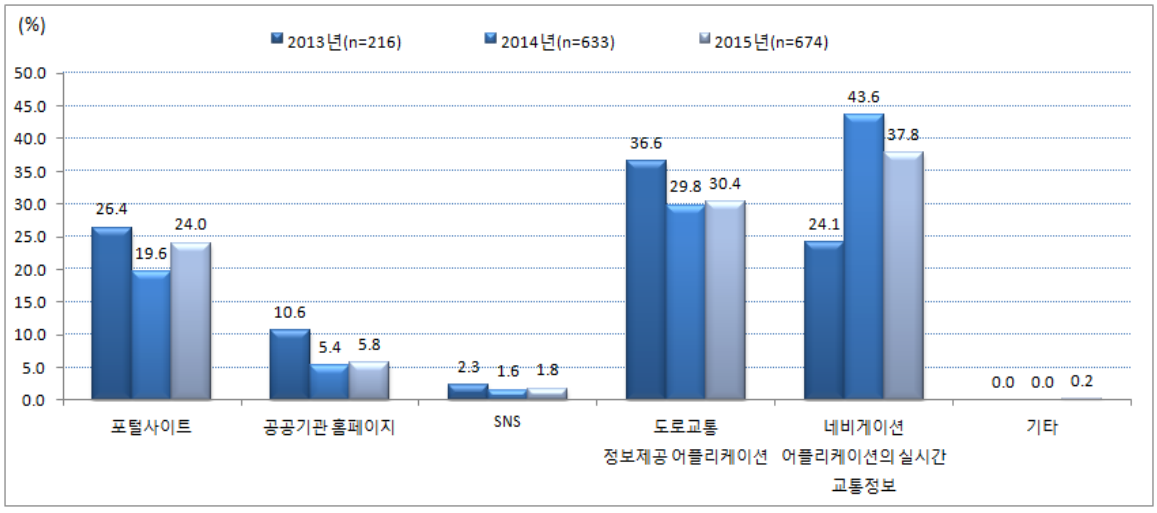
<그림 4-31>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이 30.4%, '포털사이트' 24.0%순임

<표 4-31>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리 케이션	포털사이트	네비게이션 어플리 케이션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기타	합계
2015년	전체	비율	30.4	24.0	37.8	5.8	1.8	0.2	100.0
		빈도	205	162	255	39	12	1	674
	8개 시도	비율	28.7	21.5	41.8	5.8	2.0	0.2	100.0
		빈도	143	107	208	29	10	1	498
2014년	전체	비율	29.9	19.6	43.6	5.4	1.6	-	100.0
		빈도	189	124	276	34	10	-	633
	8개 시도	비율	29.1	19.7	44.6	5.3	1.3	-	100.0
		빈도	137	93	210	25	6	-	471
2013년		비율	36.6	26.4	24.1	10.6	2.3	-	100.0
		빈도	79	57	52	23	5	-	216



<그림 4-32>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파.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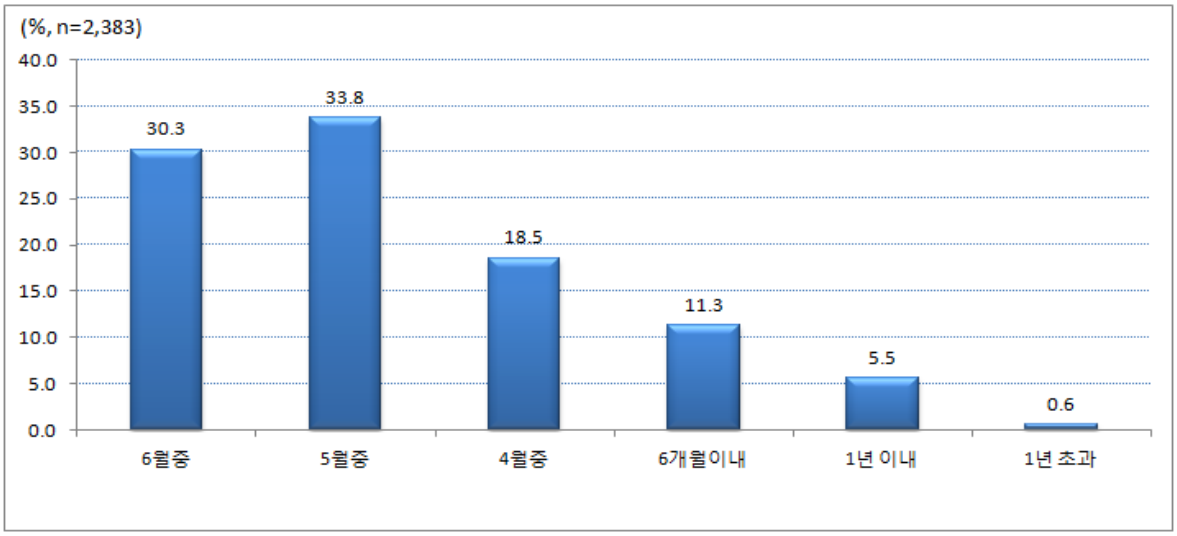
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8)]

○ 최근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응답자의 가족여행 시기를 조사한 결과, '5월 중'이 33.8%로 가장 높고, '6월 중' 30.3%, '4월 중'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2>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중	5월중	4월중	6개월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합계
비율	30.3	33.8	18.5	11.3	5.5	0.6	100.0
빈도	722	805	442	269	132	13	2,383



<그림 4-33>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8) 최근 가족여행을 '가지 않았다'(n=6,613, 73.5%)는 응답자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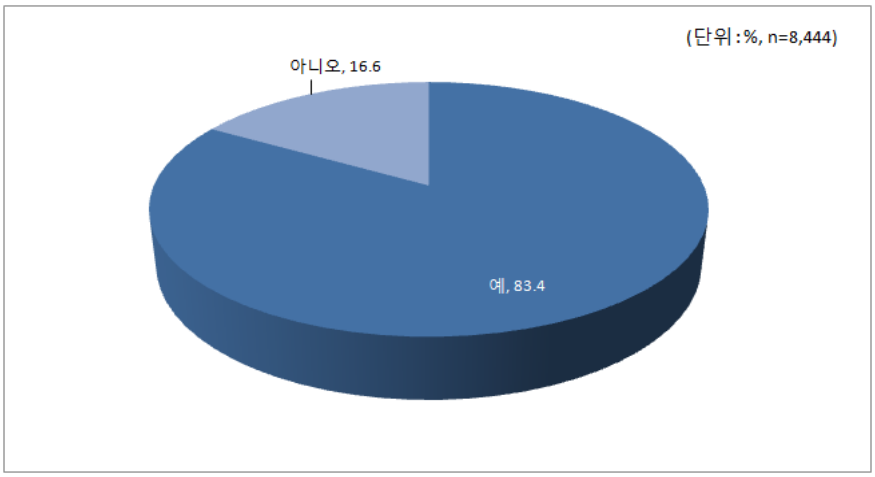
2)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 금번 하계 특별교통 대책 수립시 휴가철 교통대책 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및 방역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83.4%로 나타남

<표 4-33>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비율	83.4	16.6	100.0
빈도	7,040	1,404	8,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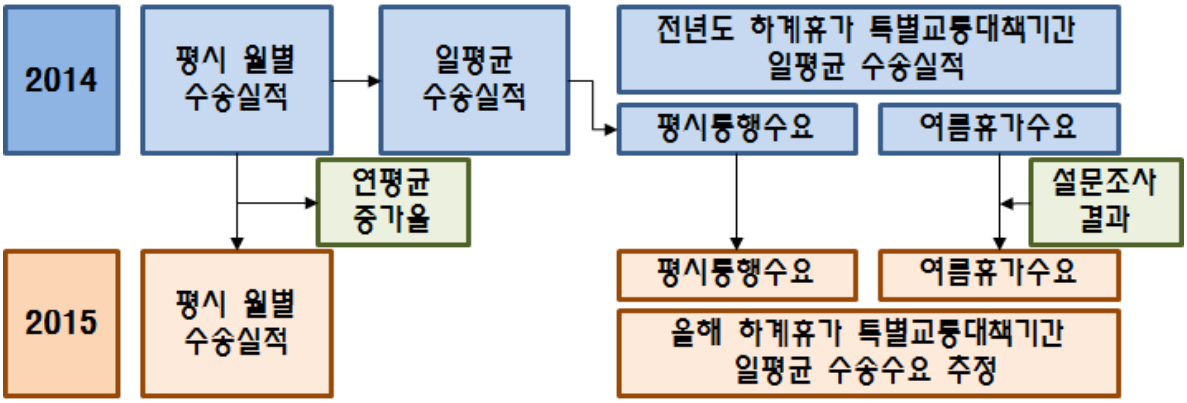


<그림 4-34>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하계휴가기간은 귀성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및 설 특별교통대책기간과는 달리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을 구분하여 구축하며, 전년도 1년간의 연평균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으로 가정하고, 하계휴가기간 동안에 수송실적과 평상시 통행간의 차이를 휴가통행으로 가정함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 휴가수요의 변화를 도출하여 전년도의 수송실적에 적용함으로서 올해 하계휴가기간 동안의 휴가수요를 예측함
- 전년도의 수송실적에서 일평균 수요를 평상시 수요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를 휴가수요로 구분함. 평상시 수요에 작년 대비 올해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올해년도 평시 수요를 산출하며, 휴가수요는 설문조사 결과인 전년 대비 올해 휴가통행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측함
- 전년도의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은 수단별로 평상시 통행과 하계휴가 통행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 산출을 위해 전년도 대비 올해 하계휴가시 이용수단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설문조사시 전년도 하계휴가시 이용수단과 올해 하계휴가시 예상 이용교통수단을 동시에 질문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의 변화를 예측함



<그림 4-35>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5.7.24~8.9, 1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7,801만명, 1일 평균 459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437만명/일)대비 5.0% 증가하고, 평시(364만명/일)보다 26.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계휴가기간 중 여행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2.1%, 시외·전세버스가 10.6%, 철도가 4.6%, 고속버스 1.3%, 항공 0.9%, 해운 0.5%로 전망됨

<표 4-34> 2015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5.7.24~8.9)			평시대비 (%)
				일평균 교통량	17일 총수송량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686	3,766	64,022	82.1	140.2
도로	버스	고속버스	44	61	1,039	1.3	138.6
도로	버스	시외·전세	697	485	8,249	10.6	69.6
철도			164	212	3,598	4.6	129.3
항공			30	39	664	0.9	130.0
해운			20	26	434	0.5	130.0
합계			3,641	4,589	78,006	100.0	126.0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교통수요예측결과와 기간 중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4~8.9, 17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104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549천명으로 74.0%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6.0%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의 오차율이 27.9%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88.5% 증가

<표 4-35>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3,581	2,686	3,766	64,022	5,226	88,835	72.1	▼27.9	145.9	194.6
고속버스	66	44	61	1,039	51	874	119.6	▲19.6	77.3	115.9
철도	193	164	212	3,598	195	3,318	108.7	▲8.7	101.0	118.9
항공	35	30	39	664	41	702	95.1	▼4.9	117.1	136.7
해운	24	20	26	434	36	608	72.2	▼27.8	150.0	180.0
전체	3,899	2,944	4,104	69,757	5,549	94,337	74.0	▼26.0	142.3	188.5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5장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5장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8월 17일(월)~2015년 8월 21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6월~2015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7일간: 2014.9.5~9.11)

2. 자료수집 결과(2014년 추석 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3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3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철도,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 보다 감소하였음
  · 특히 해운의 경우 전년대비 20.6% 감소

<표 5-1> 2013,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3년 (A)	2014년 (B)	2013년(6일) (A)	2014년(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3,101,573	3,030,312	18,609,440	21,212,186	-71,261	2,602,746	-2.3
고속버스	인	164,001	150,189	984,008	1,051,326	-13,812	67,318	-8.4
시외/전세	인	1,439,973	1,334,851	8,639,837	9,343,958	-105,122	704,121	-7.3
철도	인	466,994	473,578	2,801,965	3,315,048	6,584	513,083	1.4
항공	인	74,950	76,717	449,701	537,020	1,767	87,319	2.4
해운	인	86,364	68,572	518,185	480,005	-17,792	-38,180	-20.6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5(금)~9.29(화):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5년 8월 28일(금)~9월 1일(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9] : 2,084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5%)

나. 조사내용

○ 작년(2014년) 추석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대체휴일제 인지도 및 대체휴일 휴식여부, 2015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권역 여부, 귀성 및 여행 중 우선 이동 가능성,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등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KTX 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동행인 수,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 연휴 교통비용, D턴 여부, D턴 지역 및 유형, 동행인 유형,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성묘 여부 및 시기,

9)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벌초 여부 및 시기,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 형태

다. 조사표본 선정

○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5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의 (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5-2>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4년 추석					2015년 추석				
	전체	표본		유효표본		전체	표본		유효표본	
	세대수[1]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세대수[2]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9,495	1,831	20.3	446	20.6	4,197,478	1,810	20.1	433	20.8
부산광역시	1,412,091	617	6.9	152	7.0	1,430,441	617	6.9	154	7.4
대구광역시	965,153	421	4.7	130	6.0	977,714	422	4.7	126	6.0
인천광역시	1,127,861	493	5.5	134	6.2	1,145,232	494	5.5	130	6.2
광주광역시	568,269	248	2.8	69	3.2	577,941	249	2.8	61	2.9
대전광역시	590,008	258	2.9	84	3.9	595,216	257	2.9	84	4.0
울산광역시	436,822	191	2.1	70	3.2	447,229	193	2.1	73	3.5
경 기 도	53,497	2,075	23.1	562	26.0	4,829,521	2,083	23.1	510	24.5
강 원 도	4,748,611	292	3.2	32	1.5	680,373	293	3.3	35	1.7
충청북도	668,897	284	3.2	68	3.1	664,186	286	3.2	58	2.8
충청남도	650,157	378	4.2	92	4.3	878,544	379	4.2	102	4.9
전라북도	866,215	336	3.7	46	2.1	778,350	336	3.7	36	1.7
전라남도	770,284	358	4.0	43	2.0	827,264	357	4.0	54	2.6
경상북도	820,342	500	5.6	102	4.7	1,160,150	500	5.6	114	5.5
경상남도	1,145,091	582	6.5	116	5.4	1,356,430	585	6.5	102	4.9
제 주 도	1,331,704	106	1.2	8	0.4	251,478	108	1.2	7	0.3
세종특별자치시	242,291	30	0.3	9	0.4	72,733	31	0.3	5	0.2
전 국	20,586,788	9,000	100.0	2,163	100.0	20,870,280	9,000	100.0	2,084	100.0

주: 1) 안전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6)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6)

라. 조사표본 추출

○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 즉, 2015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3.2%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4%임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3%)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26일(토)', 귀경 출발일은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전년(2014년)과 비교하여 귀성일은 'D-1', 'D-day'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귀경일은 'D-day'와 'D+1'의 비율이 감소하고 'D+2'의 비율이 증가함
- 귀성-귀경 출발일별 출발시간의 경우,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월 26일(토)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일) 오후'의 비율이 높음

○ 체류일수

- '1박 2일'의 비율이 33.5%로 높고, 연도별로는 '당일+1박 2일'이 증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3.4%로 가장 높고, ‘호남권’(19.7%), ‘충청권’(17.4%)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1.4%로 통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 해외여행 비율 소폭 증가 : 1.6%(’14) → 1.7%(’15)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7.9%)이 가장 높고, ‘버스’(4.2%), ‘열차’(3.5%) 순
- 올해(2015년) KTX 개통으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KTX이용자를 대상으로 KTX 개통의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 영향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87.0%로 나타남

○ 이용고속도로

- ‘경부선’(30.5%), ‘서해안선’(13.0%), ‘영동선’(9.6%) 순
- 작년 대비 ‘경부선’, ‘서해안선’ 등의 비율은 감소하고, ‘영동선’, ‘호남선’의 비율은 증가

○ 자가용 보유가구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 이용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9.6%)이며, 대중교통 이용 이유로는 ‘교통 혼잡’(47.9%) 때문임

○ 동행인 수

- 자가용은 평균 3.7명, 대중교통은 평균 2.9명임
- 전년대비 자가용의 평균 동행인원과 대중교통의 평균 동행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벌초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65.0%가 벌초를 하며, 벌초 시기로는 ‘추석 연휴 2주전’(41.8%)이 가장 많음
- 벌초 시기는 전년대비 ‘추석 연휴 3주 이전’이 증가하였음

○ 성묘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70.5%가 성묘를 하며, 시기는 ‘추석 연휴’(56.8%)가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추석 연휴’(50.6%→56.8%)에 성묘를 예정하고 있는 응답자가 증가함

○ D턴 여부 및 유형

- D턴을 한다는 응답자는 3.4%이며, D턴 지역유형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의 비율이 높음

○ 교통비용

- 올해 교통비용은 평균 14.1만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10만원 미만은 증가하고 10만원 이상의 비율은 감소함

○ 교통안내정보 이용도 및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비율은 60.6%이며,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58.1%)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휴대전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비율은 증가하고, '라디오',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등은 감소함

○ 대체휴일제 인지도 및 휴식여부

- 대체휴일 인지도는 79.5%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70.5%가 휴식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처가/친정 방문여부 및 방문일

-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7.1%로, 작년(66.7%) 대비 하락함
- 처가(친정/외가)로의 출발일은 '9월 27일(일, 추석 당일)'(65.2%)이 가장 많음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점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3.9%로 가장 높고, 이는 남자(12.2%) 대비 여자(43.3%)의 응답률이 높음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이 가장 높고, 이는 여자 대비 남자의 응답률이 높음

나.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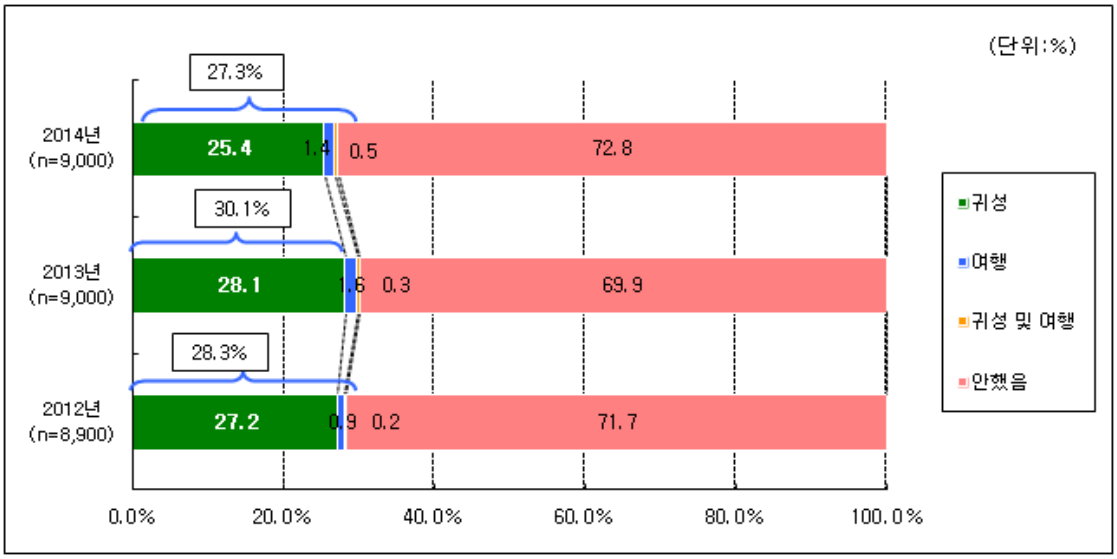
1)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및 여행 여부

- 작년(2014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7.3%가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소폭 감소함

<표 5-3>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4년	비율	25.4	1.4	0.5	72.8	100.0
	빈도	2,284	123	45	6,548	9,000
2013년	비율	28.1	1.6	0.3	69.9	100.0
	빈도	2,533	147	30	6,290	9,000
2012년	비율	27.2	0.9	0.2	71.7	100.0
	빈도	2,418	81	18	6,383	8,900



<그림 5-1>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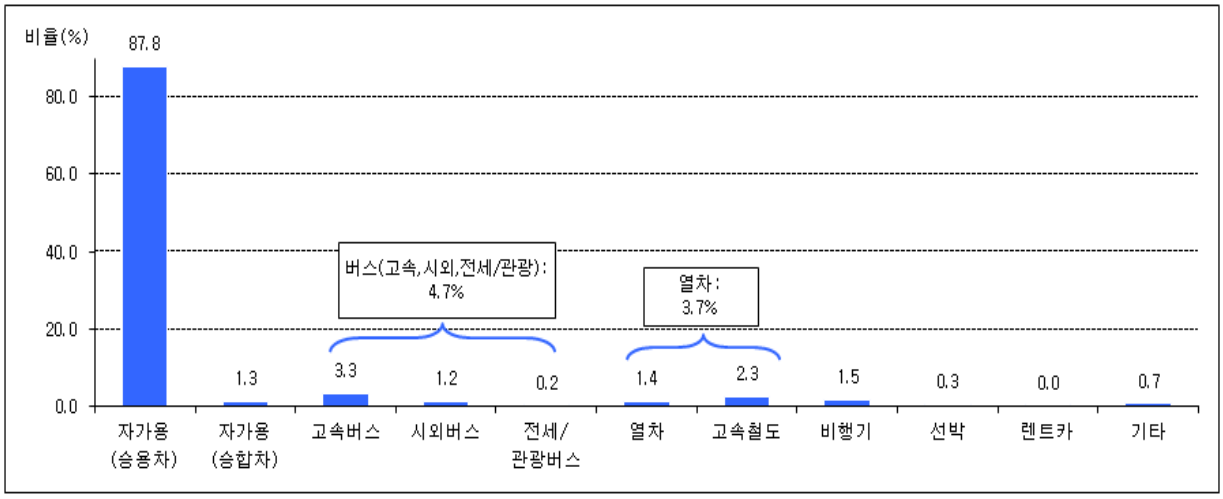
2)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4년)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89.1%, 승용차 87.8%+승합차 1.3%)'이며, 다음으로 '버스(4.7%)', '열차(3.7%)', '비행기(1.5%)' 순임

<표 5-4>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승용차)	자가용(승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열차	고속철도	비행기	선박	렌트카	기타	합계
전체	비율	87.8	1.3	3.3	1.2	0.2	1.4	2.3	1.5	0.3	0.0	0.7	100.0
	빈도	2,149	32	80	29	5	34	57	37	8	1	16	2,448



<그림 5-2> 작년(2014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5년) 추석 귀성 및 여행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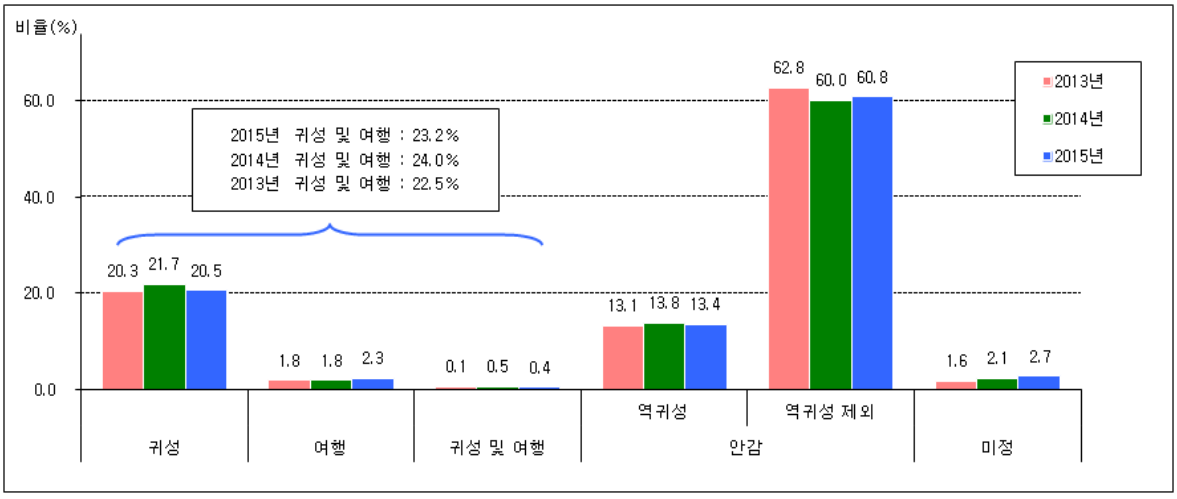
- 올해(2015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3.2%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3.4%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임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귀성 및 여행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2015년 다시 감소하였음
- 2014년 대비 2015년 여행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5-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역귀성 제외		
2015년	비율	20.5	2.3	0.4	13.4	60.8	2.7	100.0
	빈도	1,848	203	33	1,204	5,470	242	9,000
2014년	비율	21.7	1.8	0.5	13.8	60.0	2.1	100.0
	빈도	1,956	165	42	1,246	5,400	191	9,000
2013년	비율	20.3	1.8	0.4	13.1	62.8	1.6	100.0
	빈도	1,810	156	39	1,165	5,592	138	8,900

주: 2013년 ~ 2015년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그림 5-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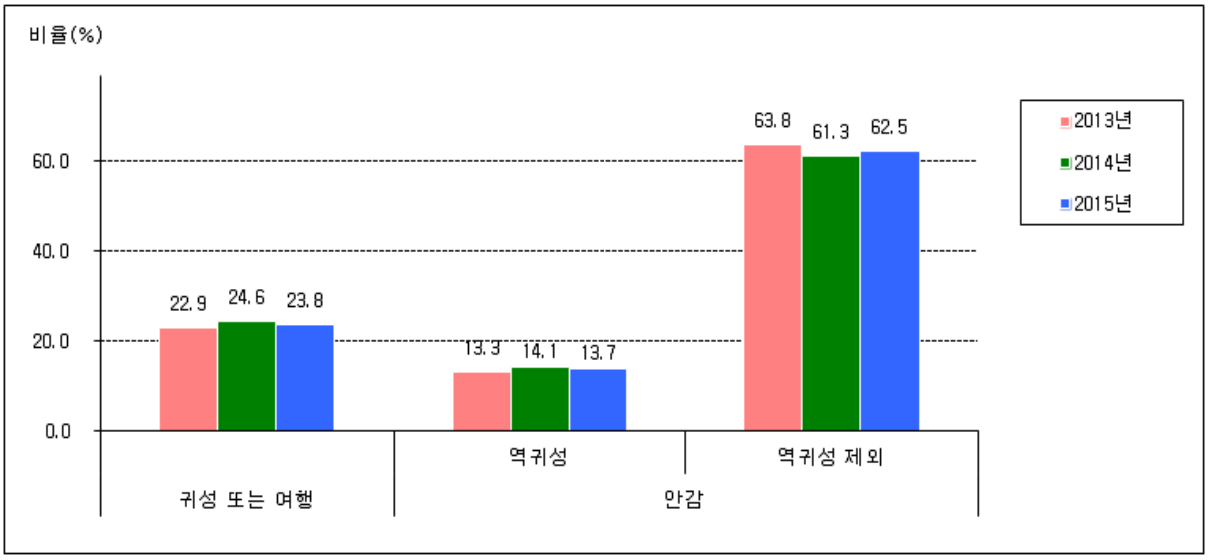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성 또는 여행'은 23.8%이며, 역귀성은 13.7%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귀성 또는 여행' 비율은 2013년에서 2014년 소폭 증가한 반면, 2015년 소폭 하락하였음

<표 5-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또는 여행	안감		합계
			역귀성	역귀성 제외	
2015년	비율	23.8	13.7	62.5	100.0
	빈도	2084	1,204	5,470	8,758
2014년	비율	24.6	14.1	61.3	100.0
	빈도	2,163	1,246	5,400	8,809
2013년	비율	22.9	13.3	63.8	100.0
	빈도	2,005	1,165	5,592	8,762



<그림 5-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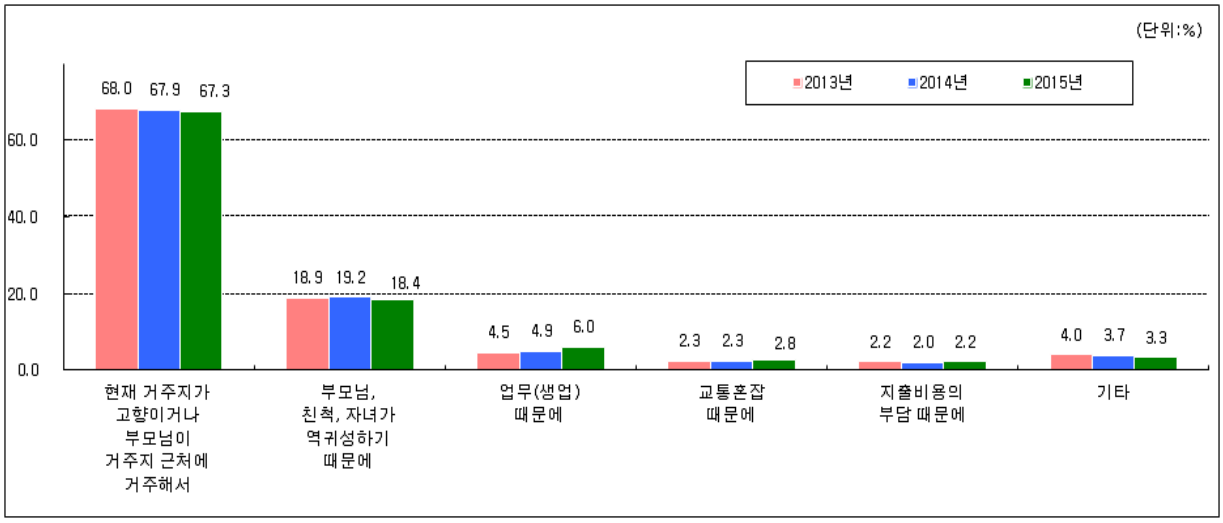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18.4%), '업무(생업) 때문에(6.0%)', '교통혼잡 때문에(2.8%)'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학업상의 이유로'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업무(생업) 때문에'는 증가추세를 보임

<표 5-7>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67.3	18.4	6.0	2.8	2.2	3.3	100.0
	빈도	4,404	1,204	395	182	143	213	6,541
2014년	비율	67.9	19.2	4.9	2.3	2.0	3.7	100.0
	빈도	4,389	1,246	319	148	128	245	6,475
2013년	비율	68.0	18.9	4.5	2.3	2.2	3.7	100.0
	빈도	4,189	1,165	275	143	134	15	6,157



<그림 5-5>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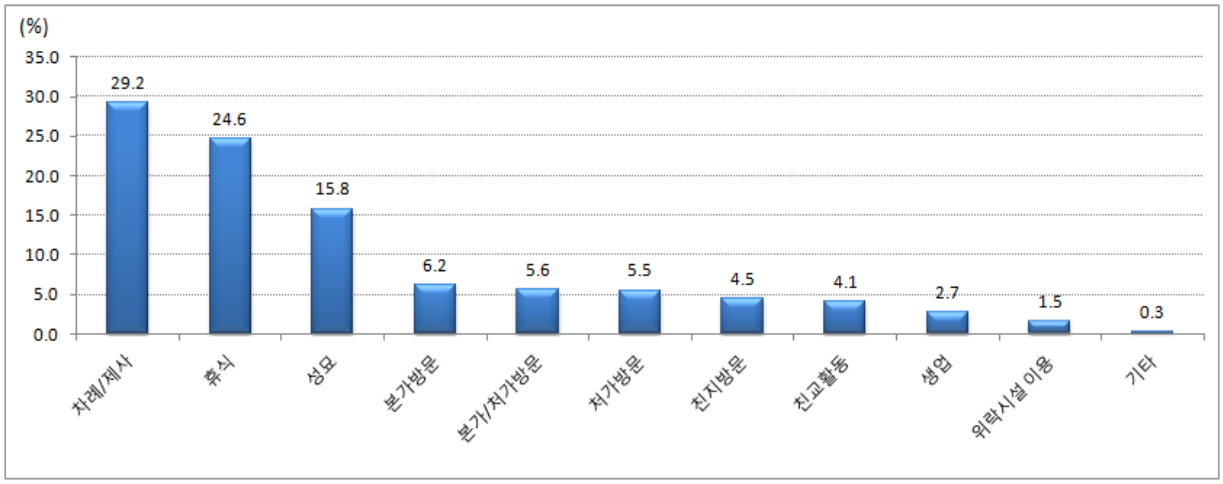
3)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응답자의 추석 연휴 계획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차례/제사'가 29.2%로 가장 많았고, '휴식'(24.6%), '성묘'(15.8%) 등의 순임

<표 5-8>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차례/제사	휴식	성묘	본가방문	본가/처가방문	처가방문	친지방문	친교활동	생업	위락시설이용	기타	합계
비율	29.2	24.6	15.8	6.2	5.6	5.5	4.5	4.1	2.7	1.5	0.3	100.0
빈도	4,182	3,521	2,267	891	808	784	647	586	385	219	7	14,297



<그림 5-6>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4) 추석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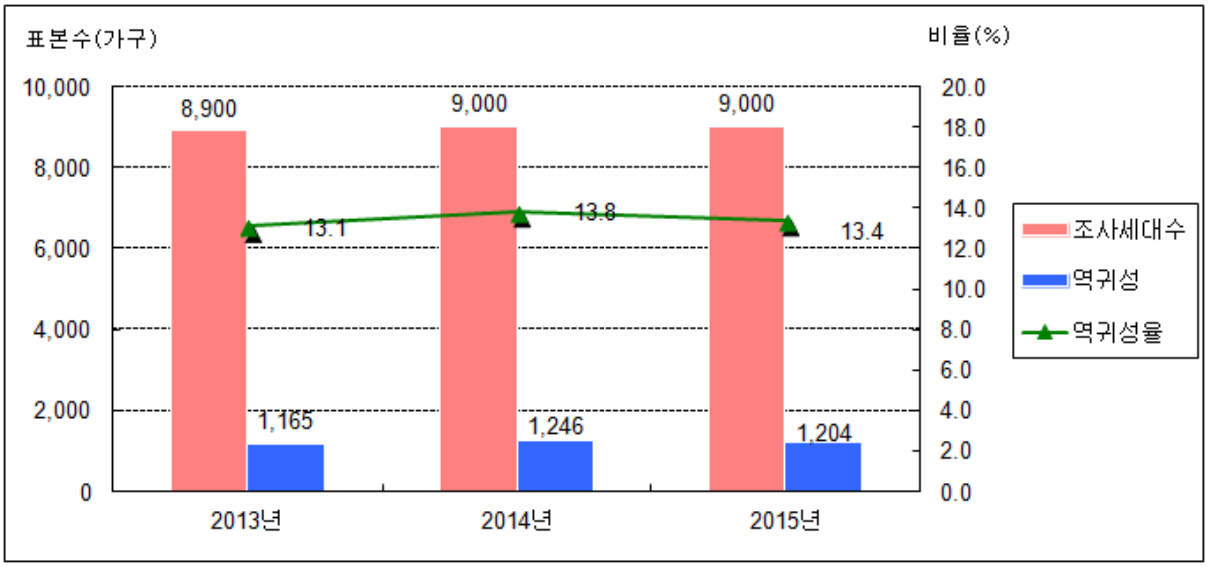
○ 추석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2014년) 대비 올해(2015년) 역귀성 비율이 소폭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남

<표 5-9>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1]	역귀성 비율[2]
2015년	빈도	9,000	1,204	13.4
2014년	빈도	9,000	1,246	13.8
2013년	빈도	8,900	1,165	13.1

주: 1) '올해(2015)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5-7>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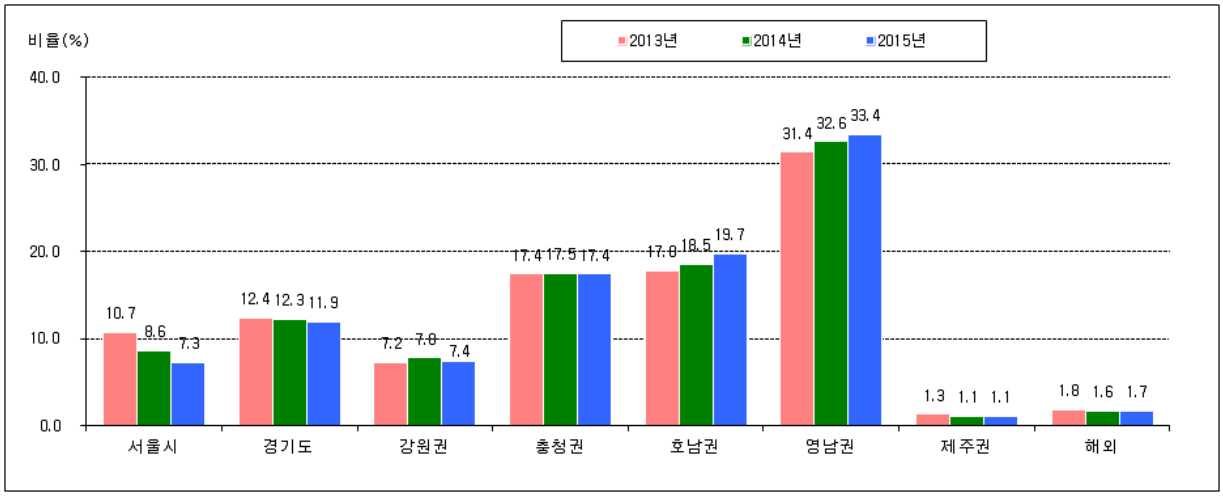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3.4%로 가장 높고, '호남권' 19.7%, '충청권' 17.4% 순임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영남권'의 비율이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서울시'의 비율은 감소 추세로 나타남

<표 5-1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5년	비율	7.3	11.9	7.4	17.4	19.7	33.4	1.1	1.7	100.0
	빈도	152	247	154	360	407	691	23	36	2,070
2014년	비율	8.6	12.3	7.8	17.5	18.5	32.6	1.1	1.6	100.0
	빈도	185	264	167	377	399	702	24	35	2,153
2013년	비율	10.7	12.4	7.2	17.4	17.8	31.4	1.3	1.8	100.0
	빈도	214	247	143	348	356	628	25	36	1,997



<그림 5-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10)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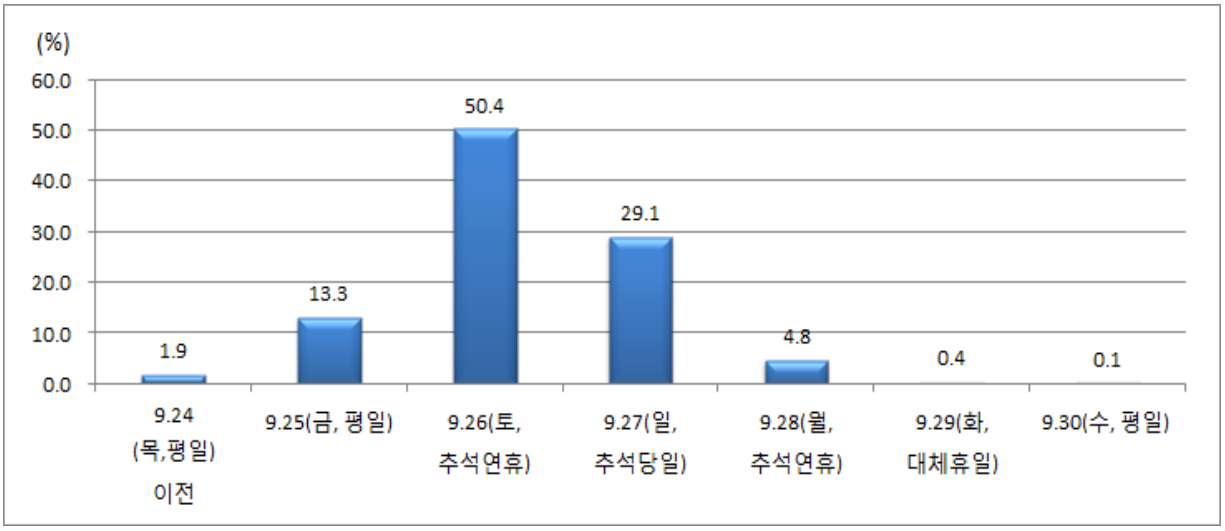
①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추석 전날인 '9월 26일(토)'이 50.4%로 가장 높았고,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일)'(29.1%), 추석 전전날인 '9월 25일(금)(13.3%)' 순임

<표 5-11>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24 (목,평일) 이전	9.25 (금, 평일)	9.26 (토, 추석 연휴)	9.27 (일, 추석당일)	9.28 (월, 추석 연휴)	9.29 (화, 대체 휴일)	9.30 (수, 평일)	합계
2015년	비율	1.9	13.3	50.4	29.1	4.8	0.4	0.1	100.0
	빈도	34	223	844	487	80	7	2	1,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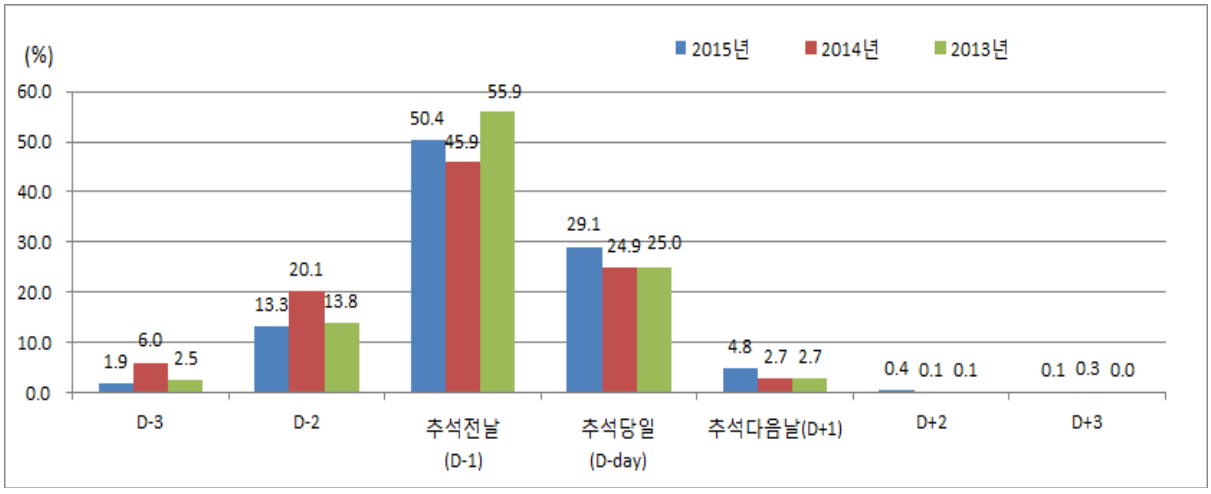
<그림 5-9>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출발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석 당일(D-day)'과 '추석 다음날(D+1)'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임

<표 5-12>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3	D-2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D+2	D+3	합계
2015년	비율	1.9	13.3	50.4	29.1	4.8	0.4	0.1	100.0
	빈도	34	223	844	487	80	7	2	1,677
2014년	비율	6.0	20.1	45.9	24.9	2.7	0.1	0.3	100.0
	빈도	104	352	806	436	48	1	7	1,754
2013년	비율	2.5	13.8	55.9	25.0	2.7	0.1	0.0	100.0
	빈도	40	227	916	410	45	1	0	1,639



<그림 5-10>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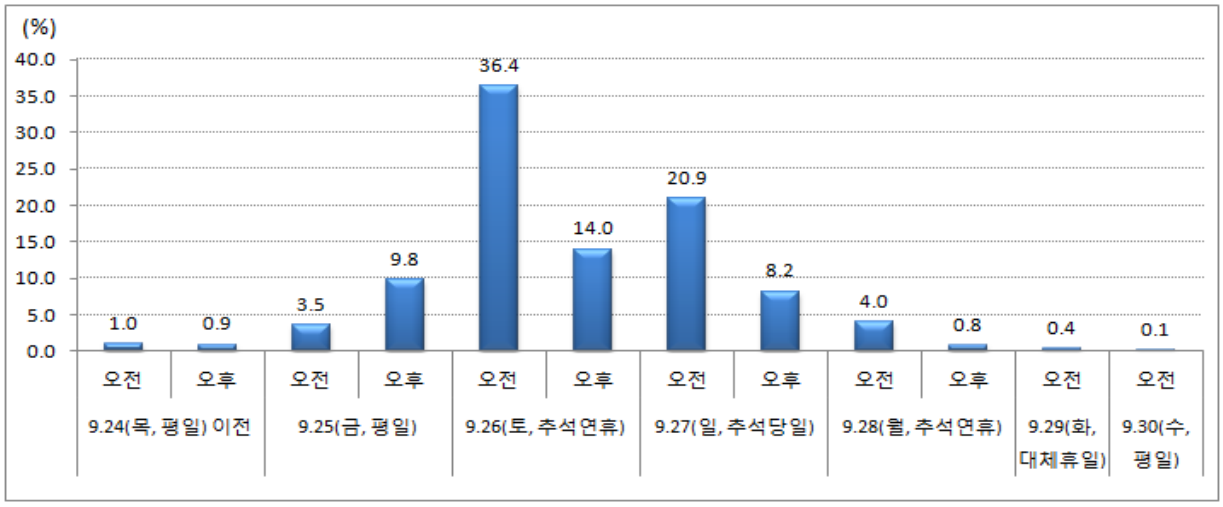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23일(토, 추석 연휴) 오전'이 36.4%로 가장 높고, '9월 27일(일, 추석당일) 오전'(20.9%), '9월 26일(토, 추석 연휴) 오후'(14.0%) 순임

<표 5-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24(목, 평일) 이전		9.25(금, 평일)		9.26(토, 추석 연휴)		9.27(일, 추석 당일)		9.28(월, 추석 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 평일)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1.0	0.9	3.5	9.8	36.4	14.0	20.9	8.2	4.0	0.8	0.4	-	0.1	-	100.0
빈도	19	15	59	164	610	234	350	137	67	13	7	-	2	-	1,677



<그림 5-11>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7)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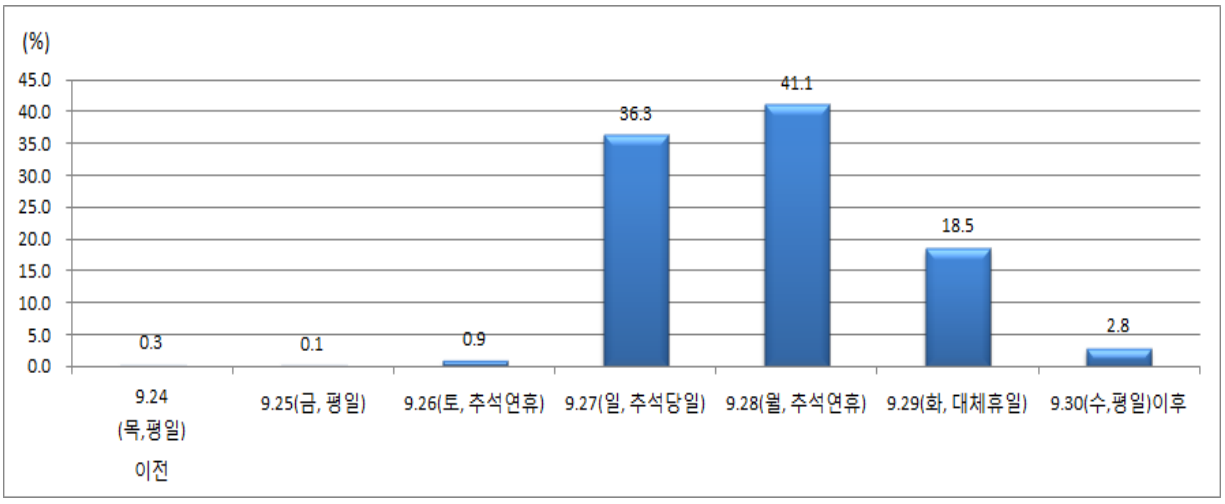
①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일자

○ 추석 연휴 기간의 귀가 예정일자는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월, 추석 연휴)'이 41.1%로 가장 높고, '9월 27일(일, 추석 당일)'(36.3%), '9월 29일(화, 대체휴일)'(18.5%) 순임

<표 5-14>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24 (목,평일) 이전	9.25(금, 평일)	9.26(토, 추석 연휴)	9.27(일, 추석 당일)	9.28(월, 추석 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평일)이후	합계
2015년	비율	0.3	0.1	0.9	36.3	41.1	18.5	2.8	100.0
	빈도	5	2	14	564	640	289	43	1,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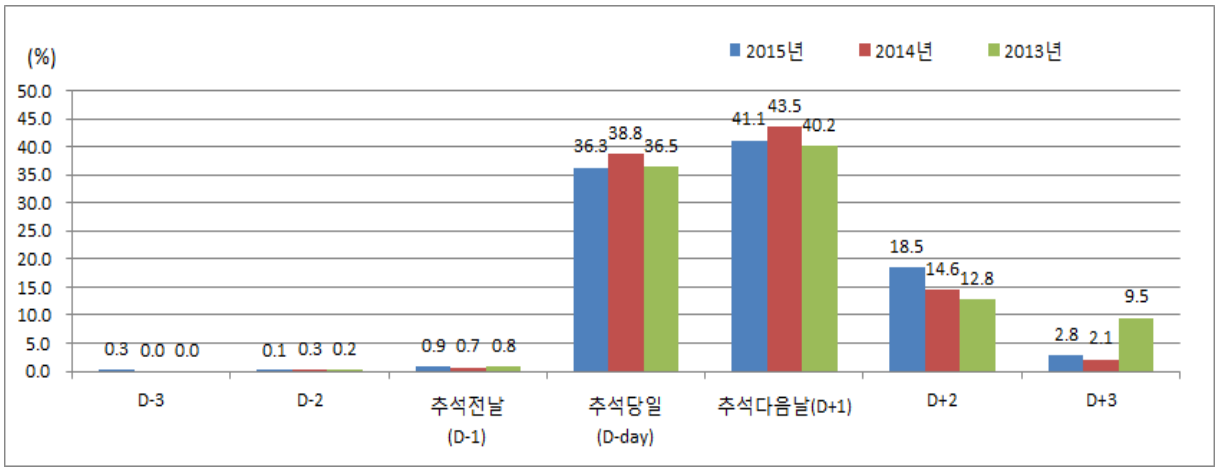
<그림 5-12>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출발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2'에 귀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임

<표 5-15>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3	D-2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D+2	D+3	합계
2015년	비율	0.3	0.1	0.9	36.3	41.1	18.5	2.8	100.0
	빈도	5	2	14	564	640	289	43	1,557
2014년	비율	0.0	0.3	0.7	38.8	43.5	14.6	2.1	100.0
	빈도	0	5	13	672	753	253	36	1,732
2013년	비율	0.0	0.2	0.8	36.5	40.2	12.8	9.5	100.0
	빈도	0	2	13	564	621	199	145	1,544



<그림 5-13>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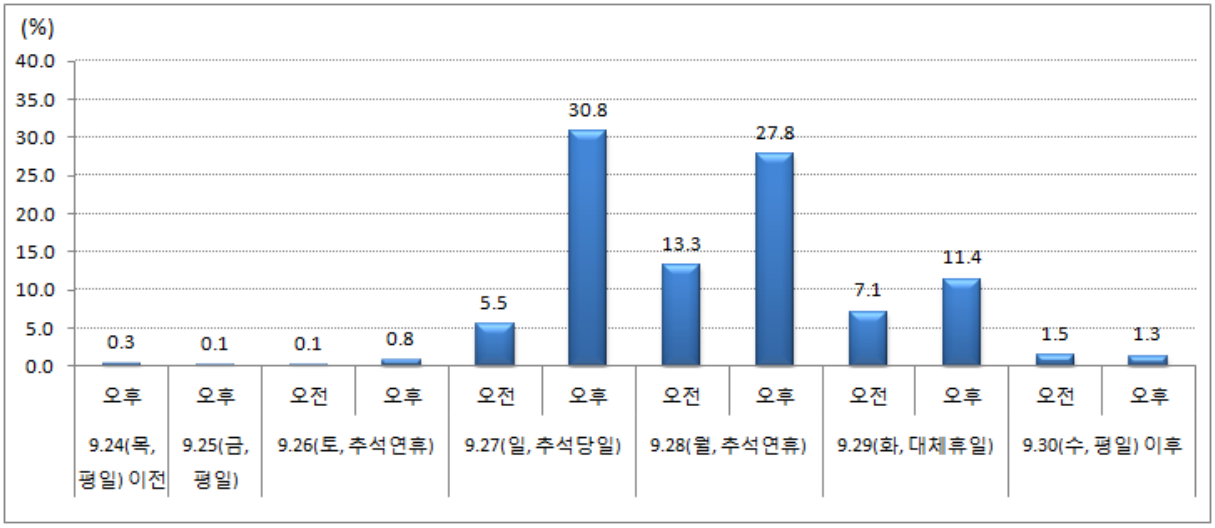
②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가(출발)일자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27일(일, 추석 당일) 오후'가 30.8%로 가장 높고, '9월 28일(월, 추석 연휴) 오후'(27.8%), '9월 28일(월, 추석 연휴) 오전'(13.3%) 순임

<표 5-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24(목, 평일) 이전		9.25(금, 평일)		9.26(토, 추석 연휴)		9.27(일, 추석 당일)		9.28(월, 추석 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 평일)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	0.3	-	0.1	0.1	0.8	5.5	30.8	13.3	27.8	7.1	11.4	1.5	1.3	100.0
빈도	-	5	-	2	1	13	85	479	207	433	111	178	22	21	1,557



<그림 5-14>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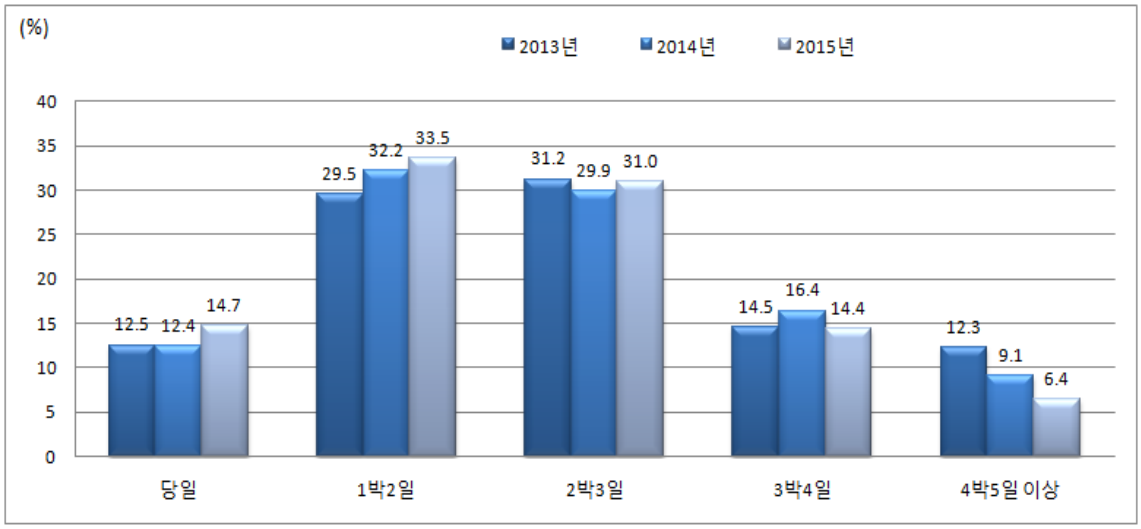
8) 체류일수

- 2015년 체류일수에 따르면, '1박 2일'이 33.5%로 가장 높고, '2박 3일'(31.0%), '당일'(14.7%), '3박 4일'(14.4%) 등의 순임
- 2013년부터 2015년 '4박5일 이상'은 감소 추세인 반면, '1박2일'은 증가 추세를 보임

<표 5-17>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상	합계
2015년	비율	14.7	33.5	31.0	14.4	6.4	100.0
	빈도	253	578	534	248	110	1,723
2014년	비율	12.4	32.2	29.9	16.4	9.1	100.0
	빈도	231	600	556	305	170	1,862
2013년	비율	12.5	29.5	31.2	14.5	12.3	100.0
	빈도	217	511	541	251	214	1,734



<그림 5-15> 체류일수(연도별)

9)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을 교차분석한 결과,

-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은 2013년이 24.7%로 가장 높음
- 올해(2015년)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당일(D-day)에 도착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
- 추석 당일(D-day)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 추세

<표 5-18>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단위: %)

출발일	도착일	연도별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추석 전날 (D-1)	추석 다음날 (D+1)	24.7	20.2	22.9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19.8	20.9	19.3
추석 당일 (D-day)	추석 당일 (D-day)	11.1	10.2	11.9
추석 전전날 (D-2)	추석 다음날 (D+1)	5.4	12.5	5.5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8.4	9.2	11.5

라.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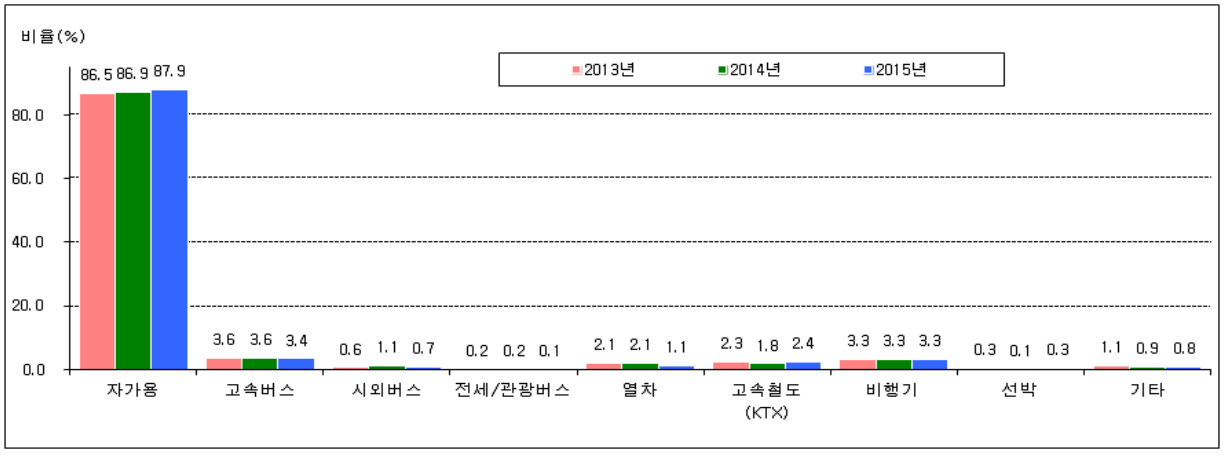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5년) 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7.9%(승용차 86.2%+승합차 1.7%)로 가장 높았고, '버스(4.2%, 고속버스 3.4%+시외버스 0.7%+전세/관광버스 0.1%)', '열차(3.5%, 일반열차 1.1%+고속열차 2.4%)'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가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일반열차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87.9	3.4	0.7	0.1	1.1	2.4	3.3	0.3	0.8	100.0
	빈도	1,782	68	14	3	23	49	67	5	15	2,026
2014년	비율	86.9	3.6	1.1	0.2	2.1	1.8	3.3	0.1	0.9	100.0
	빈도	1,858	78	23	5	45	39	71	3	16	2,138
2013년	비율	86.5	3.6	0.6	0.2	2.1	2.3	3.3	0.3	1.1	100.0
	빈도	1,716	72	12	3	41	46	65	6	23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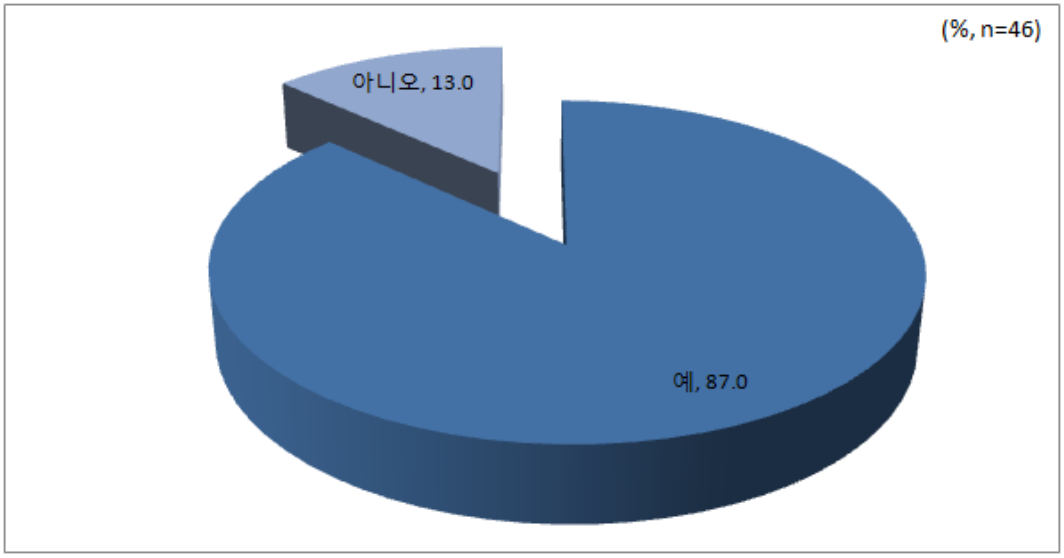
<그림 5-1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올해(2015년) KTX 개통으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KTX이용자를 대상으로 KTX개통의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 영향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87.0%로 나타남

<표 5-20>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주는 영향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비율	87.0	13.0	100.0
빈도	40	6	46



<그림 5-17> KTX개통이 주 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주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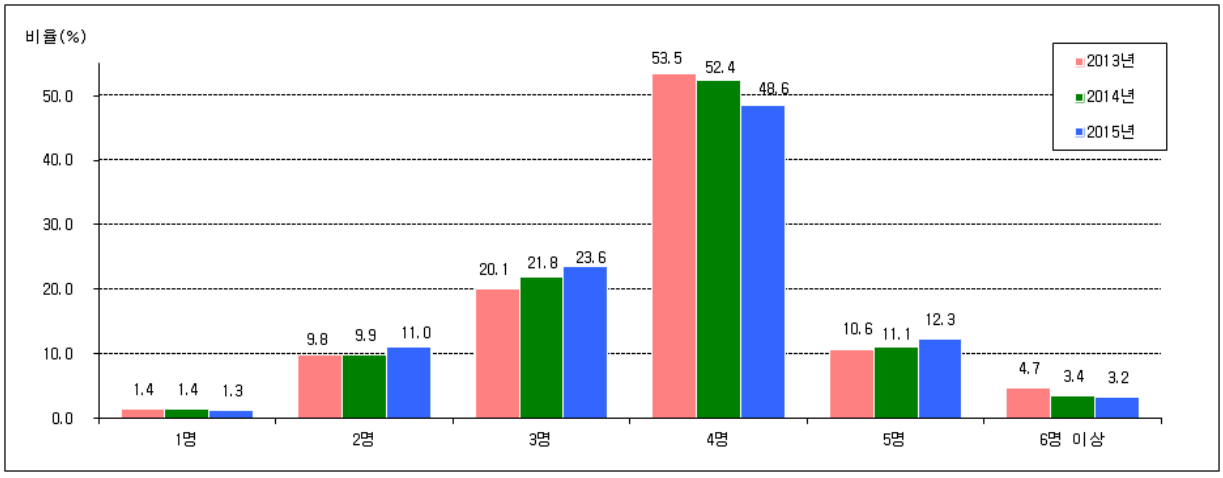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올해(2015년) 추석 연휴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48.6%로 가장 높고, '3명'(23.6%), '5명'(12.3%) 순임
- 2013년 이후 동행인 수 '4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명~3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5년	비율	1.3	11.0	23.6	48.6	12.3	3.2	100.0
	빈도	22	192	411	846	214	54	1,739
2014년	비율	1.4	9.9	21.8	52.4	11.1	3.4	100.0
	빈도	26	181	400	962	204	63	1,836
2013년	비율	1.4	9.8	20.1	53.5	10.6	4.7	100.0
	빈도	23	165	339	902	178	79	1,686



<그림 5-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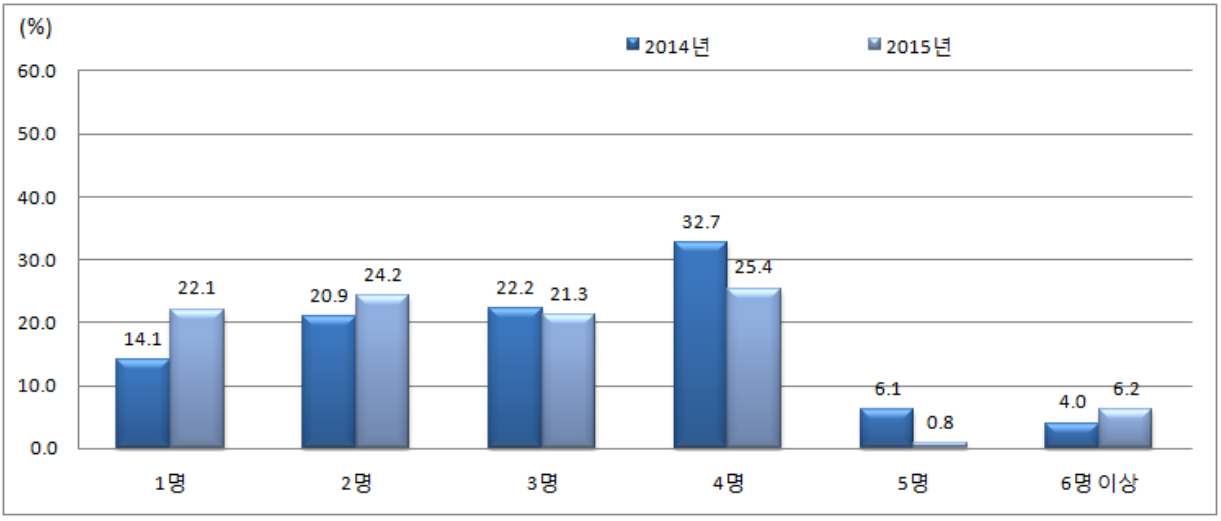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25.4%로 가장 높고, ‘2명’(24.2%), ‘1명’(22.1%) 순임

○ 2014년 대비 ‘3명’, ‘4명’, ‘5명’의 비율은 줄고, ‘1명’, ‘2명’, ‘6명 이상’의 비율은 증가함

<표 5-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5년	비율	22.1	24.2	21.3	25.4	0.8	6.2	100.0
	빈도	53	58	51	61	2	3	228
2014년	비율	14.1	20.9	22.2	32.7	6.1	4.0	100.0
	빈도	42	62	66	97	18	12	297



<그림 5-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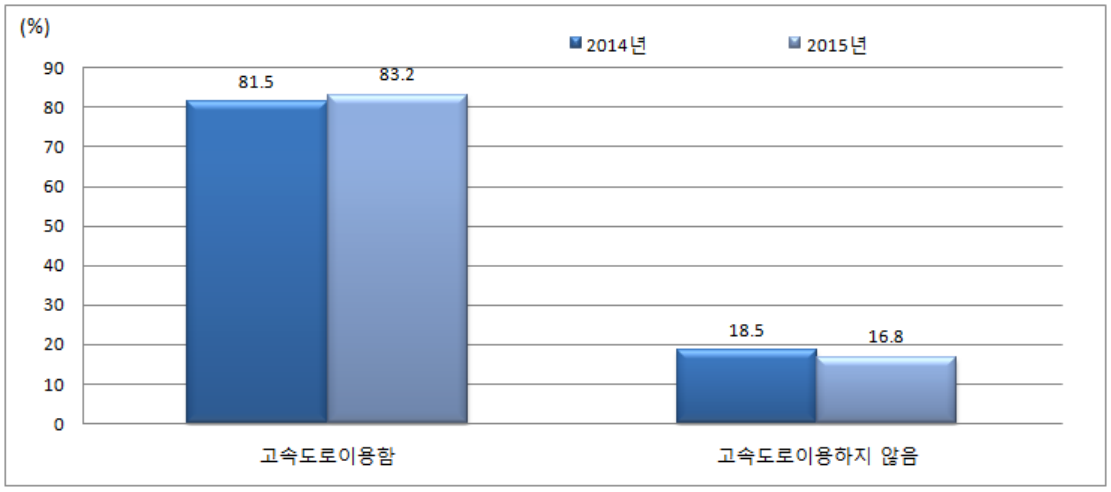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올해(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83.2%로 전년 대비 1.7% 증가함

<표 5-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음	합계
2015년	비율	83.2	16.8	100.0
	빈도	1,436	289	1,725
2014년	비율	81.5	18.5	100.0
	빈도	1,506	341	1,847



<그림 5-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0.5%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선'(13.0%), '영동선'(9.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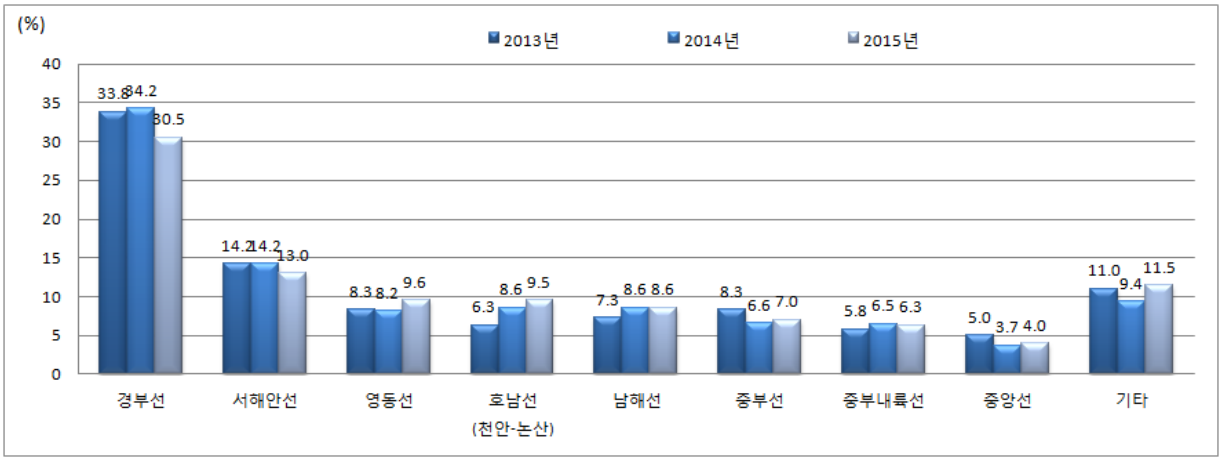
- 기타 고속도로로는 '익산-포항선'(1.9%), '88올림픽고속도로'(1.6%) 등임

○ 연도별로는 '호남선'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부내륙	중앙선	남해선	기타	계
2015년	비율	30.5	7.0	9.6	9.5	13.0	6.3	4.0	8.6	11.5	100.0
	빈도	438	100	138	137	187	91	57	123	165	1,436
2014년	비율	34.2	6.6	8.2	8.6	14.2	6.5	3.7	8.6	9.4	100.0
	빈도	515	100	123	129	213	98	56	130	142	1,506
2013년	비율	33.8	8.3	8.3	6.3	14.2	5.8	5.0	7.3	11.0	100.0
	빈도	446	109	110	83	187	77	66	96	145	1,319



<그림 5-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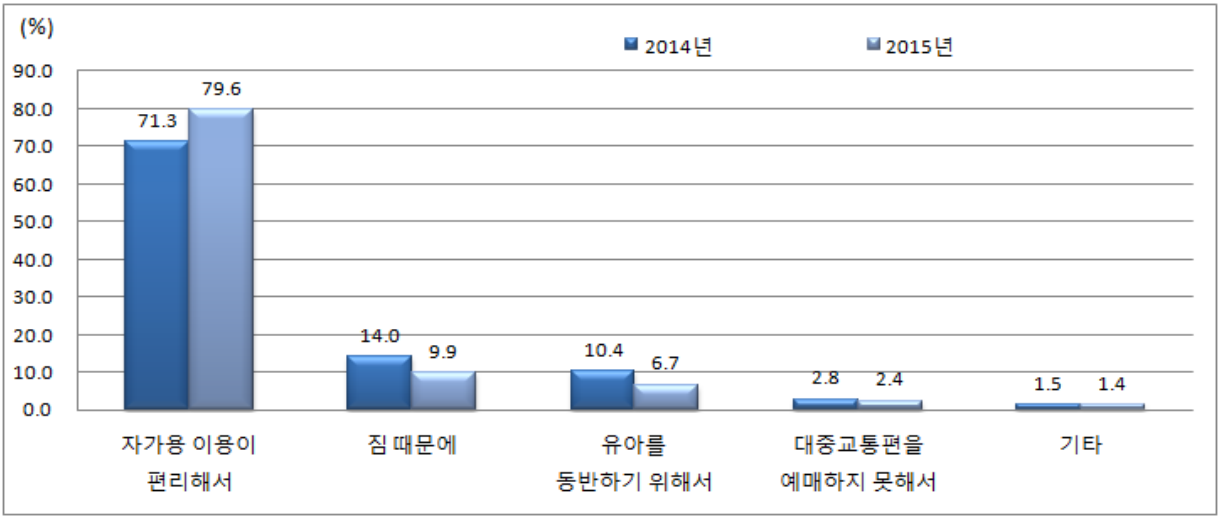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9.6%), '짐 때문에(음식물이나 추석선물 등)'(9.9%) 등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1.4%)가 있음

<표 5-2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짐 때문에 (음식물이나 추석 선물 등)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79.6	9.9	6.7	2.4	1.4	100.0
	빈도	1,415	176	120	42	25	1,778
2014년	비율	71.3	14.0	10.4	2.8	1.5	100
	빈도	1,317	258	194	52	27	1,848



<그림 5-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47.9%), '꼭 비행기로 이동해야 해서'(35.3%)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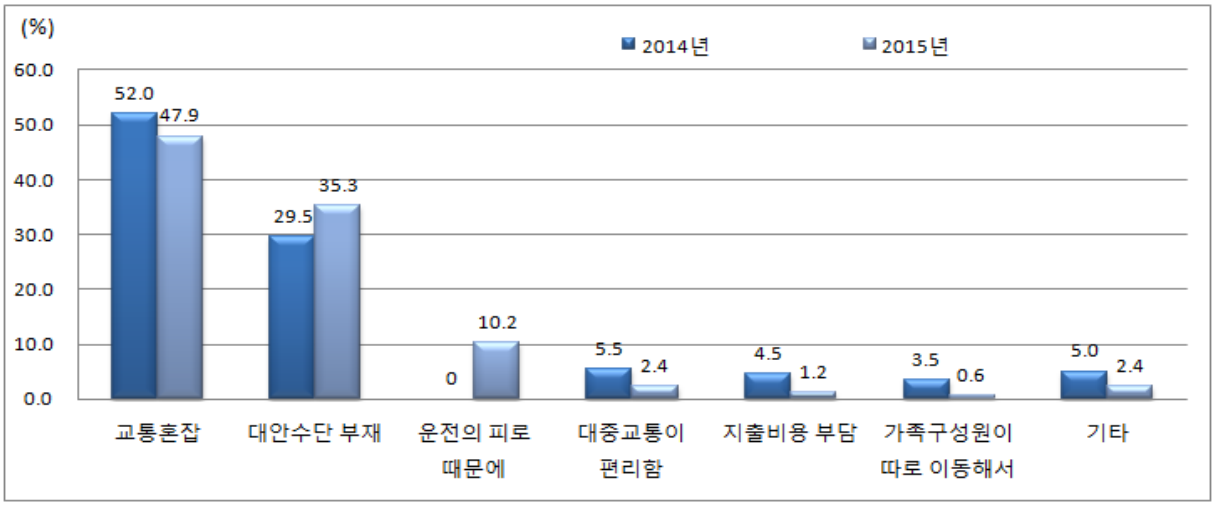
- 기타 응답으로는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등이 있음

○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대안수단 부재'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5-26>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교통혼잡	대안수단 부재	운전의 피로 때문에	대중 교통이 편리함	지출비용 (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47.9	35.3	10.2	2.4	1.2	0.6	2.4	100.0
	빈도	80	59	17	4	2	1	4	167
2014년	비율	52.0	29.5	-	5.5	4.5	3.5	2.0	100.0
	빈도	104	59	-	11	9	7	10	200



<그림 5-23>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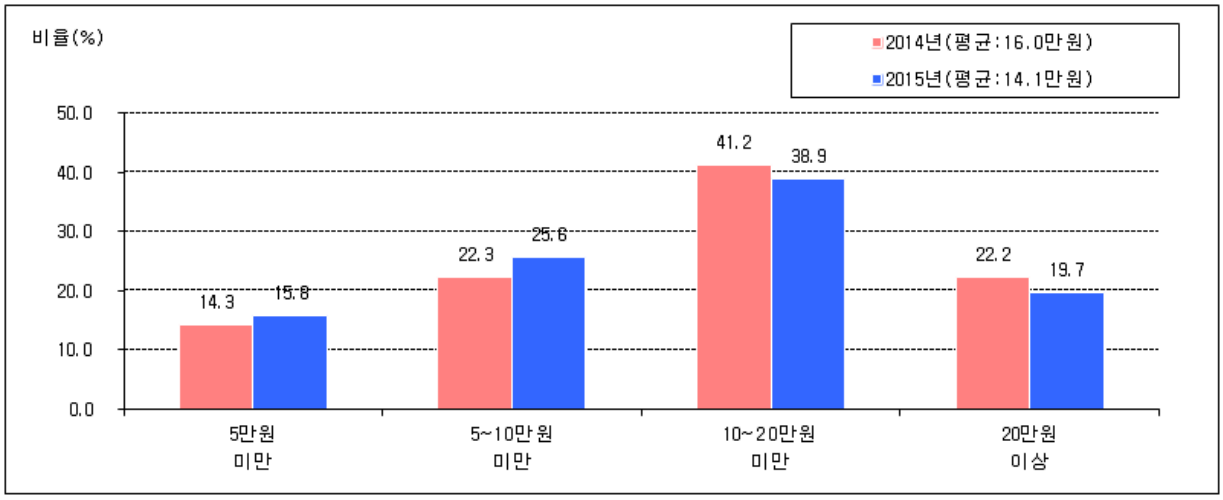
마. 추석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4만 1천원으로 나타나, 작년(2014년) 16만원 대비 감소(-1만 9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5-27>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올해 (2015년)	비율	15.8	25.6	38.9	19.7	100.0	14.1
	빈도	246	399	606	306	1,557	
작년 (2014년)	비율	14.3	22.3	41.2	22.2	100.0	16.0
	빈도	257	402	741	399	1,799	



<그림 5-24>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바.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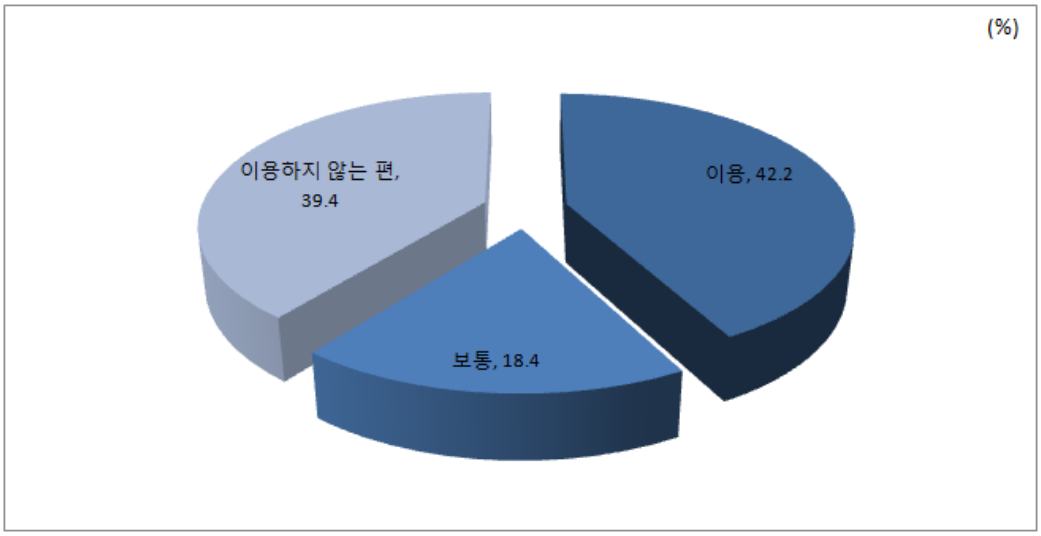
1)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에 따르면, 이용 비율은 60.6%(이용 42.2%+보통 18.4%)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39.4%로 나타남

<표 5-28>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합계
2015년	비율	42.2	18.4	39.4	100.0
	빈도	848	370	790	2,008



<그림 5-25>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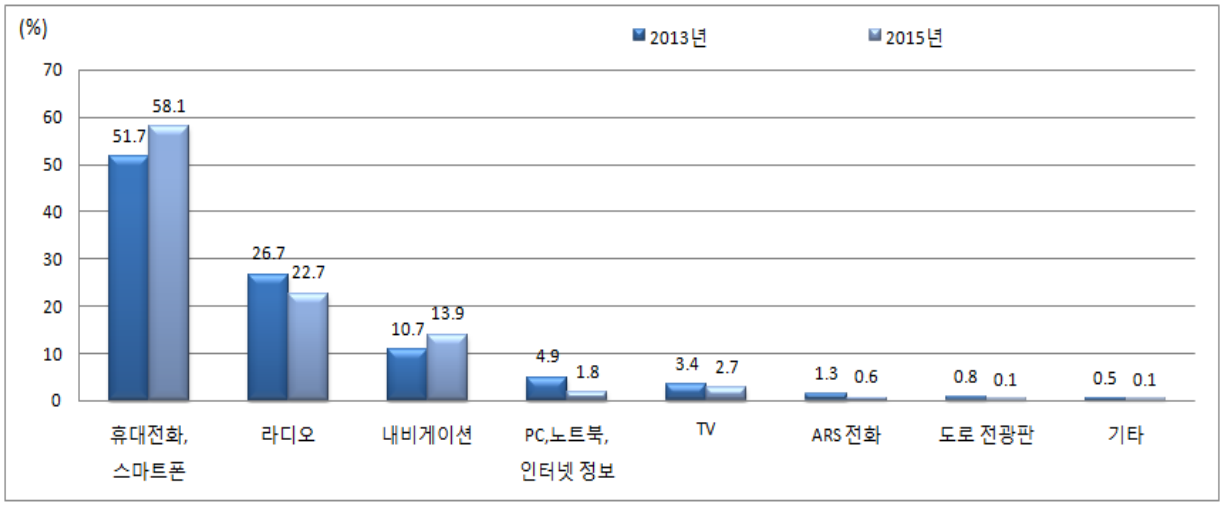
2)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신처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58.1%로 가장 많았고, '라디오'(22.7%), '내비게이션'(13.9%) 등으로 나타남
- 2013년[11] 대비 '휴대전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비율은 증가하고, '라디오',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등은 감소함

<표 5-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휴대전화, 스마트폰	라디오	내비게이션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TV	ARS전화	도로 전광판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58.1	22.7	13.9	1.8	2.7	0.6	0.1	0.1	100.0
	빈도	705	275	169	22	33	7	2	1	1,214
2013년	비율	51.7	26.7	10.7	4.9	3.4	1.3	0.8	0.5	100.0
	빈도	501	259	104	47	33	12	8	5	969



<그림 5-26>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11] 2014년 추석 사전에는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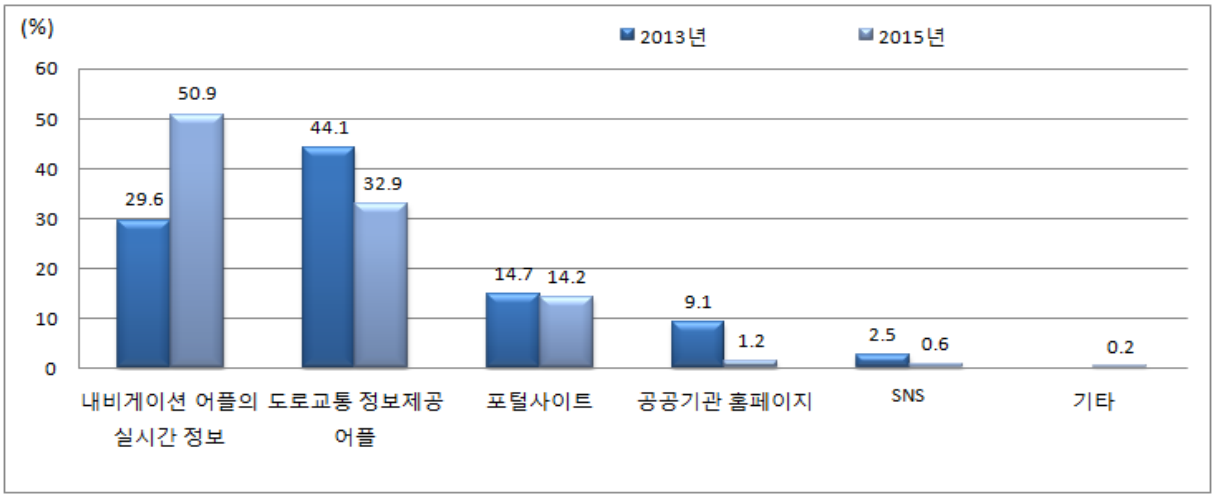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신처를 조사한 결과,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정보'가 50.9%로 가장 높고,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32.9%), '포털사이트'(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정보'의 비율은 증가하고,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의 비율은 감소함

<표 5-30>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정보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50.9	32.9	14.2	1.2	0.6	0.2	100.0
	빈도	329	213	92	8	4	1	647
2013년	비율	29.6	44.1	14.7	9.1	2.5	-	100.0
	빈도	131	195	65	40	11	-	442



<그림 5-27>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

사. 기타 사항

1)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및 휴식여부

- 대체휴일제에 대해 79.5%가 인지하고 있으며,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작된 2014년 추석(59.3%)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대체휴일제 휴식여부에 따르면 휴식한다는 응답은 70.5%로 나타남

<표 5-31>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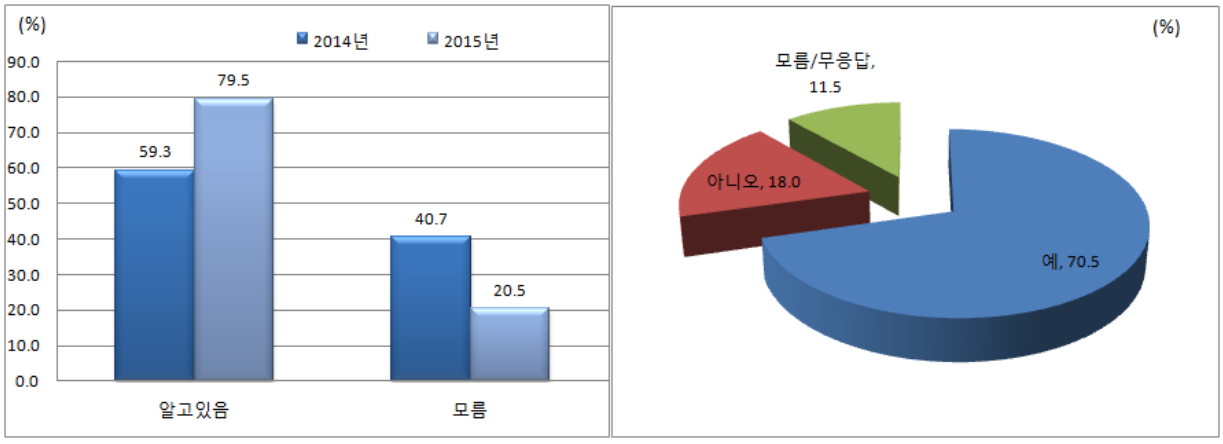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대체휴일제 인지하고 있음	대체휴일제 인지하지 못함	합계
2015년	비율	79.5	20.5	100.0
	빈도	6,837	1,761	8,598
2014년	비율	59.3	40.7	100.0
	빈도	5,271	3,617	8,888

<표 5-32> 대체휴일제 휴식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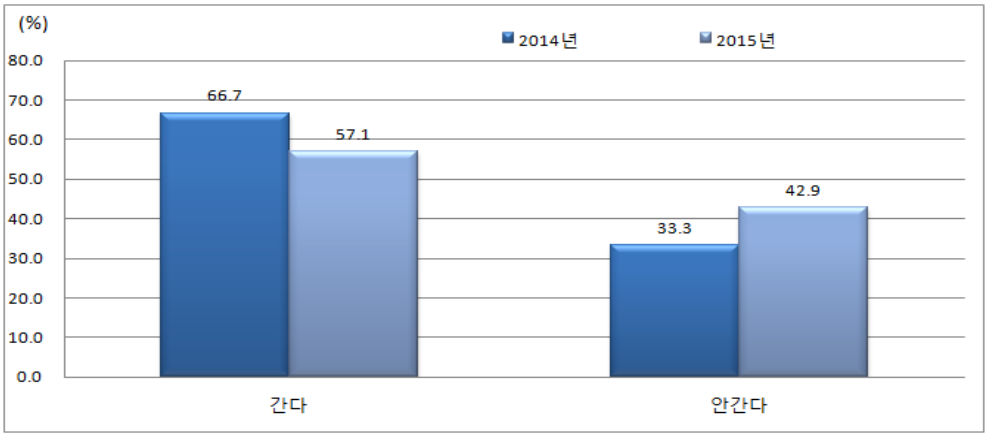
구 분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합계
2015년	비율	70.5	18.0	11.5	100.0
	빈도	4,821	1,232	784	6,837



<그림 5-28>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및 휴식여부

2)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여부

○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7.1%로, 작년(66.7%) 대비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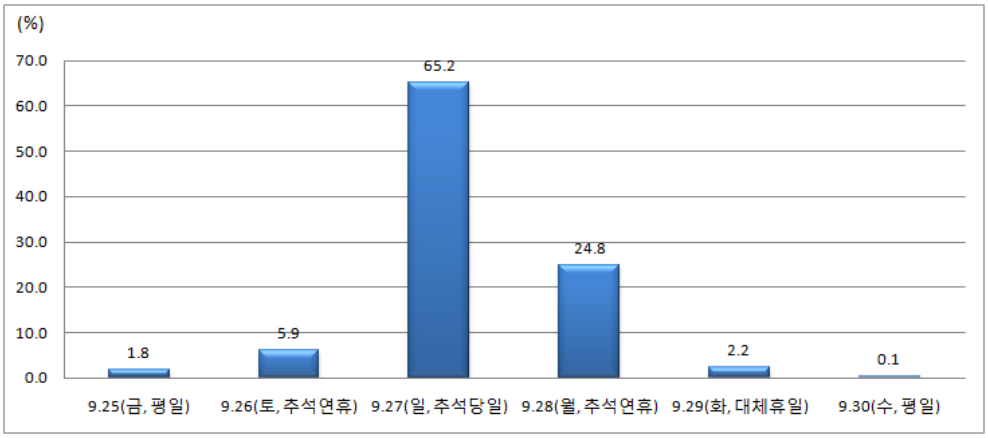
<그림 5-29>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여부

○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로의 출발일은 '9월 27일(일, 추석 당일)'(65.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9월 28일(월, 추석 연휴)'(24.8%), '9월 26일(토, 추석 연휴)'(5.9%)로 나타남

<표 5-33>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25(금, 평일)	9.26(토, 추석 연휴)	9.27(일, 추석 당일)	9.28(월, 추석 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 평일)	합계
전체	비율	1.8	5.9	65.2	24.8	2.2	0.1	100.0
	빈도	15	50	550	209	19	1	844



<그림 5-30>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3)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계획

○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계획을 조사한 결과, 성묘를 한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났으며, '추석 연휴' 중에 성묘 예정인 응답자가 56.8%, '추석 연휴 전'이 37.9%, '추석 연휴 이후'가 5.3%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추석 연휴'에 성묘하는 비율이 증가함

<표 5-34>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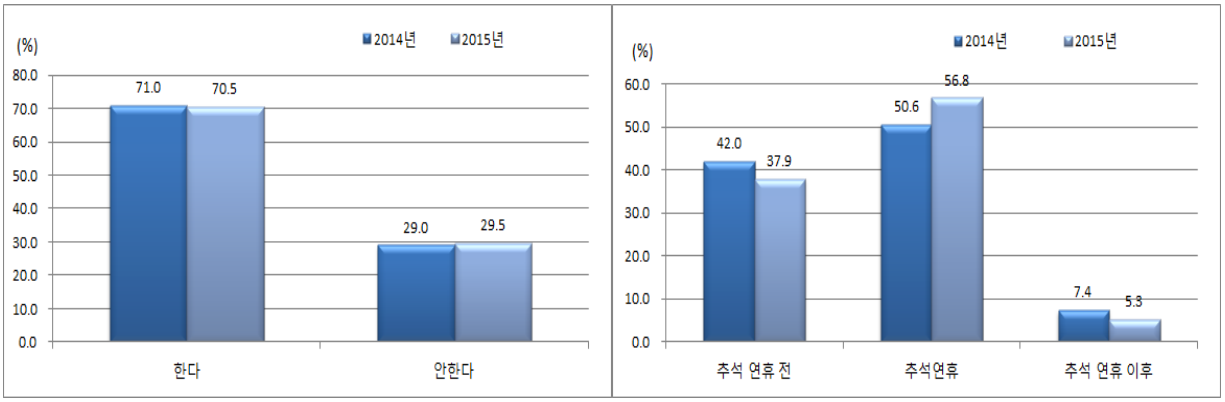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석 연휴 전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이후	성묘를 가지 않음	합계
2015년	비율	26.8	40.1	3.7	29.5	100.0
	빈도	2,331	3,490	326	2,567	8,714
2014년	비율	29.8	35.9	5.3	29.0	100.0
	빈도	2,605	3,135	461	2,531	8,732

<표 5-35>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성묘 가지않음 제외)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석 연휴 전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이후	합계
2015년	비율	37.9	56.8	5.3	100.0
	빈도	2,331	3,490	326	6,147
2014년	비율	42.0	50.6	7.4	100.0
	빈도	2,605	3,135	461	6,201



<그림 5-31>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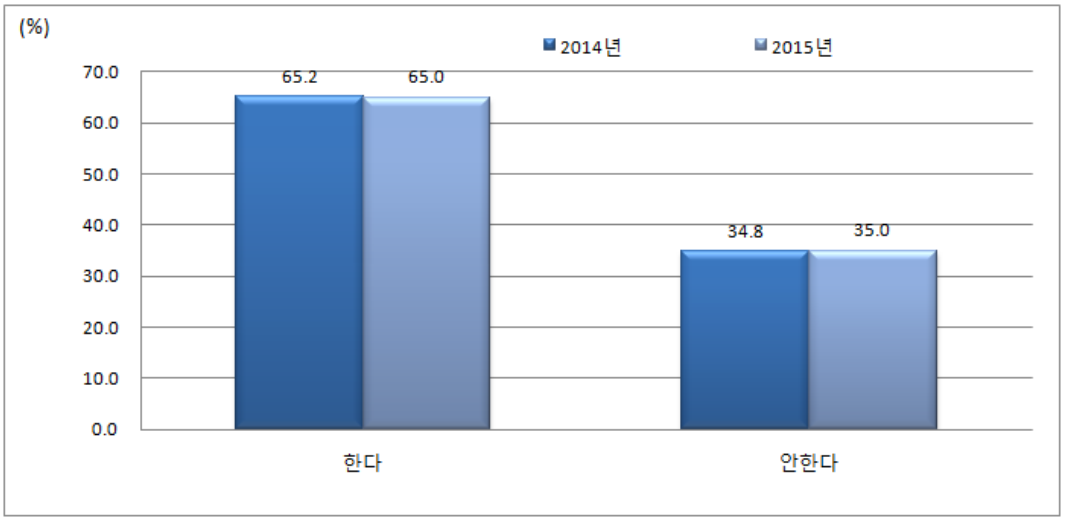
4) 벌초 계획

○ 벌초 계획이 있는 가구는 65.0%로 전년(2014년) 대비 소폭 하락(-0.2%)함

<표 5-36> 벌초 계획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벌초함	벌초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65.0	35.0	100.0
	빈도	5,722	3,087	8,809



<그림 5-32> 벌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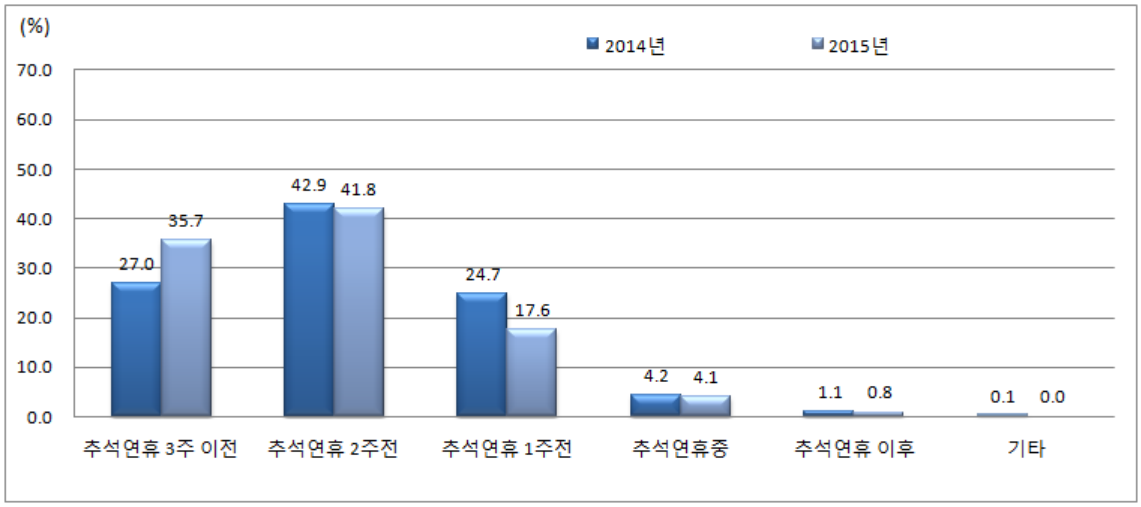
○ 벌초 시기를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2주전'(41.8%)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추석 연휴 3주 이전'(35.7%), '추석 연휴 1주전'(17.6%) 순으로 일반적으로 벌초는 추석 연휴 이전(95.1%)에 진행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대비 '추석 연휴 3주 이전'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추석 연휴 1주전'의 비율은 감소함

<표 5-37> 벌초 시기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추석 연휴 3주 이전	추석 연휴 2주전	추석 연휴 1주전	추석 연휴 중	추석 연휴 이후	합계
전체	비율	35.7	41.8	17.6	4.1	0.8	100.0
	빈도	1,787	2,097	882	205	41	5,012



<그림 5-33> 벌초 시기

5) D턴 여부 및 유형

- 추석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들르는 D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로 나타남
- D턴 지역의 유형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41.4%로 가장 높고,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이 19.0%,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13.8% 등의 순임

<표 5-38> D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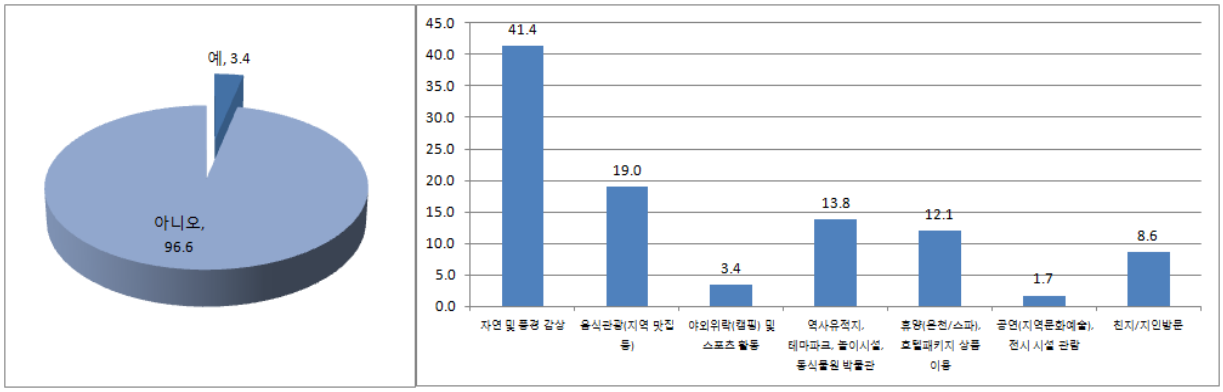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3.4	96.6	100.0
	빈도	67	1,919	1,986

<표 5-39> D턴 유형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연 및 풍경감상	음식관광 (지역 맛집 등)	야외위락 (캠핑) 및 스포츠 활동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공연(지역 문화예술), 전시시설 관람	친지/지인 방문	합계
전체	비율	41.4	19.0	3.4	13.8	12.1	1.7	8.6	100.0
	빈도	24	11	2	8	7	1	5	58



<그림 5-34> D턴 여부 및 유형

6)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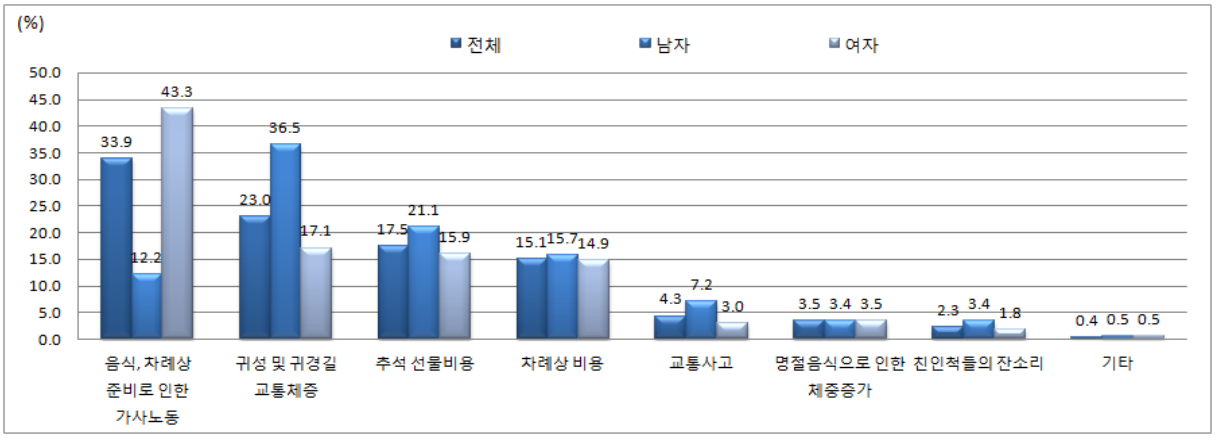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33.9%),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23.0%), '추석 선물비용',(17.5%), '차례상 비용'(15.1%) 등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르면, 여자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43.3%)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36.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친인척간의 불화', '가족건강'(각각 0.1%) 등이 있음

<표 5-40>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추석 선물비용	차례상 비용	교통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들의 잔소리	기타
전체	비율		33.9	23.0	17.5	15.1	4.3	3.5	2.3	0.4
	빈도		1,954	1,326	1,009	873	247	200	134	28
성별	남	비율	12.2	36.5	21.1	15.7	7.2	3.4	3.4	0.5
		빈도	213	638	368	274	125	59	60	11
	여	비율	43.3	17.1	15.9	14.9	3.0	3.5	1.8	0.5
		빈도	1,741	688	641	599	122	141	7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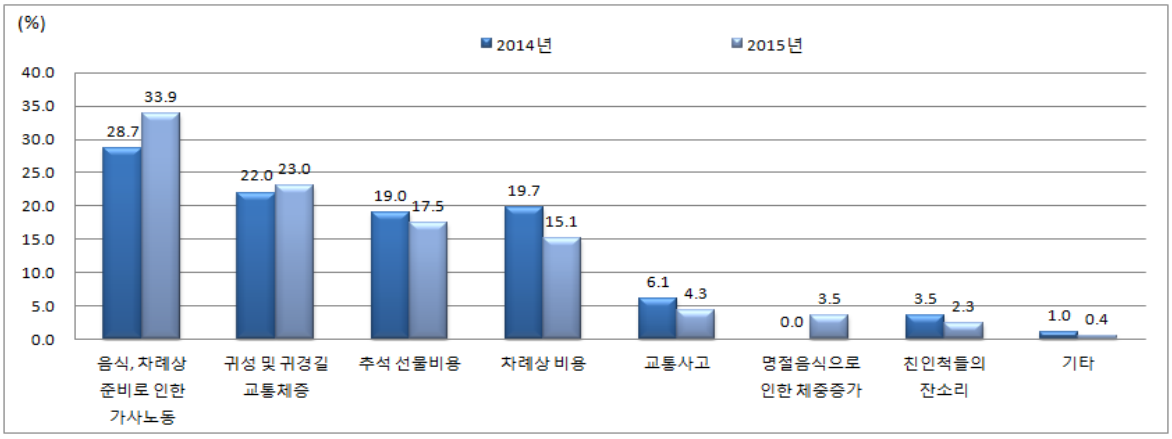
<그림 5-35>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연도별로 살펴보면,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은 증가하였고, '추석 선물 비용', '차례상 비용', '교통사고' 등은 감소함

<표 5-4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 체증	추석 선물 비용	차례상 비용	교통 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들의 잔소리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33.9	23.0	17.5	15.1	4.3	3.5	2.3	0.4	100.0
	빈도	1,954	1,326	1,009	873	247	200	134	28	5,771
2014년	비율	28.7	22.0	19.0	19.7	6.1	-	3.5	1.0	100.0
	빈도	1,720	1,318	1,140	1,181	368	-	210	50	5,987



<그림 5-36>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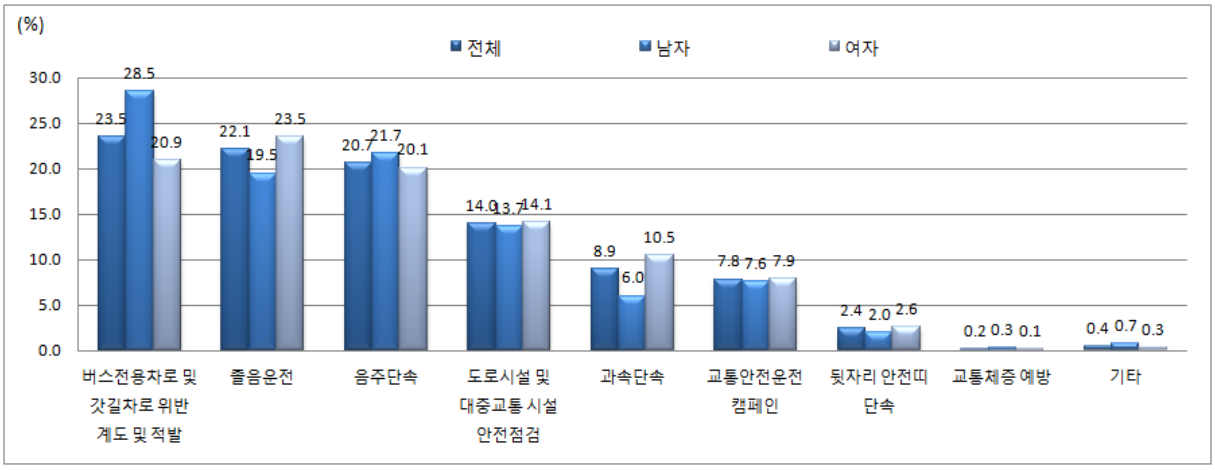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이 23.5%로 가장 많고, '졸음운전'(22.1%), '음주단속'(20.7%),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14.0%) 등의 순임

- 기타응답으로는 '끼어들기 단속', '대중교통 증편'(각각 0.1%) 등이 있음
- 성별로는 남자는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졸음운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2>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졸음운전	음주단속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과속단속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뒷자리 안전띠 단속	교통체증 예방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23.5	22.1	20.7	14.0	8.9	7.8	2.4	0.2	0.4	100.0
	빈도	1,923	1,807	1,689	1,144	730	638	197	14	35	8,177



<그림 5-3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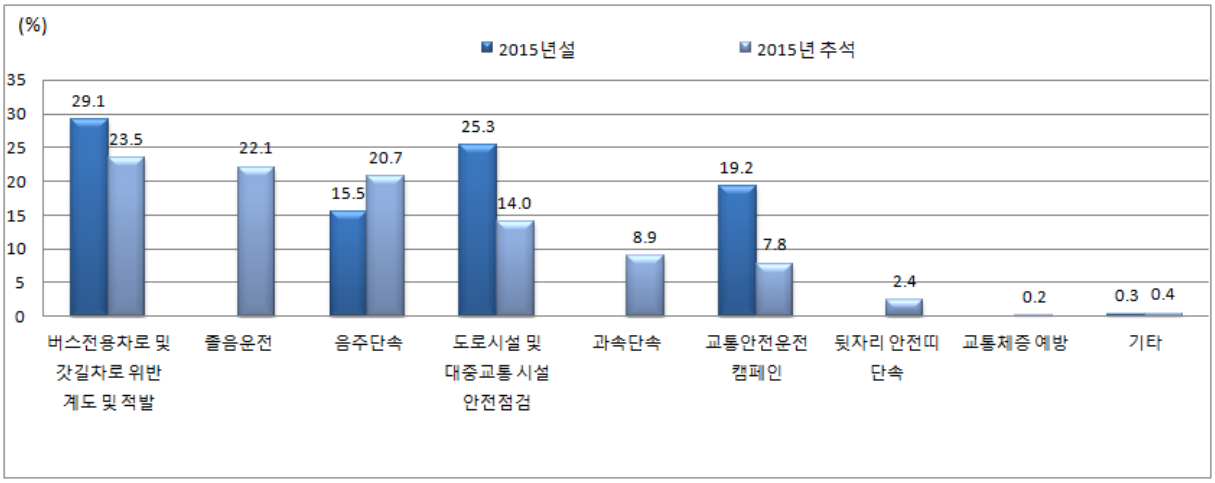
○ 2015년 설과 비교하면,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교통안전운전 캠페인'은 감소하고, '음주단속'은 증가함

<표 5-43>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2015년 설 비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졸음운전	음주단속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과속단속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뒷자리 안전띠 단속	교통체증 예방	기타	합계
2015년 추석	비율	23.5	22.1	20.7	14.0	8.9	7.8	2.4	0.2	0.4	100.0
	빈도	1,923	1,807	1,689	1,144	730	638	197	14	35	8,177
2015년 설	비율	29.1	-	15.5	25.3	-	19.2	-	-	0.3	100.0
	빈도	2,441	-	1,298	2,127	-	1,612	-	-	28	8,396

주: 2015년 설 대비 2015년 추석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음



<그림 5-38>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2015년 설 비교)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추석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5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5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5일간 통행은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 성묘 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통행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2014년 특별교통대책기간 수단별 수송실적 조사	○ 전년도인 2014년의 수단별 수송실적을 조사하여 2015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에 활용
⇓	
2015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통행 특성 설문조사	○ 전년도 2014년의 귀성여부와 올해 2015년의 귀성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행패턴을 예측 ○ 지역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단위로 전화설문조사
⇓	
수단별 수송수요 (권역간 O/D) 예측	○ 2014년 수송실적자료와 2015년 통행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5년 권역간 수송수요를 예측 ○ 과거년도 연휴기간 통행패턴 변화 참조

<그림 5-39>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199만명, 1일 평균 640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588만명/일)에 비해 8.8% 증가하고, 평시(358만명/일)보다 78.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3.0%,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2.2%, 철도가 3.6%, 항공 0.6%, 해운 0.6%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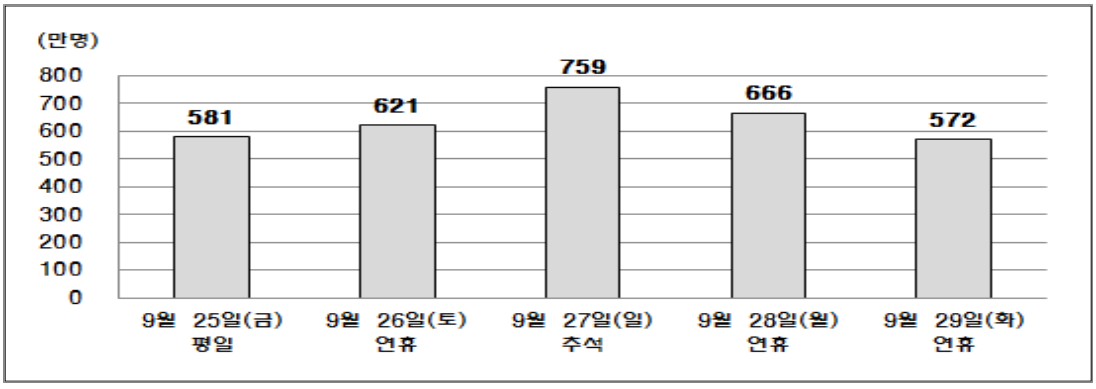
<표 5-44> 201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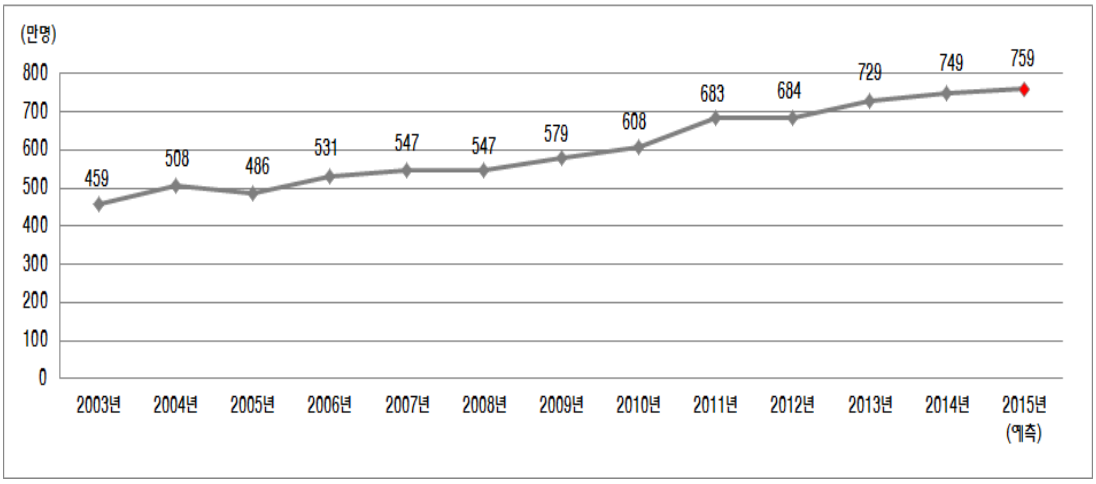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추석 연휴 기간(´15.9.25~9.29)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670	5,305	26,524	83.0	198.7
	버스	고속버스	47	67	336	1.0	144.1
		시외·전세	662	718	3,592	11.2	108.5
철도			152	232	1,159	3.6	152.9
항공			33	37	183	0.6	112.1
해운			20	39	197	0.6	196.0
합계			3,582	6,398	31,991	100.0	178.6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9월 27일(추석 당일) 759만명으로 작년 대비(749만명, 9월 8일 추석 당일) 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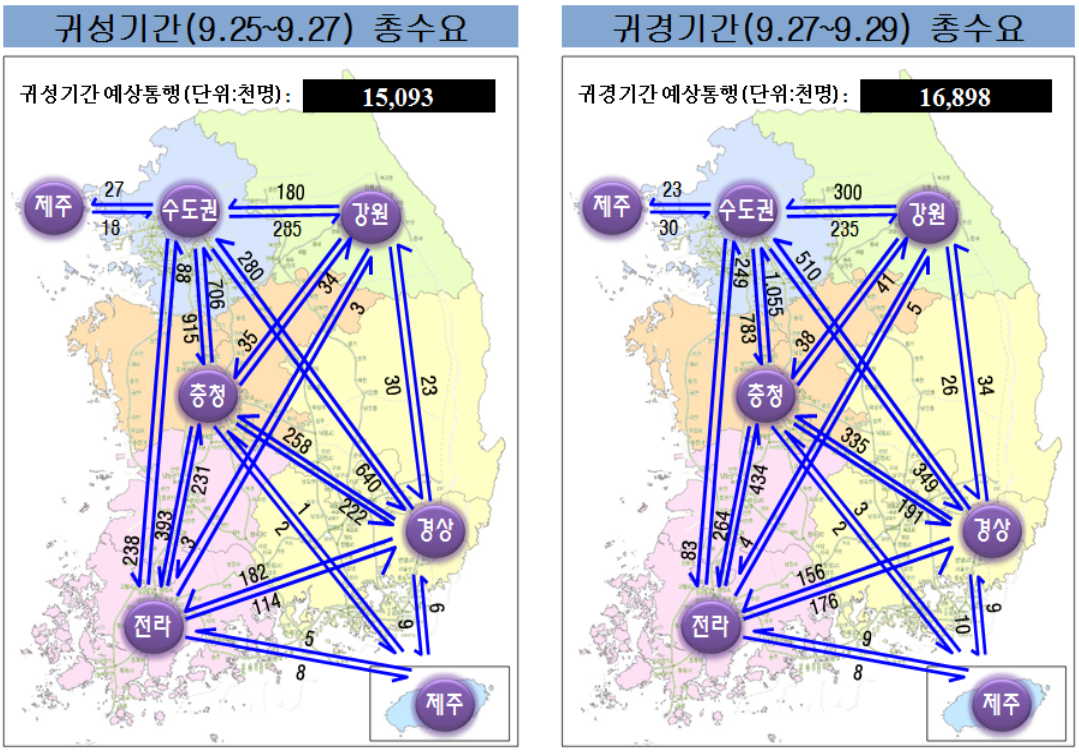


<그림 5-40>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5-41>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509만명, 귀경시 1,69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2.6%, 귀경시 42.1%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5-42> 2015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교통수요예측결과와 기간 중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5~9.29, 5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68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789천명으로 98.1%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1.9%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17.3%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5년 평시보다 98.1% 증가

<표 5-45>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4년 실적 (일평균) (A)	2015년 평시 (일평균) (B)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946	2,670	5,305	26,524	5,403	27,017	98.2	▼1.8	109.2	202.4
고속버스	70	47	67	336	81	407	82.7	▼17.3	115.7	172.3
철도	213	152	232	1,159	231	1,156	100.4	▲0.4	108.5	152.0
항공	33	33	37	183	39	194	94.9	▼5.1	118.2	118.2
해운	35	20	39	197	34	169	114.7	▲14.7	97.1	170.0
전체	5,297	2,922	5,680	28,399	5,789	28,943	98.1	▼1.9	109.3	198.1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금년 사업에서는 가정의 달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의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 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하였음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하였으며,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 변경 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 2015년 설 연휴[11] : 귀성지 유형, 가족구성원이 함께 귀성 및 여행을 가는지 여부,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 D턴 여부 및 지역/유형,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설 연휴 귀성시 혼잡정도 예상, 처가방문 일자, 설 연휴 계획을 결정하는 가족구성원, 특별교통대책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 2015년 하계휴가 : 예년 대비 하계휴가 예정시기, 호남선 KTX개통이 전라권 방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적지에서의 렌터카 이용계획,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변경 정도, 최근 가족여행 시기
  - · 2015년 추석 연휴 : 대체휴일 휴식여부,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추석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귀성 출발예정 시간에 출발하는

[11]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이유, D턴 여부 및 지역/유형, 호남선 KTX 개통이 주이용 교통수단 선택시 영향 여부, 목적지에서의 렌터카 이용 여부, 동행인 유형,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휴대폰 이용시 구체적인 수신처,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 확대(수도권 및 광역시→전국) 및 표본수 증대(약 4천표본→9천표본)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하였음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시범조사를 적은 규모의 표본으로 실시하여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 설 및 추석 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을 적용하였음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하였음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하계휴가 기간에는 해외 및 제주도 여행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 여행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귀경객에 대한 분산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5년 설 연휴의 경우 4.9%, 2015년 가정의 달의 경우 6.4%, 2015년 하계휴가의 경우 26.0%, 2015년 추석 연휴의 경우는 1.9%의 오차율을 보임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각각 해운(28.0%), 승용차(27.9%), 가정의 달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각각 36.6%, 17.3%로 가장 큰 오차를 보였음

제2절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자료 및 국도 교통량 조사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서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2010년 제안)

- 이에, 2013년에 이어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였음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전조사의 유효표본수 및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로 함
- 가구의 유선전화 보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대전화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로 함

부 록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언론보도실적 정리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설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설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하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차량용공기청정기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1월 14일(수)~18일(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김성희 과장 (Tel. 02-669-279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작년(2014년) 설 연휴

1. 귀댁에서는 작년(2014년) 설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2로 이동
④ 안갔음 ▶문3으로 이동

2. 귀댁에서 작년 설(2014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 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3으로 이동

SectionII. 올해(2015년)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 **설 연휴 기간은 2월 18일(수), 2월 19일(목), 2월 20일(금) 입니다.**

3. 귀댁에서는 올해(2015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2015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3-4로 이동

3-3. 올해(2015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귀성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1차 귀성지 기준)
① 부모님댁 ② 자녀집 ③ 처갓집
④ 큰집 ⑤ 기타( )

3-5.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① 예 ▶문4로 이동 ② 아니오 ▶문3-6으로 이동

3-6. (문3-5의 ②의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명절 연휴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그럼, 귀댁에서는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5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5으로 이동

문3-5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8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5으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미정'인 경우 ▶문22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2015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5의 ②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3-5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8로 이동

4-3. 올해(2015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5의 ②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3-5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8로 이동

▶응답후 문8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응답후 문8로 이동

6.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7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셔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22로 이동

7. (문6의'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7-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7-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7-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문22로 이동

8.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 설연휴 : 2월 18일(목)~2월 20일(토))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2.16(화, 평일) 이전 ② 2.17(화, 평일)

③ 2.18(수, 설연휴) ④ 2.19(금, 설당일)

⑤ 2.20(토, 설연휴) ⑥ 2.21(일, 주말)

⑦ 2.22(월, 평일) ⑧ 2.23(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미정

9.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0.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2.16(화, 평일) 이전 ② 2.17(화, 평일)

③ 2.18(수, 설연휴) ④ 2.19(금, 설당일)

⑤ 2.20(토, 설연휴) ⑥ 2.21(일, 주말)

⑦ 2.22(월, 평일) ⑧ 2.23(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미정

11.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2. 귀댁에서는 설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들르실 예정이십니까?
① 예 ▶문1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3으로 이동

12-1. 어느 지역을 들르실 예정이십니까?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12-2로 이동

12-2. 들르실 지역은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자연 및 풍경 감상 ②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
③ 야외위락(캠핑) 및 스포츠 활동
④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⑤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⑥ 공연(지역문화예술), 전시 시설 관람
⑦ 기타( )
▶응답후 문13으로 이동

SectionⅢ.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3.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⑥ 자가용(승합차) ▶문15로 이동

⑥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⑥ 비행기	⑥ 선박	

▶문15-1으로 이동
⑩ 렌트카 ▶문15로 이동
⑪ 기타( ) ▶문15-1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문19로 이동

15. (문14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7로 이동

⑥ 2명	⑥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⑥ 8명	⑥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6으로 이동

15-1. (문14의 '⑤~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3의 ①응답자는 문18로 이동

⑥ 2명	⑥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⑥ 8명	⑥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6으로 이동

16.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초/중/고 자녀
⑤ 성인자녀
⑥ 기타( )

17.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통영-대전)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⑥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서울-춘천선(경춘선)
⑫ 당진-상주선(영덕선)	⑬ 서천-공주선	⑭ 대구-부산선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8로 이동

18. (문13의 ①응답자 중 문14의 ③~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⑥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⑥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기타( )
▶응답후 문19로 이동

SectionⅣ. 설 연휴 교통비용

19. 올해 설 연휴(2015년) 예상되는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5년) 설연휴 교통비용	( ) 만원

SectionⅤ.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20. 이번 설 연휴 귀성(또는 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21. 귀댁에서는 평소 설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문21-1로 이동
② 자주이용 ▶문21-1로 이동
③ 보통 ▶문21-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문22로 이동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문22로 이동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2로 이동

21-1. (문21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평소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얼마나 자주 변경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보통
④ 거의 변경하지 않음 ⑤ 전혀 변경 안함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21-2로 이동

21-2. (문21의 '①②③'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21-3으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1-3. (문21-2의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SectionV. 기타 사항

※ 문22부터는 귀성 또는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2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추석이나 설 명절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이번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②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③ 음주단속 ④ 과속 및 뒷자리 안전띠 단속
⑤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SectionVI. 응답자 특성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실례지만 귀댁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총 명)
③ 모름/무응답 (읽어주지 말것)

DQ2.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DQ3. 귀댁 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혼여자로 정규직일 경우는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설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설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2월 26일(수)~26(목)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김성희 과장(02-569-278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5년) 설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나옴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5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댁에서는 지난 설 연휴기간(2월 18일(수)~2월 20일(금))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3.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셔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설문종료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셔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설문종료

3-1. (문3, 4의 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설문종료

※ CATI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받음

5-1. 올해 설 연휴에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2. 올해 설 연휴에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3.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4.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5. 귀성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1차 귀성지기준)
① 부모님댁 ② 자녀집 ③ 처갓집
④ 큰집 ⑤ 기타( )

5-6.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였습니까?
(※2015년도 설연휴 : 2월18일(수)/2월20일(금))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2.16(월, 평일) 이전 ② 2.17(화, 평일)
③ 2.18(수, 설연휴) ④ 2.19(목, 설당일)
⑤ 2.20(금, 설연휴) ⑥ 2.21(토, 주말)
⑦ 2.22(일, 주말) ⑧ 2.23(월, 평일)
⑨ 2.24(화, 평일) 이후 ⑩ 모름/무응답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2.16(월, 평일) 이전 ② 2.17(화, 평일)
③ 2.18(수, 설연휴) ④ 2.19(목, 설당일)
⑤ 2.20(금, 설연휴) ⑥ 2.21(토, 주말)
⑦ 2.22(일, 주말) ⑧ 2.23(월, 평일)
⑨ 2.24(화, 평일) 이후 ⑩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10.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0-2.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1. 귀댁에서는 설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들르셨습니까?
① 예 ▶문1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로 이동

11-1. 어느 지역을 들르셨습니까?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11-2로 이동

11-2. 들르신 지역은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자연 및 풍경 감상 ②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
③ 야외위락(캠핑) 및 스포츠 활동
④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⑤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⑥ 공연(지역문화예술), 전시 시설 관람
⑦ 기타( )
▶응답후 문12로 이동

SectionII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2.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3-3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3-4로 이동

⑩ 렌트카 ▶문13-3로 이동
⑪ 기타( ) ▶문13-4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4로 이동

13-1. (문1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13-2. (문12의 ①응답자 중 문13의 ③~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기타( )

13-3. (문13의 '①,② 자가용'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4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3-5로 이동

13-4. (문13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4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3-5로 이동

13-5. 귀성 및 여행을 함께 다녀온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⑤ 성인자녀(만 19세 이상)
⑥ 기타( )

14. (문13의 ①, ②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통영-대전)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서울-춘천선(경춘선)
⑫ 당진-상주선(영덕선) ⑬ 서천-공주선 ⑭ 대구-부산선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1. (문1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SectionⅢ. 설 연휴 교통비용

15. 올해(2015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5년) 설 연휴 교통비용	( ) 만원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15-2.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SectionⅣ.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6. 이번 설 연휴 귀성(또는 여행) 또는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17. 귀댁에서는 설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문17-1로 이동
② 자주이용 ▶문17-1로 이동
③ 보통 ▶문17-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설문종료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설문종료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설문종료

17-1. (문17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얼마나 자주 변경하셨습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보통
④ 거의 변경하지 않음 ⑤ 전혀 변경 안함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7-2로 이동

17-2. (문17의 '①,②,③'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7-3으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7-3. (문17-2의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었습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가정의 달 연휴기간 특별교통 통행실태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정의 달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4월 3일(금)~6일(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Tel. 02-66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은 면접 중단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SQ3. 귀댁의 가족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SQ4. 귀댁의 가족구성원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① 성인(만 60세 이상)
② 성인(만 19세~59세 이하)
③ 청소년(만 13세~18세 이하)
④ 어린이(만 12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5년) 가정의달 연휴계획

올해 5월 1일(금)은 근로자의 날, 2(토), 3(일)일은 주말, 5(화)일은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이며, 8(금)일은 어버이날입니다.

1. 귀댁은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여행이나 나들이 및 부모님 방문 등의 이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 근거리의 공원이나 등산, 쇼핑 등의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① 예 ▶문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로 이동
   ③ 미정 ▶문1-3으로 이동

1-1. (문1의 ①응답자만)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이동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2로 이동

1-2. (문1의 ②응답자만) 가정의달 연휴기간에 이동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5로 이동

1-3. (문1의 ③응답자만) 가정의달 연휴기간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5로 이동

2. (문1의 ①응답자만)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이동은 몇 곳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한 곳 ▶문3-1로 이동
② 두 곳 ▶문3-2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 다음은 이동지역에 대한 응답입니다.

※ 이동지역은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함

3-1. (문2의 ①응답자만)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예정이십니까?

※ 문4~문13까지 1번만 응답

1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4로 이동

3-2. (문2의 ②응답자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예정입니까?

※ 문4~문13까지 2번 반복 응답

1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4로 이동

3-3. (문2의 ③응답자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예정이십니까?

※ 문4~문13까지 3번 반복 응답

1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차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4로 이동

4. OO으로의 이동 일정은 며칠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당일 일정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

5. OO지역에 방문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
②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
③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④ 기타( )

6. 그럼, OO지역은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자연 및 풍경 감상 ②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
③ 야외위락(캠핑) 및 스포츠 활동
④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⑤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⑥ 공연(지역문화예술), 전시 시설 관람
⑦ 기타( )

7. OO지역으로 언제 출발하실 예정입니까?

① 4월 30일(목)이후 ②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③ 5월 2일(토) ④ 5월 3일(일)
⑤ 5월 4일(월) ⑥ 5월 5일(화, 어린이날)
⑦ 5월 6일(수) ⑧ 5월 7일(목)
⑨ 5월 8일(금, 어버이날)
⑩ 5월 9일(토) ⑪ 5월 10일(일) 이후
⑫ 미정

8. OO지역으로 대략 몇시쯤 출발하실 예정이십니까?

① 0시~오전 6시 미만
② 오전 6시~오후 12시 미만
③ 오후 12시~오후 6시 미만
④ 오후 6시~자정 미만 ⑤ 미정

8-1. OO지역으로 OO시에 출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서
② 숙박 등의 예약시간을 맞추기 위해
③ 출발 여건이 안 되어서
④ 유아 동반을 위해서 ⑤ 기타( )

9. 돌아오실 때, 출발시간은 대략 몇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 6시 미만
② 오전 6시~오후 12시 미만
③ 오후 12시~오후 6시 미만
④ 오후 6시~자정 미만 ⑤ 미정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10.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본 문항은 응답자가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한 번만 응답받도록 함

① 예 ② 아니오

11. 귀댁에서 OO 방문시 이용하실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트럭) ② 자가용(승합차)
▷문12-1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지하철 ⑫ 자전거
⑬ 오토바이 ⑭ 시내버스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0의 ①이면 문12-2로 이동

12-1. (문11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 응답후 문13-1로 이동

12-2. (문10이 ①이며, 문11의 ③~⑮인 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기타( )
▷ 응답후 문13-2로 이동

13-1. (문11의 ①, ②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OO에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 응답후 문14로 이동

13-2. (문11의 ③~⑮인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OO에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 응답후 문14로 이동

※ 문2의 ①이면, 문14로 이동
문2의 ②, ③이면, 문4로 이동

SectionⅢ. 가정의 달 이동 교통비용

14. 올해 가정의 달 연휴기간 이동으로 인한 예상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교통비용	( ) 만원

SectionⅣ.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연휴기간

작년(2014년)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 3(토), 4(일)일은 주말, 5(월)일은 어린이날, 6(화)일은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연휴이며, 8일(목)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15. 귀댁은 작년(2014년)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여행이나 나들이 및 부모님 방문 등을 하셨습니까?
① 예 ▶문15-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6으로 이동

15-1. (문15의 ①응답자만) 이동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어린이)를 위해
②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본가/처가)방문 및 효도여행을 위해
③ 관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④ 기타( )

SectionⅤ. 추가 휴가 계획

16. 귀댁에서는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쉬실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댁에서는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맞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예 ▶문17-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8로 이동

17-1. (문17의 ①응답자만) 그럼, 계획하신 추가 휴가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① 4월 29일(수) ② 4월 30일(목)
③ 5월 4일(월) ④ 5월 6일(수)
⑤ 5월 7일(목) ⑥ 5월 8일(금, 어버이날)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SectionⅥ. 기타사항

18.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행량이 집중되는 하계휴가와 추석 및 설 연휴기간 중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연휴기간에도 이 같은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관광주간 지정 및 혜택제공이나 학교의 봄단기방학 중 가정의달 이동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관광주간 지정 및 혜택제공
② 학교의 봄단기 방학
③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하계휴가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자전거, 차량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냉장고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7월 1일(수)~6일(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Tel. 02-56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은 면접 중단

① 만 19세 미만 ▶면접불능 ②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69세 이하
⑦ 만 70세 이상 ▶면접불능

Section Ⅰ. 올해(2015년) 여름 휴가여행

1. 귀댁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문1-2로 이동
② 아니오 ▶응답 불능 후 문15로 이동
③ 미정 ▶문15로 이동
④ 이미 다녀옴 ▶문1-1로 이동

1-1. **(문1의 ④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① 05.01(금) 이전 ② 05.02(토) ~ 05.08(금)
③ 05.09(토) ~ 05.15(금) ④ 05.16(토) ~ 05.22(금)
⑤ 05.23(토) ~ 05.29(금) ⑥ 05.30(토) ~ 06.05(금)
⑦ 06.06(토) ~ 06.12(금) ⑧ 06.13(토) ~ 06.19(금)
⑨ 06.20(토) ~ 06.26(금) ⑩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 후 문15로 이동

1-2. 귀댁의 가족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

1-3. 가족구성원 유형

구 분	기 준	유/무
노인	만 65세 이상	
성인	만 19세이상~65세미만	
청소년	중고등학생(만 18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포함(만12세 이하)	

1-3-1.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행을 가십니까?
① 예 ▶문1-5로 이동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1-4. 가족구성원 중 올해 함께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 있는 분은 누구 입니까?

구 분	기 준	선택
노인	만 65세 이상	
성인	만 19세이상~65세미만	
청소년	중고등학생(만 18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포함(만12세 이하)	

1-5.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문1의 '①예' 응답자만)** 평소 귀댁에서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① 6월 이전 ② 7월 초순 ③ 7월 중순
④ 7월 하순 ⑤ 8월 초순 ⑥ 8월 중순 이후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물러주지 말 것)
▶응답 후 문4로 이동

3. **(문1의 '②아니오'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⑧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⑧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으로
⑤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⑥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⑦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⑧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⑨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5로 이동

4.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가실 예정입니까?
(출발 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에 가는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① 7.01(수)~7.03(금) ⑧ 7.04(토)~7.10(금)
⑧ 7.11(토)~7.17(금) ④ 7.18(토)~7.24(금)
⑤ 7.25(토)~7.31(금) ⑥ 8.01(토)~8.07(금)
⑦ 8.08(토)~8.14(금) ⑧ 8.15(토)~8.21(금)
⑨ 8.22(토)~8.28(금) ⑩ 8.29(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4-1. ○○(문4번 응답시기)에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⑧ 날씨가 많이 춰어서 ⑧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④ 그 시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⑤ 가장 더운 시기여서
⑥ 휴가지의 혼잡(성수기)을 피하려고
⑦ 기타( )

5.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실 계획이십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 (문6) 여행예정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 여행 예정지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1의 '①예'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① 국내 ▶문7로 이동 ② 해외 ▶문8로 이동
③ 둘다 ▶문7로 이동

7. **(문6의 '①국내'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8. 그럼, 예정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바다나 계곡 (비킹스형)
⑧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⑧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포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⑥ 기타 (_____)
⑦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9.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이용하실 주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9-3으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9-1. (문7에서 전주, 목포, 여수 등 전라권으로 가고 문9의 ⑦응답자만) 호남선 KTX개통이 주이용교통 수단 선택시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2. (문9의 ③~⑩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3. (문9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응답후 문10으로 이동

9-4. (문1-5가 ①이며, 문9의 ③~⑩인 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기타( )
▶응답후 문10-1로 이동

10. (문9의 ①, ②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11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10-2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문11로 이동

10-1. (문9의 ③~⑩인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12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10-2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문12로 이동

10-2. **(문10~10-1의 응답이 '②~⑩'인 응답자만)**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휴가여행을 가시나요?
① 가족/친지 ② 친구 ③ 직장/단체
④ 연인 ⑤ 가족/친지+친구 ⑥ 친구+연인
⑦ 기타 ( )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① 예 ▶문1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2로 이동

11-1. **(문11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③ 2시간이상~3시간미만 ④ 3시간이상~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5시간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미만
⑦ 6시간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이상
⑨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SectionⅢ.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3. 올해 여름휴가 여행 출발 및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14. 귀댁에서는 평소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14-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5로 이동

14-1.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평소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함 ② 신뢰함 ③ 보통
④ 신뢰하지 않음 ⑤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2.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평소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얼마나 자주 변경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보통
④ 거의 변경하지 않음 ⑤ 전혀 변경 안함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3.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4-4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4. (문14-3의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SectionⅣ 작년(2014년) 여름 휴가여행

15. 귀댁에서는 작년(2014년)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문15-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0서 ① 응답시 문16-1만 응답 후 문17로 이동
▶문10서 ②, ③, ④ 응답시 문17로 이동

15-1. **(문15의 ① 응답자만)** 그럼, 작년(2014년)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① 6.30(월) ~ 7.04(금) ② 7.05(토) ~ 7.11(금)
③ 7.12(토) ~ 7.18(금) ④ 7.19(토) ~ 7.25(금)
⑤ 7.26(토) ~ 8.01(금) ⑥ 8.02(토) ~ 8.08(금)
⑦ 8.09(토) ~ 8.15(금) ⑧ 8.16(토) ~ 8.22(금)
⑨ 8.23(토) ~ 8.29(금) ⑩ 8.30(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5-2. **(문15-1대비 문4의 시기가 늦춰졌을 경우)**
작년(2014) 대비 올해(2015년) 하계휴가 시기가 늦춰진 이유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입니까?
* 작년 휴가시기(문15-1 응답값 출력)
* 올해 휴가시기(문4 응답값 출력)
① 예 ② 아니오

SectionⅤ.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

16-1. 올해(2015년) 예상되는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올해(2015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6-2. 작년(2014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작년(2014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7. 귀댁에서는 최근 가족여행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① 1개월 이내(6월중) ② 2개월 이내(5월 중)
③ 3개월 이내(4월중) ④ 6개월 이내
⑤ 1년 이내 ⑥ 기타( )

18. 금번 하계 특별교통대책 수립시 휴가철 교통대책 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및 방역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 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20. 귀댁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 및 다세대
③ 단독주택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2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하계휴가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8월 18일~19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과장 (Tel. 02-569-279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Ⅰ. 올해(2015년) 여름 휴가여행

※ 문1은 리스트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음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정

2. 귀하께서는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문1의 ① 응답자 ▶문3으로 이동)
(문1의 ② ③ 응답자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③ 미정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2-1. **(문1의 ②,③ → 문2의 ①로 변경된 응답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계획이 없다고(또는 미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2-2. **(문1의 ① → 문2의 ②,③로 변경된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2-3. **(문1의 ②, ③ → 문2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3. 그럼,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인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주단위로 응답시 날짜 확인필수)

① 7.01(수)~7.03(금) ② 7.04(토)~7.10(금)
③ 7.11(토)~7.17(금) ④ 7.18(토)~7.24(금)
⑤ 7.25(토)~7.31(금) ⑥ 8.01(토)~8.07(금)
⑦ 8.08(토)~8.14(금) ⑧ 8.15(토)~8.21(금)
⑨ 8.22(토)~8.28(금) ⑩ 8.29(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3-1. (문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4.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물러주지 말 것)

4-1. (문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 기간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 기간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정증가시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상여건이 좋아져서 ⑩ 기타 ( )
2) 일정감소시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 (문6) 휴가 여행지는 국내, 해외를 구분해서 응답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나 국내가 각각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① 국내 ▶문6으로 이동
② 해외 ▶문7로 이동
③ 둘 다 ▶문6으로 이동

6.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지 예정지역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여름 휴가여행 지역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교통정체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7. 그럼, 여행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①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②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③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⑥ 기타 (_____)
⑦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8.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9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문8-1로 이동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주이용 교통수단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주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⑤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교통정체 때문에
⑧ 대중교통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⑨ 기타( )

9. (문8의 ①, ②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문10으로 이동

9-1. (문8의 ③~⑩인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문12로 이동

10. **(문8의 '①승용차', '②승합차'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셨습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① 예 ▶문11로 이동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0-1. (문10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또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도로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 **(문10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1. (문11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선을 주로 이용 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노선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습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
⑨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SectionⅡ.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3. 올해 여름휴가 여행 출발 및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했습니까?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14. 귀댁에서는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14-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문15로 이동

14-1.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신뢰하셨습니까?
① 매우 신뢰함 ② 신뢰함 ③ 보통
④ 신뢰하지 않음 ⑤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2.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얼마나 자주 변경하셨습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보통
④ 거의 변경하지 않음 ⑤ 전혀 변경 안함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3.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중복응답 가능]**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4. (문14-3의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었습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SectionⅢ.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

15. 올해(2015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올해(2015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5-1. (문15의 응답금액 대비 사전조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지출 예상비용이 △△△만원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지출 비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여행일수의 증가 때문에
② 동반인원의 증가 때문에
③ 고급시설 또는 상품의 이용으로 인해
④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5-2. (문15의 응답금액 대비 사전조사 금액이 감소한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지출 예상비용이 △△△만원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지출 비용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여행일수의 감소 때문에
② 동반인원의 감소 때문에
③ 저렴한 시설 또는 상품의 이용으로 인해
④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⑤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추석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차량용 냉장고 등을 드립니다.(수정)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8월 28일~9월 1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56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작년(2014년) 추석 연휴

1. 귀댁에서는 작년(2014년) 추석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1-1로 이동
④ 안갔음 ▶문2로 이동

1-1. 귀댁에서 작년(2014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2로 이동

SectionII. 올해(2015년)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2. 귀하께서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3으로 이동

2-1. (문2의 ①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대체휴일(9월 29일 화요일)에 쉬실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올해 추석연휴 기간은 9월 26일(토), 27일(일), 28일(월)이며, 29일(화) 대체휴일까지 이어집니다.

3.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그럼,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4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4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9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미정'인 경우 ▶문6으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4-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응답후 문9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응답후 문9로 이동

6. (문3의 '③미정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귀성/여행 할 가능성이 높음
②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응답후 문23으로 이동

7.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8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23으로 이동

7-1. (문3의 '③미정',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다면 추석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

8. (문7의'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B-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B-2	①부모님 ②친지 ③자녀 ④없음		
B-3	①부모님 ②친지 ③자녀 ④없음		

▶응답후 문23으로 이동

9.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2015년도 추석연휴 : 9.26(토) ~ 9.28(월), 9.29(화, 대체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22(화, 평일) 이전 ② 9.23(수, 평일)
③ 9.24(목, 평일) ④ 9.25(금, 평일)
⑤ 9.26(토, 추석연휴) ⑥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⑧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미정

10.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0-1. OO시에 출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서
② (대중교통 예매시간 및 숙박 등) 예약시간을 맞추기 위해
③ 출발 여건이 안 되어서 ④ 유아 동반을 위해서
⑤ 집안 행사(차례 등) 시간에 맞추어
⑥ 편한 시간대여서 ⑦ 기타( )

11.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22(화, 평일) 이전 ② 9.23(수, 평일)
③ 9.24(목, 평일) ④ 9.25(금, 평일)
⑤ 9.26(토, 추석연휴) ⑥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⑧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미정

12.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3. 귀댁에서는 추석 연휴 귀경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여행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들르실 예정이십니까?
① 예 ▶문13-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13-1. 어느 지역을 들르실 예정이십니까?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후 문13-2로 이동

13-2. 들르실 지역은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자연 및 풍경 감상 ②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
③ 야외위락(캠핑) 및 스포츠 활동
④ 역사유적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박물관
⑤ 휴양(온천/스파),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⑥ 공연(지역문화예술), 전시 시설 관람
⑦ 기타( )
▶응답후 문14로 이동

SectionIII.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4.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6으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문15-2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5-1. (문15의 ⑦응답자만) KTX개통이 주이용교통 수단 선택시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2. (문15의 ③~⑩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문15의 '①자가용(승용차), ②자가용(승합차), ⑩렌트카'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7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6-2로 이동

16-1. (문15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4의 ①응답자는 문19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문16-2로 이동

16-2.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미성년 자녀(만19세미만) ⑤ 성인자녀(만19세이상)
⑥ 기타( )

17. (문15의 ①, ②응답자만)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8. (문15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19. (문14의 ①응답자 중 문15의 ③~⑪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운전의 피로 때문에
⑦ 기타( )

SectionIV. 추석 연휴 교통비용

20. 올해(2015년) 예상되는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문제(2015년) 추석연휴 교통비용	( ) 만원

SectionV. 기타 사항

21.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22로 이동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21-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21-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22로 이동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22로 이동

21-1. (문21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9.22(화, 평일) 이전 ⑧ 9.23(수, 평일)
⑨ 9.24(목, 평일) ⑩ 9.25(금, 평일)
⑥ 9.26(토, 추석연휴) ⑨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⑨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미정

SectionVI.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22. 귀댁에서는 평소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⑧ 자주이용 ⑨ 보통	▶문22-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3으로 이동

22-1. (문22의 '①②③'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휴대폰, 스마트폰 ▶문22-2로 이동
② 라디오 ③ 내비게이션
④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⑤ TV
⑥ ARS전화 ⑦ 신문 ⑧ 도로 전광판
③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22-2. (문22-1의 '①'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①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②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③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

※ 문23부터는 귀성 또는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23. 귀댁에서는 성묘를 언제 가십니까?
① 추석 연휴 전 ▶문24로 이동
② 추석 연휴 ▶문23-1로 이동
③ 추석 연휴 이후 ▶문24로 이동
④ 성묘를 가지 않음 ▶문24로 이동

24. 귀댁에서는 벌초를 하십니까?
① 한다 ▶문24-1로 이동
② 하지 않는다 ▶문25로 이동

24-1. (문24의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벌초는 언제하십니까?
① 추석연휴 3주 이전 ② 추석연휴 2주전
③ 추석연휴 1주전 ④ 추석연휴 중
⑤ 추석연휴 이후 ⑥ 기타( )

25. 귀하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가장 염려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⑧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⑨ 차례상 비용 ④ 추석 선물비용
⑤ 교통사고 ⑥ 친인척들의 잔소리
⑦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⑨ 없음 ⑨ 기타( )

26. 이번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⑧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⑨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④ 음주단속
⑤ 과속 단속
⑥ 뒷자리 안전띠 단속
⑦ 졸음운전 ⑨ 기타( )
⑨ 모름/무응답

SectionVII. 응답자 특성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실례지만 귀댁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총 명)

DQ2. 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DQ3. 귀댁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 및 다세대
③ 단독주택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DQ4. 귀댁 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혼여자로 정규직일 경우는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관리자 ⑧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⑨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추석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10월 6일~6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66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Ⅰ. 올해(2015년) 추석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나옴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5년) 추석 연휴기간 및 주말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댁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9.26(토) ~ 28(월), 9.29(화 대체휴일))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 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3.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면접종료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면접종료

3-1. (문3, 4의 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⑤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⑤ 없음		

▶응답후 면접종료

※ CATI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받음

5-1.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2.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3. 귀성과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4.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5.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2015년도 추석연휴 : 9.26(토) ~ 9.28(월), 9.29(화) 대체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22(화, 평일) 이전 ② 9.23(수, 평일)
③ 9.24(목, 평일) ④ 9.25(금, 평일)
⑤ 9.26(토, 추석연휴) ⑥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⑧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모름/무응답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이전 ②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③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④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⑤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⑥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⑦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⑧ 오후9시~자정
⑨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22(화, 평일) 이전 ② 9.23(수, 평일)
③ 9.24(목, 평일) ④ 9.25(금, 평일)
⑤ 9.26(토, 추석연휴) ⑥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⑧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이전 ②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③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④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⑤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⑥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⑦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⑧ 오후9시~자정
⑨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10.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0-2.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1.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3으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1의 ①응답자는 문13-2로 이동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1. (문1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12-2.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12-3. (문11의 ①응답자 중 문12의 ③~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운전의 피로 때문에
⑦ 기타( )

13. (문12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3-1. (문12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4.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1. (문1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SectionⅢ. 추석 연휴 교통비용

15. 올해(2015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5년) 추석연휴 교통비용	(　　) 만원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15-2.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SectionⅥ.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6.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16-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은 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은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7로 이동

16-1.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휴대폰, 스마트폰 ▷문16-2로 이동
② 라디오　③ 내비게이션
④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⑤ TV
⑥ ARS전화　⑦ 신문　⑧ 도로 전광판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6-2. (문16-1의 '①'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①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②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③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

SectionⅤ. 기타 사항

17.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종료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문17-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문17-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종료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7-1. (문17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언제였습니까?
① 9.22(화, 평일) 이전　② 9.23(수, 평일)
③ 9.24(목, 평일)　④ 9.25(금, 평일)
⑤ 9.26(토, 추석연휴)　⑥ 9.27(일, 추석당일)
⑦ 9.28(월, 추석연휴)　⑧ 9.29(화, 대체휴일)
⑨ 9.30(수, 평일)　⑩ 10.1(목, 평일)
⑪ 10.2(금, 평일) 이후　⑫ 모름/무응답

18.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에 귀성(또는 여행)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본 경험이 없다
③ 고속도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실적 정리

1. 2015년 설 연휴

○ 보도자료명 :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11건, 신문/인터넷뉴스 : 68건 총 79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2-10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설 교통대책] 귀경길 소폭 단축…서울~부산 7시간 20분, 부산~서울 6시간3...
2015-02-10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설 교통대책] 설 당일 730만명 이동, 18~19일 가장 혼잡할 듯
2015-02-10	kbs news	경제	신문	귀성은 첫날 오전, 귀경은 설날 오후 정체 심할듯
2015-02-10	MTN머니투데이방송	부동산	TV	설 귀성 18일 오전 ·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날짜별 교통혼잡예보도
2015-02-1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문	설 연휴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길은 19일 오후 가장 붐벼요
2015-02-10	아시아경제	정책	신문	"설 연휴 승용차로 이동할 때 작년보다 5~30분 더 걸려"
2015-02-10	뉴시스	경제	신문	[설 교통대책②끝] 열차 70회·고속버스 1887회 대폭 증강키로
2015-02-10	이투데이	정책	신문	국토부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몰릴것"
2015-02-10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설 연휴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길 '19일 오후 가장 몰린다
2015-02-10	머니투데이	정책	신문	설 연휴 고속도로…18일 오전·19일 오후 가장 붐빈다
2015-02-10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 · 귀경은 19일 오후 혼잡
2015-02-10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설 고향길 18일 오전 피하세요"…귀경길은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news1	정책	신문	국토교통부, 설 연휴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발표
2015-02-10	news1	정책	신문	국토부 "설연휴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20분 예상"
2015-02-10	연합뉴스	전체기사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아시아투데이	정책	신문	국토부 "설 연휴 귀성은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가 가장 밀릴듯"
2015-02-10	SBS 뉴스	라이프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tbs교통방송	교통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길 설 당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아시아경제	일반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귀경은 19일 오후 혼잡
2015-02-10	데일리안	경제	신문	설 교통대책,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2015-02-10	YTN	경제	신문	설 귀성 18일 최다..부산 7시간 20분
2015-02-10	아주경제	뉴스	신문	[설 교통대책] 상습 지·정체 61개 구간 우회도로 지정 및 갓길차로 확대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2-10	미디어다음	뉴스	신문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몰릴듯..'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2015-02-10	뉴시스	경제	신문	[설 교통대책①]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
2015-02-10	머니투데이	정책	신문	설 귀성차량 18일 오전 가장 붐벼…서울~부산 '7시간20분'
2015-02-10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설 연휴, 귀성은 18일 오전, 귀경은 19일 오후 `가장혼잡`
2015-02-10	스포츠경향	생활	신문	설 연휴 고향가는 길, 이시간만은 피하세요
2015-02-10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설 연휴, 18일 오전·19일 오후 가장 혼잡 전망
2015-02-10	SSTV	-	신문	[설날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6시간 40분…귀성...
2015-02-10	건설타임즈	교통해양	신문	국토부, 철도역사 대상 화재 안전점검 실시
2015-02-10	조세일보	산업	신문	귀성 고속도로 18일 오전, 귀경은 19일 오후 혼잡
2015-02-10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은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노컷뉴스	사회 일반	신문	설 연휴 '귀성길 18일'·'귀경길 19일' 가장 혼잡
2015-02-10	아주경제신문	-	신문	[설 교통대책] 도로·철도등 안전점검 실시…시내버스·전철 연장운행
2015-02-10	컨슈머타임스	기타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경향신문	경제일반	신문	설 귀성길은 18일 오전, 귀경길은 19일 오후 피하세요
2015-02-10	정책브리핑	사회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연합뉴스TV	사회	TV	설 귀성 18일 오전 혼잡.. 귀경 19일 오후 절정
2015-02-10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특별교통대책 관련 기관별 연락처
2015-02-10	스포츠경향	이슈토픽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길은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매일경제	문화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귀경 19일 오후 피하세요"
2015-02-10	KBS	경제	TV	귀성은 첫날 오전, 귀경은 설날 오후 정체 심할듯
2015-02-10	SBS 뉴스	라이프	라디오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아웃도어뉴스	News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서울시정일보	종합	신문	[교통] 설연휴 귀성 18일 오전·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최대10일연휴)
2015-02-10	문화저널21	사회일반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5-02-10	뉴스웨이	뉴스	신문	올 설연휴, 귀성길 18일·귀경길은 19일 가장 혼잡
2015-02-10	헤럴드경제	사회	신문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0	MBN	생활건강	라디오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알아보니 '18일 오전, 19일 오후는 피하세요~'
2015-02-10	동아일보	시사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18일 오전', 귀경길은 19일 오후 몰릴듯
2015-02-10	교통신문	종합교통	신문	귀성길 18일 오전 가장 혼잡
2015-02-10	나눔뉴스	교통	신문	설 연휴 귀성 18일 오전·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2-10	동아일보	홈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18일 오전 예상
2015-02-10	tbs교통방송	경제	라디오	설 귀성 18일 오전 혼잡…귀경은 설 당일 오후 절정
2015-02-10	경인종합일보	최신기사	신문	설 연휴 3354만명 고향 찾는다
2015-02-10	베이비뉴스	사회	신문	설 연휴 고향가는길, 얼마나 걸릴까?
2015-02-10	검경일보	사회	신문	민족대이동 설 18~19일 교통혼잡 최악
2015-02-10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설 연휴 고속도로 진입조절 영업소
2015-02-10	뉴스온	life	신문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몰릴듯…'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2-10	그린포스트코리아	Home	신문	정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대중교통·안전지원 대폭 강화
2015-02-10	매일일보	경제	신문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혼잡'
2015-02-10	kjt뉴스	사회	신문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계획
2015-02-11	스타투데이	인기포토N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18일 오전…귀경길은 19일 오후
2015-02-11	MBN	기사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18일 오전이 가장 붐빌것으로 보여…귀경길은 어...
2015-02-11	연합뉴스TV	사회	TV	설 귀성 18일 오전 혼잡…귀경 19일 오후 절정
2015-02-11	파이낸셜뉴스	사회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국토부 전망은 얼마나?
2015-02-11	대전일보	뉴스	신문	설 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피하세요
2015-02-11	서울신문		신문	설 연휴 고향가는 길 언제가 좋을까
2015-02-11	한국경제	전체기사	신문	설 고향가는 길, 18일 오전 가장 막힌다
2015-02-11	국민일보	시사	신문	설 3354만명 대이동…귀성 18일 오전 피하세요
2015-02-11	SSTV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18일 집중…10명중 8명 승용차이용' 우회도로궁...
2015-02-11	중앙일보	사회	신문	설 명절 3354만명 대이동…연휴 첫날 오전 피하세요
2015-02-11	YTN	경제	라디오	설 귀성 18일 최다...부산7시간20분
2015-02-11	YTN	경제	라디오	설 이동 3천만명...귀성 18일 가장 혼잡
2015-02-11	MBN	기사	신문	설 귀성길 혼잡예상시간, 지난해보다 30분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5-02-11	교통신문	교통경제	신문	"이동중에도 교통정보 확인을"
2015-02-10	SBS		TV	"설 귀성길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2-11	MBC		TV	귀성 '더' 막히고, 귀경 '덜' 막혀…평균 교통비용 ↓

2. 2015년 가정의 달 연휴

○ 보도자료명 :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된다

○ TV/라디오 : 12건, 신문/인터넷뉴스 : 124건 총 136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4-27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5월황금연휴,평소보다74%증가…2·4일최다
2015-04-28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5월황금연휴대비'특별교통대책'실시…2일주말극심혼잡
2015-04-28	이데일리	사회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이동…지방방향2일,귀경길4일혼잡
2015-04-28	이투데이	정책	신문	5월황금연휴최대3200만명이동예상…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머니투데이	부동산정책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움직인다"…'서울~부산6시간40분'
2015-04-28	아시아경제	부동산정책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오전출발몰려
2015-04-28	경제투데이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국토부대책마련
2015-04-28	글로벌이코노믹	경제	신문	5월초황금연휴특별교통대책수립···'3200만명'이동한다[종합]
2015-04-28	조선비즈	정치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토요일오전가장혼잡
2015-04-28	연합뉴스	전체기사	신문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MBN	사회	신문	5월1일~5일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컨슈머타임스	정치사회	신문	5월 '황금연휴' 3200만명대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한국일보	경제	신문	어린이날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
2015-04-28	경향비즈n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한다..해외여행객은45만명
2015-04-28	헤럴드경제	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700만명최고
2015-04-28	newsis	경제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출발은2일,도착은3일'교통량몰려
2015-04-28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5월1일부터5일간황금연휴전국에서3200만명대이동
2015-04-28	YTN	경제	신문	5월연휴3천만명이동...2일가장붐벼
2015-04-28	국회뉴스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
2015-04-28	헤드라인뉴스	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3200만명이동…2일오전출발·3일오후도착 '혼잡예상'
2015-04-28	헤럴드경제	생활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2일가급적피하세요"
2015-04-28	TBS교통방송	교통	신문	[교통]'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예상
2015-04-28	불만닷컴	사회종합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교통혼잡최고'예상
2015-04-28	국민일보	전체기사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한다…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글로벌이코노믹	경제	신문	5월초황금연휴특별교통대책수립···'3200만명'이동한다
2015-04-28	뉴스와이어	뉴스홈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한국경제	전체기사	신문	5월2일.4일고속도로이용피하세요'
2015-04-28	내외경제TV	사회	신문	5월첫주황금연휴2·3일가장붐벼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4-28	한국경제TV	최신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최고붐빌듯
2015-04-28	이코노믹리뷰	데일리뉴스브리핑	신문	5월황금연휴'총3200만명이동…2일가장혼잡
2015-04-28	데일리시사닷컴	사건/사고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YTN	경제	TV	5월연휴3천만명이동...첫교통대책마련
2015-04-28	OBS 뉴스	사회일반	TV	5월연휴3천만명이동…2일가장붐벼
2015-04-28	국제뉴스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5월'가정의달'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KBS뉴스	연합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KBS뉴스	단신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대이동예상
2015-04-28	SBS뉴스	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조세일보	산업	신문	국토부,1～5일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이투데이	경제지표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움직인다…서울~부산6시간40분
2015-04-28	뉴데일리경제	경제종합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2~3일가장붐빌듯
2015-04-28	초이스경제	정치사회	신문	5월초닷새간 '황금연휴' 3200만명이동…45만명출국
2015-04-28	TV리포트	-	신문	5월연휴중2일교통량700만명예측 '최대'
2015-04-28	KTV국민방송	정책뉴스	TV	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PBC뉴스	경제/산업	신문	국토부,다음달1일부터5일간특별교통대책수립
2015-04-28	머니위크	정책일반	신문	다음달1~5일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시작된다
2015-04-28	메디컬투데이	산업	신문	5월황금연휴…2일에만700만명움직여 '최고복잡'
2015-04-28	데일리한국	정치	신문	5월황금연휴토요일오전가장혼잡
2015-04-28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서울경제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 에3,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동양뉴스통신	전체기사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총이동인원3200만명예상
2015-04-28	코리아뉴스타임스	사회뉴스	신문	국토부,5월'가정의달특별교통대책'수립·시행
2015-04-28	오토헤럴드	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정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서울뉴스통신	사회	신문	국토부,연휴기간맞아특별교통대책을수립·시행
2015-04-28	KJTNEWS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 '특별교통대책'
2015-04-28	베이비타임즈	라이프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이동인구74%증가예상
2015-04-28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5월연휴,'어디로가세요?'도심속황금연휴알차게즐기는법
2015-04-28	전국뉴스	사회	신문	1~5일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예정
2015-04-28	경기방송	뉴스	라디오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2일가장붐벼
2015-04-28	MBC	사회	TV	5월황금연휴'2일과4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4-28	동아스튜디오	시사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이동인원3200만명…국토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인터뷰365	포커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가장붐비는날은2일
2015-04-28	내일신문	산업	신문	5월황금연휴(1~5일)에3200만이동
2015-04-28	시사뉴스	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고속도로,'출발은2일,도착은3일'교통량많아
2015-04-28	쿠키뉴스	-	신문	'5월닷새간황금연휴' 3200만명이동예상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4-28	대기원시보	-	신문	‘5월황금연휴’ 2~3일고속도로정체절정
2015-04-28	스포츠조선	라이프	신문	5월징검다리연휴교통량많은날은?
2015-04-28	문화일보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 5월2일이교통량최대…700만명대이동
2015-04-28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일반	신문	5월연휴,2일에만최대700만명이동…소요시간은?
2015-04-28	SBS연예스포츠	문화사회	신문	5월연휴,총3천200만명이동…'가장붐비는날은언제?'
2015-04-28	SBSCNBC	경제	TV	황금연휴'3200만명'이동예상..국토부,대중교통확대
2015-04-28	연합뉴스	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교통량전망
2015-04-28	MBC	사회	TV	다음달닷새간'황금연휴'..2일가장혼잡할듯
2015-04-28	중앙일보	사회	신문	국토교통부"5월1~5일3200만명이동예상"
2015-04-28	조선일보	사회	신문	5월초황금연휴…토요일엔꽉막힐듯
2015-04-28	신아일보	경제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가장붐벼
2015-04-28	매일일보	건설부동산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매일경제	문화	신문	5월1~5일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가장혼잡해요
2015-04-28	MBN	사회	신문	5월연휴,무엇을해야'황금연휴'잘보냈다고소문날까?
2015-04-28	아시아뉴스통신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2일나들이객몰려
2015-04-28	동아일보	교통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예상…고속도혼잡시간대는?
2015-04-28	이투데이	간추린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움직인다
2015-04-28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일반	신문	가정의달,나들이할땐"이길로가세요"
2015-04-28	서울시정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2일700만명최고
2015-04-28	중앙뉴스	경제	신문	1일부터황금연휴시작…3천만명이동
2015-04-28	검경일보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민족대이동시작된다
2015-04-28	연합뉴스TV	경제	TV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2일최고붐벼
2015-04-28	CBC 뉴스	사회	신문	5월연휴, ‘명절방불’ 가족대이동예상
2015-04-28	소비자경제	종합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이동…특별대책가동
2015-04-28	파이낸셜신문	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4-28	오마이건설뉴스	종합뉴스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4-28	건설이코노미	건설산업	신문	5월황금연휴대비'특별교통대책'실시
2015-04-28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5월황금연휴,2일토요일오전출발-3일일요일오후귀가집중
2015-04-28	조선닷컴	연예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대이동'…가장붐비는날은언제?
2015-04-28	조선닷컴	연예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5月이동객3200만명…"'어린이날'은초절정!"
2015-04-28	조선닷컴	연예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대이동..국토부'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2015-04-28	조선닷컴	연예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대이동'..교통체증대비하려면
2015-04-28	동아경제	종합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출발5월2일·도착5월3일최고예상…승용차가84.0%
2015-04-28	동아경제	종합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특별교통대책기간(5.1~5.5)총이동인원3,200만명
2015-04-28	동아경제	종합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황금연휴고속도혼잡시간대는?
2015-04-28	중부매일	사회종합	신문	5월황금연휴'3천200만명이동할듯…
2015-04-28	헤럴드경제	뉴스	신문	5월 ‘황금연휴’ 가장붐비는날,2일오전과3일오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4-28	MBN	전체기사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5월1일부터5일까지…가정의달맞아특별교통대책기간지정
2015-04-28	MBN	전체기사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5월2일오전부터3일오후까지…교통수요증가전망
2015-04-28	스타투데이	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 '2,3일과어린이날이절정 '
2015-04-28	동아일보	뉴스	신문	5월황금연휴붐비는날언제? '2일오전3일오후교통량집중'
2015-04-28	경인일보	사회	신문	총3천200만명이동예상'황금연휴붐비는날,5월2일절정
2015-04-28	조선닷컴	연예	신문	5월1일~5일황금연휴,가장붐비는날은?"이날만은피하자!"
2015-04-28	헤럴드리뷰스타	-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3200만명이동예상2~4일절정
2015-04-28	news1	라이프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이동시주말보다2시간더걸려
2015-04-28	파이낸셜뉴스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2일700만명이동..서울-부산얼마나걸리나?
2015-04-28	스포츠조선	사회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다음달2일 '하루700만명대이동' 나들이전쟁
2015-04-28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일반	신문	황금연휴붐비는날…'총3200만명대이동'
2015-04-28	OBS 뉴스	사회일반	TV	닷새간황금연휴…3천2백만'대이동'예상
2015-04-28	울산제일일보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 3200만명대이동
2015-04-28	사회안전신문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경안일보	경제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코리아뉴스타임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8	교통신문	교통경제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
2015-04-28	MBC 뉴스	뉴스	TV	[이브닝이슈]5월'황금연휴'3200만떠난다…추천여행지는?
2015-04-28	연합뉴스 TV	뉴스	TV	5월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정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8	경향신문	사회일반	신문	"5월1~5일황금연휴3200만명이동"
2015-04-28	파이낸셜뉴스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 '5월황금연휴' 도로정보무료앱운영
2015-04-28	세계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2일낮12시가장막혀요
2015-04-29	국제뉴스	경제일반	신문	5월황금연휴,2일~3일에교통량몰려
2015-04-29	조선일보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2일가장붐벼요
2015-04-29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5월1~5일황금연휴고속도로2일오전,3일오후가장붐빌듯
2015-04-29	서울신문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2일이정점
2015-04-29	강원일보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3,200만명이동서울서강릉까지5시간걸려
2015-04-29	중앙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3200만명대이동…토요일최다
2015-04-29	매일신문	사회	신문	주말1,400만명이동…토오전·일오후많이막힐듯
2015-04-29	시사투데이	경제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5-04-29	굿데일리	사회	신문	5월황금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4-29	JTBC 뉴스	사회	TV	"5월초황금연휴,전국서최대3200만명이동할듯"
2015-04-29	한국경제	뉴스	신문	5월연휴3200만명대이동…2일오전가장막힌다

3. 2015년 하계휴가

○ 보도자료명 :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TV/라디오 : 15건, 신문/인터넷뉴스 : 78건 총 93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7-21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여름휴가 고속도로 8월1~2일 가장 혼잡…하계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여름휴가교통대란에국토부특별대책나선다
2015-07-21	머니투데이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여름휴가피크는'8월1~2일'…고속도로피하세요"
2015-07-21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뉴스핌	부동산정책	신문	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혼잡
2015-07-21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연합뉴스	전체기사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내달1~7일,휴가객38.2%몰려...10명중8명승용차탄다"
2015-07-2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국토교통부,24~8월9일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아시아경제	부동산일반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8월1~7일에휴가객40%몰릴듯…평균64만원지출예상
2015-07-21	한국경제	전체기사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이동인원34.5%↑
2015-07-21	에너지경제	경제정책	신문	내달1~7일휴가 '절정' …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8월1일출발-2일귀경피하세요"
2015-07-21	OSEN	자동차	신문	8월첫째주,전체휴가객40%몰려…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5-07-21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조세일보	산업	신문	휴가객38.2%8월첫주에몰려…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5-07-21	여성신문	사회	신문	여름휴가피크는8월첫주...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소비자불만닷컴	사회종합	신문	여름휴가철,'8월첫째주'피서객40%몰려…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KBS뉴스	경제	라디오	여름휴가객38%,8월첫째주에집중
2015-07-21	동아스튜디오	시사	신문	여름휴가객8월1일~7일에30%이상몰려…동해안가장선호
2015-07-21	쿠키뉴스	전체뉴스	신문	국민10명가운데4명여름휴가,8월첫째주에집중
2015-07-21	YTN	경제	라디오	다음달1일·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뉴데일리 경제	-	신문	피서철고속도로내달1~2일피크…하루평균430만대몰린다
2015-07-21	KBS뉴스	경제	TV	국민10명중4명,8월첫째주에여름휴가
2015-07-21	와우한국경제TV	최신뉴스	라디오	여름휴가객8월1일~7일집중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교통'짜증'없는여름휴가,'꿀팁'만챙기면'OK'
2015-07-21	아시아뉴스통신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8월첫째주몰려
2015-07-21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8월1일부터7일까지휴가객38%몰려
2015-07-21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여름휴가피크
2015-07-21	서울경제	사회	신문	7월말~8월초여름성수기에7,800만명이동한다
2015-07-21	YTN	경제	TV	본격휴가철'8월1일~2일고속도로가장막힌다
2015-07-21	YTN	경제	TV	다음달1일·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데일리안	경제	신문	"올여름휴가길,8월1일~2일가장혼잡할것"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올해여름휴가선호도,동해안1위...17일간총7801만명이동"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국민54.1%"여름휴가No"…가장붐비는때는8월첫째주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7-21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교통] 8월 첫 주에 휴가객 38% 몰려…24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실시
2015-07-21	시사경제신문	사회	신문	국토부,8월초고속도로최고로몰린다
2015-07-21	SBS뉴스	사회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동아닷컴	-	신문	‘10명중4명,8월첫주여름휴가계획’ 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노컷뉴스	경제	신문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휴가인파38.2%전망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올여름휴가,8월1~7일이가장밀린다
2015-07-21	BBS뉴스	경제	라디오	국토부,여름휴가철교통대책은안전이최우선
2015-07-21	이코노믹리뷰	뉴스	신문	올여름휴가객,8월1일~7일에38%이상몰린다
2015-07-21	아웃도어뉴스	뉴스	신문	여름휴가8월1~7일최대혼잡…10명에8명꼴차이용
2015-07-21	아이뉴스24	자동차	신문	휴가피크는8월첫주,10명중8명은"승용차이용"
2015-07-21	SBS뉴스	사회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TBS교통방송	경제	라디오	[경제] 8월 첫 주 휴가객 38% 몰려...24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실시(종합)
2015-07-21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올여름휴가교통수요및특별교통대책
2015-07-21	헤드라인뉴스	생활문화	신문	올여름휴가객38.2%8월첫주에몰려…출발1일·귀경2일혼잡
2015-07-21	뉴스와이어	-	신문	관계기관합동하계특별교통대책마련·시행
2015-07-21	국회뉴스	사회	신문	8月첫주에휴가객38.2%몰려
2015-07-21	경기방송	-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서울시정일보	사회	신문	[사회]휴가길교통상황... “올여름휴가길안전하고편안하게다녀오세요!”
2015-07-21	투어코리아	라이프	신문	휴가피크철,완벽한해외여행을위한여행팁
2015-07-21	오마이건설뉴스	핫뉴스	신문	여름휴가객들,이정보만은꼭읽고떠나세요
2015-07-21	월간금융계	사회경제정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
2015-07-21	아시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하계특별교통대책실시
2015-07-21	케이에스피뉴스	정치경제사회	신문	(특집)국토교통부,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
2015-07-21	동아닷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10명중9명은국내로…고속道언제가장밀릴까?
2015-07-21	경양일보	사회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여름휴가피크
2015-07-21	일간스포츠	경제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번잡할것
2015-07-21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올여름휴가객,내달1~7일에집중
2015-07-21	지밸리	생활경제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서울경제	정치	신문	올여름성수기에7,800만명이동예상...8월첫주에휴가객집중
2015-07-21	중도일보	사회교육	신문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한겨레	경제	신문	올여름휴가다음주말가장붐빌듯
2015-07-21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내달1~7일휴가객38%집중…국토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7-21	국제신문	라이프	신문	8월첫주에올여름초성수기…휴가객38.2%집중전망
2015-07-21	한국일보	사회	신문	올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첫째주가장막힌다
2015-07-21	시민일보	사회	신문	피서철…내달1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국제신문	사회	신문	내달1,3일고속도로가장붐빌듯
2015-07-21	중앙뉴스	사회	신문	올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혼잡
2015-07-21	내외경제TV	사회	신문	여름휴가8월1·2일고속도로는'거대주차장'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국민54%“여름휴가못가요”
2015-07-21	MK뉴스	문화	신문	올여름휴가철엔고속道덜막힐듯
2015-07-21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2015년여름휴가,8월1～7일가장붐빈다
2015-07-21	MBC뉴스	-	TV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OBS뉴스	정치행정	라디오	8월첫주휴가객38%몰려…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2	서울신문	사회	신문	새달1일脫서울·2일귀경길혼잡…2명중1명은“여름휴가포기했다”
2015-07-22	매일신문	사회	신문	10명중4명"여름휴가8월1～7일떠나요"
2015-07-22	동아닷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8월1일출발-2일귀경피하세요
2015-07-22	국토일보	물류교통	신문	올휴가철고속도로8월1일부터2일가장혼잡
2015-07-22	조선닷컴	교통관광항공	신문	휴가철고속도로내달1·2일가장붐벼요
2015-07-22	머니투데이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가는者'1일,'오는者'2일…'나는者'도2일
2015-07-22	경북매일	사회일반	신문	포항~영덕국도등우회로운영
2015-07-22	중앙일보	사회	신문	피서객38%,8월첫주에움직인다
2015-07-22	한국경제	사회	신문	7말8초'휴가길…31일·1일가장막혀
2015-07-22	헤럴드경제	최신기사	신문	“8월첫주,휴가대거몰린다”…가장혼잡한날은?
2015-07-22	데일리한국	사회	신문	여름휴가객8월첫주절정…국토부'특별교통대책'
2015-07-22	스포츠동아	-	신문	올여름휴가,8월1일가장많이떠난다
2015-07-22	KBS뉴스	경제	TV	“8월첫째주휴가”38%…출발1일가장혼잡
2015-07-21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여름휴가 고속도로 8월1~2일 가장 혼잡…하계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여름휴가교통대란에국토부특별대책나선다
2015-07-21	머니투데이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여름휴가피크는'8월1~2일'…고속도로피하세요"
2015-07-21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뉴스핌	부동산정책	신문	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혼잡
2015-07-21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연합뉴스	전체기사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내달1~7일,휴가객38.2%몰려...10명중8명승용차탄다"
2015-07-2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국토교통부,24~8월9일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아시아경제	부동산일반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8월1~7일에휴가객40%몰릴듯…평균64만원지출예상
2015-07-21	한국경제	전체기사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이동인원34.5%↑
2015-07-21	에너지경제	경제정책	신문	내달1~7일휴가 ‘절정’ …하계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8월1일출발-2일귀경피하세요”
2015-07-21	OSEN	자동차	신문	8월첫째주,전체휴가객40%몰려…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5-07-21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조세일보	산업	신문	휴가객38.2%8월첫주에몰려…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5-07-21	여성신문	사회	신문	여름휴가피크는8월첫주...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소비자불만닷컴	사회종합	신문	여름휴가철,'8월첫째주'피서객40%몰려…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KBS뉴스	경제	라디오	여름휴가객38%,8월첫째주에집중
2015-07-21	동아스튜디오	시사	신문	여름휴가객8월1일~7일에30%이상몰려…동해안가장선호
2015-07-21	쿠키뉴스	전체뉴스	신문	국민10명가운데4명여름휴가,8월첫째주에집중
2015-07-21	YTN	경제	라디오	다음달1일·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뉴데일리 경제	-	신문	피서철고속도로내달1~2일피크…하루평균430만대몰린다
2015-07-21	KBS뉴스	경제	TV	국민10명중4명,8월첫째주에여름휴가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7-21	와우한국경제TV	최신뉴스	라디오	여름휴가객8월1일~7일집중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교통'짜증'없는여름휴가,'꿀팁'만챙기면'OK'
2015-07-21	아시아뉴스통신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8월첫째주몰려
2015-07-21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8월1일부터7일까지휴가객38%몰려
2015-07-21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여름휴가피크
2015-07-21	서울경제	사회	신문	7월말~8월초여름성수기에7,800만명이동한다
2015-07-21	YTN	경제	TV	본격휴가철'8월1일~2일고속도로가장막힌다
2015-07-21	YTN	경제	TV	다음달1일·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데일리안	경제	신문	“올여름휴가길,8월1일~2일가장혼잡할것”
2015-07-21	이투데이	정책	신문	"올해여름휴가선호도,동해안1위...17일간총7801만명이동"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국민54.1%"여름휴가No"…가장붐비는때는8월첫째주
2015-07-21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교통] 8월 첫 주에 휴가객 38% 몰려…24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실시
2015-07-21	시사경제신문	사회	신문	국토부,8월초고속도로최고로몰린다
2015-07-21	SBS뉴스	사회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동아닷컴	-	신문	‘10명중4명,8월첫주여름휴가계획’ 1~2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노컷뉴스	경제	신문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휴가인파38.2%전망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올여름휴가,8월1~7일이가장밀린다
2015-07-21	BBS뉴스	경제	라디오	국토부,여름휴가철교통대책은안전이최우선
2015-07-21	이코노믹리뷰	뉴스	신문	올여름휴가객,8월1일~7일에38%이상몰린다
2015-07-21	아웃도어뉴스	뉴스	신문	여름휴가8월1~7일최대혼잡…10명에8명꼴차이용
2015-07-21	아이뉴스24	자동차	신문	휴가피크는8월첫주,10명중8명은"승용차이용"
2015-07-21	SBS뉴스	사회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
2015-07-21	TBS교통방송	경제	라디오	[경제] 8월 첫 주 휴가객 38% 몰려...24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실시(종합)
2015-07-21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올여름휴가교통수요및특별교통대책
2015-07-21	헤드라인뉴스	생활문화	신문	올여름휴가객38.2%8월첫주에몰려…출발1일·귀경2일혼잡
2015-07-21	뉴스와이어	-	신문	관계기관합동하계특별교통대책마련·시행
2015-07-21	국회뉴스	사회	신문	8月첫주에휴가객38.2%몰려
2015-07-21	경기방송	-	라디오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1	서울시정일보	사회	신문	[사회]휴가길교통상황... “올여름휴가길안전하고편안하게다녀오세요!”
2015-07-21	투어코리아	라이프	신문	휴가피크철,완벽한해외여행을위한여행팁
2015-07-21	오마이건설뉴스	핫뉴스	신문	여름휴가객들,이정보만은꼭읽고떠나세요
2015-07-21	월간금융계	사회경제정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
2015-07-21	아시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38.2%몰려…하계특별교통대책실시
2015-07-21	케이에스피뉴스	정치경제사회	신문	(특집)국토교통부,8월첫주에휴가객38.2%몰린다
2015-07-21	동아닷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10명중9명은국내로…고속道언제가장밀릴까?
2015-07-21	경양일보	사회	신문	8월1~2일고속도로가장혼잡…여름휴가피크
2015-07-21	일간스포츠	경제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번잡할것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7-21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올여름휴가객,내달1~7일에집중
2015-07-21	지밸리	생활경제	신문	올여름휴가철8월1~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서울경제	정치	신문	올여름성수기에7,800만명이동예상...8월첫주에휴가객집중
2015-07-21	중도일보	사회교육	신문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한겨레	경제	신문	올여름휴가다음주말가장붐빌듯
2015-07-21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내달1~7일휴가객38%집중…국토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5-07-21	국제신문	라이프	신문	8월첫주에올여름초성수기…휴가객38.2%집중전망
2015-07-21	한국일보	사회	신문	올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첫째주가장막힌다
2015-07-21	시민일보	사회	신문	피서철…내달1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5-07-21	국제신문	사회	신문	내달1,3일고속도로가장붐빌듯
2015-07-21	중앙뉴스	사회	신문	올여름휴가철고속도로8월1~2일가장혼잡
2015-07-21	내외경제TV	사회	신문	여름휴가8월1·2일고속도로는'거대주차장'
2015-07-21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국민54%“여름휴가못가요”
2015-07-21	MK뉴스	문화	신문	올여름휴가철엔고속道덜막힐듯
2015-07-21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2015년여름휴가,8월1～7일가장붐빈다
2015-07-21	MBC뉴스	-	TV	여름휴가8월1일~7일'절정'…피서객40%몰려
2015-07-21	OBS뉴스	정치행정	라디오	8월첫주휴가객38%몰려…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7-22	서울신문	사회	신문	새달1일脫서울·2일귀경길혼잡…2명중1명은“여름휴가포기했다”
2015-07-22	매일신문	사회	신문	10명중4명"여름휴가8월1～7일떠나요"
2015-07-22	동아닷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8월1일출발-2일귀경피하세요
2015-07-22	국토일보	물류교통	신문	올휴가철고속도로8월1일부터2일가장혼잡
2015-07-22	조선닷컴	교통관광항공	신문	휴가철고속도로내달1·2일가장붐벼요
2015-07-22	머니투데이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가는者'1일,'오는者'2일…'나는者'도2일
2015-07-22	경북매일	사회일반	신문	포항~영덕국도등우회로운영
2015-07-22	중앙일보	사회	신문	피서객38%,8월첫주에움직인다
2015-07-22	한국경제	사회	신문	7말8초'휴가길…31일·1일가장막혀
2015-07-22	헤럴드경제	최신기사	신문	“8월첫주,휴가대거몰린다”…가장혼잡한날은?
2015-07-22	데일리한국	사회	신문	여름휴가객8월첫주절정…국토부'특별교통대책'
2015-07-22	스포츠동아	-	신문	올여름휴가,8월1일가장많이떠난다
2015-07-22	KBS뉴스	경제	TV	“8월첫째주휴가”38%…출발1일가장혼잡

4. 2015년 추석 연휴

○ 보도자료명 : 귀성 9.26 오전, 귀경 9.27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 28건, 신문/인터넷뉴스 : 107건 총 135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9-22	머니투데이뉴스	정책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26일오전·27일오후가장붐빈다
2015-09-22	이투데이	정책	신문	[추석교통대책]추석연휴교통,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린다
2015-09-22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추석연휴'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피해야
2015-09-22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붐빈다
2015-09-22	이데일리	사회	신문	추석연휴'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피해야
2015-09-22	이투데이	정책	신문	[추석교통대책]국토부,추석연휴간대중교통확대운행...우회로등교통분산실시
2015-09-22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연휴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아주경제	-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붐빈다
2015-09-22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추석연휴귀성길은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고속도로혼잡최대
2015-09-22	중앙일보	사회	신문	[교통]추석귀성길26일오전가장혼잡
2015-09-22	이코노믹리뷰	뉴스	신문	[추석교통가이드]국토부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총정리
2015-09-22	뉴스핌	정책	신문	추석고향길"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려요”
2015-09-22	OSEN	자동차	신문	추석연휴,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혼잡'최대
2015-09-22	뉴스웨이	정책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 ‘혼잡’
2015-09-22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귀성길추석전날,귀경길당일가장혼잡할듯
2015-09-22	뉴데일리경제	-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주말겹친추석연휴,피해야할귀성·귀경시간대는?
2015-09-22	아시아투데이	부동산	신문	추석연휴,26일오전귀성차량가장몰려
2015-09-22	연합인포맥스	부동산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혼잡…'서울→부산7시간반'
2015-09-22	KBS뉴스	경제	라디오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 ‘가장혼잡’
2015-09-22	아시아뉴스통신	사회일반	신문	추석3199만명이동…26일오전27일오후'혼잡'예상
2015-09-22	경상일보	사회종합	신문	추석3199만명이동…26일오전27일오후'혼잡'
2015-09-22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연합뉴스	전체기사	TV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에너지경제	사회	신문	[추석고속도로예상]추석연휴3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B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민족대이동...3천199만명이동예상
2015-09-22	S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MBN뉴스	사회	라디오	추석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9-22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추석연휴'귀성길은답답,귀경길은시원
2015-09-22	이뉴스투데이	정치사회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스타서울TV	-	신문	'추석귀성전쟁'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할듯
2015-09-22	뉴시스	경제일반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추석귀성길정체'26일오전'가장심하다
2015-09-22	YTN	경제	라디오	"추석귀성26일오전에가장혼잡"
2015-09-22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추석연휴고속도로진입조절영업소
2015-09-22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추석연휴귀성·귀경객예상분포
2015-09-22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추석연휴귀성·귀경전망
2015-09-22	YTN	경제	TV	추석귀성길정체,26일최고조…귀경길은?
2015-09-22	YTN	경제	TV	"귀성길정체26일오전가장극심"
2015-09-22	미디어펜	사회	신문	올추석귀성2시간증가...26일·27일혼잡절정
2015-09-22	머니위크	-	신문	추석연휴서울~광주7시간,귀경은4시간20분
2015-09-22	시사뉴스	사회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뉴스와이어	-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시행
2015-09-22	OBS뉴스	사회일반	TV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MBC뉴스	-	TV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K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기간출국자수지난해보다13%↑예상
2015-09-22	경기방송	전체기사	라디오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내외경제TV	사회	신문	추석연휴3199만명대이동
2015-09-22	국회뉴스	사회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
2015-09-22	뉴시스	-	신문	26일 오전, 27일 오후 '가장 혼잡'
2015-09-22	경향비즈앤라이프	경제일반	신문	올해추석26일오전,27일오후가장붐빈다
2015-09-22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올해추석귀성길지난해보다2시간늘어날듯
2015-09-22	조선닷컴	사회일반	신문	3199만명이동'추석귀성길평균소요시간2시간↑…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브릿지경제	부동산뉴스	신문	[고향가는길]추석26일오전·27일오후"고속도로정체최고"
2015-09-22	에코타임스	건설교통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뉴스토마토	교통물류	신문	추석당일이동최대759만명예상
2015-09-22	컨슈머타임스	기타	신문	추석연휴3199만명 '민족대이동' …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매일경제	사회	신문	추석연휴3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서울경제	정치사회	신문	[서울경제TV]올추석연휴귀성길'서울~부산7시간30분'걸릴듯
2015-09-22	세계파이낸스	종합뉴스	신문	추석귀성길작년보다2시간더걸린다
2015-09-22	신아일보	경제일반	신문	추석귀성길서울→부산7시간30분…3199만명'대이동'
2015-09-22	머니위크	핫이슈	신문	추석교통정보예상,귀성2시간늘고귀경1시간줄고
2015-09-22	서울경제	정치사회	신문	추석연휴3,200만명이동예상...귀성길은지난해보다2시간이상더걸릴듯
2015-09-22	한국경제TV	최신뉴스	신문	추석연휴귀성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피하세요`
2015-09-22	아웃도어뉴스	뉴스	신문	추석연휴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붐빈다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9-22	데일리안	경제	신문	올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연합경제	사회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피하자
2015-09-22	쿠키뉴스	-	신문	추석연휴교통정보,귀성길은26일오전귀경길은27일오후피하세요
2015-09-22	건설경제	정치사회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최대정체'
2015-09-22	충청일보	핫이슈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PBC 뉴스	경제산업	라디오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브릿지경제	부동산뉴스	신문	[고향가는길]정부,도로·철도·항공·해상안전에도만전기한다
2015-09-22	뉴스캔	투데이뉴스	TV	추석연휴,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피해야
2015-09-22	YTN	경제	TV	"귀성길정체26일오전가장극심"
2015-09-2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시사타임즈	사회일반	신문	추석귀성은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KBS뉴스	경제	TV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 '가장혼잡'
2015-09-22	SBS뉴스	사회	TV	올추석,작년보다2시간이상더막힐듯
2015-09-22	동양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귀성길추석전날,귀경길당일가장혼잡할듯(종합)
2015-09-22	YTN사이언스	-	TV	"추석귀성26일오전에가장혼잡"
2015-09-22	서울시정일보	-	신문	[추석연휴교통]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대기원시보	-	신문	추석교통정보,귀성길26일·귀경길27일가장혼잡할듯…혼잡피하려면?
2015-09-22	한국타임즈	-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대체공휴일29일버스전용차로제운영
2015-09-22	뉴스포털1	-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9-22	뉴스핌	-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가장혼잡
2015-09-22	이슈와뉴스	사회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9-22	스포츠투데이	라이프	신문	추석교통예상귀성길3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KTV국민방송	정책뉴스	TV	귀성길은추석전날·귀경길은당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매일경제	사회	신문	서울~부산귀성7시간30분소요
2015-09-22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귀성길서울~부산승용차로7시간반걸려요
2015-09-22	미디어펜	건설부동산	신문	추석연휴,27일명절당일최대혼잡‥짧아진연휴탓'귀성길지옥'예상
2015-09-22	MBC뉴스	-	TV	[이브닝이슈]추석연휴나흘앞으로,언제얼마나막힐까?
2015-09-22	오토타임즈	-	신문	귀성은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피해야
2015-09-22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고향가는길]서울→부산7시간30분…일부구간우회로'교통지옥'탈출
2015-09-22	미디어펜	건설부동산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예측]27일오후부산~서울7시간30분'최대혼잡' 전망…3,200만명민족대이동
2015-09-22	폴리뉴스	-	신문	올해추석고속도로혼잡시간은?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
2015-09-22	전민일보	사회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혼잡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5-09-22	OBS뉴스	사회일반	TV	추석연휴,귀성26일·귀경27일가장혼잡
2015-09-22	S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SBS연예스포츠	문화사회	신문	추석교통예상,귀성길소요시간지난해보다평균2시간늘어난다
2015-09-22	한겨레	경제일반	신문	“추석고향가는길작년보다2시간더걸린다”
2015-09-22	서울경제	정치사회	신문	추석연휴3200만명이동…귀성길작년보다2시간더걸린다
2015-09-22	MBC뉴스	-	TV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혼잡'
2015-09-22	한국정경신문	경제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경인투데이뉴스	종합행정	신문	국토교통부,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한국디지털뉴스	경제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몰릴듯
2015-09-22	투데이경제	사회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교통신문	교통경제	신문	추석연휴3199만명대이동
2015-09-22	일간경기	사회일반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2	대전투데이	사회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2	현대경제	사회생활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릴듯…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
2015-09-22	한국일보	경제	신문	짧아진추석…귀성길2~4시간더막힌다
2015-09-23	시선뉴스	사회	신문	추석,귀성길교통예상평균시간지난해보다2시간늘어
2015-09-23	중앙일보	사회	신문	[추석알고가면편해요]26일오전,27일오후고속도로가장막혀요
2015-09-23	JTBC뉴스	경제	TV	추석연휴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혼잡
2015-09-23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추석교통예상,26일-27일차량이동최다,경부선가장붐빌것
2015-09-23	광주일보	-	신문	추석연휴3199만명대이동…작년보다더혼잡
2015-09-23	SBS연예스포츠	문화사회	신문	추석교통예상,서울부터부산까지7시간30분…지난해보다더걸려
2015-09-23	한국경제	-	신문	추석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가장막힌다
2015-09-23	대전일보	사회종합	신문	올추석연휴고속도로귀성-귀경길예상혼잡시간보니
2015-09-23	국토일보	물류교통	신문	올추석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가장몰린다
2015-09-23	중부일보	사회종합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소요
2015-09-23	경남도민일보	교통	신문	추석연휴,안전하고편하게고향다녀오려면
2015-09-23	서울신문	사회	신문	귀성26일오전·귀경27일오후 ‘혼잡’
2015-09-23	검경일보	사회	신문	추석귀성26일오전차량몰린다
2015-09-23	전국매일신문	종합	신문	귀성길26일오전귀경길27일오후서울~부산7시간이상걸릴듯
2015-09-23	케이에스피뉴스	사회	신문	국토교통부,추석귀성26일오전·귀경은27일오후가장몰릴듯
2015-09-23	시대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3천199만명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
2015-09-23	충청신문	사회	신문	추석연휴인구대이동 ‘서울-대전4시간’
2015-09-23	타임즈코리아	사회문화	신문	추석귀성9.26오전,귀경9.27오후가장몰릴듯
2015-09-23	중앙일보	사회	신문	서울버스·지하철27~28일오전2시까지연장운행
2015-09-23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한가위3199만이동…귀성길2014년보다2시간더걸릴듯
2015-09-23	조선닷컴	교통관광항공	신문	올추석귀성길,작년보다2~4시간더걸릴듯
2015-09-23	MBC뉴스	-	TV	[이슈투데이]추석명절,귀성길예상시간은?